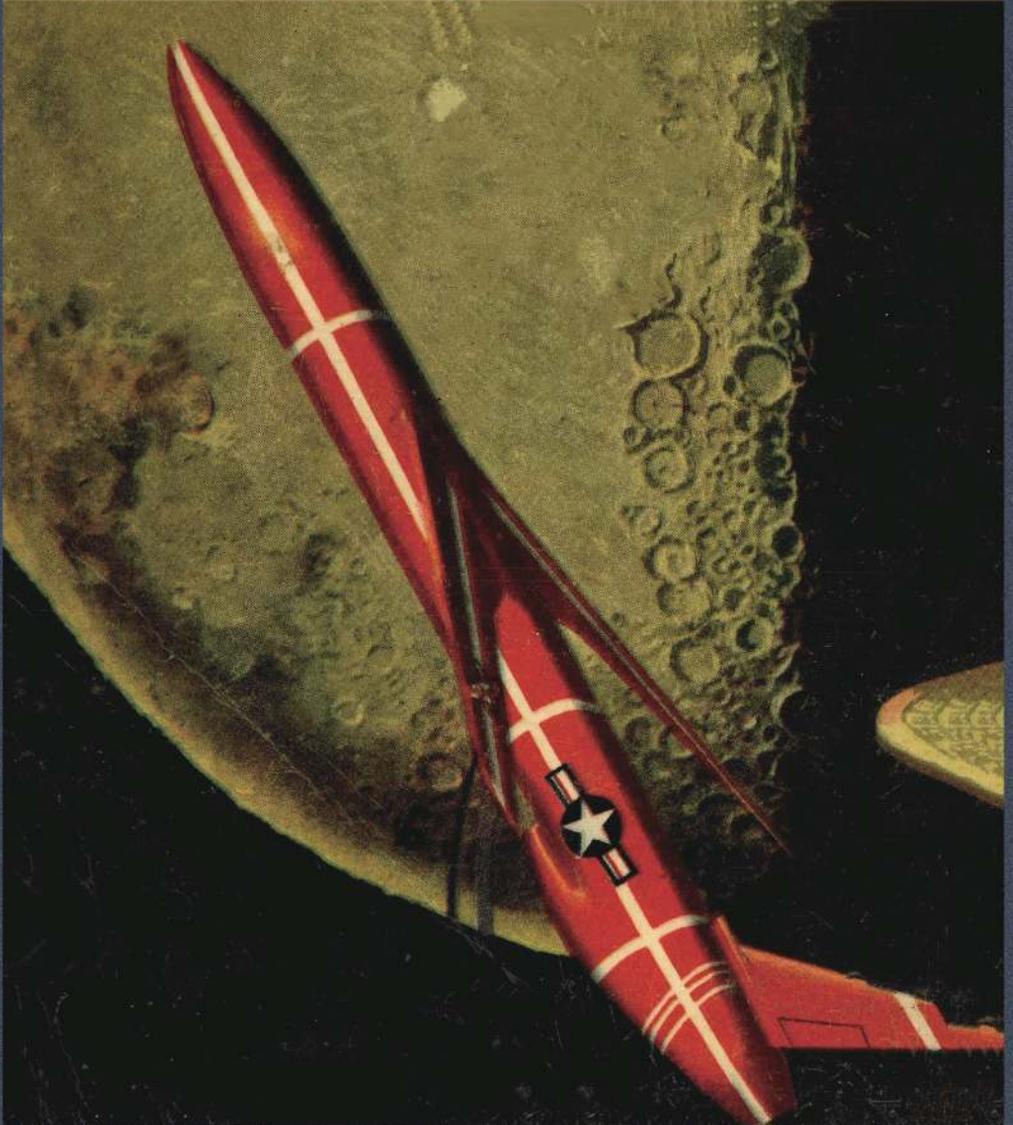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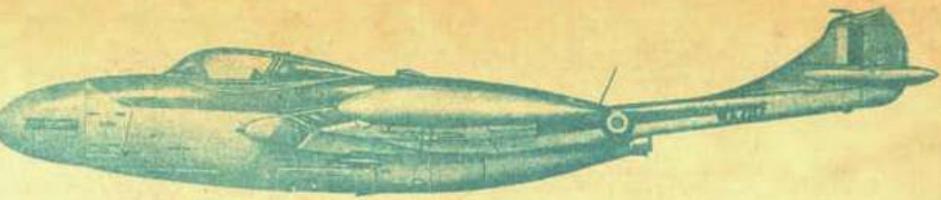


THE COMET

# 코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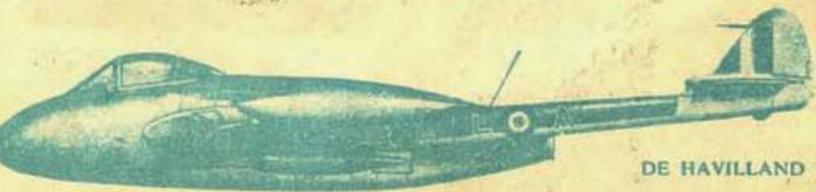




DE HAVILLAND  
VENOM N.F.3



0 5 10  
FEET



DE HAVILLAND VENOM F.B.1



##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동(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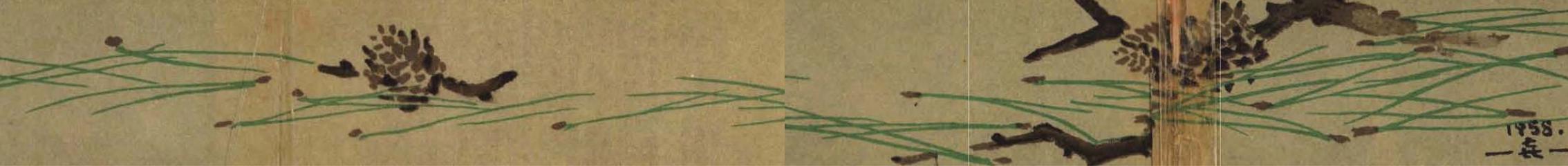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 茨城 → 이바라키(茨城)
- 横須賀 → 요코스카(横須賀)
-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 立川 → 다치카와(立川)
- 土浦 → 쓰치우라(土浦)
-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 目黒 → 메구로(目黒)
- 昭和 → 소와(昭和)
-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 등등

◆ 지명

- 華府 → 워싱턴
- 壽府 → 제네바
-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 其(後, -) → 그 (후, 1)
- 然이나 → 그러나
- 此(에) → 이(에)
-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 3000명 → 3,000명
-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 나포레옹 → 나폴레옹
- 나폴레온 → 나폴레옹
- 에밀·솔라 → 에밀·졸라
- 트루만 → 트루먼
- 스타·린 → 스탈린
- 처어질 → 처칠
- 피에테 → 피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쿠바 → 모스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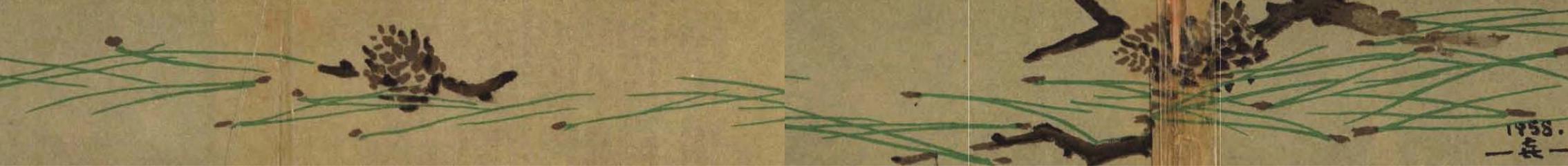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아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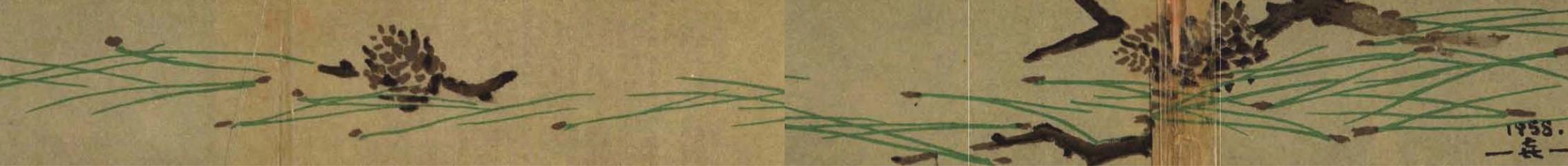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짚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였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별서 → 별씨  
 올 꺼야 → 올 거야  
 씨운 → 씩운

오랭개 → 오랑개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거이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손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카바레 → 카바레  
 샴펜 → 샴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댄스파아티아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줄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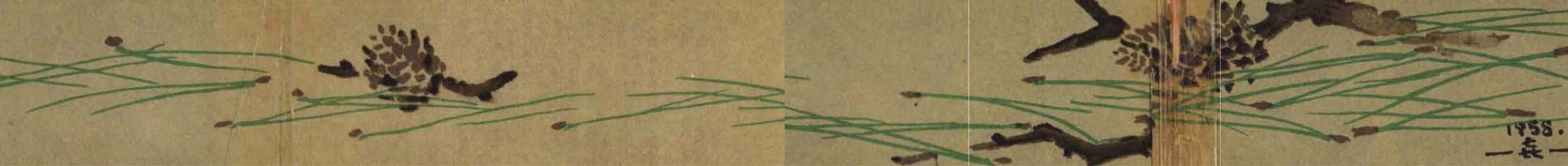


- 테이블 → 테이블
- 쏘피아 → 소파
-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 쿠우-데타아 → 쿠데타
- 씨어클 → 씨클
- 에피쏘트 → 에피소드
- 뉴앙쓰 → 뉘앙스
-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내용”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 『가 책, 논문일 경우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 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 코메트 제32호 목차(目次)

|                                                                 |              |
|-----------------------------------------------------------------|--------------|
| 〈목차(目次) 컷 비(扉) 컷〉                                               | 이희세(李喜世)     |
| ★성 바오로 은수자와 성 안토니우스 〈취미의 미술감상〉 (28) 벨라스케스 작(作)                  |              |
| 화보(畫報)                                                          |              |
| ◇ 눈송이 작전에서 이열수(李烈秀) 대위는 가다                                      |              |
| ◇ 마닐라 상공에 태극기 날리다                                               |              |
| ◇ 전(前) 미(美) 1군 사령관 트루도 장군 이임(離任) 인사차(人事次) 본부(本部) 예방(禮訪)         |              |
| ◇ 고(故) 이열수(李烈秀) 대위의 산화(散華)를 조위(吊慰)하며 금일봉(金一封)을 전달하는 백인엽(白仁燦) 중장 |              |
| 〈권두언(卷頭言)〉 생사존몰(生死存沒)                                           | 김기완(金基完) 2   |
| 세계정부제창(世界政府提唱)의 비판(批判)                                          | 서석순(徐碩淳) 4   |
| 전기(戰機)는 이스라엘에서 무르익다                                             | 외지(外誌)에서 19  |
| 미국(美國)은 아직도 유도탄(誘導彈) 경쟁(戰爭)에서 승리(勝利)할 수 있는가?                    | 박희영(朴喜永) 28  |
| 시(詩)                                                            |              |
| 금문도(金門島)                                                        | 조병화(趙炳華) 66  |
| 바위와 나비                                                          | 박희진(朴喜璉) 70  |
| 〈장병시(將兵詩)〉 창(窓)                                                 | 양창숙(梁昌淑) 144 |
| 1958년(年)의 UN에 대한 전망(展望)                                         | 고제경(高濟經) 38  |
| 1958년(年)의 동남아(東南亞)와 극동(極東)                                      | 류승범(柳承範) 42  |
| 1958년(年)의 우주과학(宇宙科學)                                            | 서동운(徐同運) 48  |
| 1958년(年)에 북한괴뢰(北韓傀儡)가 기도(企圖)하는 것                                | 박성환(朴聖煥) 54  |



|                                    |                |
|------------------------------------|----------------|
| 수필(隨筆)                             |                |
| 수감(隨感)                             | 최용덕(崔用德) 122   |
| 공군(空軍)을 퇴역(退役)하고                   | 서임수(徐壬壽) 125   |
| 졸업(卒業)을 앞둔 사관생(士官生)의 포부(抱負)        | 이재규(李載奎) 135   |
| 소련공군(蘇聯空軍)을 해부(解剖)한다               | 최발윤(崔發潤) 138   |
| 가위와 풀에서                            | 이곳저곳           |
| 서경별곡(西京別曲) 평설(評說) <교양(教養)>         | 양주동(梁柱東) 72    |
| 입후보제도론(立候補制度論) <교양(教養)>            | 신현경(申鉉經) 80    |
| 우리글을 사랑하자 <교양(教養)>                 | 김의섭 88         |
| 하나의 음악인(音樂人)의 의견(意見) <교양(教養)>      | 임원식(林元植) 100   |
| 외교(外交)와 연설(演說) <교양(教養)>            | 송광정(宋光楨) 102   |
| 아름다운 질서(秩序)의 천국(天國)                | 김규동(金奎東) 127   |
| 목욕(沐浴)과 이발(理髮)의 편지(便紙)             | 신태민 131        |
| 어록(語錄)                             | 조풍연(趙豐衍) 133   |
| 아이젠하워 대통령(大統領)과 그의 영식(令息) 존 소령(少領) | R. 슈레이버 158    |
| 베스트 골프 (1)                         | 토미 아머 146      |
| 저항(抵抗) <명작영화감상(名作映畫鑑賞)>            | 삼각야인(三角野人) 169 |
| 만화(漫畵)                             |                |
| 애견일기(愛犬日記)                         | 김경언(金庚彦) 63    |
| Pilot: 코주부                         | 김용환(金龍煥) 108   |
| 명랑사제(明朗四題)                         | 한성철(韓聖哲) 110   |
| 어느 각자생(刻字生)                        | 김만선 112        |
| 자축인묘(子丑寅卯)의 유래(由來)                 | 편집실(編輯室) 58    |
| 금언(金言)·명언(名言)·격언(格言)               | 이곳저곳           |

전후(前後) 군축협상(軍縮協商) 10년사(拾年史)와 앞으로의 귀추(歸趨)

|                      |              |
|----------------------|--------------|
| 진(陳) 소저(小姐) <소설(小說)> | 최의영(崔毅英) 10  |
| 노을이 쓰러질 때 <소설(小說)>   | 이무영(李無影) 177 |
| 붉은 밤 (2) <연재(連載)>    | 손소희(孫素熙) 190 |
| 데지레의 갯난애 <번역(翻譯)>    | 임옥인(林玉仁) 201 |
|                      | 이윤희(李允熙) 212 |

##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 성 바오로 은수자와 성 안당

(St. Anthony the Abbot and St. Paul the First Hermit)

벨라스케스 작(1599~1660)

17세기 스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 1599년 세비아에서 태어나다. 11세 때 에레라의 문하에 들어갔다가, 다시 프란시스코 파체코의 문하(門下)로 옮겨갔으며, 그의 비범한 재능이 눈에 들게 되어 양자가 되었다.

양부 파체코는 그를 궁정출납관(宮廷出納官)에게 소개한 것이 인연이 되어 궁정 화가가 되었다. 1622년 루벤스가 외교관으로 마드리드에 오게 되자 둘은 친교를 맺게 되었으며, 루벤스의 권유로 3차에 걸친 이탈리아 여행을 하게 되었다.

여행 중에 '볼카누스의 대장간' 등의 극히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으며 이후 '박카스', '브레다의 항복', '시녀들', '왕비', '왕녀 마르가리타', '실 찾는 여인' 등의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는 역사화, 종교화 할 것 없이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광선에 의한 아름다운 변화에 착안해 그것을 정확한 유화의 전통적 기법으로 표현했으며,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이끄는 선구자이기도 했다.

화제가 되어 있는 이야기로서 성 바오로 은수자(隱修者)는 깊은 산 동굴 속에 홀로 숨어서 속죄의 수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알려졌는지 그의 성덕은 온 세상에서 알게 되었다. 때를 같이 해 독수자(獨修者)로 있던 성 안토니우스가 그의 덕을 사모해 그곳을 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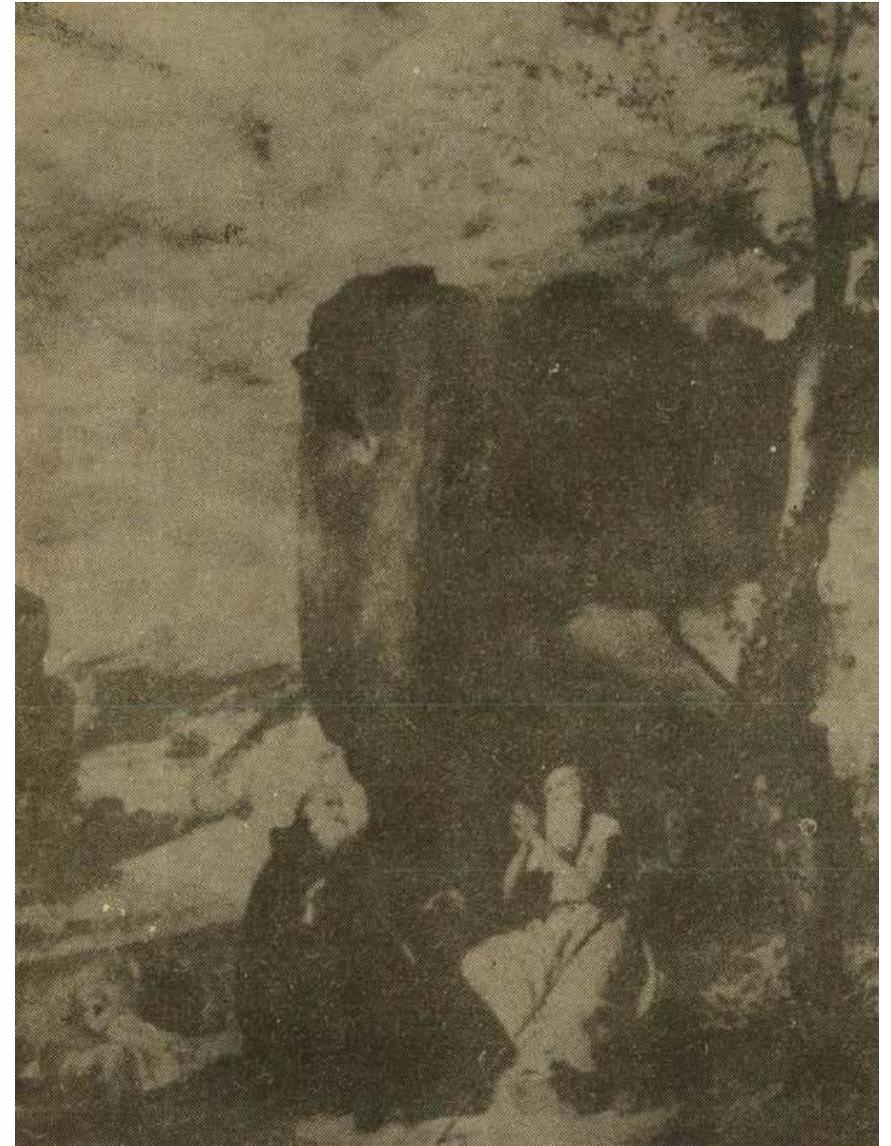
이 그림에서 하늘에서 까마귀가 한 개의 면포를 물고 날아 내려오는 것을 우러러보며 감사와 외경(畏敬)에 가득 차서 합장하고 있는 백수의 노인이 바오로 은수자이고, 그 영적에 놀라 팔을 벌리고 있는 갈의의 노인이 성 안토니우스이다.

바오로 은수자는 "매일 반쪽의 면포를 보내 주시더니, 오늘은 손님이 오신 줄 알고 온 개를 보내 주신 것이요." 하며 하해(河海) 깊으신 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었다. 안당이 돌아가려 할 때, 다음에 올 때는 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몇 달이 지나 안당이 다시 그를 찾게 되었는데, 예언대로 그의 영혼은 이미 세속을 떠났고, 그 시체 옆에 한 사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림 아래편 멀리, 땅을 파고 있는 사자와, 잠자듯이 누워 있는 성 바오로 은수자의 유해와, 그 곁에 앉아 성자의 명복을 빌고 있는 성 안토니우스의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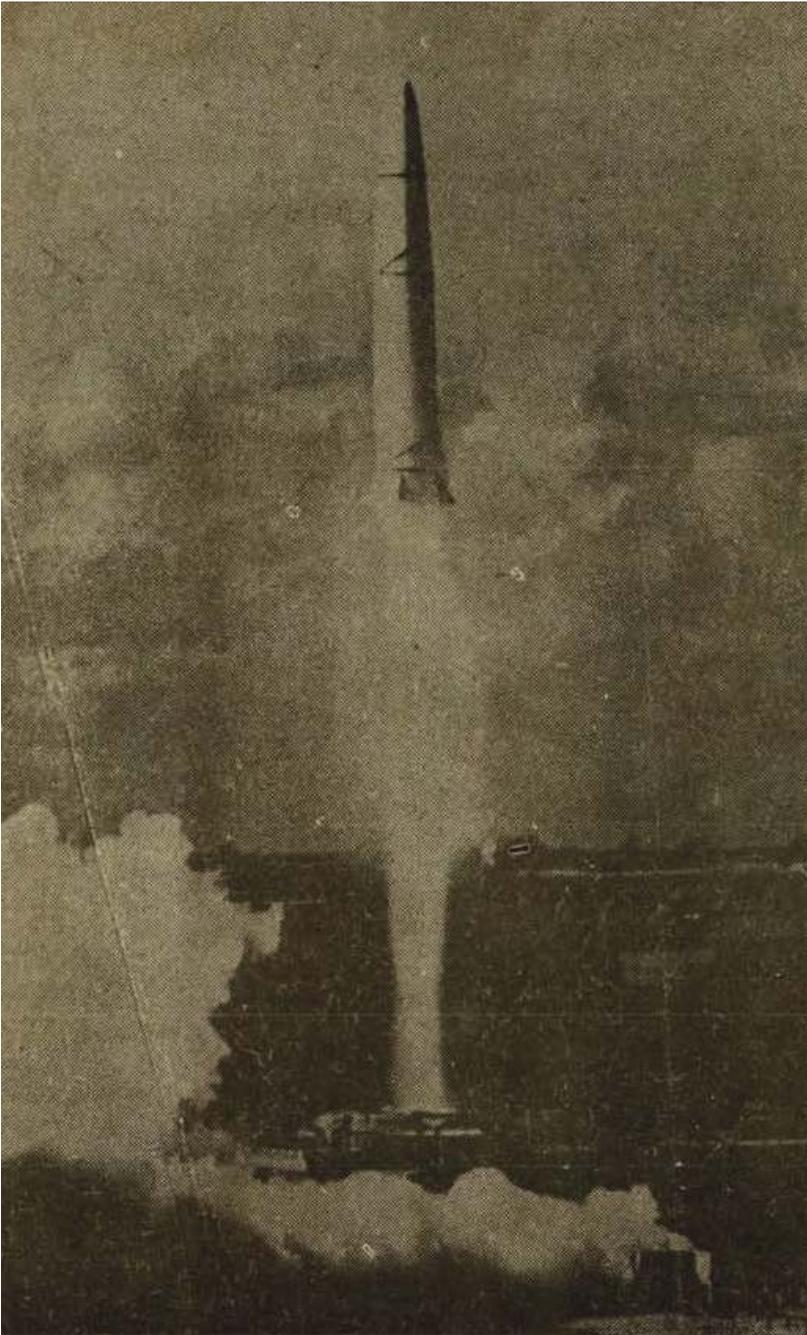
〈1634년 작(作)〉

##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성 바오로 은수자와 성 안당

벨라스케스 작(作)



「쏘아」 중거리(中距離) 탄도 유도탄의 발사된 광경

信  
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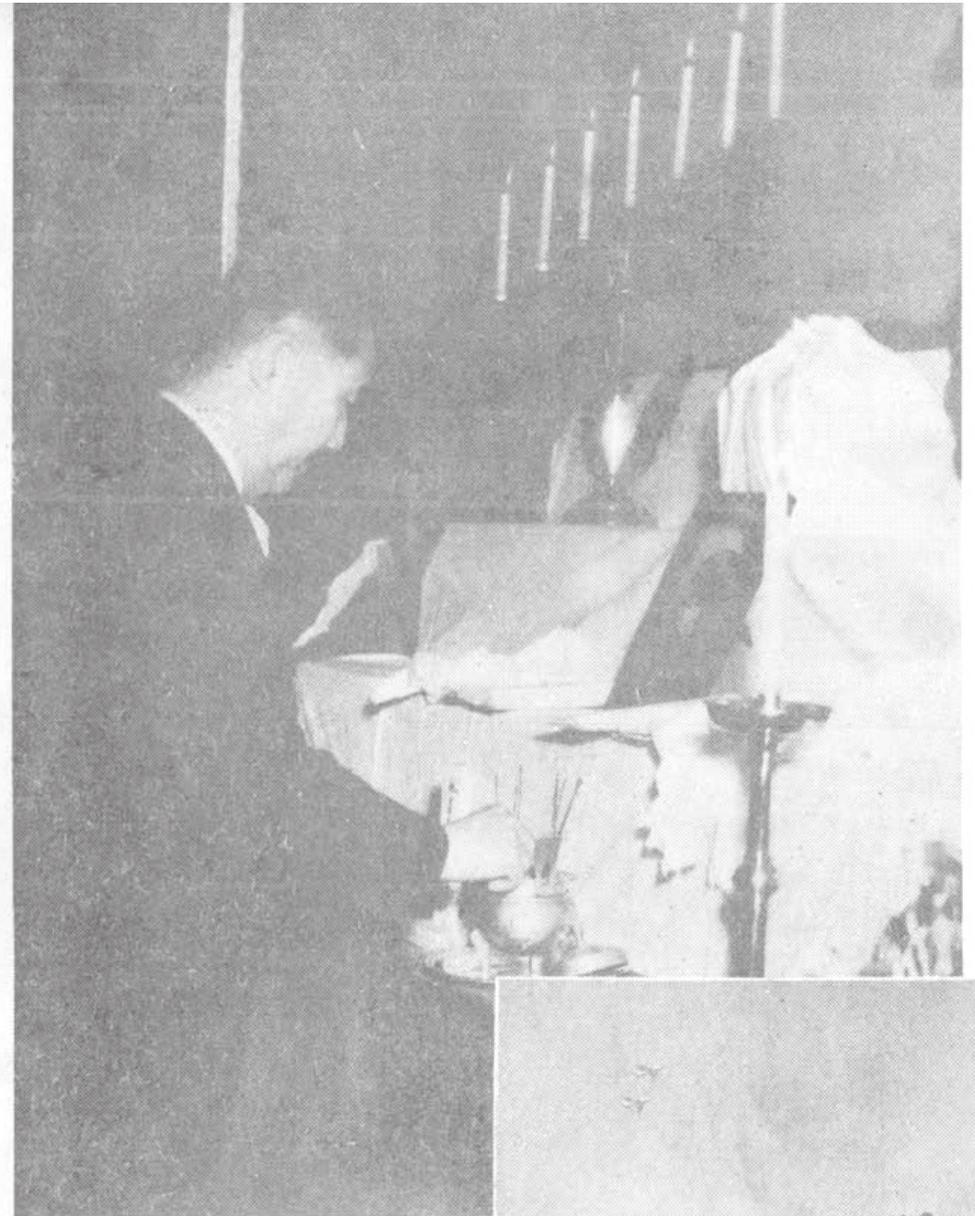
國防部長官

金  
貞  
烈

신의(信義)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김정렬(金貞烈)

李烈秀 大尉는 가다  
— 눈송이 작전(作戰)서 —

이열수(李烈秀) 대위는 가다 - 눈송이 작전(作戰)서-



(상) 고(故) 이(李) 대위 영전(靈前)에 분향(焚香)을 올리는 장(張) 참모총장  
(하) 고(故) 이(李) 대위가 산화(散華)한 「눈송이 작전(作戰)」 광경(光景)





마닐라에 휘날리는 우리 태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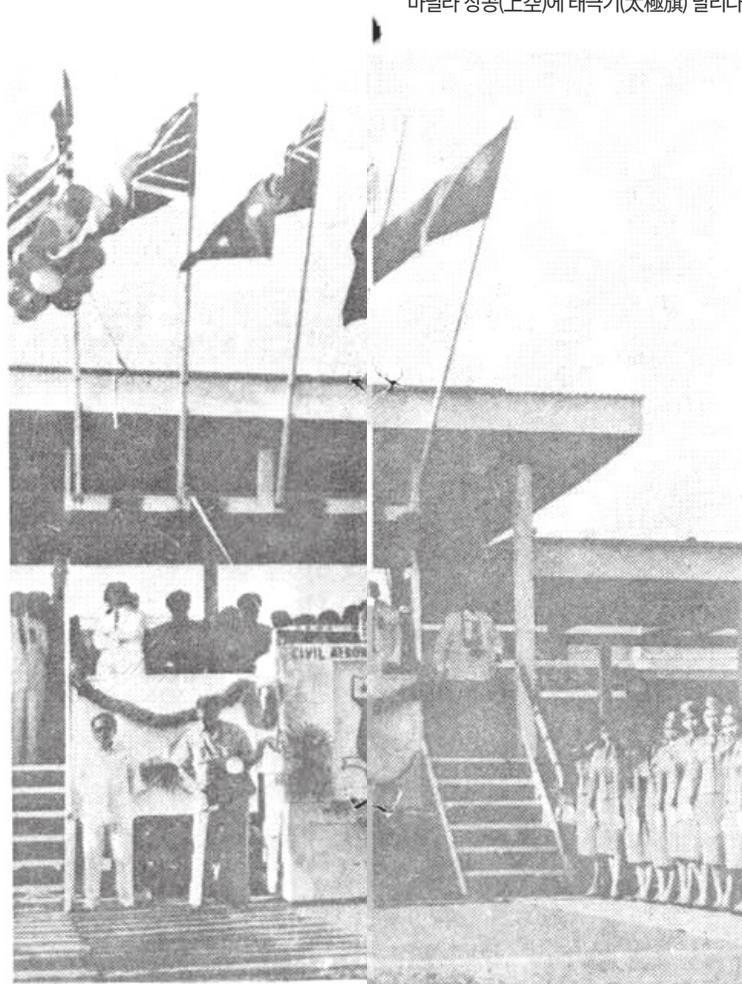
우리 공군기 F-86을 ..... 필리핀 시민들(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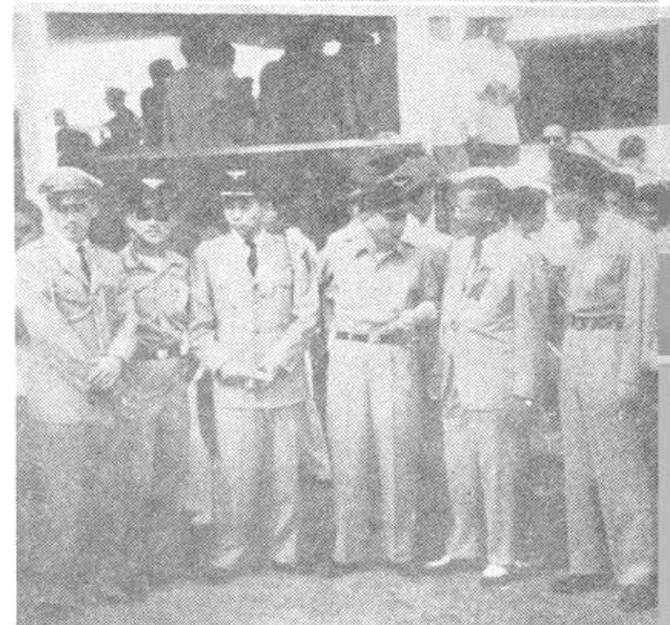
마닐라 상공을 나는 우리 Z기 편대

태극기(太極旗) 날리다  
—비행비(飛行)參加—

마닐라 상공(上空)에 태극기(太極旗) 날리다



에어쇼 본부(좌중)



대회장에 입장하는 가르사와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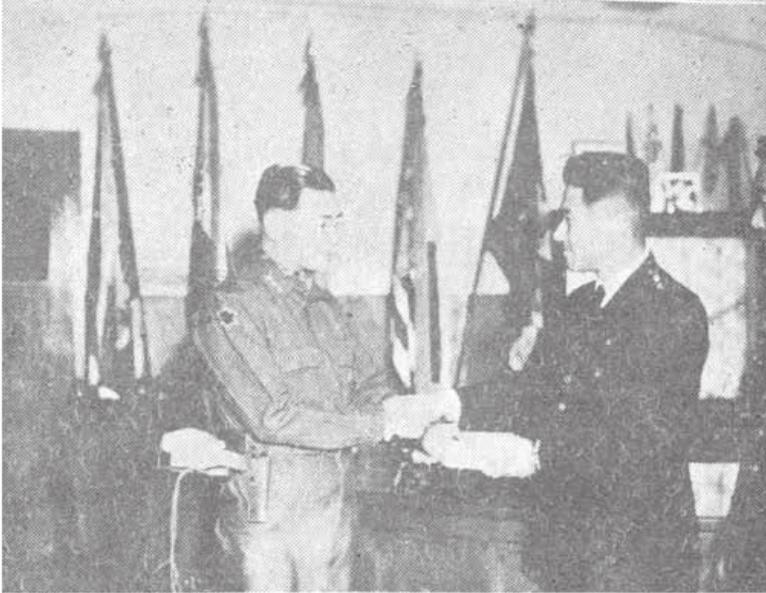


필리핀 에어쇼에 참가한 한국 대표(韓國代表)들(우하)

이임(離任) 인사차(人事次) 공  
군본부로 장(張) 참모총장을  
예방(禮訪)하여 의장대를 사열  
하는 전(前) 미(美) 1군 사령관  
트루도 장군



고(故) 이열수(李烈秀) 대위의  
산화(散華)를 조위(吊慰)하며  
금일봉(金一封)을 전달하는  
백인엽(白仁燦) 중장



단대장(團隊長) 회의  
(會議) 광경(光景)



## 코메트



## 생사존몰(生死存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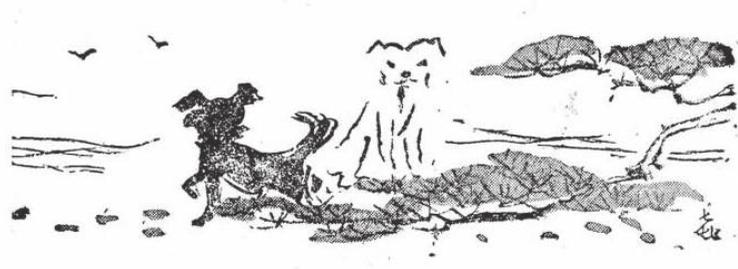
- 이열수(李烈秀) 대위(大尉)의 전사(戰死)가 의미(意味)하는 것 -

정훈감(政訓監) 김기완(金基完)

죽음이라는 때가 왔을 때 그 생명을 끝내고 지불하는 데에는 모라토리엄<sup>1)</sup>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죽음이라는 피할 길이 없는 숙명과 더불어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범부(凡夫)의 생애라 할지라도 그가 평균적인 수명을 갖는다면 그 과정에서 못 희노애락(喜怒哀樂)을 겪으며, 비록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인간계에의 애착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약점을 갖는다.

생여불사(生如不死)니, 난세(亂世)니 하여 생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요즈음에도 역시 생은 무한한 애착과 끊임없는 미련 속에 있는 것이다.



1) morat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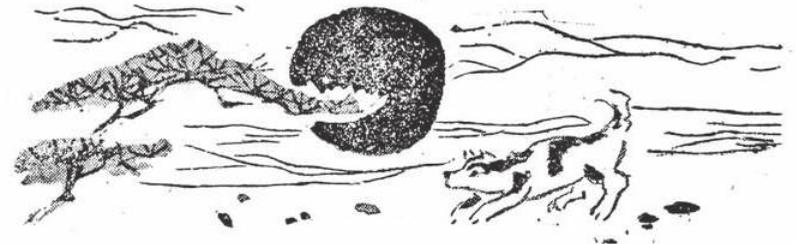
여기 약관 27세 아직 동안에 흥조가 가지지 않은 젊은 조종사가 삼시간에 유명을 달리하여 버렸다. 실전에서의 전사는 아니라고 하나 그는 애국하는데 순(殉)하여 한 방울의 초로(草露)처럼 눈감고 만 것이다.

처참한 순간 - 한 개의 생명이 폭음과 함께 한 개의 의지와 더불어 산화한 그때 그 시각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60을 평균수명으로 볼 때, 그는 채 인생의 정오까지도 다다르지 못했다. 허다하게 있을 기쁨과 슬픔을 속속들이 맛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갔으며, 홀어머니에게 단장(斷腸)의 통곡을 주었다.

이 고귀한 희생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존속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후전이 되고 어언 6년이 지나갔다. 그간 국민은 물론, 군인들까지도, 긴박한 정세라든가 국토통일의 과업을, 의무감이 없는 숙제처럼 망각하고 해이(解弛)되어 왔으며, 해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고 이열수(李烈秀) 대위와 같이 생사존몰(生死存沒)과 대결해 연일 훈련을 하고 있는 군인들은 많다.

내일의 국방과 조국통일 성업완수(聖業完遂)를 위해 생명의 소중함을 돌보지 않는 애국자들이다. 우리는 그 숭고한 국민의 대표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세계정부제창(世界政府提唱)의 비판(批判)

- 세계정부(世界政府)는 과연(果然) 이루어 질 것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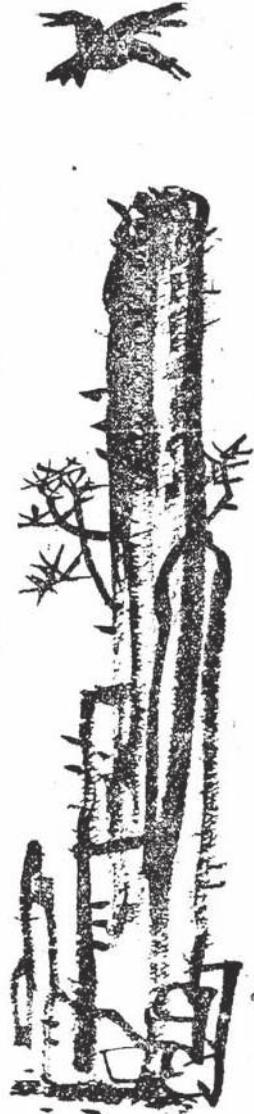
서석순(徐碩淳)

세계정부 사상은 평화사상의 일부이다. 따라서 세계정부 운동이 대(大)전쟁을 전후해서, 그리고 특히 전쟁의 공포가 증대될 때 더욱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의 세계정부 제창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경험과 또한 원자전쟁의 위협을 배경으로 해 더욱 구체적인 실감을 갖고 평화를 희구(希求)하는 인류에게 호소하고 있다. 평화를 직업적으로 공명불하는 인사들을 제외하고 평화를 진심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은 세계정부 사상을 검토하고 비판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 간단히 최근의 세계정부 사상을 비판해 보기로 한다.

X X

세계적인 규모의 조직을 수립해 각국 간에 평화와 질서를 확립 유지시키려는 생각은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일찍이 14세기에 단테가 그러한 것을 제안하였고, 좀 더 유명한 것으로는 17세기 초엽에 프랑스의 앙리 4세와 그의 대신(大臣) 쉴리<sup>2)</sup>가 ‘그랜드 디자인’<sup>3)</sup>이라는 항구적 평화안을 작성했다.

17세기 말엽에는 윌리엄 펜이, 그리고 18세기 초에는 아베 상 피에르<sup>4)</sup>가 국제기구를 통한 『항구 평화론』<sup>5)</sup>을 출판했고, 또 18세기 말에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역시 『영구 평화론』<sup>6)</sup>을 공개했다.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사상은 각국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



이 되었고, 1919년에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영도 하에 파리평화회의에서 토의된 결과 국제연맹이 탄생되었다. 약 20년 동안 국제문제의 해결에 진력하던 동 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소멸되고, 그 후 각종의 안이 검토되었다. 1945년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결국 오늘날의 국제연합이 다시 탄생되었다.

한편 1920년대와 30년대의 평화주의운동은, 국제연맹이 침략을 방지하지 못한 것을 보고, 종래의 국제조직보다는 한층 더 강력한 세계정부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세계정부 운동은 그 후 제2차 대전 말기의 원자탄 사용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국제연합이 냉전을 종언시키지 못한 것을 보고 이제는 확실한 실현방법까지를 모색하게 되었다. 원자력무기가 출현한 오늘날에는 전쟁의 발발은 곧 ‘세계의 파멸, 인류의 절멸’을 의미하는데 종래의 국제연합 같은 집단안전보장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전쟁을 방지할 수 없으니, 그런 무서운 전쟁을 없애려면 곧 세계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다.

국제연맹이 탄생되기 이전까지의 국제안전보장방식은 세력균형이었다. 이 세력균형은 국가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그 대립하는 국가 간의 힘을 균형 시킴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수이며 항상 변동하고, 또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불안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각국은 상대방 국가보다 우세한 국력을 확보할 때에 비로소 안전감을 갖게 된다. 그 이상 각국 간의 세력균형을 조정하는 공평한 국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세력을 균형시킨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각국은 국력 증강에 전심하게 되고, 세력균형을 궁극의 목표로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대립을 격화시키고 균형을 파괴시키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을 유발시킨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이었다.

이런 불완전한 안전보장방식의 결함을 지양하고자 안출된 것이 곧 집단안전보장제도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이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다. 이 집단안전보장제도라는 것은 모든 국가 심지어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까지도 하나의 집단안전보장기구에 포함시켜 전 회원국이 상호불가침을 약속하고 그중 1개국에 대한 침략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서 간주해 집단의 힘으로서 침략국을 제재하고 피침략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집단안전보장

2) duc de Sully 3) The Grand Design 4) abbé de Saint-Pierre  
5) Projet pour rendre la paix perpétuelle en Europe 6) Essay on perpetual peace (1795)

제도는 세력균형에 의한 안전보장방식에 비하면, 제도 그 자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각국이 '집단으로서의 행동'만 한다면 세계평화의 유지라는 입장에서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제연합 같은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집단으로서' 행동하느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은 이 집단보장방식도 결국은 힘의 정치를 완전히 지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즉 집단적인 행동이 취해져야 할 때도 국제사회의 힘의 정치라는 면으로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강대국의 이해연계(利害關係)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연합의 예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조치는 반드시 집단 그 자체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강대국 간의 힘의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예컨대 1948년 12월에 네덜란드군이 전년(前年)의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인도네시아군을 공격했을 때나, 또는 인도가 1948년 9월에 하이데라바드(Hyderabad) 왕후국을 공격했을 때나, 또는 더욱 최근에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의 군대가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에,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발동이 당연히 문제되었어야 했지만, 국제연합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같은 조직은 그 조직 자체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그 회원국의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또는 그 강대국이 옹호하는 약소국가를 상대로 하는 강제조치는 사실상으로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되며, 또 세계전쟁의 성격을 띄우게 된다. 그리고 원자력 무기를 가진 국가에 대한 강제조치는 더욱이나 인류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단안전보장제도의 평화 유지기능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이 보장제도의 기능의 숙명적인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세계정부론자들이다.

물론 국제연합 같은 집단안전보장제도의 숙명적인 결함을 비판하고 그것이 힘의 정치의 경향을 받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세계정부론자에 한한 것은 아니다. 소위 지역적 집단방위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후자는 그 기본관념에 있어서 전자와 판이하다. 즉 지역적 방위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단안전보장제도가 불완전하니 결국은 국가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이전의 세력균형에 의한 안전보장제도로 복귀하자는 것이고, 반대로 세계정부론자들은 집단의 입장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강력한 세계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즉 후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정부 밑에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XX

하나의 세계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계정부론자들 가운데는 여러 파가 있다. 하나는 어느 일국에 의한 무력적 정복에 의한 세계국가의 건설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다지 많은 지지자를 갖지 못하며, 또 소련 지도자들이나 기타 군국주의자들이 내심으로는 좋아할지 모르나 적어도 이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자들의 맹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자유의사로서 결합된 단일적인 세계정부의 건설이다. 클레런스 스트레이트<sup>7)</sup>는 그의 저서 「유니온 나우(Union Now)」- 이것은 1939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그 후 1949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가운데서 서방측 민주주의 국가들만이 우선 단일국가를 형성해 핵심적 통일체가 되어 궁극에 가서는 전 세계적인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북대서양 제국이 통일해 ① 정치와 시민권, ② 방위, ③ 관세, ④ 화폐, ⑤ 체신의 5분야에서 단일정부를 가지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대해지며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외국이 감히 침공하지 못할뿐더러, 독재국가 내부의 인민들도 이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는 그들 자신에 의한 민주적 혁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무력을 이용하지 않고도 평화적으로 세계정부가 실현되리라고 한다. 이것의 특징은 민주, 공산의 양(兩) 진영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결국에 가서는 민주진영이 공산제국을 타도해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트레이트의 플랜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력균형에 의한 보장제도가 내포한 전쟁의 위험성을 역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다음에 이런 대립을 고차적으로 지양하면서 세계정부를 지향하는 소위 페더럴리스트(연방주의론자)가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코드 마이어와 또한 시카고 대학교 총장인 허친스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헌법기초위원회(committee to Frame a World Constitution)가 있다. 전자와 후자 간에는 세계정부와 그 구성 국가 사이에 권한 관계에 대해 약간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가 모두 연방주의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연방제도의 정의에 관해서는 학자 간에서도 이론이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

7) Clarence Streit

은 것이라고 보아서 무방할 것이다. 즉

- ① 정부의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구성단위) 간에 분할되어 있고 전체에 관한 문제는 전자가 그리고 지방적인 문제는 후자가 처리한다.
  - ② 양 정부의 권한분배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
  - ③ 양 정부는 각자의 권한 내에서 국민들과 직접 접촉한다.
- 마이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소한도로 적게 하자는 편이고 시카고 위원회는 최대한도로 하자고 주장한다.

X X

그러면 이상과 같은 세계정부 제안에 대해 어떤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가?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찬성론자는 말하기를,

- ① 인류는 핵무기전쟁을 피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 ② 각 주권국가가 존속하고,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어느 때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한, 전쟁은 방지될 수 없다.
- ③ 평화적인 민주제국은 단결하지 않은 한,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을 방어할 수 없다.
- ④ 국제연합은 강대국 간의 전쟁을 방지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다.
- ⑤ 하나의 세계만이 냉전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 반대론자는 말하기를

- ① 세계정부 사상은 국민적 독립성과 주권과 시민적 자유를 위협한다.
- ② 세계의 제문제는 하나의 조직을 수립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 ③ 각국의 힘을 재분배하려고 하면 평화를 위협하는 분열적 힘이 발생할 것이다.
- ④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허무적인 희망을 주지 않은 건설한 정책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 ⑤ 각별한 주의와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계정부는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초래한다.
- ⑥ 현 국제연합은 아직도 그 기능을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각국이 그 의사만 있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⑦ 어느 강대국이고 간에 한 강대국을 제외한 세계정부는 원자력전쟁의 위협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다.

⑧ 인류는 허무적인 희망과 만병통치적인 사상을 갖게 되어 평화의 유지에 관한 더욱 현실적인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될 위험성이 생긴다.

⑨ 국제관계의 개선이 요청된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그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세계정부여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한다.

X X

세계정부의 제안자들은 평화를 희구하는 이 의도와 또 집단안전보장제도 및 세력균형에 의한 안전보장방식의 한계 및 흠결을 지적해 주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의 실현방법이 너무나 불안스러운 현 단계에서는 현재에 소유하고 있는 국민국가제도나 집단안전보장제도 또는 지역적 방어체제를 그러한 불안한 세계정부와 교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좀 더 명시되지 않은 한, 다수 인류를 영도할 책임 있는 지도자는 그 길을 택하자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결과를, 또는 위협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 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세계정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제도이다. 제도는 그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즉 제도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구로서의 가치와 효과 이상을 가질 수는 없다. 인체에 비하면 제도는 손발과 같은 것이다. 본체가 분리되어 통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손발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세계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세계회사가 없을 경우에 세계정부가 무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세계사회는 아직도 미소의 대립으로 인해 통합되지 않고 있다. 세계사회(world community)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 세계정부라는 것은 현실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로 지향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한 이상사회는 우리 인류 전체의 부단한 그리고 쉽지 않은 노력으로서 점차적 - 너무나도 지지한 - 전진으로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적인 방안은 없는 것이다. 이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류의 특히 지도자들의 그러한 용기만이 인류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1월 15일)

# 전후(戰後) 군축협상(軍縮協商) 십년사(拾年史)와 앞으로의 귀추(歸趨)

최의영(崔毅英)

## 1. 군축사상(軍縮思想)의 연혁(沿革)

군비를 축소 제한 철폐시킴으로써 세계의 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상과 시도는 결코 전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시초는 강대국이 약소국가에 대해 그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를 강요한 역사적 사실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이 군축사상이 세계열강의 군비에 관해 국제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20세기 초, 즉 제1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 제1차 대전 후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목표로 창설되었던 국제연맹기구를 통해 비로소 군축문제가 국제적인 논의대상으로 현실화되어 워싱턴(1921~1922년), 제네바(1927년), 런던(1930년) 등 군축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해군력 제한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조약을 이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국의 성의와 양심에 의할 뿐이지 조약 자체에 대한 유효성을 기하기 위한 아무런 제재권도 규정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군축을 했다고 하지만 관계국이 저마다 이 조약에 구애되지 않고 내면으로 전 쟁준비를 진행시켰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제2차 대전 후에는 베르사유 조약의 실패를 상기하며, 그를 기초삼아 역시 국제 연합에서 우선적으로 원자력 관리와, 제한된 병력보유를 논의하게 되었다. 1946년 12월 14일 원자력위원회와 병행해 UN통상군비위원회란 것이 창설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날 UN총회는 군축대헌장이란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 헌장은 원자력이나, 통상군비를 국제관리기관이 국제관리토록 하되, 방법은 검사제도도 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후 원자병기의 출현에 따르는 군축사상의 특징이다. 이런 배경 아래 출발한 군축협상은 원자력 관리 문제를 놓고 미소 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1949년 7월 원자력위원회의 활동은 정체되었다. 소련은 원자력의 국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군축은 필요성을 결여한다면서 통상군비위원회의 활동마저도 활동 정지 상태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동서 군비경쟁은 격화되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은 국지전을 야기했고, 또한 한국전쟁은 군비확장에 결정적인 박차를 가했다.

원자핵무기가 강대국 중 어느 한 나라의 독점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딜레마에 빠진 군축문제를 타개하고 산발적으로 교전중인 국지전을 정비해야겠다는 것이 강대국들의 공통된 이론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52년 1월 11일 제6차 UN 총회는 현재까지의 원자력위원회와 통상군비위원회를 통합해 군축위원회란 기구설치안을 가결했다. 소련이 종래에 주장하던 원자력과 통상군비를 분리 심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게 된 원인은, 이때 소련은 이미 원자력 수준이 미국과 상호경쟁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객관적 요건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군축위원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소련 등 5개국으로서 군축소위원회란 것을 설치했다.

## 2. 전후(戰後) 군축협상(軍縮協商)의 경위(經緯)

UN이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만 11년, 통상군비위원회를 설치한 지는 10년 만에 지났다. 그동안 군축협상은 수백 차례에 걸친 회합을 통해 군축성안(軍縮成案)을 모색했으나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 아직 최종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군축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미소 간에 논란이 된 여러 점을 상호대비하면서 진행 상황을 종합 검토해보기로 한다.

군축문제가 본격적으로 토의하게 된 것은 1946년 6월 14일 미국측 대표 바루크의 소위 「바루크안」<sup>8)</sup>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응해 소련도 동년 6월 19일에 원자력병기금지안과, 1947년 6월 11일 원자력 국제관리안을 각각 제출했다. 「바루크안」과 소련의 두 개 안(案)이 제출되었을 때 미국은 원자력관리기관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한 후에 원자력 병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데 반해, 소련은 즉시 금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의견이 대립되기까지의 요인은 간단하다.

| 미국                                              | 소련                                                                         |
|-------------------------------------------------|----------------------------------------------------------------------------|
| 원자력 문제에 한해서는 안보리 이사회의에서 강대국의 거부권을 포기해야 한다.      |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강대국의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                                            |
| 원자력 관리기관에 원료 및 원자로에 대한 독점적 소유와 경영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 원자력 관리기관은 원료 및 생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와 협정위반의 혐의가 있을 때는 특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 관리기관이 전면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 후에 금지해야 한다.              | 원자병기는 즉시 금지해야 한다.                                                          |

즉 이 시기에 소련은 원폭제조기술에 관한 미국의 독점적 우위를 제지하고, 장차 소련이 원폭을 생산한 후에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때 미소 양측이 서로 논의를 하는 중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대비

8) Baruch 案

해 보인 이 시기의 군축 사상을 개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 소련                                                                                               |
|-----------------------------------------|--------------------------------------------------------------------------------------------------|
| 원자병기를 포함한 각국의 군비를 공표할 것.                | 원자병기의 제조와 보유를 무조건으로 금지하고 원자력은 국제관리를 실시할 것.                                                       |
| 공표된 군비는 계단을 따라 검사 확인할 것.                | 미, 영, 프, 소, 중공의 현유군비(現有軍備)를 3분의 1로 축소할 것.                                                        |
| 공표와 확인이 끝난 다음에 각국이 보유한 균형된 군비수준을 결정할 것. | 원자병기의 사용 및 제조금지과 5대국 군비축소의 결의가 채택된 후 1개월 내에 원자병기와 통상군비의 공식자료를 제출할 것.                             |
| 원자병기의 금지와 원자력 관리에서는 바르쿠 안을 기초로 할 것      | 안보이사회 관할 하에 국제관리기관을 설정하고 (拒否權), 동 기관은 원자병기의 금지와 군비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한에서 상시(常時) 검사를 실시할 것 |

1951년 11월부터 52년 2월에 걸쳐 파리에서 개최된 UN 총회는 동·서 양 진영의 원자력관리와 일반군축을 일원화하는 제안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소련은 이때까지 정기검사를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포기하고 상시검사를 인정했다. 그러나 서방 3개국 이 군축에 있어서 단계적 방식을 존중하고 점진적인 군비축감을 실시하자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소련이 5개국 현(現) 보유병력의 3분의 1로 축소하자는 비례적 감축을 주장했던 것이다. 소련이 이 점을 고집하는 이면에는 방대한 야전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방측에 비해 그 무장병력과 통상병기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강점을 계속 유지하려는데 있었다. 반면에 소련이 원자병기를 포함한 각국 군비의 공포조건(公布條件)에 관해 즉시 금지를 주장한 것은 당시 소련이 서방측에 비해 원자병기의 열세를 회복하자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쌍방 간에는 아무런 합의점도 발견치 못하고, 이어 동년 5월 군축위원회에서 서방 3개국은 미국, 소련, 중공의 최고병력을 각각 150만 명, 영불은 80만 명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했다. 1952년 가을부터 53년 봄에 걸쳐 개최되었던 제7차 UN 총회 직전까지의 동서군축제안의 요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이 시기의 군축사상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1954년도에는 군축위원회가 결성되고 동 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쌍방의 군축안은 대폭 양보해 1954년은 군축이 거의 접근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한 시기였었다. 6월 11일 미국의 지지를 받은 영·프안과 소련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소련의 대폭적인 양보안이 나왔는데, 이때 쌍방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내용         | 쌍방 측 | 영·프안(6.11)                               | 소련안(6.11)                     | 소련안(9.30)                               |
|------------|------|------------------------------------------|-------------------------------|-----------------------------------------|
| 단계         |      | 3단계                                      | 무                             | 2단계                                     |
| 기간         |      | 규정 없음                                    | 즉시                            | 6개월-1년                                  |
| 군사비 지출     |      | 1953년도 지출액으로 제한                          | 1953-54년도 지출액의 3분의 1로 감축      | 1953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삭감량의 50%씩 2회로 구분감축    |
| 무장병력과 통상병기 |      | 1953년 말 수준으로 제한하고, 삭감량은 50%씩 2차로 나누어서 실시 | 1953년 말 수준의 3분의 1로 감축         | 1953년 말 수준으로 삭감하되, 삭감량을 50%씩 2회로 나누어 실시 |
| 원자병기       |      | ① 제조비 지출 정지<br>② 제조정지<br>③ 전적 폐기 및 평화이용  | 제조 및 사용 즉시 금지와 저장량의 폐기 및 평화이용 | 제조와 사용의 보장을 금지하고무장병력과 통상병기 평화이용         |
| 국제관리기관     |      | 항구적 기관을 설치 거부권의 폐기                       | 항구적 기관을 설치 거부권의 인정            | 임시기관의 설치 항구적 기관 설치 거부권 인정               |
| 군사기지       |      | 보류                                       | 폐기                            | 언급 없음                                   |

상기(上記)한 영국·프랑스 안은 1946년 6월에 제시한 바르쿠 안과는 차이점이 많다. 즉 바르쿠 안 중 원자력 병기의 독점적 연구와 우라늄 등 중요원료 및 시설의 독점적 소유와 경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원자력 병기의 점차적 금지를 인정한 것이다. 이유는 소련이 원자폭탄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이와 병행해 미국은 대소전략을 봉쇄정책으로부터 뉴룩크 정책으로 전환한데 연유하고 있다.

소련의 6월 11일 제안은 원자폭탄의 즉시 금지, 그리고 통상병기를 1953년 말 현재의 3분의 1로 비례축소시키고 거부권 있는 국제감시 또는 외국군사기지의 철폐 등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9월 30일에는 원자병기의 무조건 금지를 주장하던 종래의 태도를 돌변해 우선 무장병력과 통상병기를 감축하고, 점진적으로 원자병기를 금지시키자는데 동의해 동·서 군축회담의 핵심은 가까운 거리로 접근했다. 소련도 이때에는 원폭의 저장이 서방측만은 못하더라도 소련이 보유해야 할 원폭수량을 적치(積置)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는 데 있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의의는 전후 원폭이 미국의 독점인 듯한 제3세계 국가의 인식을 인정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과장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대폭적으로 양보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도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소련의 군축타협안이 제기될 당시 런던에서 9개국 회의(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개최 중이었으며, 유럽방위공동체에 대치한 서독의 재무장론이 토의되고 있었다. 서독이 재무장을 하는 동시 서유럽연합(WEU)과 북대서양동맹에 가입시키

는 문제가 성숙되어가고 있을 때였다. 그를 위해 파리협정 조인이 예상되던 시기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소련의 이번 군축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도 알 수 있다.

전후 소련의 대 서구정책이, 직접이나 간접으로 서독 재무장의 저지라는 점에 관여해 생각하면 이 문제가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9월 31일 안과 영국·프랑스 안 사이에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요건이 개재하기 때문에 군축문제는 일보 전진한 채 다시 정체되고 말았다.

1955년 5월 10일 런던의 군축소위원회에서 소련대표 말리크<sup>9)</sup>는 군축 원자병기 금지 및 냉전위협제거란 형식으로 새로운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는 1954년 9월안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한 정도였다.

즉 단계 기간을 6개월 내지 1개년으로부터 각각 1년으로 했으며, 5대국 병력 수준을 미국·소련·중공은 백만 명으로부터 150만 명, 영국·프랑스는 65만 명으로 명시했다. 원자병기를 제1단계에서는 실험만을 정지하고 제2단계에서 말하자면 통상 병기의 75%가 삭감된 후에 전면적폐기와 평화이용으로 전용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제1단계에서는 대규모적인 병력지점을 감시하기 위해 중요한 공항·항만·철도 접속지점에 감시소를 설정하며, 제2단계에 들어간 후 비로소 항구적 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소련은 1955년에 군축안을 통해 비교적 서방측 안과 접근시키는데 더욱 한층 양보를 했다. 소련은 왜 종래의 주장을 끝내 고집하지 않고 양보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첫째로 서독의 재군비가 현실화되었으며, 둘째로는 서구진영의 원자전쟁을 결의하고 NATO의 전략이 원자전략으로 개편되었음을 들 수 있다. 1952년 5월 27일 서독의 재군비와 서구군사기구에의 편입을 핵심으로 하는 EDC 조약이 파리에서 체결되자, 소련은 서독의 재무장을 한사코 반대했으며, 이를 저지시키려고 갖은 방략(方略)을 다했다.

소련이 서독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로는 서독은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 패전한 나라이며, 특히 2차 대전에서 소련과의 전쟁은 가장 처참했고 게르만 민족의 고유한 보복심은 뿌리깊이 박혀있다는 것이다. 만약 서독이 재무장해 NATO 같은 군사 블록에 가입함으로써 원자병기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그 총구는 소련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쟁위험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보다도 소련이 걱정하는 일은 만약 서독과 소련이 싸워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동독은 반드시 게르만 민족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불안은 더했다.

서독의 재무장과 서유럽공동방위체에 참가를 승인하는데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프랑스 하원마저 1954년 12월 30일 아슬아슬하게 비준되었고, 기타 여러 나라

9) Yakov Aleksandrovich Malik

는 1955년 5월 9일까지 비준이 완료됨으로써 서독이 정식으로 NATO에 가맹되었다. 이에 당황한 소련은 국제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독이 서구방위에 참여함으로써 방위체제는 한층 공고해졌기 때문에 동·서간의 합의 균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소련의 약점은 마침내 1955년 5월 10일 세계군축으로서만이 보전되리라고 믿었다. 그 외로는 소련 군수뇌자들에게 원자전의 가공성이 인식되었으며 그러한 원자병기를 목표지점까지 운반하는 수단이 미비했다는 것과, 수소폭탄이 재등장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배경 아래 제의된 소련의 군축안에 어떤 기도가 은폐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첫째, 각국 군비를 1955년 말로 제한한다면, 일례로 서독 같은 나라는 무장비 상태로 있어야 할 것이다. 즉 WEU나 NATO 등 서구방위기구를 괴멸시키려는 데 있었다.

둘째,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를 감소시키고 대소포위망을 붕괴시키려는데 주안점이 집중되어 있다.

셋째, 5대국 병력의 규정에 있어서 미국·소련·중공은 100만으로부터 150만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은 중공을 압암리에 세계 5대국 상임이사회의 일원으로 취급함으로써 UN에서 중공의 지위를 정상화시키고, 소련 연방권의 한 회원국을 늘리는 데 있다.

넷째, 5월 군축안이 서방측과 접근된 타협형식을 취한 것은 당시 4거두회담, 소련·오스트리아 조약체결, 소련 수뇌와 티토 대통령과의 회담 등 일련의 외교적 제스처라고 할 수 있으며, 4거두 회담에 앞선 평화공세인 동시 4거두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해보겠다는 야망술책이었다.

| 미국                                                              | 소련                                                                                     |
|-----------------------------------------------------------------|----------------------------------------------------------------------------------------|
| 원자병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찰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사찰보고제도를 용인해야 한다.              | 4대국이 먼저 원자병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 타국에도 이를 선언하도록 권고한다.                              |
|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방 간에 군사기구 청사진을 교환한 다음, 상대국에게 공중사 진찰영권을 허용해야 한다. | 군축과 동시에 원자병기의 사용을 금지하되,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안보이사회가 사용해도 좋다는 결의가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
| 확정된 사찰보고제도가 성립되는 대로 즉시 전 반적인 군축을 실시해야 한다.                       | 미국 소련 중공은 150만, 영국 프랑스는 65만 기타는 15~20만 명을 넘지 못하며, 통상병기의 75%가 삭감되면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전면 폐기한다. |
| 군축소위원회가 사찰보고제도를 연구하도록 한다.                                       | 원자폭탄, 수소폭탄 폭발시험을 중지하며, 국제감시기구를 설치한다.                                                   |

이상과 같이 말리크 제안을 계기로 동년 7월 21일부터 4 거두 회담에서 불가닌(Nikolay Aleksandrovich Bulganin) 수상은 대체적으로 말리크 제안을 되풀이했다. 다만 5대국 외의 병력을 15만 내지 20만 명으로 결정하자는 신규정을 첨가했음 뿐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불가닌 수상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말로 군축을 위한 성의가 있다면 청사진의 교환과 공중사찰권을 사용하지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4 거두 회담에서 서방측은 종래 전반적인 군축을 주장하던 것을 변경해 한정된 군축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4거두 회담에서 군축협상은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되기 시작했으며, 제3차 군축 소위원회회를 8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뉴욕에서 개최했으나, 이 회담은 4거두 회담에서 제의된 안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밖에 아무런 발전도 없었다.

4거두 회담의 지령에 따라 4대국 외상회의가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군축문제를 토의한 것은 11월 30일부터 3일간이었다.

4대국 외상회의에서도 군축을 해야겠다는 기본방침만은 이구동성으로 시인되었지만, 방법에 들어가서는 진전된 것이 없었다.

외상회의가 끝나자 11월 23일 소련은 초대형 원자병기의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했으며, 미국도 과학적으로 이를 시인했다.

소련이 초대형 원자병기의 실험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11월 30일에 개최된 제10차 UN 총회는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4개국의 제안으로 군축소위원회 개최 안을 가결했다. 1955년의 군축협상도 역시 많은 숙제를 남긴 채 1956년으로 넘어 갔을 뿐인데, 이 해에는 쌍방이 군축의 긴요성을 인식한 결정적인 해였다고 할 수 있다.

1956년 3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런던에서 제4차 군축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개최 첫날 영국·프랑스 공동안이 제안되었다. 동 제안은 4거두 회담에서의 각종 제안과 동 9월 프랑스 대표 몰로크 씨의 구상을 종합한 것으로서 비교적 세밀한 점까지 지적했었다.

이 영·불 안은 미국 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징은 장기계획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2단계로 분류되었을 뿐더러 특수한 제한 군축을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프랑스 안이 제안된 후 3월 27일에는 소련 안이 제기 되었으며 4월 3일에는 미국 안이 제의되었었다.

이 세 가지 제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 느슨하고 조이는

1956년도 군축협상도 결국 성과 없이 지냈고, 1957년에 들어서는 역시 3월 18일부터 군축소위원회가 개막되었으며, 제12차 UN 총회 군축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최근 소련은 인공위성의 성공리 발사와 유토탄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있어 협상에 부진한 무성의를 보이고 있다.

소련은 지난 4월 30일 안을 되풀이 고집할 뿐 한 걸음도 양보한 기색이 보이지 아니한 채 1957년도 넘겨 버렸다. 미국은 지난 8월 4일에 군축 3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서방 각국과 사전 협의 하에 대소 타협을 모색하고 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 소련                                                                                      |
|------------------------------------------------------------------|-----------------------------------------------------------------------------------------|
| 원자병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찰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사찰보고제도를 용인해야 한다.               | 4대국이 먼저 원자병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 타국에도 이를 선언하도록 권고한다.                               |
|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방 간에 군사기 구 청사진을 교환한 다음, 상대국에게 공중사 진찰영권을 허용해야 한다. | 군축과 동시에 원자병기의 사용을 금지하되,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안보이사회가 사용 해도 좋다는 결의가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
| 확정된 사찰보고제도가 성립되는 대로 즉시 전 반적인 군축을 실시해야 한다.                        | 미국 소련 중공은 150만, 영국 프랑스는 65만 기타는 15~20만 명을 넘지 못하며, 통상병기의 75%가 삭감되면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전면 폐 기한다. |
| 군축소위원회가 사찰보고제도를 연구하도록 한다.                                        | 원자폭탄, 수소폭탄 폭발시험을 중지하며, 국제감시기구를 설치한다.                                                    |

제1방안 = 미국 및 알래스카, 그리고 캐나다의 전 영역을 개방하는 대신 소련도 전 영역을 개방해 이를 감시 하에 둔다.

제2방안 = 만일 소련이 제1방안을 거절할 때, 서방측은 북극권만의 개방이라도 토의할 용의를 시사했으며, 개방지역은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의 일부가 포함되며, 한편 소련도 그 북단부와 시베리아 일부를 포함되도록 한다.

제3방안 = 만일 소련이 제1, 제2 안을 모두 거부할 때는 태평양 연안으로부터 우랄산맥에 이르는 유럽 전역을 개방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소련은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왔다.

### 3. 결론(結論)

동서 강대국들의 군비를 제한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해보겠다는 UN헌장 정신은 미·소 간의 편중적인 군사력 집중으로 인해 협상 개시 이래 10여년이 경과한 금일에 이르기까지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협상 경위로 보더라도 미·소 양국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국제정세가 협상 전체를 좌우해왔었다.

최근에 와서는 그보다도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 전가에 오히려 협상 자체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1958년 이후 앞으로의 군축협상은 초 과학경쟁의 상호배타를 전제로 한 시급적인 도장(道場)으로 변할 가능성이 짙다.

(필자(筆者) 정보국(情報局) 평가과장(評價課長))

## 전기(戰機)는 이스라엘에서 무르익다

-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준비를 두려워 하고 있다 -

외지(外誌)에서

또 하나의 아랍·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중동(中東)에서의 소련의 손놀림으로 인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산주의자들의 최후의 목표는 아랍 여러 국가를 무장 시킴으로써 미군이나 연합군을 중동지역으로부터 몰아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진척시키고 있다. 만약 아랍 여러 국가가 완전히 무장되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고, 따라서 전(全) 중동지역에 불을 지르게 되는 것이다. 위험은 바로 이점에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미국 측으로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위험지역인 중동에서의 소련의 두 가지 동태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소련은 아랍 석유의 서구(西歐)로의 유출을 막고 이 지역 내의 미국의 전략 기지(戰略基地)를 무력화하려는 신중한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련의 무기나 정치적인 영향을 퍼뜨리기 위해 아랍 여러 국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통적인 증오(憎惡)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주 유엔 사무총장 함마르셀드

(Dag Hammarskjold)씨의 조속한 중동방문 결정의 배후에는 이 아랍·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소요(騷擾)가 개재(介在)해 있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공포되기 전에도 이미 한 이스라엘 관리(官吏)는 소련의 전략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련은 현재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관리를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트리폴리에 있는 미(美) 공군기지의 전투반경 속에 들어있다.

그들은 시리아에 진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뒤로는 예멘까지 비행기 기타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오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란(Dhahran)에 있는 미 공군력을 저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



가서 그들은 홍해(紅海) 양단(兩端) 지역을 제압하기 위해 아덴<sup>10)</sup>에도 손을 뻗치려 하고 있다. 소련이 바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중동의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공산주의자들은 당장 아랍의 이스라엘 침공을 원조할 것이다.”

### ☆ 요르단에 대한 걱정거리

소련의 시리아 침입은 이집트에서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이스라엘 관변측(官邊側)에서는 말한다. 그들이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요르단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르단의 청년층 친소(親蘇)관리들이 정권만 쥐면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소련 무장을 한 아랍인으로 구성된 세 개의 적전선(敵前線)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군사정보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시리아 조종사들이 소련에서 소련제 제트기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의 수병(水兵)들은 폴란드에 가서 시리아의 라타키아 항<sup>11)</sup>에 구축되고 있는 해군기지(海軍基地) 작전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 소련이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에 이와 같이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대해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스라엘 국방부 안의 일 요직에 있는 장교가 지도를 보며 현재 이스라엘이 부딪히고 있는 제(諸) 위협성과 기타 해결해야 될 문제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중앙 넓이 겨우 12마일밖에 되지 않는 교두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위 전체가 아랍인에 의해 포위당한 이상 해로(海路)나 공로(空路)를 통해 밖에는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략가에게도 골칫덩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위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토 안에서 싸운다면 그것은 벌써 우리가 전쟁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해야 할 국경이 너무도 많은 반면, 후퇴할 곳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융통성 있는 공세적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탱크부대와 낙하산부대를 출동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출동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전쟁을 길지 않을 것이니 때문입니다. 3일 내지 5일이면 승패는 결정될 것입니다.”

### ☆ 아랍군(軍)의 평가(評價)

이스라엘 육군의 전 부대를 통해서는 그들은 작년 수에즈 운하 문제로 싸운 것

10) Aden: 1937-63까지 영국 식민지; 지금은 예멘

11) Latakia 港

이상으로 훌륭히 아랍군과 대결해 낼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예언을 들을 수가 있다. 육군이 존속하는 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아랍군을 별로 개의치 않아도 좋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층 장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랍 육군은 하나의 사회학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통솔면에서 약하다. 그들의 장교들은 목까지 정치적인 음모 속에 잠겨 있다. 그리하여 군대 내의 정치적 숙청으로 인해 그들은 번번이 훌륭한 장교를 잃고 있다. 행정(行政)과 군수(軍需) 업무에서도 그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의식적(儀式的)인 전쟁을 하려든다. 그들은 영웅적으로 적에게 돌격할 뿐이지 그 뒤에 따르는 보급(補給)이나 행정에 관한 사소한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랍인들은 자아비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전장(戰場)의 진상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일찍이 시나이 전역(戰域)에서 우리가 이용한 바 있는 일종의 혼란이 야기된다. 당시 이집트의 조종사들은 허허벌판에 폭탄을 퍼붓고 돌아가서는 텔아비브를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보고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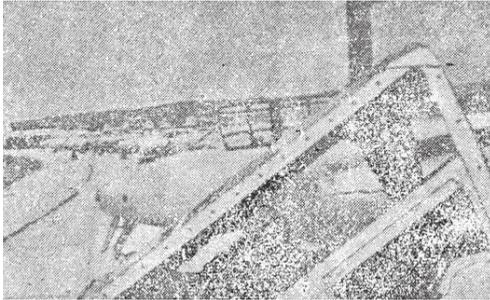
이스라엘의 전사(戰士)

### ☆ 지도권(指導權)의 문제(問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군사(軍事)가(軍事家) 들은 만약 훌륭한 지휘자(指揮者)만 갖는다면 아랍인도 훌륭한 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일은 아랍인이 필요로 하는 일종의 세련된 리더십을 소련이 마련해 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무대 뒤에서 활약하는 소련 군사고문들은 아랍 동맹군에 새로운 효능(效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소련 장교에 의해 계획되고 지도되는 대(對) 이스라엘 전은 아랍인들 자신이 획책했던 어떤 전투나 공격보다도 조작(操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련의 지원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아랍 군사력(軍事力)에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은 고도로 조직화(組織化)되고 있다. 18세 이상 39세까지의 모든 신체 건강



<이스라엘 공군의 제트가>

한 남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훈련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25만의 군대를 출동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은 전 국경선상에 보초를 세워 감시할 만큼 많은 병력을 현역(現役)으로 두

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국경 근처에 산재(散在)해 있는 농장들에게 국경감시를 시킨다. 모든 농장은 각각 병기고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엔 소무기(小武器)가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기습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군(援軍)이 도착할 때까지 그것으로 적과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이 나라는 대부분의 탄약이나 기뢰(機雷), 소화기(小火器) 등을 자국생산(自國生産)하고 있다. 그들이 보병용(步兵用)으로 제작하는 소형 경기관총은 성능이 매우 우수해 외국에서도 구매하고 있다.

### ☆ 공군력(空軍力)의 빈곤(貧困)

이스라엘의 커다란 군사적인 약점은 고사포, 탱크, 비행기 등 중무장이 빈약한 것이다. 작년(수에즈 위기)에 이집트의 전리품으로 쟁긴 그들의 장비는 겨우 그 일부밖



<이스라엘의 육군과 장갑차의 모습>

에 쓰지 못할 것들이었다. 한 병기장고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다.

“우리는 짝짝이 장비를 얻었다. 어떤 것은 부분품의 여분(餘分)이 없는 장구였고, 어떤 것은 부분품만이 있을 뿐 원체(元體)가 없는 것들이었다.”

중무기는 주로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다. 국방부 관변 측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집트 공격전에 프랑스로부터 4만 통에 달하는 장비를 원조 받았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장비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지난해에 이집트 공격 시와 같이 먼저 사격(射擊)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때부터 소련은 중동으로 향해 움직였으며,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사태는 돌변해버렸다.

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공격은 소련에게 그들의 공작원들은 이미 이집트나 시리아, 예멘 등에 소굴을 정하고 있다. 또 중동으로 그들의 의용군(義勇軍)을 진격 시키며, 그들 간의 유대(紐帶)를 더욱 공고히 할 구실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스라엘 관변 측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중동문제엔 미·소 양국이 다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여(關與)하기 때문에 국부적(局部的)인 사격전은 급속히 대병력의 동원을 초래해 전 세계로까지 잠식될 것이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먼저 전쟁을 도발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앞으로의 8년간의 '결정적인 기간' 이라며, 이스라엘 방어계획위원들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5년쯤엔 우리는 자연적인 인구증가와 이민에 의해서 400만 내지 500만의 인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에 가서 아랍국가군이 8천만의 인구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선불리 우리를 공격해 오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중동의 석유는 지금처럼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게 된다. 그것은 남미나 이란, 리비아, 사하라 등지의 새로운 유정(油井)들이 발굴되어 현재 중동의 석유의 위치에 대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까지엔 핵에너지가 유럽의 연료수요(燃料需要)에 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 예측(豫測) - 자라날 위험(危險)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변화가 오기까지엔 이스라엘 인들은 그들의 적이 전보다 더 위험성을 지닌다는 것과, 아랍을 지원하는 소련의 무기와 재력(財力)으로써 아랍국가군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 위험성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끝.

# 우주선내(宇宙船內)의 생활(生活)은 어떤 것일까

H. 스트러그홀드 박사(博士)

## 서문(序文)

소련은 개를 실은 인공위성을 발사했거나 인간은 언제쯤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구의 대기를 넘어 최초로 우주를 비행하는 인간의 육체와 건강은 어떤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항공의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휴버투스 스트러그홀드 박사에게 물어보기로 한다.

스트러그홀드 박사는 미(美) 공군항공의학교(空軍航空醫學校) 우주의학부장이었으며, 현재는 텍사스 주 랜돌프 공군기지<sup>12)</sup>에서 공군항공의학교문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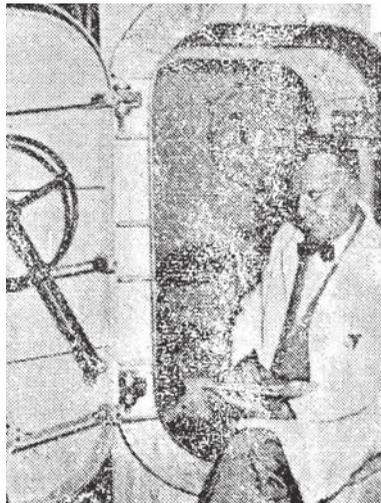
## 스박사(博士)와의 일문일답(一問一答)

(문) 스트러그홀드 박사님, 인간은 언제쯤 안전하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답) 인간의 우주여행을 준비하는데 어느 점에서는 의학이 기술보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상의 주요문제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니까요.

(문) 우주여행에서 인체가 부딪치게 될 장애는 무엇입니까?

(답) 한 문제는 고도 65,000피트에서는 기압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압이 있어야만 인체가 산소를 흡수할 수 있고 또한 체내의 유동체가 증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호책도 없이 고도 65,000피트 상공에 올라가면 체내의 유동체는 단시간 내에 증발하고 말



<우주(宇宙) 캐빈 안에서 연구하는 스트러그홀드 박사(博士)>

12) Randolph AFB

것입니다. 따라서 압력의 견지에서 말하자면 고도 65,000피트에 달하면 우리는 이미 우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의 데이비드 시몬즈 소령은 최근 고도 12만 피트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몬즈 소령은 건강에 아무런 좋지 않은 이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증발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보호받는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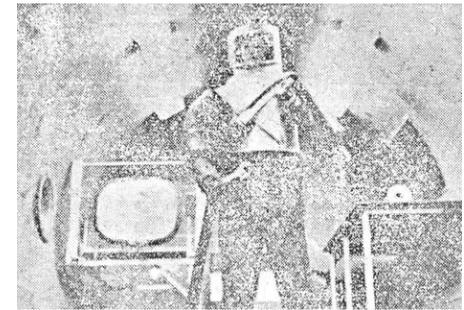
(답) 여압(與壓) 캐빈이 그 일을 해줍니다. 저고도에서는 콤프레서를 가지고 외부로부터 산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 7만 내지 8만 피트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고도서는 내부에서 캐빈을 여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압축공기 탱크를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행에 필요한 여압 캐빈은 사실상 우주 캐빈입니다.

(문) 그밖에 예상되는 위협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답) 우리가 더욱더 높이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는 우주비행의 의학적 문제에 한 가지 한 가지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로 산소문제, 그 다음에 압력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외선과 우주선(線)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는 태양광선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선은 필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에 흡수되니까요. 그러나 고도 12만 내지 14만 피트 정도에서는 우리는 인간이 탑승한 인공위성 안에서 받는 방사선과 거의 같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될 것입니다. 고도 25리 내지 75마일에서 우리는 운석과 미운석(微隕石)에 만나게 됩니다. 운석의 위험이라는 견지에서 말하자면, 고도 75마일에 달하면 우리는 우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 120마일에서는 우리는 대기의 마지막 '기능경계선'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고도에서는 아무리 비행기가 빨리 날지라도 공기의 서포트를 받지 못합니다. 아직도 약간의 공기는 있지만 극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항력을 거의 가져오지 않습니다.

(문) 이것은 인체에 어떤 장애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답) 우주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대기 속의 온도는 주로 공기분자의 운동의 결과입니다. 공기분자가 이동하고 충돌함으로써 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분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돌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주여행자(宇宙旅行者)는 밀폐(密閉)된 여압(與壓) 캐빈 안에서 여행(旅行)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여압복(與壓服)을 착용(着用)하게 되리라고 한다.>

이 고도에서의 비행체의 온도는 순전히 태양광선에 의해 좌우됩니다. 태양을 향하고 있는 쪽은 태양광선에 의해 더워지고, 다른 쪽은 열을 상실하고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비행체의 주위는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여압 캐빈은 때에 따라서 난방 또는 냉방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문) 우주선은 위험한 것입니까?

(답) 그 위험성은 생각한 것보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시몬즈 소령은 아무런 보호책 없이 우주에서와 똑같은 우주선에 약 30시간 동안 노출되었는데, 아직도 의학적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우주비행은 30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 굉장한 본래의 우주미분자는 알루미늄 판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분자는 알루미늄에 충돌할 때 2차적인 우주선(線)을 발생하는데 그것은 더욱 굉장합니다. 우리는, 본래의 적은 우주선(線)과 많은 이차적인 우주선의 그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문) 우주선(船)은 탑승이 수주일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산소를 탑재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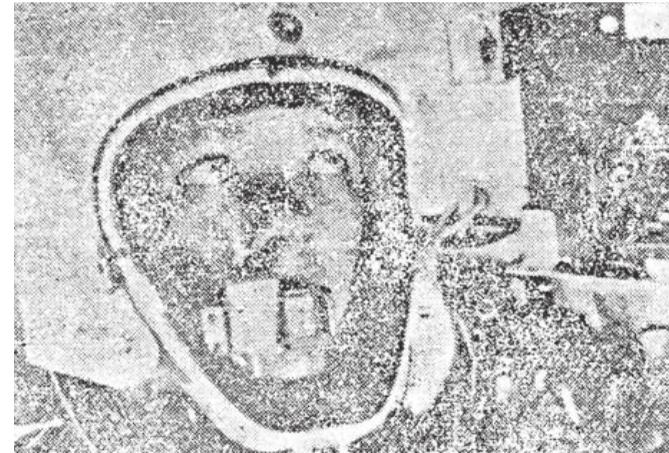
(답) 문제는 비단 산소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압 캐빈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인공대기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에게서 비단 산소를 대치할 뿐만 아니라 탄산가스와 습기를 제거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랜돌프 공군기지에서도 이 문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인용 우주 캐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모종의 우주 상태를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인용 우주 캐빈 하나를 방금 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산소에 관한 한 우주선은 수일 동안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수주일 혹은 수개월로 되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 장기비행에 필요한 인공공기는 어떻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답) 대기를 재생하는 생물학적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식물이나 해조류와 같은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탄산가스를 소모하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케 할 만큼 충분한 양의 산소를 발산하는 일종의 해조류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여압 캐빈이 별안간 세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의 선구자(先驅者)-미 공군의 군의관(軍醫官) 데이비드 시몬즈 소령(少領)은 실험용 기구(實驗用 氣球)로 많은 시간을 우주의 변두리에서 보냈다.>

(답) 탑승들은 하층의 대기 속으로 하강할 때까지 여압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문) 이 여압복은 인간이 인공위성이나 혹은 우주선에서 나와서 스스로 우주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우주복과 동일한 것입니까?

(답) 바로 그렇습니다.

(문) 우리는 그러한 우주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네, 단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우주비행에서 중량이 없는 상태의 문제에 대한 의학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답) 인공위성의 탑승원은 중량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식사를 하고, 잡자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는 가구 음식물 등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역시 허공에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자, 식기, 구두 등에 자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상으로는 혈액순환과 소화기 어떤 경향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문제는 중대한 것이 아닙니다. 중량이 없는 상태는 이미 탄도호(彈道弧)로 비행하는 로켓비행기 안에서 30초 내지 40초라는 단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뱃머리와 흡사하게 속이 메스꺼운 것을 경험한 비행사도 있지만, 비행사의 반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다.

중량이 없는 상태에 관한 한 결국에는 그 상태를 완전히 모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선을 회전시킬 수 있다면 원심력이 승객에게 중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량이 없는 상태를 물리학적, 심리학적 혹은 의학적 문제를 취급할 필요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학적 해결책으로 방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암(雲巖) 역(譯))

# 미국(美國)은 아직도 유도탄(誘導彈) 경쟁(競爭)에서 승리(勝利)할 수 있는가?

- 인공위성(人工衛星)과 ICBM 문제(問題)를 위요(圍繞)한 세계적(世界的) 권위자(權威者)들의 견해(見解) -

박희영(朴喜永) 역(譯)

## “미국(美國)은 1960년(年)에 실전용(實戰用) ICBM을 보유(保有)할 수 있다.”

시어도어 폰 카르만 박사(博士)<sup>13)</sup>와의 일문일답(一問一答)

(문) 폰 카르만 박사님, 미국은 로켓 모터, 로켓 연료, 장거리 유도탄 등의 발전에서 소련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답) 그다지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로켓 건조를 위한 새로운 연료와 재료를 탐구하는 속도가 완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결함은 우리의 연구발전계획의 조직방법에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전단계에 들어가기까지 너무도 오랜 세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소련에서는 잘 조직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문)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대륙간탄도유도탄생산에 관계는 제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답) 예고된 인공위성의 궤도로 미루어 보아 소련은 유도탄의 유도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은 그 궤도에 매우 정확하게 발사되었으며, 이 사실은 상당히 정확한 유도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문) 인공위성이 보여준 유도의 정확성으로 미루어 보아 ICBM은 목표에 어느 정도 가까이 낙하하겠습니까?

(답) 우리의 어떤 기지에 대해서도 손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낙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철근으로 지하에 건설된 시설과 같은 ‘견고한’ 목표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폭발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 지상의 비행기, 보통건물 등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행장 가까이 낙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3) Theodor von Karman

(문) 그렇다면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럼 소련은 이미 ICBM의 유도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십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미국은 아직도 ICBM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미국은 노력만 한다면 아직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 어떻게요?

(답) 보다 더 간단한 것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다시 말하자면 로케트의 부분품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1960년에는 실전용 ICBM을 보유하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소련이 그 이전에 실전용 ICBM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유도탄을 생산하고 그것을 정비, 조작할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상실한 시간을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미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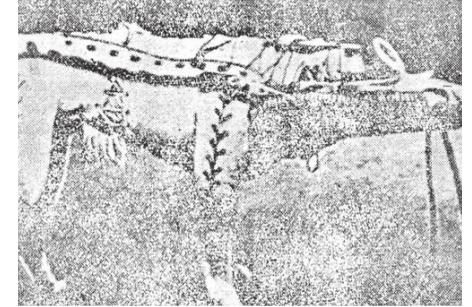
(답)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하고 유도탄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며, 삼군 간의 무익한 경쟁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 각 군 간의 경쟁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각종 유도탄을 책임지는 기관이 각각 있어야 합니다. 즉 장거리유도탄을 위한 기관이 하나 있고, 중거리유도탄을 위한 기관이 하나 있고, 단거리유도탄을 위한 기관이 하나 있는 식으로.

(문) 소련은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무엇을 달성했다고 하십니까?

(답) 소련은 주로 시위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세계에 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제2호는 그들이 새로운 종류의 연료를 발전시켰거나 아니면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로켓 재료를 발견함으로써 현재의 연료에서 더욱 큰 능력을 얻는 방법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큰일을 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복(宇宙服)을 입은 개……소련 과학자들은 실험용 동물로서 개를 사용한다>

(문) 미국이 만약에 필요한 노력만 했더라면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달성한 일과 동등한 일은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소한의 중량과 크기의 인공위성을 발사기로 제정했습니다. 둘째로는 군용 로켓은 사용치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과연 현명한 것이었던가는 오늘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미국은 스푸트니크 2호와 중량이 동일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군용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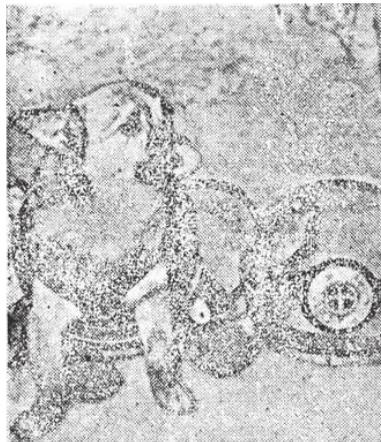
(답) 미국의 아틀라스나 타이탄 로켓은 그와 크기가 같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의 로켓은 최초의 이륙중량이 400톤 즉 88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된 말인지 모릅니다. 1,118파운드라는 스푸트니크 2호의 중량은 단순히 환가하중(換價荷重)이 아니라 제3단 로켓의 중량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푸트니크 2호의 중량을 발표했을 때처럼 만약에 이것을 제외한다면 스푸트니크 2호의 이륙중량은 200톤 내지 250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타이탄이나 아틀라스 로켓의 능력범위 내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제1단 로켓을 운반비행기로 농밀(濃密)한 대기(大氣)위로 싣고 가서 발사한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되면 훨씬 덜 강력한 로켓을 가지고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소련이나 미국이 인간을 실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시기는 가까워졌다고 보십니까?

(답)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의학 및 인간 문제가 더욱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실험결과에 의하면, 동물은 중량이 없는 상태를 싫어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 공군에서는 두 마리의 쥐가 공중에 떠있는 테니스공을 가지고 노는 광경을 촬영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쥐들이 단순히 그것을 재미있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말리사카 라고 하는 이 개는 수차(數次) 비행(飛行)했다. 밀폐(密閉)된 우주(宇宙) 궤(軌) 안에서 매번(每番) 패러슈트로 무사(無事)히 귀환했다.>

의 두뇌는 다르게 반응을 표시하며, 인간이 심리적 으로 중량이 없는 상태에 몇 분 이상 견뎌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그리고 운용상 곤란도 있습니다. 인간이 탄 인공위성은 값비싼 물건일 것입니다. 탈출 장치 즉 인공위성의 승객이 위성에서 나와 대기 속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 낙하산으로 지상에 내려가게 하는 로켓 글라이더를 만든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위성을 상실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단순히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보다는 승객을 대치(代置)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승객을 탈출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대치시킨다는 것은 더욱 곤란한 문제입니다. 위성은 굉장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부스터 로켓을 장치한 급유기를 그 궤도 위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굉장한 속도에서 접촉하기 위해서는 급유기의 정확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오랜 훈련을 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인공위성이 군사적 가치를 갖게 되려면 어떻게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까?

(답) 인공위성 그 자체는 무기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은 매우 효과적인 정찰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매우 신중히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위성은 또한 장거리유도탄의 정확성을 증진시키는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탄도유도탄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번 아웃 포인트<sup>14)</sup> 이후에 그 탄도를 변경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 중에 탄도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형 로켓을 그에 추가한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유도탄에 혹은 그 반대로 명령을 전달할 수 있고 유도탄 안에 기계를 장치해 인공위성을 조준함으로써 그 자체의 탄도를 교정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 burnout point: 가열체(加熱體)에 의해 액체가 가열되어 핵비행(核沸騰)이 상한에 달하면 가열체 온도가 급상승하여 철선이나 동선인 경우에는 타서 끊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



소련 로켓의 두부(頭部)에 장치된 기계 속에 개를 넣고 있는 광경

니다. 인공위성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요.

(문) 현재의 소련 인공위성과 미국이 벵가드 계획으로 현재 발전시키고 있는 인공위성은 군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답)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군사적 가치를 위해서 건조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곳은 유도탄 계획에 도움이 될 대기의 농도, 우주선(線), 운석, 지구의 자기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계를 측정함으로써 지구의 형태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세계지도를 시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정확한 지도는 장거리 유도탄을 목표에 유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 우리는 인공위성에 치중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용유도탄에만 치중해야 하겠습니까?

(답) 우리는 유도탄 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지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부와 과학 위원회들이 합심 전력할 수 없다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폰 카르만 박사는 당년 76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켓 및 유도탄의 과학적 권위자이다. 약 12년 전에 그는 미 공군을 위해 인공위성, 대륙간 탄도 유도탄, 우주항법 등 보다 진보한 것으로 생각된 특수연구를 했다.

시어도어 폰 카르만 박사(博士) 소개(紹介)

헝가리 태생인 폰 카르만 박사는 1928년 현재, 그가 공기동력학 명예교수로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교편을 잡기 위해 미국

으로 건너왔다. 칼텍에서 그는 미국 최초의 제트추진력실험소를 창립했다. 폰 카르만 박사는 1952년 이래 NATO의 항공연구발전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약해오고 있다.

**“소련(聯)은 우주(宇宙)의 지배자(支配者)가 되려는 야망(野望)을 품고 있는 것이다.”**

발터 R. 도른베르거<sup>15)</sup> 박사(博士)와의 일문일답(一問一答)

(문) 도른베르거 박사님, 우리는 소련의 스푸트니크와 동일한 중량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군용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로켓 부스터를 우리의 무기를 실험하고,

15) Walter Robert Dornberger

우리의 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로켓을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군 당국의 결정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문) 다시 말하자면 이 로켓 부스터란 것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답) 네, 아직 많지 못합니다.

(문) 소련도 역시 이 로켓 엔진의 사용에 약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소련은 우리가 현재 돌입하고 있는 인류 생활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 바다, 하늘에 이어서 마침내 우주는 정복되어야 할 제 4의 미디엄이 되었습니다. 우주는 인간이 탑승한 우주선과 탄도 로켓 등이 행동하고, 항공(航空)하고, 기동할 것입니다.

영국이 수백 년 동안 바다의 지배자였던 것처럼, 소련은 우주의 지배자가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목표로 소련은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해 그들의 무기에 우주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 그들의 군용 부스터 일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문) 소련은 이 스푸트니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소련은 그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 그들은 이 계획에 약간 먼저 착수한 것입니다. 소련은 1953년에 착수했으나 우리는 1955년까지는 착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소련이 인간을 태운 위성을 우주에 발사하려면 아직 얼마나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위성 2호에 개를 실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인간을 태운 위성을 발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 언제쯤 소련은 인간을 올려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나는 소련 과학자들과 서한을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미국에서 인간이 탑승한 위성을 건조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답)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인간탑승위성'이라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폰 브라운 박사가 수년 전에 제안한 바 있는 그런 인간탑승위성, 즉 직경이 수백 야드나 되는 그러한 대형의 것은 즉시 건조할 수 없습니다.

2, 3명의 인간을 운반하고 지구를 14 내지 24주 주항(周航)한 후에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려면 그 건조에는 앞으로 10년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누가 거기에 소요되는 돈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 막대한 돈이 소요되니까?

(답) 50억 내지 60억 달러는 필요할 것입니다.

(문) 막대한 두뇌도 필요하겠지요?

(답) 이제 두뇌의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주여행의 전반적인 문제는 이제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학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세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문제는 공학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문) 미국이 현재 발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들고 있는 돈과 노력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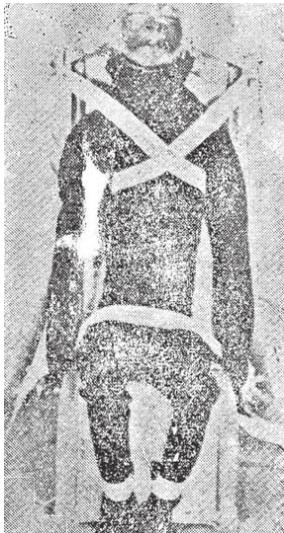
(답) 물론 그렇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편재는 어느 정도 과학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용도도 있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고도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정보는 우리의 장거리 로켓의 정확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그러한 위성을 발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위성은 비단 과학적 목적이나 목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을 인공위성 계획의 차기 단계로서 정찰용 위성을 발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푸트니크 2호에 텔레비전 카메라를 적재했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텔레비전 카메라를 장치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 위성이 지상을 훌륭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비행 중 항상 정확한 고도를 취할 수만 있다면 지구를 내려다보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일종의 '공중안(空中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공위성에는 정찰무기로서의 군사적 용도가 있고, 일기예보를 위한 군사적 용도가 있으며, 군함을 출발하는 함대를 탐지하는 것과 같은 군사 용도가 있습니다.

(문) 전 세계를 공중 감시할 수 있겠군요?



미국(美國)의 실험(實驗)에서 사용(使用)하고 있는 앨버트라는 우주원숭이(宇宙猿)

(답) 그렇습니다.

(문) 중량이 1,000파운드 이상에 달하는 스푸트니크 2호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적재하기에 적합합니까?

(답) 물론입니다.

(문) 스푸트니크 2호에 텔레비전 카메라를 장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러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개를 실었고 또한 개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써야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환가하중(換價荷重)의 대부분을 그러한 장치에 소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이번에 소련 과학자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큰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답) 나는 그 과학적 및 기술적 성취에 대해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903년의 라이트 형제에 의한 최초의 비행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놀라셨습니까?

(답)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문) 현재 군사적인 견지에서 보아 공중에 떠있는 인공위성과 5,000마일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성공적인 대륙간탄도유도탄과 그 어느 쪽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성공적인 ICBM입니다. 그러나 인공위성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문) 소련은 현재 성공적인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련의 ICBM 발전은 우리보다 약간 앞서고 있을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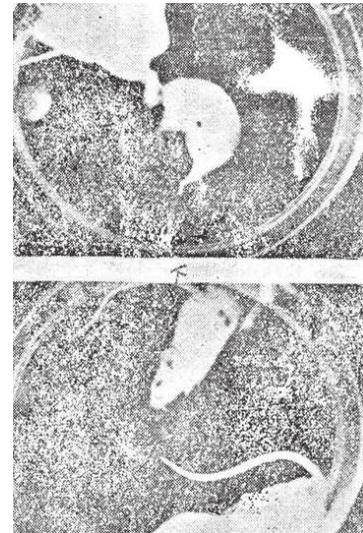
(문) 이를테면 소련은 남극에 있는 한 목표지역을 지적하고 ICBM을 발사해 그에 명중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세월을 요할 것입니다.

(문) 소련은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성공적인 ICBM에 더욱 신속히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현재의 예정대로 간다면 미국은 언제쯤 성공적인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까?



미국의 실험은, 중량이 없는 상태에서 생쥐와 공이 허공에 떠있는 광경(上)과 로켓의 속력이 완만해지자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모습(하)을 보여주고 있다.

(답)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에 있는 미 공군 항공연구발전사령부 공군유도탄 부장) 버나드 A. 슈라이버 소장은 미국이 1960년 내지 1961년에는 실전용 ICBM을 보유하게 되리라고 꽤 명백히 언명했습니다. 이 언명은 매우 현실적이며 신중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욱 노력함으로써 진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미국은 이 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만 ICBM에 대한 방위인 대(對) ICBM을 발전시키는 데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답) 이 질문은 매우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달성하려는 일의 성질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습해 오는 적 ICBM을 멀리 대양 위에서 격추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몹시 복잡하고 값비싼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핵탄두의 유효폭발고도(有效爆發高度) 조금 위에서 격추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다시 말하자면 중부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하는 대신에 더욱 가까운 거리에 접근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수폭의 유효폭발고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2마일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마일 내지 15마일 상공에서 격추하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요.

(문) 이와 같은 식의 대(對) ICBM을 발전시키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답) 그것도 역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그러한 대(對) ICBM을 발전시킬 가치가 있느냐, 혹은 보복세력에 주력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은 100% 안전무비(安全無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그와 같은 방위체제를 확립할 수는 없으며, 불과 소수의 중요한 지역만을 그와 같은 식으로 방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니까요.

(문) 그렇다면 대(對) ICBM은 몇 년 후에나 출현하겠습니까?

(답) 만약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노력한다면, 간단한 그러한 방위체제는 3년 내지 5년 후에는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광범위한 방위체제는 최소한도 5년 내지 8년은 걸릴 것입니다.

(문) 우리는 제2차 대전 후에 소련이 고도로 훈련되고 유능한 독일 과학자들을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소련의 위성계획이 독일 과학자들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련은 잘 훈련된 기술자와 과학자를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이 종전 후에 독일 과학자들을 끌고 간 이유는 그 당시에 독일이 로켓비행에서 훨씬 진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독일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짜내고 배워서 그들의 아이디어에 익숙해진 후에 그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 이것은 소련이 처음에는 독일식을 따랐다가, 나중에는 그를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이번의 소련 인공위성 발사에 독일 과학자들이 행한 역할은 8% 내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내지 92%가 소련과학자들 자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터 R. 도른베르거 박사(博士) 소개(紹介)

도른베르거 박사는 역사상 최초의 성공적인 유도탄인 독일의 V-1 호와 그보다 사거리가 긴 V-2호를 발전시킨 책임자였다.

로켓 설계의 선구자인 그는 제2차 대전기 말에 V-1 호와 V-2 호를 만들어 낸 폰 브라운 박사를 포함한 독일 전문가 팀을 지휘했다. 이와 같은 무기는 우주를 나는 인공위성과 유도탄의 선구자였다.

1945년에 포로가 되었던 그는 독일군 소장이었는데, 1947년 미 공군의 고문이 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현재 벨 항공기회사 사장의 기술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 백년(百年) 이상(以上) 연장(延長) 미래(未來)의 수명(壽命)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심장전문의 폴 더들리 화이트<sup>16)</sup> 박사는 의학이 결국 인간의 수명을 100년 내지 그 이상으로 연장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화이트 박사는 당시 디스펜던드 호텔에서 11일 개최된 '미래의 가정'에 관한 토론회에서의 주요 연사로서 그와 같은 예언을 했다. 그 토론회는 북미보험회사 주최로 개최된 것이다. "언젠가는 의학이 모든 전염병을 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혹독한 살인병(殺人病)까지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100년 이상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화이트 박사는 말했다. 그 심장전문의는 또한 "과학은 모든 사람들이 수면 중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고통을 덜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16) Paul Dudley Wh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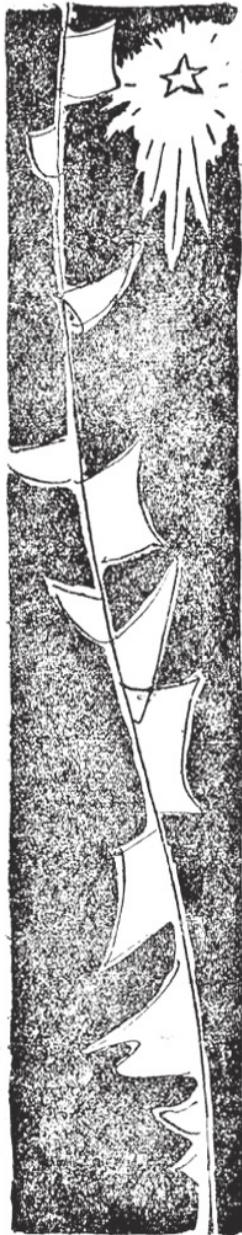
# 1958년(年)의 UN에 대(對)한 전망(展望)

고제경(高濟經)

유엔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세계항구평화(世界恒久平和)의 확립이라는 그 자체의 사명을 위해 얼마나 전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작년도의 유엔의 업적을 우선 돌아본다면 다그 함마르셀드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회기의 활동은 유엔 총회 중 가장 의의 깊은 것의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이 ‘가장 의의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은 유엔이 몇 가지 분야에서 성취한 업적을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일 줄 안다.

즉 유엔은 작년도에 가나와 말라위 신생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82개국이라는 과거 국제기구에선 볼 수 없었던 다수의 회원국을 갖게 될 것을 비롯해, 원자력 평화이용의 국제기구를 창설한 사실이 크나큰 업적일 것이다. 그 외에 유엔은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경찰군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편 유엔은 수에즈 운하를 신속히 해결해 그 국제 수로(水路)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기술 원조를 대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유엔은 또한 세계 도처의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했고, 공산 압정에서 망명해 온 약 20만의 헝가리 피난민들의 재정주(再定住)를 도왔다. 작년도에는 유엔의 주장에 따라 이집트 영토로부터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가리켜 ‘가장 의의 깊은 것의 하나’였다고 한 함마르셀드 총장의 말은 자화자찬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제12회 유엔 총회의 주요의제인 군축을 비롯한 한국



통일 문제 중동문제 알제리 문제 등 모두 국제평화에 간접으로 또는 직접으로 연관되는 문제이었는데, 지난해 제12회 총회는 모두 방법론만 토의해서 결의한 데 그쳤다. 실제의 효과로 본다면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작년 제11회 총회만 하더라도 수에즈 운하 분쟁에서 유엔은 평화유지를 위해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이나 놀랄만한 힘을 보여주었으며, 헝가리 문제도 국제적인 여론 환기에 절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비해 제12회 총회는 크리스마스 때 중동지방에서 유엔 경찰군과 함께 지낸 함마르셀드 총장의 빛나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참으로 수확이 적었다. 그럼 제12회 총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현안대로 그대로 제13회 총회로 넘어간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신년도의 유엔을 전망해보기로 하자.

◇ ◇

작년 런던에서 열렸던 군축소위원회가 수개월 동안 끝난 끝에 교착상태로 된 채 총회를 맞았기 때문에 제12회 총회는 군축총회라고까지 불렸다. 런던 군축소위원회가 끝날 무렵 소련은 대륙간탄도탄(ICBM)의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무기의 출현으로 군축이 지금보다도 더 요청된 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런데 미국의 런던 군축소위원회의 결론인 서유럽 4개국 안을 제시해 소련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으나, 소련은 런던회의에서 자국이 주장한 선을 조금도 양보안했다. 마침내 서방측의 24개국 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은 이를 무시하고 퇴장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군축위원회는 82개 유엔 회원국을 전부 집어넣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한편, 냉전 완화와 평화추구를 위한 동-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련이 군축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외교 공세로 나오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인공위성을 2차나 발사해 성공한 것을 배경으로 해 힘의 우위를 과시해 보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유엔 밖으로 문제를 이끌고 나가서 해결하려는 뱃속은, 82개국 참가가 싫다면, 우리가 마주 앉아서 결정하자는 식의 논리로써 외교의 주도권을 잡아보자는 것이며, 유엔의 무력을 세계에 선전하자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동-서 정상회담을 갖자는 불가한 서한에 대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외상회담이 필요하다며 회한(會翰)을 보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를 항상 추구하고 있다는 신념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의회에 보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 유엔 내 이동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미국이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엔의 능률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엔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장에서 외상회담 또는 정상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유엔을 통해 집단안전보장을 찾는 노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은 지구상이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일어난다고 어느 장군이 예언하듯이, 우주세계에 들어간 오늘날 군축은 우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서 간에 군축의 선행조건, 예를 들면 감시 또는 실험중지 같은 문제도 합의를 못 보고 있는 현실인 만큼 금년 유엔에서 소련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군축협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 ◇

한국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양단된 한반도를 서방측이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통일시킬 새로운 노력을 촉구한 11개국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적인 한국 통일을 재확인했으나 재작년 제11회 총회보다도 전진은 없는 것이다. 유엔은 한국의 통일과 업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서 중공군이 철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침략자로 유엔에서 낙인을 찍은 중공군이 아직도 북한에 머물러 있음이 통일에 방해가 됨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금년 유엔 제13차 총회에서 통일 한국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기로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이번 가을 총회에 또한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겠다.

우리나라 가입문제도 월남 가입문제와 함께 상정되었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말미암아 실현을 못 보고 있다. 소련의 거부권은 이미 82차례나 행사해 불가년에 대한 아이크의 회한에서도 통렬히 비난하고 있지만, 유엔 감시 하에 탄생한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이 피 흘리며 자유를 수호해 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유엔 헌장

을 준수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전 세계에 충분히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이 고의로 거부권을 남용해 문호를 봉쇄하고 있는 것은 유엔은 공신력을 잃고 있는 결과 밖에 안된다. 안보리의 거부권에 대해 이미 식자(識者) 간에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유엔 헌장의 수정을 제의하는 측도 있거니와, 아무튼 회원국으로 가입자격이 충분한 우리나라를 외몽고 따위를 집어넣은 일괄가입안과 바겐<sup>17)</sup> 하려는 소련의 태도는 당연히 규탄을 받아야 하겠다.

◇ ◇

재작년 말에 새로 유엔에 가입되어 국제사회에 진출한 일본은 금년 3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등장한다.

최근 유엔은 그 구성이 전과는 차츰 달라지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소국의 가맹이 늘어 있어 이미 그 수는 28개를 꼽게 되었다. 종래에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합쳐 투표권의 3분의 1을 사실상 장악해 왔었다.

의회는 3분의 2의 다수결로 표결하므로 나머지 3분의 1을 장악한다는 것은 총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아시아, 아프리카 블록은 전 가맹국의 3분의 1을 넘어 그 발언권의 비중이 절대로 무시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시(岸) 수상은 동남아 순회를 거듭하는가 하면, 일본은 또한 카이로에서 열렸던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40명이 넘는 가장 많은 대표단을 보냈었다. 유엔 내의 소위 아시아, 아프리카 블록은 유색인종국이라고 해, 또는 소국이라고 해, 식민지서 탈피한 신생국이라 해 반드시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바그다드 조약, SEATO 가맹, 기타 영국과의 관계 또는 소련과의 관계로 이해가 복잡해 행동의 일치가 보기 어렵다 하지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한 일본은 옛날 '동아경영권'의 맹주로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 권의 리더로서 자처하느니 만큼, 유엔 내에서의 일본의 활동은 앞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생각한다.

요컨대 1958년의 유엔은 군축문제나 키프로스 섬 분쟁, 알제리 문제 등 식민지 문제나 어떤 해결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겠다. 그리고 통일 한국 문제나 우리나라 유엔 가입문제 추진은 민족적 여망에 부응하도록 우리나라 외교진의 배전(倍前)의 활동과 노력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필자(筆者) 서울신문사 편집국장(編輯局長))

17) bargain

# 1958년(年)의 동남아(東南亞)와 극동(極東)

류승범(柳承範)

1958년의 극동 및 동남아시아의 정세를 전망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기해야 할 문제는 기존하는 SEATO(동남아시아 조약기구)와 이제 새로이 태동할 기운이 성숙해 가고 있는 동북아시아조약기구와의 연결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물론 동북아시아조약기구가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

우선 그러한 기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과의 국가관계가 성립됨으로써 그 기본관계가 뚜렷해져야 할 것이고 자유중국[대만]과 일본과의 관계 역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한국 등의 여러 반공국가와 방위를 목적으로 한 조약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조만간 체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조약기구인 바에는 모든 지역적 방위기구의 연결을 추진시키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의해 그 연결도 실현되리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정세는 동남아와 동북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동시에 동북으로는 일본에서 한국과 자유중국을 거쳐서 필리핀, 태국 등지에 이르는 새로운 획일화된 질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도 현재 동북아조약기구를 형성하기 위해 매력적인 미끼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로 이런 동맹체가 없다면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는 급속히 그들의 방위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둘째로 NEATO(동북아조약기구)를 통해 이 지역의 여러 국가는 미국으로부터의 재정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NEATO 형성의 가능성은 더욱더 현저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SEATO와의 연결을 가진 것으로 믿어서 잘못된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공산주의의 침략목표가 다시 동북 및 동남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침략목적이 기간 중동지역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자유세계 교란의 기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은 중동 지구가 지닌 현재의 생리에서 자명해진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 하더라도 소련과 중공은 동남아지역으로서 침투와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국제적 문제로 비화할 도화선을 마련하리라고 보는 것은, 이 지구가 직접 공산권과 상치하고 있는데다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서 볼 보듯 뻔하다.

그리고 사실상 동남아지구와 인도네시아 군도는 소련과 중공의 공동 활동의 주요목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생 말레이시아는 수년래 무장공산도당과의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버마[미얀마]에서의 공산주의 활동도 상당히 현저하다.

때문에 이 지역 내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파란을 면키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조종해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시키려는 소련과 중공의 흉모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 명백하다.

혹자는 한국이나 자유중국(대만) 및 자유월남에서 다시 열전이 전개되거나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내부 침투를 통한 교란은 있을지언정 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자유중국 및 자유월남에 대한 무력침입은 제3차 대전을 야기할 충분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소련이나 중공이 제3차 대전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이들 자유국가에 대한 무력침공을 불사해야 한다면 물론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인공위성과 대륙간탄도유도탄을 완성시킨 바 있다 하더라도 그리 손쉽게 이 지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동란이 발생했을 당시와 현재는 그 정세가 판이하다는 데서 명백해진다. 미국은 현재 중거리유도탄 기지를 한국이나 중국에까지 전진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의 위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응수가 있을 것이라는 증거인 동시에, 미국의 방위선은 일본, 한국, 자유중국의 선으로 확장된 바 있다는 바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이나 중공은 당분간 그들의 본토에 대해 즉각적인 응수가 가해질 모험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은 전면전쟁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기반을 갖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분할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을 것이고, 자유중국의 본토탈환도 불원간(不遠間)에 기약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관측된다.

셋째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노선이 어떤 방향으로 낙착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일본은 그 생리상 미국의 지원 아래 있는 반공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은 다분히 용공 내지 친공적인 경향을 내포하고 있어, 그의 행방은 자유세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여기서 일본이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소위 개방정책을 선택한다면 공산주의가 한국이라는 방위선을 뛰어넘어 태평양지구로 진출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해 주 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계속 이런 외교노선을 가지는 한 NEATO의 형성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은 물론, 미국의 외교 내지 군사정책 면에도 심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일본은 동남아지역에 그들의 경제시장을 개척하기에 광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산권과의 교역까지도 추진시켜야만 한다는 국내적 경제여건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가 지닌 경제적 생리 때문에서라도 소위 개방주의 정책을 지양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는 외교소식통의 관측도 전혀 허무한 억측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가 동남아 시장에서 서구상품을 추방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극동과 동남아시아의 경제는 동경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 명백한 이상 정치적으로 그 경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넷째로는, 일부 민족주의 국가에 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덜란드인을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극단적인 반(反) 네덜란드 운동이 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단순히 반 네덜란드 운동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식민지라는 불리하고도 불우했던 입장에 대한 반동이며, 후진적 민족주의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분쟁은 중동지구처럼 공산주의에 이용당함으로써 반(反) 서방 내지 소위 중립화색주의적인 경향을 보일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것이 또한 인접 국가로 확대될 때는 공산주의 국가의 맹렬한 선전공세의 목표가 될 국제적 문제로 변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공산주의가 후진 민족주의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자결주의적인 노선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반식민 내지 반서방적인 감정이 다. 즉 소련과 중공은 서방 자유세계를 배제함으로써만 국가의 완전한 자주성이 확립되는 것이며, 서구와의 경제적 유대를 끊어야만 아무런 조건과 대가없이 획득할 수 있는 소련과 중공의 원조를 얻어 국가부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당한 경계가 필요하며, 그들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보다 많은 원조가 기대된다. 하기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의 예산교서와 의원경제교서에서 이 지역에 대한 원조의 절실함을 지적한 바가 있고, 실제로 많은 원조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반(反) 서방이니 반 식민이니 하는 글자가 붙은 민족주의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빈곤과 기아에서의 해방만을 기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보다 더한 원조는 없을 수 없는 절실한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현재 동남아 지역 여러 국가들이 NATO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심각한 의견 수립은 아직 야기하지 않고 있다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SEATO 국가군들이 아직 그 유대의 해이를 가져올만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원래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린바 있어서, 그리 대단치 않은 미국의 원조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반공이라는 신념은 서방측 여러 나라보다도 현저히 미미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섯째로, 이 지구는 미국의 원조 덕분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간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미국의 원조가 극동과 동남아 여러 국가의 경제 여건을 타개함에 지대한 역할을 한바 있음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중 특정한 일부 국가의 예를 제외한 모든 여타의 국가는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극히 몽매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한 새로운 계획으로서의 개발문제가 구체화 된 바 있는 것이니, 이는 극히 다행스러운 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동남아 여러 국가는 상당히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간 많은 자원을 서방국가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도 자체의 부강을 위한 개발까지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 결국 자체의 방위력도 강화해야 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데

서 보다 지극히 서둘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닐 수 없다.

여섯째는, 한일 간의 문제이다.

비록 억류자의 상호석방과 구보다(久保田) 망언의 취소 및 대한(對韓) 재산권의 포기 등을 계기로 해 5월 1일부터는 제4차 회담이 개최될 소지가 마련된 바 있지만, 완전한 국교정상화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개선은 곧 동북아시아 방위조약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난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로 평화선 문제를 비롯해 재산반환문제 및 어로문제 그리고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 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에 있음이 사실이라면, 일본은 마땅히 그의 개방주의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한국은 아무리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 문제가 시급하더라도 일본의 개방주의정책이 엄존하는 한 타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의 기본관계는 어디까지나 반공이라는 데서 뺏어져야 하며, 용공 내지 친공이라는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sup>18)</sup>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면 타결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한국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한, 일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는 오직 일본이 어떤 선에서 한국과의 기본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것이 또한 반공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면 동북아시아조약기구가 실현되는 시기도 결국은 그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58년의 극동 및 동남아의 정세를 이렇게 전망할 때 결국은 하나의 사실에 집약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즉 국가 간의 상호관계개선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반공이라는 뚜렷한 목표로 전제를 하고 상호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작년 응오 딘 지엠 자유월남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이런 징후가 나타나기는 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미국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반공 정책을 뒷받침으로 하고, 현실적인 여러 제약들이 배제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 자유중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은 전체 상호국가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계기가 아닐 수 없을 바에는 희망의 운곽만이라도 나타나고 있다고 믿어 잘못은 아니다.

1958년 - 전 세계가 인공위성과 유도탄의 위협 하에 있는 불안한 시대이다.

18) 원문의 '서'는 '서로'로 봄.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전망할 때 극동과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보이는 해라 할 수 있다.

(필자(筆者) 평화신문(平和新聞) 상임논설위원(常任論說委員))

(53면에서 계속)

운동·천체현상·공간의 성질 등을 정확하게 구명(究明)할 수 있는 물리학의 발달·운반체(運搬體)의 속도 및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수학·복잡한 로켓 장치를 정밀하게 제작·운반할 수 있는 공학·순간순간의 자료를 기초로 해 운반체의 방향·속도를 전자계산기로 계산해내고, 각 기관의 동작을 자동으로 제어·조종하고, 천체간 통신을 가능케 할 전자공학·공기마찰에서 발생하는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특수금속을 실용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금속학·고성능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급격한 속력의 변화로부터 우주간 또는 타(他)천체에서 인체가 받는 생리적 반응에 관한 연구 및 방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공간의학·등등이 우주과학의 장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주세기 제2년이라고 볼 수 있는 1958년에 인간은 우주과학을 어떤 점까지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오로지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과학 분야가 우주과학의 발전이라는 인류의 공동이념을 향해 어느 정도까지 진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보겠으나, 현재 단계로서 우리가 우주세기 1958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는,

- (1) 인공위성에 TV를 장치해 타(他)천체 또는 지상(地上)의 현상을 지상으로 통신하는 것.
- (2) 사람이 탄 인공위성(Manned Satellite)을 띄우는 것.
- (3) 원폭이나 수폭을 실은 인공위성을 달로 발사해 월세계에서 폭파시켜 지상에 서 관측하는 것.
- (4) 우주정거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실험발사의 단계까지 가도록 하는 것.
- (5) 새로운 고체연료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

막막한 허공에 우주정거장에 몸을 싣고 월세계 여행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인류를 꿈꾸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필자(筆者) 서울공대 전자공학과(電子工學科) 주임교수(主任教授))

# 1958년(年)의 우주과학(宇宙科學)

- 우주세기(宇宙世紀) 제2년(第二年)의 전망(展望) -

서동운(徐同運)

1. 머리말
2. 우주(宇宙)의 한계(限界)
3. 중력권(重力圈)을 벗어나기까지
4. 연료문제(燃料問題)
5. 공간정류장(空間停留場)
6. 우주과학(宇宙科學)의 영역(領域) 및 전망(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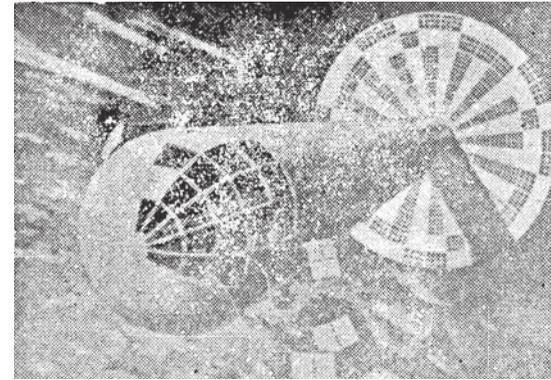
## 1. 머리말

1957년은 인공위성의 발사라는 인류과학의 일대 도약을 이루었으며, 지금까지 수천 년 인류가 꿈꾸고 갈망해 오던 우주여행의 제1보를 디터놓았다는 의미에서 인류역사상 영원히 기억될 1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주로의 첫 발걸음을 디딘 인류는 제2년인 1958년에는 과연 어떤 업적을 거둘 것이며, 우주정복의 과정에서 어떤 이정표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바야흐로 전 인류의 주목과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다.

여기서 우주정복 또는 우주여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 분야에 속하는 우주과학(Space Science), 정확히 말하자면 공간과학의 범주와 그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우주세기 제2년에 해당하는 1958년에 인류 과학이 갈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우주(宇宙)의 한계(限界)

우리가 우주라고 부를 때는 그 의미와 한계가 극히 막연하다. 우주(universe)라는 개념은 고대 인류문화의 창조 때부터 유래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관념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장구한 변천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했다는 현대에도 아직껏 신빙할 만한 우주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막연한 가설의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한계가 가지각색이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를 우주라고 보며, 또는 태양계가 속하고 있는 은하계 성운을 우주의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는, 우리 태양계가 속하고 있는 은하계 성운을 최소한 수백억 또는 수천억 포함하고 있는 우주를 말한다. 이 우주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연역해 낸 팽창우주론이 가장 믿을만한 것이다. 이 상대성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현재 굉장한 속도로 팽창해가고 있으며 동시에 우주는 등글다는 것이다. 우주의 크기는 세계 최대의 망원경이라는 미국 윌슨 산 천문대의 망원경으로도 2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성운밖에 볼 수 없으므로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먼 곳에 있는 성운이 태양계로부터 멀어져가는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이른바 'Doppler 효과'를 이용해 산출해낸 결과, 우주의 끝은 지구(또는 태양계)로부터 약 60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60억 광년이라고 한마디로 해치워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인지 잘 생각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구가 속하고 있는 태양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태양계의 맨 가장자리에 있는 명왕성으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광속도로 해서 5.5시간에 불과하며, 우리 태양계가 속하고 있고, 약 1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은하계의 크기가 10만 광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대개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우주를 여행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문제이며, 불과 60년 내지 100년의 수명밖에 가지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우선 태양계 내

부에서의 여행이 장차 10년 또는 수십 년 앞날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인공위성이 현재 시속 약 3만 킬로의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한 속력같이 들린다. 하지만 이 속도로 지구로부터 태양계 끝인 명왕성까지 가려면 실로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태양계 밖의 은하계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별이 지구로부터 약 120광년 떨어져 있으며, 광속도로 간다 해도 12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된다. 물론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4차 천(天) 공간에 있어서의 속도와 시간의 상대법칙에 의해 실제 우주선을 타고 날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은 크게 단축이 된다고 한다. 아무튼 기십(幾十)년의 수명 밖에 가지지 못한 인간이 태양계 밖의 공간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은 아직껏 백일몽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3. 중력권(重力圈)을 벗어나기까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다’라는 철학적 명제가 있다. 하지만 우주과학의 견지에서, 인간이 받는 시간적 제약이 이상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다면 공간적 제약은 어떤가? 우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을 지구인력, 즉 중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끈으로 매어놓고 있는 지구중력권으로부터의 탈출이다. ‘Newton’의 제2운동법칙에 의해 중력 또는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또는 감속도)로서 측정할 수 있으며, 지구표면상에서는 질량 1와당(一瓦當) 980cm/sec<sup>2</sup>의 가속도를, 힘으로 표시하자면 980 다인(dyne)을 지구로부터 인력으로서 받는다. 이 중력 때문에 공중으로 던진 물건은 감속을 받아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며, 굉장한 초속으로 발사한 로켓이라도 상공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속도가 점점 떨어져 결국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발사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상승할수록 그 속도는 점점 떨어지겠으나, 그 속도가 영(零)이 되기 이전에 지구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먼 거리까지 탈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 중력은 지구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지구로부터 아주 먼 공간에서는 지구인력의 크기가 거의 영 가까이 되며, 또 타(他) 천체로부터의 인력이 지구인력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떤 물체가 중력권을 완전히 탈출하는데 필요한 초속도를 계산해보면, 지구표면을 떠나는 순간의 초속도가 시속 4만Km

즉 초속 약 1.1Km 이상의 속도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을 로켓의 추진력으로 환산한다면, 물체 1파운드당 약 1,000파운드의 Thrust(추진력)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로켓 발전단계로 볼 때,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 소련이 제2 Sputnik(인공위성) 발사에 사용한 로켓으로서, 직접 달을 향해 쏘는다면, 원자폭탄의 무게를 가진 물체 정도는 충분히 달세계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우주여행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것도 그다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간과 그가 필요로 하는 식량 그 타 여러 가지 기구 및 지구로 귀환하는데 필요한 여분의 로켓연료까지 신게 된다면 상당한 중량이 될 것이며,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중력권 밖으로 탈출시키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인간이 받는 공간적 제약이라는 것이, 비단, 중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력 다음에 오는 것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문제다. 이 대기권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여유를 갖지 못하므로 흥미를 갖는 독자는 필자가 이미 타지에 발표한 것(동아일보 작년 10월 14일자 및 한국일보 10월 19, 20, 21일자 소재(所載)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간단히 말하자면 초고속으로 돌진하는 운반체와 대기와의 마찰로 발생하는 고열처리문제다. 특히 이것은 우주여행으로부터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초내열금속체(超耐熱金屬體)의 연구발전 및 활주귀환방식(滑走歸還方式)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고찰되고 있다.

### 4. 연료문제(燃料問題)

우주과학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켓의 연료문제다. 1958년도의 우주과학에서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이 연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로켓 연료로서는 휘발유와 액체산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액체연료는 그 부피가 크고, 또 그것들을 연소시키는 데는 많은 펌프와 복잡한 개폐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의의 고장이 발생하기 쉽다. 작년 12월에 미국이 인공위성 Vanguard 시험·발사에 무참히 실패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액체산소를 보내는 변장치(辨裝置)의 고장이라는 사소한 사고에 기인했던 것이다. 여기에 착안된 것이 고체연료의 사용이며, 미소 양국이 혈안이 되어 비밀리에 추

진하고 있는 것도 실용적 고체연료의 실용화에 있다.

고체연료의 장점은 밀도가 커서 부피가 적기 때문에 운반체의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액체연료와 달리 복잡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적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곤란한 단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연료에 따라 고형체에 균열이 생겨 연소부가 내부까지 침입 확대되어 순간적으로 폭발을 야기할 우려가 많으며, 둘째로 외부 표피부부터 연소하기 때문에 이에 접촉해 있는 원통 용기부가 고열을 받아 취약해지기 쉬워 원통용기를 특히 두껍게, 따라서 무겁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고체연료에 고무 화합물을 섞어줌으로써 탄성을 갖게 해 균열발생을 방지하고, 또 구멍을 뚫어서 고체물 중심부로부터 연소를 시킴으로써 용기부를 고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등이 속속 연구되고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된 사용성을 가진 고성능 고형연료가 실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체연료의 발달에 따라 로켓의 추진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재래식 연료에 비해 고유충격력(Specific Impulse)이 월등히 큰 새로운 화합물의 발견, 발명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자력을 이용한 로켓 방식도 최근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덧붙여 둔다.

## 5. 공간정류장(空間停留場, Space platform)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우주정복에 떠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무거운 짐을 싣고 중력권을 벗어나는데 충분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 장치 및 연료 문제이며, 다음에는 우주여행을 마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할 때 대기와의 마찰로 인한 고열의 발생으로 유성의 말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재입(再入, Re-Entry)문제 또는 귀환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주여행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중력권, 대기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500마일 이상의 상공에 공간정류장(空間停留場)을 두는 안(案)이 논의되고 있다.

대기권은 대략 30마일 상공까지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기의 밀도와 압력이 극히 희박해져 진공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그러나 300마일 상공까지는 이들 희박한 공기의 존재라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인공위성이나 사람이 탄 공간정류장이 상당한 기간 비행을 계속하려면 그 궤도가 적어도 500

마일 이상의 상공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 전에 이론적으로 추측한 바로는 인공위성의 궤도가 지상 300마일에 도달하면, 위성의 수명이 1년 이상 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평균 350마일 상공을 돌고 있던 sputnik 제1호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돌지 못하고 대기권으로 돌입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타버린 결과로 본다면, 300마일 정도의 상공에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미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력에 관해 말하자면, 지구의 반경이 약 4,000마일 정도이므로 지상으로부터 약 4,600마일 상공으로 올라간다면, 지구의 중력은 반으로 줄어든다. 중력의 감소뿐만 아니라 대기권에서 받던 공기의 저항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추진력을 가지고 훨씬 큰 추진력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거대한 인공위성을 수천 리 상공에다 띄워주고, 식량·기재·연료 등을 비교적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공간정류장까지 일일이 올려가서, 거기서 우주선을 조립하고 식량·연료를 싣고 우주여행으로 떠난다면, 태양계는 물론, 태양계 바깥 공간까지 탐색한다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못될 것이다. 초음속으로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또는 공간정류장 내에서는 지구의 중력과 위성의 원운동에서 나오는 원심력이 서로 평균이 되어 모든 물체가 무게를 갖지 않게 되므로 기재를 분해해서 목적궤도 근처에 띄워 놓기만 하면 이를 수집·색인(牽引)·조립하는 데는 거의 힘이 들지 않으며 누워서 떡먹기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됨은 흥미로운 사실이라 하겠다.

공간정류장은 이상에서 말한 우주여행의 발판으로서만 아니라, 지구의 주위를 끊임없이 돌면서 지상의 모든 현상을 감시할 수 있다. 이것을 TV로서 직접 지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치도 있으며 동시에 지형의 관측, 천체의 관측 및 각종 방사선의 측량 등 우주물리학·지구물리학적 가치도 간과할 수 없다.

## 6. 우주과학(宇宙科學)의 영역(領域)과 전망(展望)

우주과학은 현존하는 어떤 특정한 한 과학 분야에서 파생 또는 전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현대과학의 전 분야를 집대성한 종합과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모든 과학 분야의 조화된 원만한 공동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주간 모든 물체 사이에는 작용하는 역학적 권리 및 열(47면으로 이음)

# 1958년(年)에 북한괴뢰(北韓傀儡)가 기도(企圖)하는 것

박성환(朴聖煥)

해방된 지 12년째 되며, 비극적인 휴전이 성립된 지 4년째 되는 해였던 1957년도 우리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해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무위하게 지나가 버렸다. 155마일에 달하는 휴전선은 쌍방이 여전히 총부리를 겨누는 채 더욱더 견고해지기만 하고, 남북한의 분단은 한층 더 영속화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북한괴뢰는 그동안 불법적인 남침으로 산산이 깨진 군비를 재정리, 강화하는 동시에 괴뢰군은 제트기를 비롯한 현대무기로서 장비하기 위해 광분해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다시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휴전이 성립될 당시의 북한괴뢰의 병력과 군비는 그야말로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무기와 신장비의 도입을 금지하는 휴전협정 조항을 무참히 짓밟고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그의 군대를 증강해왔다. 그들은 북한 전체에 걸쳐 수십 개의 비행장을 건설했고 MIG-17과 MIG-19 등을 비롯한 수백 대의 최신식 제트기 및 폭격기들을 도입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괴뢰군에게 원자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잠수함까지 도입해 여러 곳에 잠수함기지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중공군 약 40만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했다 한다. 이는 북한이 보유하는 병력이 감축되었음을 의미함은 사실이라 하겠다.

반면에 그것은 북한괴뢰가 그의 군대를 우리의 국군과 대항해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화·재편성을 완료하고, 화력을 대폭 증강했음을 입증해 주는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북한괴뢰는 휴전 후 4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이용해 군대를 확충·강화함으로써 또다시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 국군은 휴전협정에 일방적으로 얽매인 나머지 그의 병력이나 장비가 완전한 답

보상태에 박혀있다.

최근에 UN 군 당국이 이런 불합리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신무기도입을 금지한 휴전협정 제13조 D항을 폐기하는 용단을 내리고, 주한미군사단을 원자탄에 적용할 수 있는 펜토믹<sup>19)</sup> 사단으로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상태를 메우기에는 요원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북한괴뢰는 다수의 폭격기들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초조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북한괴뢰가 또다시 남침을 감행한다면 6.25 당시와 같이 기습공격으로 나올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때 만약 폭격기들을 동원해 공격해 올 것을 생각한다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의 군사정세를 개관할 때, 북한괴뢰 공산군은 또다시 강화되고 현대화되었으나, 그에 대항하는 우리 측의 방비 태세는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가운데 북한 공산군은 언제라도 한번 남침을 시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일시적이거나 군사적 균형상태가 공산측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가운데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괴뢰는 이런 군사적 불균형상태의 틈을 타서 또다시 남침을 감행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북한괴뢰는 동유럽 위성 여러 나라를 비롯한 다른 위성 여러 나라와 같이 소련의 앞잡이이며 괴뢰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괴뢰는 괴뢰의 지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한 노예이다. 북한괴뢰는 소련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괴뢰가 남침을 감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괴뢰 자신이 아니라 소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반적인 세계정세를 살펴볼 때 소련이 자유세계와의 결전을 시도할 만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은 확립된 견해이다.

물론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으로서의 세계 전체를 일대 충격과 경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것만은 사실이다.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과학적, 혹은 심리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지닌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으나, 한편 냉정한 군사적 면에서 따져 볼 때 그것은 그다지 큰 의의를 가진 것이 아니다.

19) Pentomic

미국은 유럽 대륙 전역에 또한 극동을 거쳐, 미주대륙으로서는 캐나다 및 알래스카 반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대소(對蘇) 포위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 광대한 대소포위망 상에 이미 증폭격기 기지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발판 삼아 항공거리 1,500마일의 B-47 제트 폭격기들을 배치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관측에 의하면, 이 B-47 제트 폭격기들은 소련 내의 중요한 목표들의 95%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련으로서는 비록 원자 및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그에 따라 사정거리 1,500마일 내외의 대륙간 탄도유도탄을 완성했다는 큰소리가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군사적□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소련도 이제 원자 및 수소탄을 미국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이 장거리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련도 이제 군사적으로 겨우 미국과 겨루어 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련은 군사적으로 아직도 미국과 대결할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뿐만 아니라 소련이 현재 정치적으로 심각한 고민과 난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련공산당 제1서기 니키타 흐루쇼프가 지난해 그의 강력한 정적(政敵)이었던 말렌코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등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오랫동안 소련의 실권자로 지목되어 오던 주코프까지도 숙청해버림으로써 그의 행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성공한 것만은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가 몰로토프 등의 볼셰비키의 원로들과 거대한 소련육군을 손아귀에 쥐고 있던 주코프를 그와 같이도 일거에 숙청해 버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여러 가지고 폭발적인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씨를 뿌려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흐루쇼프는 비록 큰 소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그의 정치적 지위는 현재로서 결코 안정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흐루쇼프는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스탈린 사망 후의 여러 가지 이념적 내지 사상적 부조에 덧붙여 헝가리 혁명과 그 밖의 봉기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산세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흐루쇼프는 앞으로 동요하는 공산권을 수습하는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는 바, 그가 이 곤란한 과

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소련은 아직도 자유세계에 맞서 싸울 만한 역량도 없을뿐더러 싸울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다는 것이 소련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북한교뢰가 소련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소련의 완전한 노예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남한침공을 감행할 수 없으리라는 결론도 있음직하다.

마치 이를 입증해주듯이, 지난해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 교뢰는 한편에서 그의 군비를 강화하면서 간첩·첩자 등을 통해 대대적인 남한침투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 또한 그들은 '평화통일'의 달콤한 구호를 내세워 일부 몰지각한 지식층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도하면서 거액의 공작비를 써가며 관계, 학원, 심지어는 군부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각계각층에 침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작년도에 경찰 및 그 밖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적발된 무수한 간첩사건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교뢰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교뢰의 수령 김일성은 박헌영, 이강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남조선공산당' 파를 숙청해 버린 바 있으며, 최근에는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까지 완전히 제거해 명실공히 일인독재를 완성했다고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소련을 상적으로 모시고 있으나 군사적으로는 중공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는 김일성의 입장에 따져볼 때 좀 수궁하기 어려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소련과 중공이 이념적으로 혹은 실제적인 이해관계상 상극을 일으키고 있다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한낱 희망적인 억측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해주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좌우간 김일성을 두목으로 하는 현재의 북한교뢰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미묘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그가 남한침공의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 어떤 구실을 가지고 어떤 모험을 감행해 또다시 남침을 시도할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우리가 명심할 것은 독재자들이 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정세 판단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교뢰의 강화되어가는 남한침투공작을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어떤 적의 공격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 자축인묘(子丑寅卯)의 유래(由來)

편집실(編輯室)



무술(戊戌)의 한해는 그 전권(全權)이 개에게 속하는 해이다. 그러므로 개는 천하를 호령할 것이니 쥐, 소, 범, 토끼, 용 따위 열두 분의 금수간부(禽獸幹部)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실없이 잘난 체 떠드는 버릇은 모두가 제 신분(身分)을 모르는 탓이므로 내가 이제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職分)을 밝혀서 잘못이 없도록 잠

깐 여러분의 선조(先祖) 때 이야기를 하련다. 고양이는 간부가 아니니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 지금 우리들의 대단한 벼슬 - 곧, 자(子), 축(丑), 인(寅), 묘(卯)란 감투는 대체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가? 그 내력을 밝힘으로써 모든 문제는 간단히 풀릴 것이니라. 우리 견문족보(犬門族譜)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아득한 그 옛날 우리의 수백대(數百代) 선조(先祖) 되시는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던 시대였다.

그때 이미 인간은 그 뛰어난 지혜와 착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만물지중(萬物之中)에 오로지 하나 최고로 월등한 지위를 획득했던 것이니, 하느님께서 조물주(造物主)에게 특명(特命)을 내려 인간에게 만물을 영도할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가장 신실(信實)한 동물 열을 뽑아서 사람을 보호케 하라 하셨다.

조물주께서는 곧 천하(天下) 동물들에 이 취지(趣旨)를 포고(布告)하고 내일 아침 일찍 참궁(參宮)하라 하셨다. 참으로 여기에 뽑히는 동물은 자손만대(子孫萬代)에 전하는 영예(榮譽)의 관(冠)을 얻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 이튿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貓)는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제가 제일먼저 일어나 제일위(第一位)의 벼슬을 얻고자 미처 낮도 씻지 않고 조물궁(造物宮)으로 향했다.

한편 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량스럽고 염치없는 경솔한 동물인지라 그만 밤사이에 조물주의 포고를 잊어버리고 새벽이 되어 우물가에서 낮을 씻고 있느니라니까, 고양이가 아주 바쁘게 걸어오기에 하도 이상해 이른 아침에 어딜 가느냐고 길을 막고서 물으니 조물궁에 가노라고 했다. 쥐는 그제서야 제가 그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고양이를 속여 돌려보내고 제가 일등을 하리라는 생각으로 시치미를 딱 떴고

“자네, 오늘 아침엔 헛걸음 했네. 조물주께서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어제 밤에 하느님한테로 가셨는데, 내일 아침에 돌아오신다고 하셨다네.”

고양이는 그만 맥을 잃고서

“정말이야?” 하니, 쥐는

“정말이지, 이게 어떤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어?”

이 말에 약삭빠른 고양이는 밤눈이 어두워 그만 돌아가고 말았다.

고양이를 속여 보낸 쥐는 재미도 나고 또 자신도 얻고 해서 ‘어디 여기서 오는 동물을 모조리 속여 돌려보내고 내 혼자만 가서 특별한 벼슬을 얻어야겠다.’ 고 생각하고 있을 때 소가 뚜벅뚜벅 걸어오기에 쥐는 모른 척 하고

“소 영감, 어디 가세요?” 하니

조물주님한테 간다.” 고 한마디 던지고 그냥 걸어간다.

쥐는 뛰어 따라가며

“가야 헛일인데요.”

하고 지난번 고양이에게 쓰던 수단을 써보았으나, 소는 그때나 지금이나 꾸준하고 근실한 천성(天性)이어서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내가 직접 가 봐야지.” 하면서 속지를 앓았다. 쥐는 하는 수 없이 소 등에 올라탔다. 소는 몸이 워낙 커서 쥐 한 마리쯤 붙어야 붙은 등 마는 등 조물궁에 들어가니 다른 동물은 아직 하나도 오지 않았었다.

조물주께서는 소보다도 날랜 짐승이 허다한데도 소가 제일 먼저 온 것을 오직 그의 부지런함이라 대단히 치하(致賀)하시고, 제일 위의 벼슬을 주려고 하실 때 쥐란 놈이 어느 사이에 소 앞다리 사이에서

“제가 먼저 왔습니다. 워낙 조그마한 동물이기에 조물주님 눈에 띄지 않았는가 봐요.” 하고 알뜰게도 알랑거렸다.

소는 당장에 고놈의 쥐를 밟아 없애버리고 싶었으나 감히 조물주 앞이라 하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조물주는 가장 작은 짐승이 제일 먼저 온 것을 치하하고 쥐에게 제1위(第一位)를 주고 소에게는 제2위를 주었으니, 이때부터 동물의 가장 높은

벼슬은 - 자(子), 축(丑)……의 순위로 결정이 되었던 것이다.

취와 소가 이려고 있을 무렵에 범(虎)의 선조(先祖)는 그때도 역시 날짜기로 천하 제일이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해 바람을 헤치고 달려오는데, 도중에서 토끼와 마주쳤다.

“범 아저씨 저도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토끼가 애원(哀願)하므로 범은 곧 그놈의 귀를 냉큼 잡아 쥐고 최대 속력을 발휘해 달렸기 때문에 토끼의 귀가 길다랗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뒹다리도 길어지고 말았다.

날짜기로 천하제일을 자랑한 범은 부지런한 소에게는 당하지 못했으나, 조물주께서는 범에게 제3위, 토끼는 범의 덕분으로 제4위를 얻었으니 자축, 인묘이다. 그러자 용(龍)이 뱀을 데리고 입궁(入宮)했다. 용이나 뱀은 원래는 둥근 동물이었다. 재주 많은 용이 구름을 타고 달려오자 뱀이 또한 저도 함께 데려다 달라는 애원을 했다. 용이 가만히 보니 뱀은 자기와 같은 둥근 동물인지라 크게 동정해 그와 같이 바람을 타고 하도 빨리 날았기 때문에 둘 다 기다랗게 늘어졌던 것이다. 조물주께서는 도착 순서대로 용에 제5위, 뱀에 제6위를 주었으니 자축, 인묘, 진(辰), 사(巳)……

지금도 뱀이 조금이라도 여가만 있으면 둥근 모양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이리해 자축인묘진사 여섯 동물을 골라내니 해는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물주께서 점심식사 하러 들어가신 뒤 말(馬)이 나타났다. 말은 점심시간을 기다리다가 지루해 제일 앞에 앉아서 졸고 있노라니 식사를 마치신 조물주께서는 말의 태도를 보고 노기(怒氣)를 띄우시며,

“네 이놈! 감히 누구의 앞에서 낮잠을 잘꼬!” 하시니 깜짝 놀라서 일어난 말은 머리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렸다.

“당장에 목을 벨 것이로되 오늘은 경축일(慶祝日)을 기념해 특히 용서하니, 너는 한평생 눕거나 앉아서 잠을 자지는 못하였다.” 하시니, 백배천배(百拜千拜)를 하고 난 말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공손히 대답했다. 조물주께서는 상은 상대로 주어 말을 제7위에 앉혔다.

이때 같이 왔던 염소는 말이 꾸증을 단단히 듣는 것을 보고서 제가 잘난 듯이 “에헨, 에헨!” 하고 수염을 쓰다듬으니, 조물주께서는 그 알미운 태도를 꾸증하신 뒤

“너는 아랫수염은 기르되 윗수염은 없애 버리고 평생(平生) 물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에게도 여덟째의 자리를 주셨다.

때마침 나뭇가지에서 재롱을 부리며 놀고 있던 원숭이가 조물주 앞으로 달려와서 “저도 넣어 주십시오.” 하고 애걸지원(哀乞志願)하므로 그의 모양은 사람에게 근사하고 재주는 오히려 사람을 능가할 우려가 적지 않아

“너는 사람을 보호하되 멀리 산에서 열매나 따 먹고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동물이 있으면 속히 연락이나 하도록 하거라.” 하시고 아홉째 자리에 앉혔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 자리에는 어떤 동물이 올 것인가 하고 모두들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뒤뜰 감나무 가지에서 아름답게 몸차림을 하고 있던 닭이 꼬끼오! 하고 노래를 부르더니 후르르 날아 어전(御前)에 선다.

본시 날짐승만은 넣지 않기로 했던 것이지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닭은 주로 날아다니지도 않으며, 그 마음과 화려한 모양을 볼 때 사람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마지막 열 번째의 자리에 앉혔다.

이리해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의 직위 임명이 끝났다. 이 경사를 축하(祝賀)하기 위해 간단한 술자리를 베풀었다.

“술상 가져오너라.”

◇ ◇

그런데 이때 우리 선조께서는 긴급한 용무로 그만 늦게서야 조물궁에 나갔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할 수 없이 그냥 가려는데 ‘술 가져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 우리 조상께서는 곧 시녀(侍女)들이 대답할 사이도 없이 “예, 여기 술(戔)이 대령했습니다.” 했다. 조물주께서는 “하,하” 호걸웃음을 하셨다. 우리 선조의 거동을 본 시녀들도 술상을 든 채 “해, 해” 웃어댔다. 그러자,

“예, 여기 해(亥)도 대령했습니다.”

하며 나팔 같은 입을 가진 돼지가 다시 어전에 절을 했다.

“오냐 열하나, 열둘의 자리를 줄 테니 끝에 가 서있거라.”

하시는 조물주의 말씀에 떨 듯이 반겨 끝자리에 섰다.

조물주께서는 열두 동물을 향해 “너희들은 이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순서대로 하루에 두 시간씩 교대해 사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람을 해하려 할 때는 천벌(天罰)로써 엄하게 벌을 주겠노라.” 하셨다.

이런 행사가 있는 후 오늘까지 일편단심(一片丹心) 충성을 다해 온 소와 말이 있고, 토끼, 염소, 돼지와 같이 사람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서 살아온 짐승도 있으며, 어김 없이 시간을 알려주는 닭도 있으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수비하는데 밤잠을 자지 않는 우리(개)도 있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원수와 같은 죄를 지은 쥐는 무게 없이 까 붙고 속임수만 일삼다가 사람에게도 신용을 얻지 못한 위에 응당,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면서도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지어놓은 곡식을 훔쳐 먹으니, 이제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사랑해 그를 사켜 쥐의 섬멸을 꾀하고 있는지라, 머지않아 쥐의 자리에 고양이가 들어 설 날이 올지도 모른다.

X X

이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알았을 것이니 일거수일투족(一擧一投)에 본분(本分)을 잃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금년에는 내가 천하를 호령할 직책을 맡았으니, 나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전 짐승들을 지휘 통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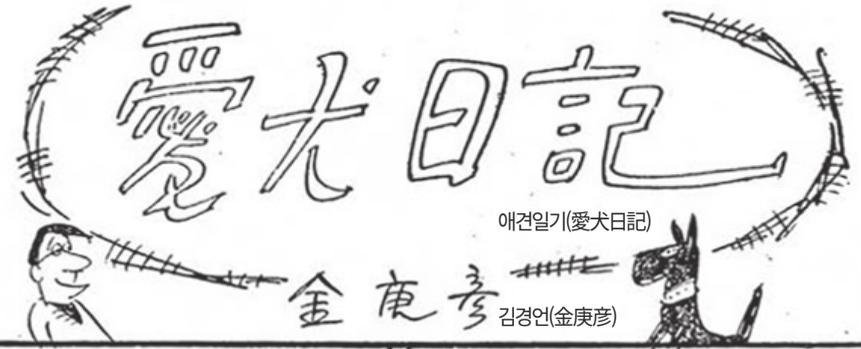
모두들 자기의 말은 바 직책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끝)

☆ 공포(恐怖)는 머리털을 빨리 자라게 한다

공포는 머리털을 더 빨리 자라게 한다는 일반인들의 신념은 스페인 의사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들은 투우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 시간 동안 투우사들의 수염이 보통 때보다도 2배 반이나 더 빨리 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5백명(五百名) 거느리고 항복(降伏) 바마 공산두목(共産頭目) 노승려(老僧侶)

바마 최대의 공산폭도 지도자 조그만 불교 승려 유 세인다는 부하 500명을 거느리고 드디어 항복해 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동부 파키스탄 국경선으로부터 이라와디 삼각주의 서단(西端)에 이르는 전 서해안지구를 지배해 오던 가장 열렬한 지도자로서, 신장은 겨우 5피트 2인치에 불과하며, 당년 55세, 35년 간 승려생활을 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세인다 씨의 가장 특이한 사실의 하나는, 그가 가장 치열한 반역운동을 통해 수천 명의 무장폭도를 지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만은 승려로서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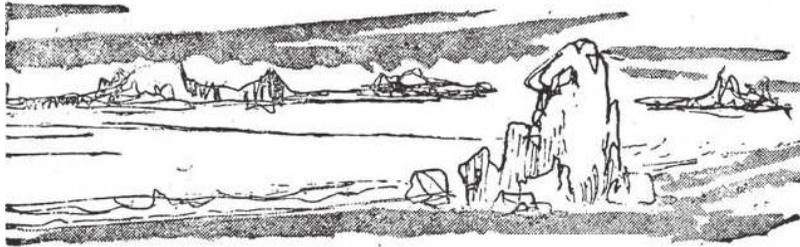
<시(詩)>

## 금문도(金問島)

- 가원분(柯遠芬) 장군(將軍)에 감사를 드리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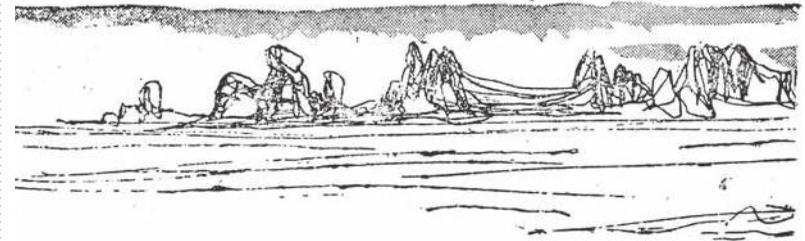
조병화(趙炳華)

그 옛날 이 섬 금문도는  
남지나해(南支那海) 일대에 출몰하는  
해적들의 본거지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섬 금문도는  
자유의 요새  
아시아의 아성  
극동의 창두보(槍頭堡)  
온 자유 아시아 시민들을 지켜주는 불면(不眠)의 섬이다



금문도는 작은 섬  
금문도는 나무가 없는 섬  
금문도는 바람이 많은 섬  
금문도는 암석만 남은 불모(不毛)의 섬  
금문도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풍(砂風)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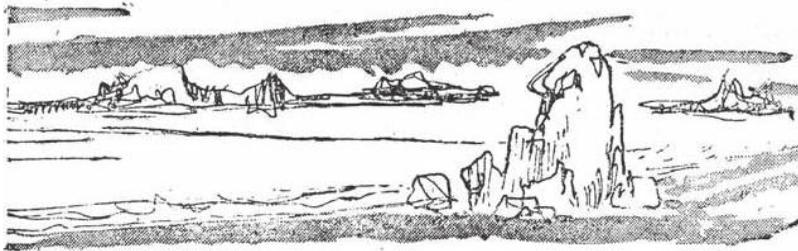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뜨거운 심장  
그런데 지금 이 나무가 없는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믿음의 수렵  
그런데 지금 이 바람이 많은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사랑의 성벽  
그런데 지금 이 암석만 남은 불모의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불멸의 의지  
그런데 지금 별판에, 봉우리에  
모래바람 만이 역센 이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피와 눈물과 땀과  
온 형제자매들의 뜨거운 사랑, 믿음, 의지, 약속  
한결같이 맑은 혈액이 흐르는 땅



지금 금문도 253고지 태무산(太武山) 봉우리 줄기 줄기는  
지금 금문도 해안선 구석구석은  
지금 금문도 한 별판 모래바람이 역센  
불모의 지하(地下) 지하는  
우리의 우방 뜨거운 형제들의 피 그리고 신경 그리고 의지  
그리고 생명

지금 금문도 태무산 산록(山麓)  
전몰군인(戰沒軍人) 사당(祠堂)엔  
피에 묻힌 형제들이 무망재거(毋忘在莒)속 깊이  
잠들어 있다  
단심천고(丹心千古) 벽혈천추(碧血千秋) 정기천추(正氣千秋)  
지금 이 영혼의 정원(영혼(靈魂)의 정원(庭園))엔  
바람도 잔다

풍선(風船)을 올린다  
풍선을 띄운다.  
바람에



그리운 육지(陸地)로 바람이 불면  
섬에선 풍선을 날린다

〈동포요! 선량한 동포요! 자유의 나라 이곳으로 오라!〉  
〈조직을 부수고 인간을 찾자 자유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곳으로 오라!〉  
〈방공 항아 민족의 나라 동포의 나라 이곳으로 오라!〉

그 옛날 이 섬 금문도는  
남지나해(南支那海) 일대에 출몰하는  
해적들의 본거지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섬 금문도는  
자유의 요새  
아시아의 아성  
극동의 창두보  
온 자유 아시아 시민들을 지켜 밤낮을 새우는  
불면(不眠)의 섬이다.



<시(詩)>

## 바위와 나비

박희진(朴喜璣)

한 크나큰 바위가 있다

쪽빛 하늘과……

눈부신 구름과……

나무 나무와……

흐르는 물과……

그리고 소리 없이

변갈아 뜨고 지는

해와 달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그러나 그것은 왔다

먼 하늘에서 내려진 사연처럼

꽃무늬처럼



흰 나비가 바위에 안겼을 때

순간

나비는 움짱도 안했고

바위는 살아 숨 쉬는 듯……

즈믄 해의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허나

이윽고 나비는 사라졌다

그리곤 다시

모모든 것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쪽빛 하늘과……

눈부신 구름과……

나무 나무와……

흐르는 물과……

마는 그때부터

바위엔 이끼가 끼기 시작했고

이내 영 잠들 수는 없었다



# 서경별곡(西京別曲) 평설(評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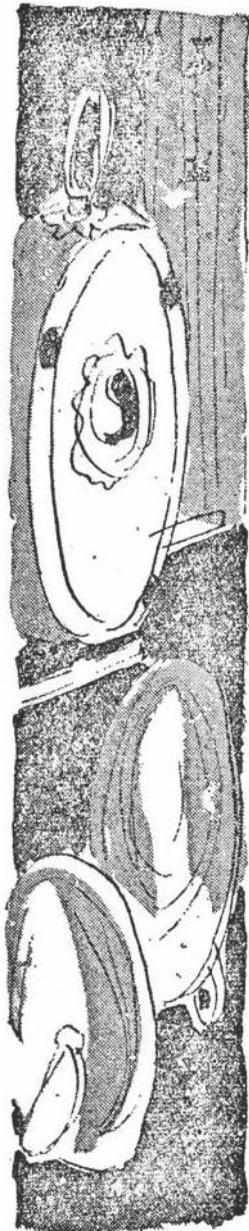
- 고요금석(古謠今釋) 2 -

양주동(梁柱東)

## 소서(小序)

편집 선생이 부탁한 글은 「미풍양속을 노래한 우리 고전 민요의 해설」이다. 그래서 생각건대, 우리 백의선민(白衣先民)의 고요(古謠)가 모두 선인(善人) 동방삭(東方朔) 「신이경(神異經)의 노래로서 어질고 신의롭고, 서로 사랑하는 고운 마음씨를 낙천·쾌활의 조(調)로써 자연스럽게, 꾸밈없이 그대로 나타낸 소리였거나, 어느 대(代), 어느 조(調)의 가요인들 스스로 미풍양속의 감발(感發)의 재료가 되지 않으랴. 가까이 조선 시대의 「아리랑」이나 「농가월령」등의 4:4 조의 소박한 가락이나, 올라가 고려 시대의 「정읍사」, 「동동(動動) 류의 3:3:3 조의 애절한 리듬이나, 내지 「처용」, 「풍요」 따위의 유원·심준(悠遠·深邃)한 머나먼 신라 시대의 고조(古調)가 모두 제각기 특색과 '멋'을 가진 채로 일관된 친진·구수, 또 이른바 '끈기'의 즐기찬 맥락과 정조를 띄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역대가요 중에도 속요로서의 절창(絶唱)은 아마 고려 시대의 노래에 집중되었다 하리라.

위에 잠깐 언급한 노래 - 집 떠나 행상나간 남편의 귀로를 걱정하면서 아내가 달밤에 산에 올라 노래한 「정읍사」나, 정월·2월·동지·선달의 달마다의 풍물에 탁해 고운님을 송양(頌揚), 연모(戀慕), 애소(哀訴)한 「동동」의 제련이나, 이른바 '충신 연양'의 비곡(悲曲)인 「정과정(鄭瓜亭)과 간결·소박한 어귀 안에 그지없는 '어이(親) 사랑의 애정을 도파(道破)한 「사모곡」 내지 남녀의 이별□연모의 장으로 고금의 압권인 「가시리」와 「만전춘(滿殿春) - 그 어느 것이 절창과 여조(麗調) 아님이 없으나, 그 중에도 성조의 미와 정사의 비측(排側)으로 가장 우



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청산과 서경의 두 「별곡」이다. 대개 전자는 유창한 리듬으로써 고금에 관절(冠絶)하며, 후자는 그 내용의 애뜻하고 간절함이 유작 중에 탁월하다. 본고는 그러므로, 우선 그 시상의 우수성과 현대성에 비추어 「서경별곡」 1편의 감상과 해설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시리」(「고요금석(古謠今釋) 1)에 속한 옛 원고를 약간 되손질 해 문책을 막는 소이(所以)이다. 「서경별곡」은 고려 시대의 속요로서 작자·연대 모두 미상이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경(평양)의 한 여인이 그 애인을 부득이 남쪽으로 보내면서 그 애꿎는 별회(別懷)와 굳건한 신의, 하염없는 정치(情痴)를 아울러 간절히 노래한 절창인데, 전면 3연(聯), 제1, 2연은 3:3:3조 각 4구, 말연(末聯)은 동(同) 6구로 되어있다. 어느 연이나 모두 절조(絶調)로 사람의 심금을 몹시 울려주지만 특히 그 제2연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끊어지리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 끊어지리까

는 그 가의(歌意)로나 성운(聲韻)으로나 과연 우리 역대 가요중의 최고의 일품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우리들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토 양단의 슬픈 정경에서 뜻 아닌 이별에 서로의 애를 끊고 한갓 남천을 바라보면서 옛날 서경의 가인보다 오히려 몇 갑절이 더 비슷한 비곡을 부를 이가 생각건대 과연 그 얼마로 그러나 작자는 이미 노래했다!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설마 끈이야 끊어지랴. 몇몇 해를 외따로 갈려서 산들, 하나로의 믿음이야 기어코 이루어지지 않으리.' 우선 하필 이 노래를 가려서 지나치리만큼 자세한 문학적 비평을 거듭 시험해 이 노래가 걸작인 이유를 해설해 보는 미의(微意)의 일반(一半)이 아마 여기 있다 하라.

1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닫근대 쇼성경 고요마른  
여해르론 질삼뵈 바리시고  
괴시란대 우러곰 준니노이다

첫 연은 부(賦)이다. 장차 서경의 애꿎는 별한(別恨)을 서(叙)할 새, 붓을 어디로부터 비롯하랴. 대체로 서사와 서정엔 늘 층절(層折)이 있고 워낙 차서(次序)가 있는 법이니,

별을 서하되 곧 별을 직서치 않고 짐짓 그와 반대로 임과 따름을 먼저 서함은 비단 여희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그러할 뿐만이 아니요 또한 문정(文情)이 불가불 그래야만 하는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고 이 한 많은 서경의 별의(別意)를 대번에 곧 남포(南浦)의 단장(斷腸)으로 써(寫)한다면, 문심(文心)은 그 정한에 대한 아무런 점층적 활동이 없이 너무나 당돌·경솔함에 그 품위를 잃어버릴 것이요, 독자는 이 이별에 관한 어떤 예비적 정서를 가짐이 없이 애초부터 창졸·착급(倉卒·着急)함에 도리어 낭패 볼 우려가 있으리라.

‘서경이 본디 서술이언만, 새도 닦은 소경을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언만, 이렇게 고운 입을 여희므로 차라리 질삼뽕을 버리고 사랑하시기만 하량이면 어디까지나 울면서 입을 따르겠노이다.’ 대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떠나기 어려운 곳은 자(자)의 향토요, 더구나 여인에게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은 저들의 질삼이다. 그렇거늘 이 버리기 어려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버리고서라도 단연코 입을 따르려 함은 대개 연모의 지정을 먼저 서(叙)함이니, 이는 장차 애끓는 별한(別恨)을 서함에 있어서 그 전제적 요건이요, 또 예비적 수단이다. 더구나 본연은 사의(詞意)가 처절하되 서사는 애초에 인정의 기미를 떠나지 않고, 정사(情思)가 배측(排側)하되 소재는 스스로 여공의 직사(職事)를 벗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한갓 죽지(竹枝)의 절조일 뿐이 아니요 또한 구시(鬪詩)로도 정종(正宗)이라 이를 것이다.

별을 서하려 해 먼저 님을 따름을 서할 새 이 또한 양양(兩樣)의 의사를 우(寓)했으니, 하나는 애끓는 별한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자 한 번 더 은근히 입에 해행(偕行)을 원한 것이니 이는 본연의 정면적 의사요, 다른 하나는 이 별(別)이 진실로 무내(無奈)임을 알새 짐짓 본회를 술(述)해 현실과 대조함이니 이는 그 이면적 경지이다. 그리하여 가자는 이 수 연에서 이 무가내하(無可奈何)의 이별의 원인이 진실로 피미(彼美)에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어느 틈에 내사(夾寫)해 글자대로 여원여모(如怨如慕)의 정서를 완전히 표현함에 성공했거니와, 한편으로 우리는 뜻밖에 이 한빈유녀(漢濱遊女)의 가사에서 다른 것 아닌 춘추 작자(春秋作者)의 필법을 엿보게 되니, 또한 일기(一奇)라 할 것이다.

2

구스리 바회에 디신달  
긴히던 그츠리잇가  
즈믄 해랄 외오곰 녀신달

## 신잇단 그츠리잇가

다음 연은 흥(興)이다. 이전 연에서 우리는 차별이 무내(無奈)임을 알았다. 입을 좇음이 진실로 소원이건만 그를 얻지 못하매 오직 별(別)이 있을 뿐이나, 별을 서(緘)하기 전에 다시 무수(無數) 총면(總緝)의 정과 허다(許多) 은근(殷勤)의 사(辭)가 없지 못할 것이니, 이는 본가의 용의가 원래 위도(魏都)로 직주커나 자오곡(子午谷)을 질러가는 기병의 술(術)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맹진(孟津)을 건너고 위빈(渭濱)에 둔전(屯田)코자 하는 정사(正師)의 법을 택한 이상 부득이한 일이다. 그러면 무엇으로써 이 총면과 은근을 간결히 또한 인상적으로 표백하라. 가로되, 별이 무내면 오직 후약(後約)이 있을 뿐이요, 후약이 정녕(丁寧)하면 응당 산맹(山盟)과 해서(海誓)가 있을 것이나, 후약은 매양 지루하기 쉽고 산해의 맹서는 흔히 범용(凡庸)에 흐르기 쉬운 법이니, 이 경우에 적당한 사는 무릇 지리·범용하지 않은, 가장 청신가희(清新可喜)한 천뢰적 필치(天籟의 筆致)임을 요한다. 그러므로 가자(歌者)는 본연에서 문득 인의(人意)밖에 나서 기주(璣珠)와 영락(總絡)을 기흥해 신(信)의 불유(不渝)를 맹세한 것이다.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어이 끊어지리이까. 천년을 외따로 가신들 신(信)이야 어이 끊어지리이까.’

무릇 흥의 묘체(妙體)는 대개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기흥의 정조(情調)가 서정의 내용과 긴밀히 교섭되면서도 그 형식은 어디까지나 일부터 경유적(景遊)이 아닌, 극히 자연스러운 어세(語勢)라야 할 것이요, 또 하나는 기흥의 소재가 사뭇 생생해 사람의 의표에 나오면서도 실은 극히 항다반(恒茶飯)의 목전(目前)의 사실에서 취재되어야 할 것이다. 약언(約言)하면, 흥이란 소(疎)한 듯 친해, 속(遠)한 양 근(近)하고, 기(奇)하되 범(凡)하며 졸(拙)한 채 공(工)한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이제 본연을 보건대, 신의 불유(不渝)를 서하기 위해 문득 바위 위에 떨어진 구슬로서 이를 기흥한 것은 전혀 작위의 흔적이 없고 조금도 고의로의 공유인 감이 없되, 그 취재(取材)가 애초에 청신·순박하고 그 격조가 사뭇 완전·치절해 사람으로 해금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고, 또한 눈물겨운 감동을 발하게 하니, 차종(此種)의 흥법은 저 모시(毛詩) 300편 중에도 그 유례를 찾지 못할 것이다. 작자가 하필 바위에 떨어진 구슬을 취재케 된 것은, 물론 장차 증절되려는 가자(歌者)의 애끓는 정연(情緣)을 이에 의해 스스로 슬퍼함이나, 그 착상의 동기는 또한 당시 여인의 몸에 구슬과 끈을 흔히 장식하고 성장(盛裝)한 채로 등고·유산(登高·遊山)하던 습속이 있던 것을 상기할지니, 대개 이 기흥은 그자 추상적 비유나 벽공(壁空)의 선출이 아니요, 본디 일상생활의 관유의 사건을 수수로 엮출해 심상히 이를 심상히 이를 차래(借來)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부착(斧鑿)의 흔적이 없는 극히 자연스러운 취재인 것이다.

본연은 더구나 우리 선민의 신의를 여실히 보이는 절조로서, 가장 사람의 폐부에 깊이 침윤되는 애절·처절한 정조(情調)와 성운(聲韻)을 가졌다. 거기에 사용된 말이나 그상이나 조가 하나도 재래 우리 문학 대부분의 통폐인 한취(漢臭)가 없고, 이야말로 본원적인 생래의 순 한국적 정취와 상념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두 시구를 풍영(飄詠)해 볼 때, 그것이 한낱 서경 죽지(竹枝)의 일련(一聯)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어느 틈에 고인의 예술적 심금에 곧바로 접촉하는 동시에 그 숭고한 심사, 그 깨끗한 신의감에 혼연(渾然)히 융회(融會)함을 느낀다.

‘긴히단’의 ‘긴’과 ‘신(信) 잇단’의 ‘신’이 두운의 효과를 12분(分)으로 발휘함을 변설(傾說)할 것도 없으리라. 차종의 두운법은 이른바 천의무봉(天衣無縫)으로 오직 여러 번의 낭영(朗詠)만이 그 완전(宛轉)한 성조미(聲調美)를 깨닫게 한다.

이상 수연과 차연에서 가자(歌者)는 아직도 직접 ‘별’에 관해 한 마디도 누설함이 없다. 곧 초연에서는 입과 함께 좇음을 서(叙)라고, 2연에서는 신이 부절(不絕)하기를 서약했을 뿐, 그러나 우리는 이 양연으로써 이미 ‘별(別)’의 일보직전에 입한 것을 충분히 의식하게 되었으니, 환연하면 장차 결연에서 별을 곡할 정서적 준비와 행문(行文)의 토대가 진작 완성된 것이니, 본연으로부터 차연으로의 추이가 일견 백보의 비약이 있는 듯하면서도 실은 일발(一髮)의 간(間)을 용납지 못하리만큼 긴밀히 연락된 소이(所以)이다. 이는 전혀 점층법에 의한 이빈친주(以賓襯主)의 묘법이요, 또한 완곡체를 쓴 지동격서(指東擊西)의 진체(真諦)이다.

### 3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배내여 노한다 사공아  
 네 가시 넘난디 몰라서  
 널배에 연즌다 사공아  
 대동강 건넌편 고즐여  
 배 타들면 것고리이다

결연은 흥이부(興而賦)요, 또한 부이흥(賦而興)이다. 대개 수연의 부와 차연의 흥을 결속해 결연에선 흥·부 교용의 체를 취했으니, 이것이 또한 구법·장법의 연쇄적 수단이다. 이제 가의(歌意)는 서곡의 유연한 정서와 중단의 절절한 서회(敘懷)를 지나 정작 강두 일별(江頭 一別)의 급박한 정경과 안타까운 심사를 서할 새, 이 구곡의 단장과 만곡(萬斛)

의 이수(離愁)는 도저히 심상한 수단과 항례(恒例)의 가화(家伙)로써 그 표현이 가능한 자 아님을 알 것이다. 무릇 비(悲)를 다만 비로써 그대로 직서(直叙)하고, 원(怨)을 오직 원으로만 단순히 표백함은 그 비를 오히려 평범화하고 그 원이 도리어 상투시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격정은 노상 변칙적 발로를 보이며 극한은 흔히 자체적 표명을 거부하므로 이 지극한 정한을 사(寫)하기 위해서는 우필(右筆)외에 다시 좌필을 환용(換用)하고, 정묵(正墨) 아닌 또한 반묵(反墨)으로 협사(夾寫)한다 하더라도, 문장엔 스스로 이로(理路)와 맥락(脈絡)이 있고 정사는 본디 원곡(源曲)과 곡절이 있을 것이니, 대저 별(別)을 한(恨)할진대 그는 응당 입을 원망할 것이요 입을 원할 바엔 도리어 먼저 자신을 한할 지나, 이제 행문이 심상(尋常)히 별을 한하거나 범용히 입과 자신을 원하는 평서적(平叙的)인 경로(經路)를 취하지 않고 문득 무심한 일편(一片)의 자연과 무정한 일개 방인(傍人)을 납래(拉來)해 이 만종의 이한(離恨)과 일단의 애원을 그에게 하소연한 것은 대개 별리와 직접 교섭되는 안전·각하(眼前·脚下)의 정경을 차(借)해, 이로써 자신이 스스로 몸부림하고, 다음 입을 향해 굳이 매달리고, 따라서 별 그것을 애초에 몹시 주저함이니, 성난 발길이 흔히 어리석게 무심한 돌을 차고, 어지러운 심사가 매양 애꿎은 개를 꾸짖음은 격양된 인정의 상사(常事)이다. 본연은 가의가 스스로 3단으로 나뉜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수연은 입이 아직 배를 타기 전 일각의 정경. ‘너븐(넓은) 2자, 어찌 그리 무궁한 정과 형용할 수 없는 묘미를 띄었느냐. 여기서 넓다 함은 참으로 강물의 폭이 넓다 함이 아니다. 입이 한번 저 강을 건너 남으로 남으로 가시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아득하거나, 대동강이 본디 일의대수에 불과하건만 나와 입 사이엔 만리(萬里)두곤 더한지라, 대동강이야말로 내게는 참으로 좁은 양 넓지 아니하라. 저 강물이 이렇듯이 넓은 줄은 오직 유심한 이라야 알 수 있고, 다만 목전에 별리를 둔 사람이라야 알 수 있나니, 무심한 저 사공이 어찌 이를 알리오마는, 무심한 줄을 뻗히 알면서도 애꿎은 그를 또한 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진실로 별한의 별한(別恨)되는 소이다. 모시(毛詩) 위풍(衛風)엔 ‘수위하광, 일위항지(誰謂河廣 一葦杭之)’라. 가구(佳句)가 있거니와, 본구는 그와는 정반대인 의미로서 그보다 오히려 수배의 함축과 별양(別樣)의 자미(滋味)를 띄었으니, ‘대동강 너븐디 몰라서’의 3어 일구가 저 ‘서상(西廂) 금심(琴心)의 ‘중간 일층홍지, 기안소령, 불시운산기만중(中間 一層紅紙 幾層疏櫺 不是雲山幾萬重)’으로 해금 스스로 ‘불급경삼십리(不及卿三十里)의 탄(嘆)을 발하게 하리라. 시험해 이 일구를 낭영해 보라. ‘대동강 3자의 성조가 어찌 그리 비량(悲涼)하며, ‘너븐디’ 일어의 우의가 어찌 그리 유수(幽邃)하노.

다음 제3단, ‘네 가시 넘난디 몰라서 널배에 연즌다, 사공아.’ 이 3·4구는 전 2구의 부

20) 원문에는 孰謂河廣 一葦航之로 되어 있으나 誰謂河廣 一葦杭之의 오기임.

연이나, 앞 절이 임이 배를 타기 직전의 정경임에 반해, 이번 절은 임이 벌써 배에 오른 직후의 정경이니, 가는 이는 선수(船首)에, 보내는 이는 강두(江頭)에 맥맥히 서로 바라보는 기막힌 순간이나, 보내는 이는 입술을 깨물고 아직 한마디도 가는 이를 직접으로 원(怨)하는 말이 없다. 다만 '사공아, 너는 네 아내가 음란한지를 몰라서 갈배에 실었느냐'를 거듭 사공에게 되풀이할 뿐이니, 애원이 이렇듯이 간접적이므로 그 지정(至情)이 오히려 뼈에 사무치고 그 통곡하는 소리를 바로 종이 위에 듣는 듯한다. 작자가 이렇듯이 임께 대한 원사(怨辭)를 아끼고 아껴옴은 대개 원이 극(極)하고 한이 지(至)함을 친(親)코자 함이나, 문심이 또한 그 지극한 경계에 도달하얀 필여묵(筆與墨)이 일시에 모두 잠시 정지됨이니, 무릇 다정한 별을 서함일수록 원을 사(寫)하되 붓을 단속함이 처녀와 같고 한을 서함엔 먹이 아깝이 겸금(兼金)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원을 아껴옴은 본디 무엇보다도 차구의 결사(結辭)에서 비로소 그것을 결정적·집중적으로 정사(正寫)코자 함이니, 그러므로 전 1·2구는 외형상 전혀 사공을 원망하는 양했고, 본 3·4구는 빗대두고 난데 없는 '사공의 처'를 빌어 입을 험사(夾寫)해 자신의 우수를 비로소 정서하는 동시에 하문(下文) 결사의 토대를 만들었으니, 요컨대 1·2·3·4 구는 장차 올 결사 5·6구의 정문(正文)을 향해 멀리 순차적으로 험심적 체세(體勢)를 취해 온 것이다.

'네가시 넘난디'의 '네' 1자, 가장 심한(深恨)을 우(寓)했다. 노두시(老杜詩)의 '춘택기여거(春宅棄汝去)'의 '여(汝)'자가 이와 비슷한 필법이다.

제3단은 바로 배가 떠나려 하는 마지막 고별의 사이니 본가(本歌)의 결사이다.

이 한 많은 별리의 최후의사를 무엇으로 끝맺을까. 심상한 부속(付屬)은 이미 전 연의 맹약이 있으며 재제가 미상불 찬사일지요, 지극한 애원이 워낙 본연이 주지(主旨)이나 정서는 또한 금물이니, 여기엔 아무래도 비상히 심각한 정치(情痴)의 표현이 필요하고, 여기엔 그럼에도 전연(全然) 의표(情痴)인 착상의 수법을 필수로 한다. 다시 말하면 결사가 다만 결사로서 민뜻하게 그대로 평범히 끝날 것이 아니라, 한번 크게 반발적 탄력을 발휘하고 문득 깜짝 놀랄만한 작열적 섬광을 번쩍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결과가 강세가 천근보다 무겁고 그 여향(餘響)이 3일이나 끊이지 않으리라.

'대동강 건너편 고졸여 배타들면 것고리이다.' 가자는 홀연히 착상을 일전해 '대동강 건너편 꽃'을 상기했다. '꽃'이란 무릇 '피미'의 뜻이요, 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선 '탄 입'의 뜻이다. '대동강 건너편의 다른 꽃을, 임은 배를 타기곳하면 꺾으리이다.' 임은 한번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거기는 응당 많은 꽃이 다투어 피어있어 임이 꺾기를 기다리려니, 반이나 시들은 강북의 이 꽃을 어이 다시 생각하리오. 임께서 꺾는 꽃은 말랄 줄이야 있으리만, 고운 입을 강 건너 편 딴 꽃에 맡길 수밖에 없는, 보내는 이의 애는 얼마나 촌촌히

끊어지느냐. 그지없는 치정(痴情)이요 가엾은 심사인 줄은 스스로 모르는 바 아니건만, 이제 마지막으로 임을 보내는 순간, 흥중에 굳게 맺힌 정한은 드디어 막을 길이 없고, 심두(心頭)에 불현듯 떠오르는 애상(哀想)은 어즈버 감출 길이 없다. 그러나 이 말인들 어찌 임께 향해 직접으로 마다거나 원망할 수 있으랴. '것고리이다'는 그럼에도 반이나 혼자 자서의 탄식이요 말하자면 간접적인 애소(哀訴)이니, 지극한 원정(怨情)을 이렇듯 자탄·호소의 사(辭)로써 끝냄이 도리어 형언할 수 없는 절절한 감동과 명상키 어려운 측측(惻惻)한 여운을 남기거니와, 또한 이른바 시인의 충후(忠厚)의 의(義) 아님이 아니다. 본질의 묘처(妙處)는 무릇 두 곳이 있다. 하나는 물론 저 '대동강 건너편 꽃'이란 천래의 착상과 의표의 기어(奇語). 우리는 본연 전 4구를 풍영할 때, 더구나 제3구 '넘난디' 한마디를 완미(斷味)할 때, 결국이 대개 원사일 줄을 예측했으나, 이렇듯 전혀 다른 수법으로 경인적(驚人的) 신구(神句)가 뒤에 기다릴 줄은 몰랐다. '평무진쳐시청산, 행인재청산외(平蕪盡處是青山 行人更在青山外)'란 송인(宋人)의 구가 바로 이 경지를 말한 것이리라. 고인(古人)의 이른바 '하처득래(何處得來)'란 평어(評語)는 오직 차종의 문자에만 쓰여질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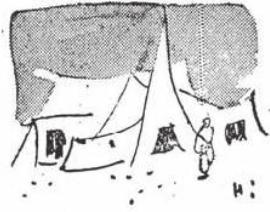
'고졸여'의 '여'는 영탄(詠嘆)의 사로서 우선 3음층축의 필요상 첨가된 글자로도 볼 수 있으나, 그 중간의 일단 휴지 일변돈좌(休止 一番頓挫)가 또 얼마나 회상적인 처절한 정서를 배가하며, 얼마나 영탄적인 가엾은 애상을 표상하느냐. 대개 기막힌 소회(所懷)는 본디 한마디로 직설기 어렵고 매양 일시의 휴지(休止), 잠깐의 안돈(按頓)으로써 다시 숨을 돌려 서술함을 요하는 것이다.

제2의 묘처는 '배타들면' 한마디가 그것이다. 배를 타들면 설마 고대 꽃을 꺾으리요 마는, 배를곳 한번 타랑이면 임은 벌써 내 임이 아닐새, 배를 타는 그 순간이 보내는 자에게는 성급하게도 진작 꽃을 꺾는 시초도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배타들면' 이하의 구는 속살론 은근히 임에게 부치는 말이건만, 문세(文勢)는 어디까지나 앞 4구에 나오는 사공에 대한 원사의 연장인양 보이기도 하니, 이렇듯이 사의(詞意)에 표리와 양음이 상반됨은 본연 자초지종 6구가 모두 '배' 한 글자를 계기로 하고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배'는 이 경우에 별한(別恨)을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한 응용가화(應用家伙)에 불과하거니와, 통연(通聯)의 결구(結構)는 줄곧 이 일어를 감돌아 이른바 '사자(獅子) 곤구(滾球)'의 묘의를 여실히 구현했다. 이 가사의 묘미는 그 문(文)이 정을 여실히 표현한 영묘한 수법에 있다. 그러나 이 결국 정이 문(生)한 자요 문이 정을 생(生)한 것이 아님을 작자와 함께 끝으로 자백하리라.

필자(筆者) 시인(詩人)·국문학자(國文學者)·문박(文博)

# 입후보제도론(立候補制度論)

신현경(申鉉經)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성년시민은 선거자격과 피선거자격이 있다. 따라서 특정시민을 의원후보로 선출한다는 것은 의원선출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선거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적임자 선출이라는 공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선거는 의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가장 적당한 자만을 선출하는 것이 그 이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누가 가장 의원으로서 적임자인가를 판단하는데 그 적격 여하는 그를 지지하는 약간 명의 선거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만약 각 선거인이 각자 공적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후보자에게 투표해 일정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면, 이것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결과는 국민의 투표대상은 광범위하고 따라서 계표(計票)의 복잡, 투표의 분산 등 선거의 의의를 상실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자기 스스로 공직의 후보자가 된다든지, 타인을 공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입후보제도가 생기는 것이다.

입후보제도를 대별(大別)하면, 미국의 후보자 지명제도와 소련의 후보자 추천제, 일본의 계출(届出)제도, 우리나라와 같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타인의 추천장을 첨부해 등록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개술(概述)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美國)의 후보자(候補者) 지명제도(指名制度)

미국의 선거제도의 특징은 후보자지명(nomination)과 본 선거(election)의 이중 수속으로 이루어지는 복식선거(Double election)라는 점에 있다.

후보자 지명수속은 다수의 공직지원자중에서 몇 명의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본선거의 수속은 지명된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당과 관련시킨다면, 후보자 지명은 어느 정당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당 내부의 수속인데 반해, 본 선거는 정당과 정당 사이에 이

루어지는 수속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식선거제도 하에서는 일반선거인은 후보자 지명으로 결정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본 선거에서 투표한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주지사, 주의원, 시장 기타 지방선거를 통해 적용된다.

미국의 후보자결정제도는 타국에서는 볼 수 없는 미국 특유의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는 바, 현재 공직후보자의 지명방법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 코커스(Caucus). (2) 대표자대회(Delegate convention). (3) 직접에 선(Direct primary election). (4) 청원에 의한 지명(Nomination by petition)이 바로 그것이다.

### (1) 코커스

코커스라 함은 정당의 영수, 간부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공직후보자를 지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오랫동안 내려오던 제도인 바 현재도 읍, 면의 선거에 실시되고 있는 곳이 있다(일리노이 주, 뉴욕 주).

그런데, 코커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관해서는 1763년 존 애덤스(John Adams)<sup>21)</sup>가 서술한 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대적 정훈조직이 충분히 육성되기 전부터 보스턴(Boston) 지방에서 시작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일기의 코커스에 관한 부분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 코커스 클럽의 각 회원이 톰 도즈(Tom Dawes)의 지붕 밑 방에 모였다. 톰의 집은 크다. 클럽 전원이 이 한 방에 모였다. 그 방은 담배 연기로 이쪽에서 저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 방에서 플립(Flip; 비어 또는 화주에 계란, 향료, 사탕 등을 탄 혼합물)을 마시며 과장을 선출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투표에 부친다. 이와 같이해 행정위원, 재산평가원, 징세사, 대의원 등이 차례로 선출되며, 유권자를 선출하기 전에 결정되어 버린다.”

그런데 최초의 주의 양원(兩院)의원을 선출한 방법은 이 코커스였으나 그 후 주지사의 후보자선출은 주의회 의원에게 일임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해 주회 코커스(Legislative Caucus)가 고안되었다. 이 방법은 각 파의 의원이 집합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주회 코커스'는 1790년 로드 아일랜드 주를 비롯해 1796년까지 사이에 전국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그 후 '국회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 제도는 대통령 후보자를 연방국회의 당

21) 원문의 zohon Adams는 John Adams의 오기임.

파회에서 선출하는 제도인 바 제3대, 제5대 대통령을 선거할 때 연방의회 의원의 의결로 대통령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 선례가 되어, 그 후 대통령 후보자는 연방의회의 당파가 선정하는 관례가 되었다.

요컨대, 코커스는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간편하고 경비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선정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책임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민주적 선출방법일 뿐만 아니라, 당파 간에 흥정이 생기고 정실과 부정이 개재하게 되며, 또한 행정부가 '회의 코커스'에 예속된다는 결과를 초래해, 삼권분립에 파탄을 가져오게 한다는 비난이 높아졌다. 그래서 1823, 4년경부터 '혼합 코커스(Mixed of mongrel caucus)'라고 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 '혼합 코커스' 제도는 그 일부는 회의의 의원으로 그 일부는 당원의 대표로서 구성되었으며 코커스와 '컨벤션(대표자대회)'의 혼합이며, 이로부터 컨벤션이라는 방법으로서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었다.

## (2) 컨벤션(Convention)

컨벤션이라 함은 정당 기초단체의 대표자가 집합해 그 대회석상에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코커스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연방의회회원의 코커스는 1824년 그 소멸을 보고, 이어 컨벤션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인구의 증가에 수반해 선거에 의한 공직의 수의 증가 또한 선거권의 확장과 정당조직의 발달에 따라 각 지구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컨벤션이 생기게 되었다. 즉 1831년 '반(反) 메이슨당(Antimasonic party)'이 대통령 부통령 후보자 지명을 위해 컨벤션 방식을 채용한 것인데, 민주당도 익 2, 3년이 방법에 따르자 전(全) 정당이 모두 이 방법을 채용하게 되었다. 이리해 각 정당은 각각 자당의 컨벤션을 개최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것을 일반선거에 부침으로서 사실상 선거를 좌우했다.

컨벤션은 지역적 할거주의를 완화하고, 의견의 대립을 조정하고, 또한 후보자가 코커스의 경우보다 널리 알려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조직 구성 및 수속이 비민주적이었다. 특히 컨벤션에 참가할 대표자의 할당이라든지 그 임명방법이 당의 위원회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흔히 부정수단이 취해진다는 폐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민중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고안되었으니, 이것이 곧 '직접예선제도'이다. 컨벤션 제도는 상술한 바와 같은

단점도 있으나, 현재도 약간의 주에서는 중요한 공직후보자 지명에 사용되고 있다. 즉 뉴욕 주에서는 직접예선제와 컨벤션 제도가 병용되고 있으나, 중요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거의 컨벤션 제도가 채용된다.

## 3) 프라이머리(Direct primary election)

직접예선(프라이머리)제도라 함은 정당소속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투표인이 본 선거에 앞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거의 공식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할 공인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미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이 프라이머리 제도에 의한 후보자 결정은 책임자 선출을 위한 국민의 선거가 어느 정도 민중의 지지를 받는 자에 대해서만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결정방법으로서 프라이머리 제도는 코네티컷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이를 채용하고 있다.

프라이머리 제도의 기원으로서는 1842년 펜실베이니아 주의 크로퍼드 카운티(Crawford county)에서 민주당의 지방조직으로 말미암아 채용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1868년에 이르러 공화당도 군의 공무원을 지명하는데 이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명제도는 '크로퍼드 카운티 방식(Crawford county system)'으로 알려졌다. 이리해 이 운동은 20세기에 들어서자 급속도로 발전해 거의 전부가 이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프라이머리 제도는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공개예선(公開豫選)(open primary), 이 제도는 예선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자가 선서할 필요 없이 자유로 어떤 정당의 예선에도 참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컨대, 공화당원이 민주당 예선에, 민주당원이 공화당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개예선에서는 일목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의 후보자명이 따로 따로 인쇄되어 있고 투표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정당에 속하는 후보자에 기호할 뿐이다.

이 제도는 투표자에게 광범한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주며, 비밀투표, 정당 변경 등이 모두 자유라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이 제도는 반대당이나 제3자가 프라이머리를 방해해, 유력하지 못한 후보자를 당선시킴으로써 본 선거에서는 결국 패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책모(策謀)의 여지가 있다든가,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동조합 기타 사적 단체가 가지들에 반대되는 후보자가 예선에서 패하고

록 투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비공개예선(非公開豫選)(closed primary), 이 제도는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투표자로 해금 반드시 자기 소속정당에 충성을 다할 것을 선서케 하고 이리하여 해(該) 정당이 추천하는 예선후보자 이외에 타 정당에 속하는 자에게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정당의 이익을 옹호하는 점에서 이상적 방식이다. 그런데, 투표자의 지지정당을 명백히 하기 위해, 다음의 3종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가, 등록제(enrollment system), 이 제도는 당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만이 예선에 있어서 그 당의 후보자에 투표하는 제도이다.

나, 선서제(personal declaration), 이 제도는 투표인이 예선투표 시에 자기가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 어느 당인가를 선거관리인에게 선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에 정당의 주의나 정당의 지지여부를 질문당하는 일이 있다. 대담여하에 따라서는 투표를 거절당한다.

다, 심사제(party test), 이 제도는 정당의 소속 또는 지지관계를 정당의 역원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공개예선제도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침입해 예선을 혼란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적의 변경이 곤란하므로 공개예선보다는 훨씬 정당정치와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자기 정당의 투표용지를 교부해 투표케 하는가를 결정하는, 정당의 소속이라든가 지지관계를 판단하기에 효과적인 표준을 안출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당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정당의 변경규정을 설정해야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예선은 정당에 의하는 것이므로 정당적 예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비정당적 예선(Non-partisan primary)' 이 있다.

이 제도는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정당명 없이 알파벳 순 또는 추첨 순으로 열기된 후보자 중에서 제한 없이 자기가 희망하는 자를 선택해 기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하여 투표결과 최고득표자 2명 또는 3명이 선출되어 본 선거의 후보자로 된다. 비정당적 예선은 주로 시, 군, 학구 내의 공직, 사법관의 후보자를 지명하는데 적용된다. 주 의회의 의원선거에 이 제도를 적용한 예로는 1913년의 미네소타 주 및 최근의 네브래스카 주를 들 수 있다. 1938년의 워싱턴 주는 이 제도를 학교 교육에 적용했다.

#### 4) 청원(請願)에 의(依)한 후보자(候補者) 지명제도(指名制度)

이 제도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에 자기의 성명이 인쇄되기 위해 일정수의 투표자의 서명을 첨부한 신청서를 선거관리자에게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소정의 서명이 있는 신청서는 후보자 지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 2. 소(蘇) 연방(聯邦)의 입후보제도(立候補制度)

1937년의 선거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소 연방은 노동계급독재라고 하는 독자적 정치형태를 채용하며 자본주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그 독특한 '후보자 추천제도'를 채용하고 있다(소련 헌법 제141조, 선거법 56조). 소 연방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리를 전혀 공공단체 및 근로자단체 즉 법정수속에 의해 등록된 공산당기관,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년단체 및 기타 기관에만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소 연방에서는, 개인은 법상 피선거권이 있지만, 상기 여러 단체의 추천이 없는 한 개인의 자격으로는 자유로 입후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민주화된 소 연방 선거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 추천권 행사를 보건대, 추천단체는 먼저 종업원 총회를 열고 그 석상에서 동 단체의 지도분자로부터 미리 '당원 및 비당원블록' 후보자로서 누구를 추천한다는 지명이 있는 후 참모자 일동에 대해 거수나 또는 기립 등의 공개투표방법에 의해 이미 결정된 후보자에 대한 찬부의 표명이 요구될 뿐이다. 예로서 1946년의 스탈린 수상의 두 번째의 선거를 들어 모스크바 전기공장에서부터 추천 당하던 당시의 광경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종업원 총회석상에서 간부노동자 1명이 일어서서 종업원 7,000명을 앞에 두고 스탈린 수상의 소 연방에서 이룬 공적을 찬양하고 전일일치로서 후보자로 추천하고 싶다는 취지의 제창을 하자, 참집자(參集者) 일동은 만장일치로서 이를 지지하고 동 수상의 입후보를 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에 따라 동 수상에 대해 입후보의 동의를 구하는 수속이 취해졌다고 한다.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추천할 경우에도 대략 같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당원 비당원 블록' 후보자에 관해 언급한다면 원래 피선거권은 법상, 비당원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입후보를 인정해야 함은 이론상 물론이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대외적, 대내적 고려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소 연방은 국내 사회주의화가 완료하고, 비당원도 당원과 협력해, 소 연

방 사회주의적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본 시기에, 현행 스탈린 헌법 및 이것을 기본법으로 한 선거법이 제정되고, 1937년 제1회 연방최고회의 선거가 시행되었다.

이때에는 비당원이라 할지라도 소 연방 사회주의건설에 공헌했다고 인정된 인사, 즉 신기술에 의해 생산 증진에 기여한 자, 생산과제의 우수수행자(스타하노프 식 노동자, 기술자, 농민)가 당원과 대열을 같이해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이것을 '당원 비당원 블록' 후보자라고 한다.

선거운동 시에도 '당원 비당원 블록 후보자에 투표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원과 비당원 간의 융화를 강조했다. 그리하여 1946년의 제2회 선거 시에도 같았으나 이때에는 2차 대전에 승리한 군인도 다수 상기 블록 후보자로서 추천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했을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후보자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등록한다. 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선거구 주민의 언어로서 인쇄해 이를 선거일 15일 이전에 관제선거구 위원회에 배포하게 되어 있다.

추천단체는 그 소재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자이건 아니건 추천할 수 있으나, 입후보자는 어느 일개 선거구에서 입후보한다. 즉 가령 각지의 다수 단체에 의해 동시에 추천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선거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는 전혀 한 개의 선거구에 한하게 된다(타니가와 료이치(谷川良一) 저 「소련 연방국가 기구(蘇聯邦國家機構)와 현행헌법(現行憲法)」 참조(參照)).

### 3. 일본(日本)의 입후보제도(立候補制度)

일본 공직선거법은 입후보자에게 본인계출주의와 추천계출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즉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문서로서 그 뜻을 해당 선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86조). 공직후보자의 제출 또는 추천계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할 때에 공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제92조).

이것이 소위 공탁금제도인 바,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이요, 포말후보자라고 불리워지는 잠시 선거장에 얼굴을 내놓고 어떤 목적만 달하면 손을 떼는 종류의 자를 배척해 선거운동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며 영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나, 다수 학자들은 이런 제도를 배격하고 있다.

입후보의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는, 각종선거를 통해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②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면 된다. 단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추천계출은 본인의 승낙을 요하며 승낙 없는 제출은 무효로 된다(68조, 75조).

### 4. 우리나라의 입후보제도(立候補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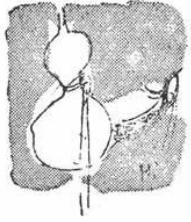
의원후보자가 되려면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본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명망가로서 자의로 지원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타인이 추천등록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한편 선거인의 지지가 전혀 없는 자의 출마를 제한하기 위해 그 선거구 내에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백인 이상, 이백인 이하의 기명날인(무인불허(無印不許)한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이나 타인의 추천등록을 불문하고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선거일 전 25일 이내에 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

추천등록도 같은 추천장(연기 또는 단기)에 본인의 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 선거구에서 의원 후보자가 된 자는 다른 선거구에서는 되지 못한다.

필자(筆者) 국회도서관장(國會圖書館長)  
정치학자(政治學者)

### 참고문헌(參考文獻)

1. 우치다 리키조 저(內田力藏 著), 미국의 선거제도(美國의 選舉制度)(상)(上)
2. 미노베 다쓰키치 저(美濃部達吉 著), 미국헌법개(美國 憲法概論)
3. 타니가와 료이치 저(谷川良一 著), 소련연방국가기구(蘇聯聯邦國家機構)와 현행헌법(現行憲法)
4. 미우라 요시오 저(三浦義男 著), 공직선거법(公職選舉法)
5. 이등훈 저(伊藤勳 著), 선거제도(選舉制度)
6. 유제민 저(劉濟民 著), 국회의원선거법 정해(國會議員選舉法精解)
7. 졸자(拙者), 선거제도론(選舉制度論)
8. Hugh A. Bone, American politic and the party system
9. William Bennett Munr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 우리글을 사랑하자

김의섭

한문(漢文)의 나라 중국에서도, 그 한문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국가문명을 건설할 길이 없다 해, 마침내 모든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단연코 라틴·알파벳 A, B, C 26자를 택했다는 것은, 한문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가진바 모든 힘과 정성을 기울여,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최신 과학문명을 추구해야 하는 이때, 그 수효가 4, 5만이 넘는 엄청난 많은 글자를 가지고서도 오히려 부족을 느끼는 불완전한 한문 글자를 배우기 위해,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消耗)할 수는 없나니, 우리가 '한글 전용'을 부르짖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한글은 알파벳보다도 간단하되 이로써 적지 못할 말소리가 없고 우주의 진리와 음양오행에 본받은 이 글자는 그 모양이 간결하고, 짜임이 과학스러워 이는 고금(古今)을 통한 문자사상 가장 아름답고 보배(寶貝)이기는 하나, 한문식 문명에 젖은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까닭에 도리어 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옛날 일은 잠깐 두고, 또 왜정 때는 피할 수 없는 까닭도 있었겠지만,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우리말 교과서를 엮은 사람은 왜인 그들이었고, 또한 전적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주옥(珠玉) 같은 우리 고전(古典)에 손을 대서 그 뛰어난 값어치를 맨 먼저 세상(世上)에 드러낸 사람도 섭섭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글에 대한 학대(虐待)는 우리 주권(主權)을 도로 찾은 지 이미 10여년이 넘는 오늘날도 다름이 없나니, 우리가 한문자는 한 획만 틀려도 모두가 이를 무식과 수치로 문제 삼지만, 한글은 한 자(字)는커녕, 한 장 거의 전부를 틀리게 써도 모두가 무관심해, 또는 그것이 마땅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뻔치고 나선다.

우리가 한글을 바로 쓴다는 것은, 그것이 다만 '한글 전용'의 밑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앞날의 우리 새 문화 창조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더구나 과학상으로, 또는 작전상으로 볼 때, 오자(誤字) 하나가 증대한 과오(過誤)와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너무나 많이 틀리는 글자를 쓰고 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 틀림은 다만 몇 가지 원칙에서 벗어났고, 대개는 똑같은 틀림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몇 가지를 추려보았으니, 이 몇 가지만 완전히 깨우치더라도 우리의 글월은 좀 더 깨끗해질 것이라 믿는다.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되려는 '한글전용' 운동에 한 가닥

보탬이 된다면 필자로서 그보다도 더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 1. 가지다, 갖이다,

움직씨 '가지다'(持)를 '갖이다'로 쓰는 사람이 많다.

'갖'이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 그 첫째는 '가지다'의 줄기 '가지'가 줄어서 '갖'으로 된다고 보는 경우인 것이다.

가지다의 준말 → 갖다.

가지고의 준말 → 갖고.

가지지의 준말 → 갖지.

가지계의 준말 → 갖게.

돈을 갖고 장보러 간다.

그것을 누가 갖게 되었나? 따위.

다음으로 '갖'은 갖다(備), 곧 구비(具備)하디 뜻의 가진 말의 줄기(원꼴대로)인 것이니, 갖추다. 갖아진다. 갖은 고생. 온갖 양념. 따위.

를 '갖다'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이다'로도 할 수가 있느냐? 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지'를 '갖이'로 고쳐야만 할 아무런 까닭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갖이다'는 전연 버리고, '가지다'를 표준말로 취했고, '갖다' 혹은 '갖고' '갖게' 따위는 '가지다'의 줄인 꼴로는 보면서도 결코 표준말은 아니고, 다만 한 지방의 사투리(方言)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갖다'가 '가지다'의 줄인 말로서 쓰이기는 하면서도, 오히려 한낱 '사투리'로 밖에 보지 않는다면, 표준말의 '가지다'는 대체 어떻게 줄여질 것인가?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가지'를 '갖' 따위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가지어서' 따위가 '가져서' 곧 '지어 = 저'로 되는 경우뿐이다.

가지어 오다 → 가져 오다.

가지어 가다 → 가져 가다.

퍼지어 간다 → 퍼져 간다.

되어지어 있다 → 되어져 있다.

이빠지어 간다 → 이빠져 간다, 따위.

만일 그렇다면, '가진'을 '갖인', '가지고'를 '갖이고', '가지다'를 '갖이다' 따위로 썼을 때 어떤 모순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갖'을 '가지'와 같은 말로 보는 까닭에,

갖이고 = 가지 + 이고 = 가지이고,

갓이다 = 가지 + 이다 = 가지이다,  
 갓인 = 가지 + 인 = 가지인,  
 따위로 될 것이며, '가지이다'란 말은 혹 '가지(枝, 茄子)이다' 따위로는 들릴지 모르나 어찌 소유(所有)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으랴?  
 둘째로, 이것은 '가진'이 '갓인' 따위로 글자꼴만이 바뀌었을 뿐이어서 일부러 힘부려, 줄인 꼴 '갓'자를 가져다 쓴데 대한 아무런 까닭도 보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체, 우리가 줄인 말을 쓰는 까닭은 그 말소리의 술(수량(數量))을 줄임으로써 말하는 시간과 노력을 덜어 주고, 또 그 말을 간단 명확히 알아듣게 하는데 있는 것이어늘 가령,  
 일찌기 → 일찍 (3마디가 2마디로),  
 저절로 → 절로 (\*),  
 하건마는 → 하건만 (4마디가 3마디로),  
 어떠한게 → 어떻게 (\*),  
 잡히었다 → 잡혔다 (\*),  
 치어다 보아라 → 쳐다봐라 (6마디가 4마디),  
 오라고 하더냐 → 오라더냐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찮다 (8마디가 4마디),  
 공부를 하라고 했다 → 공부하랬다 (9마디가 5마디),  
 따위는, 모두 소리 마디수(數) 상당히 줄여져 있는데 반(反)해, '가진'이 '갓인'으로 바뀌었더라도 이따위가 '줄인 말'로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혜택(惠澤)을 줄 것인가? 혜택은 커녕 '가'를 '갓'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손해를 끼칠 뿐이다.  
 '갓이다'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갓이다'의 '이' 소리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무릇, '줄기'에 '이'가 붙는 것은, 그 말이 뜻바꿈(어의변환(語意變換))을 하든지 또는 몸바꿈(품사전성(品詞轉成))을 하게 하기 위함이지 아무런 뜻 없이 '이'만이 붙는 일은 없는 것이다.  
 죽다(제, 움직씨) → 죽이다(남, 움직씨)  
 먹다(남, 움) → 먹이다(하임, 움)  
 쓰다(남, 움) → 쓰이다(입음, 움)  
 맞다(남, 움) → 맞이(이름씨)  
 많다(그림씨) → 많이(어찌씨), 따위.  
 그러므로 '가지고' '가져' '가진'을 취하고, '갓이고' '갓어' '갓인' 따위는 쓰지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에, 미치다(及) → 밋다, 비기다(無勝負) → 빅다, 디디다(踏) → 딛다 따위도 있으나, 이것도 그와 같은 까닭으로 '밋이다' '빅이다' '딛이다' 로는 쓸 수 없는 것이다.

## 2. -던 -던지, -든 -든지,

'-던'은 설명하는 어떤 말에 붙어서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할 때, 특히 그 매김 꼴(관형사, 연체형)에 딸리는 말끝(어미)이다.  
 하던 일, 먹던 밥,  
 가던 길, 자던 잠,  
 놀던 벗, 팔던 물건, 따위.  
 '-던지'는 '-던' 밑에 끝가지 '지(혹은 가)'가 붙은 꼴이며, 이 역시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 쓰이는 것이니, 그 보기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내가 왜 그랬던지(=던가) 몰라.  
 그게 뵈이던지(=던가)요?  
 참말 있었던지(=던가) 알 수 없다.  
 사람이 어찌 많이 모여들던지 모두 놀랄 뿐이었다.  
 어찌나 곤히 자던지 깨울 수가 없었다.  
 어떻게나 고생을 했던지 잊혀지지를 않는다.  
 '-든'은 설명하는 어떤 말에 붙어서 1. 가려잡(선택)거나, 2. 가부(可否)의 뜻을 밝히거나, 3. 그 일이 아무렇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낼 때 '어찌'처럼 쓰이는 말끝(어미)인 동시에, '-든지'의 줄인 꼴이기도 한 것이다.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나.  
 먹든 말든 맘대로 해라.  
 울든 볼든 알게 뭐냐.  
 죽든 살든 끝이 나아지.  
 오든 가든 태도를 밝혀라.  
 밥이든 국이든 좀 더 먹어라.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히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던'과 '-든', '-던지'와 '-든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혼동하는 수가 많다. 가령,  
 이것은 내가 먹던 밥이다. 하면, 그 밥은 내가 이미 앞서 먹다 남겼거나, 또는 먹어본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그것을 돌이켜 생각하고 있는 말입에 틀림이 없다.  
 내가 그 밥을 먹었다는 것은 지금 금방이라도 좋고, 오늘 아침이나 어제나 혹은 몇 날, 몇 달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과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던'이란 말끝으로써 표시하는 것이다.  
 내가 먹던 밥임을 꼭 밝혀야 할 경우는 허다할 것이다. 가령,  
 이 밥은 내가 먹던 밥이니, 역시 이제 내가 먹어야 하겠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 밥은 내가 먹던 밥이니, 안심하고 네가 먹어도 좋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먹던 밥에 그만 먼지가 날아들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이 되었으니, 나에게 새로 판 것을 달라는 경우에도 쓰일 것이며, 이 '-던'이란 '토'는 내게 대해 깊은 관계를 갖-게 하는 동시에 어떤 '권리'를 내포해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시할 수 없는 '-던'을 무시하고 '-든'으로 바꾸어 보자.  
 이것은 내가 먹든 밥이다.  
 '-든'이란 토는 지난 적(과거)을 나타내(표시)하지 아니하므로 그 밥은 내가 먹던 (혹은 먹은 적이 있는) 밥이 아니어서 내게 대해서 그 밥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따라서 나로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만일에 여기에서 '-든' 자의 쓰임(기능)대로 가리는(선택의) 뜻을 붙여서 역지로 이 말을 풀어 본다면,  
 이것은 내가 먹든, 네가 먹든 밥이다.  
 로나 보든지, 또는  
 이것은 내가 먹든, 안 먹든 밥이다. 따위로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먹든 네가 먹든 상관없다'든지, '내가 먹든 안 먹든 결정을 짓겠다'든지 한다면 모르되, '내가 먹든 네가 먹든 밥'이라든지 '내가 먹든 안 먹든 밥'이란 따위로서는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밥이든지 물이든지 좀 먹고 보자.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뜻)  
 소든지 말이든지 좀 타고 가자.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뜻)  
 죽든지 살든지 맘대로 해라. (네가 가려잡(선택)이라는 뜻)  
 가든지 묵든지 나는 모르겠다. (네가 결정을 지으라는 뜻)  
 이와 같이 '-든'으로 해야 할 경우에 '-던'을 바꾸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모순되는 바는 마찬가지로인 것이니, 일체 지난 적(과거)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던', '-던지'를 쓸 것이며, 가리어 잡(선택)는 다든가, 아무렇게 되든 상관없음을 나타낼 경우에는 반드시 '-든' '-든지'를 가리어 쓰도록 해야 한다.

### 3. 안먹다, 앓먹다,

'안'은 '아니(불, 비)다'의 줄기인 '아니'가 줄어서 된 말이고,  
 '앓'은 '아니하(불위)다'의 줄기 '아니하'의 줄인 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안'과 '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이는 것이다.  
 첫째, '풀이씨'로 쓰이는 경우  
 풀이씨로서는 '안'은 쓰이지 않고, 그 원풀 '아니다'가 쓰일 뿐이니, 가령,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안다. 가 아님)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안며, 가 아님)  
 작아도 나쁜 것은 아니다. (안다. 가 아님) 따위.  
 '앓'은 '아니하'의 줄인 풀이며, 풀이씨로서는 그 원형대로 쓰임은 물론이며, 특히 다음과 같이 줄인 풀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쁘지 않다(=아니하다).  
 나는 먹지 앓았다(=아니했다).  
 그는 가지 앓는다(=아니한다).  
 그리고 그 줄이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아니하다'의 '아니'만을 '안'으로도 할 것이며, '아니하'까지를 한테 합쳐서 '앓'으로도 되는 것이니 그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니하다 → 안하다 → 앓다.  
 아니하고 → 안하고 → 앓고,  
 아니하는 → 안하는 → 앓는, 따위.  
 둘째, '어찌씨'로 쓰이는 경우 '아니다'는 그 원형 '아니'와 함께 줄인풀인 '안'이다 같이 독립적으로 어찌씨로 쓰인다.  
 밥을 아니(안) 먹어도,  
 배가 아니(안) 고프다.  
 네가 안(아니) 온다면,  
 나도 안(아니) 가겠다, 따위.  
 '앓'은 '아니하다'의 줄인 풀인 '앓다'의 줄기 '앓'에 '이'가 붙은 풀, 곧 '앓'+이=앓이로 해 금 어찌씨로 쓰는 것이다.  
 적지 앓이 (아니하게) 먹었다.  
 좋지 앓이 (아니하게) 여긴다.  
 출처 앓이 (아니하게) 지낸다, 따위.  
 그리고, 이 '앓이'란 어찌씨는 언제나 그 쓰이는 경우가 아주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만 지움(부정을 나타내는 '세째 어찌씨' 제3부사) '-지' (적지, 좋지, 출처 따위) 소리 밑에에만 한해 쓰인다. 따라서 '앓이' 위에 '-지'가 오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흔히 '앓이'를 '아니'와 혼동하는 수가 많으나 앞에서 보인 것처럼 '앓이'는 '아니하게'를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아니하게'를 줄인 '앓게'를 '앓이'에 대응하고 있으니, 곧 적지 앓게 (아니하게) 먹었다.  
 좋지 앓게 (아니하게) 여긴다, 따위.  
 그러므로 '앓이'란 말은 '앓게'의 뜻을 가지는, 어법상 버젓한 어찌씨로서 그 구별이 스

스로 명확(明確)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니'와 혼동해서 무리로 그 밑에 '맺는 말'로 '다'를 붙여 '풀이말'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만일에 '않이 + 다 = 아니다'를 쓴다면,

- 적지 않이 먹었다, 란 말은
- 적게 먹은 게 아니다(아니다의 뜻).
- 먹은 게 적지 아니다(않다의 뜻). 또는,
- 좋지 않이 여긴다, 란 말은
- 좋게 여기는 게 아니다(아니다의 뜻).
- 좋게 여기지 아니다(않는다는 뜻).

따위로 혼동될 것이니, '아니다'란 말은 대체 그 어느 편을 뜻함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아 볼 길이 없다. 물론 이것은 어찌씨가 끝바꿈을 하는 길이 없는 까닭이니, '머리를 고이 빗는다'의 고이도 어찌씨이므로 '빗은 머리가 고이다'로는 되지 않으며, '집을 새로이 지었다'가 '이 집은 새로이다'로도 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아니다'라는 끝은 어데서나 쓰일 수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더구나 이런 말들은 극 말 그대로 직접 따져 볼 수도 있다.

'안먹는다'는 '아니 + 먹는다'가 되지만,

'않먹는다'는 '아니하 + 먹는다'로 될 것이니 대체 우리에게 '아니하 먹는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않춡다 → 아니하 춡다.

않꿨다 → 아니하 꿨다.

않하고 → 아니하 하고,

않가고 → 아니하 가고,

않된다 → 아니하 된다.

따위의 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그 소리를 한 번 살펴보자.

않된다 → 안 + ㅇ + 된다 → 안 된다 (ㅇ + ㄷ = ㄷ).

'안 된다'를 '안된다'로 소리를 낸다면 그 말뜻은 더 한층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아래와 같이

오지 않(아니하)으면 안(아니) 된다.를

오지 안(아니)으면 않(아니하)된다. 따위로

'안'과 '않'의 쓰일 곳을 혼동한다면 그것은 한낱 웃음꺼리로 밖에 아니 될 것이다.

#### 4. -었다, -였다,

(1) 았다, 었다를 쓰는 경우

'-았다', '-엇'과 더불어 지난 적을 표시하는 도음줄기로서, 밝은홀소리(양모음 ㅏ, ㅑ, ㅓ, ㅕ)로 끝난 줄기 밑에 온다. 이것은 '밝은 소리 다음엔 밝은 소리' 라는 우리말의 독특한 '홀소리어울림' 법에 따르는 것이니,

날이 맑았다. (맑의 홀소리 = ㅓ)

손을 잡았다. (잡의 " = ㅓ)

숨이 얹았다. (얹의 " = ㅓ)

매우 좋았다. (좋의 " = ㅓ) 따위,

'-엇'은 '어두운 소리 다음엔 어두운 소리' 라는 원칙에 따라, 어두운홀소리(음성모음)로 끝난 줄기 밑에 오나니,

밥을 먹었다. (먹의 홀소리 = ㅓ)

문을 열었다. (열의 " = ㅓ)

개가 죽었다. (죽의 " = ㅓ)

늘었다(ㅡ), 개었다(ㅓ), 희었다(ㅡ), 맺었다(ㅓ).

그런데 흔히 이 '-았'을 써야 할 맑은 소리(ㅓ, ㅕ) 밑에 '-엇'을 쓰는 일이 많다.

받았다(받어-), 맞았다(맞어-), 앉았다(앉어-),

않았다(않어-), 잡았다(잡어-), 찾았다(찾어-).

그러나 이따위 원칙적인 경우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그보다도 틀리기 쉬운 것은 '-았' '-엇'의 벗어난 꼴(변칙), '-엇'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2) -였다를 쓰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 '-였다'가 쓰일 수 있는 것은, '-어' '-였다' 앞에 '이' 소리가 와야만 하고, 더구나 '이'가 서로 어울려서 '-어' '-였다'로 줄어질 수가 있는 경우뿐이다.

ㄱ. '이'로 끝난 '풀이씨' 줄기에 '어' '였'이 붙는 것,

모이다 → 모이 + 어(였) = 모여(모였다)

보이다 → 보이 + 어(였) = 보여(보였다)

쌓이다 → 쌓이 + 어(였) = 쌓여(쌓였다)

먹이다 → 먹이 + 어(였) = 먹여(먹였다)

ㄴ. 이릅씨 밑에 붙는 '이다'(잡음씨) 사이에 다시 '였'이 붙는 것,

새(鳥) + 이(+였)다 → 새어였다 = 새였다.

소(牛) + 이(+였)다 → 소어였다 = 소였다.

그런데, '새이다' '소이다' 보다는 우리는 '새다' '소다'로 말하는 것이 도리어 순순하게

들린다. 그러나 '소였다' '새였다'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소였다 → 소이었다 → 소이(—였다), = 소이다.

새였다 → 새이었다 → 새이(—였다), = 새이다.

'소이다' '새이다'가 원칙임을 알 것이며, 따라서 '소다' '새다' 따위는 잡음씨 '이다'의 '이'가 발음의 간편을 위해 홀소리 밑에서 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었다'를 '였다'로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였다'로 줄일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

학생였다 - 보다도 → 학생이었다.

사람였다 - 보다도 → 사람이었다.

거울였다 - 보다도 → 거울이었다. 따위,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필요없는 것을 무미로 써보려고 애쓸 경우인 것이다.

사람이었다-를 → 사람이었다.

겨울이었다-를 → 겨울이었다.

따위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그 말을 거꾸로 풀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나,

학생이었다-는 → 학생이이었다 (였 = 이었다).

곧 '학생이이었다' 로서는, 우리는 그 뜻을 알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틀리기 쉬운 것은, 줄기의 한 부분인 '이' 밑에 '였'이 따를 경우이니,

되다 → 되 + 었다 → 되었다.

기다 → 기 + 었다 → 기었다.

매다 → 매 + 었다 → 매었다.

에서 '되' '기' '매'의 한 부분인 '이'가 '었다'와 어울려서, '이' + 었다 = 었다, 곧 '였다'로 소리는 나나, 이것을 '되었다' '매었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끝끝내 '였다'를 쓰려고 고집한다면 마침내 다음과 같은 괴상한 모순이 생길 것이다.

되었다 → 도 + 이 + 었다 = 도였다.

기었다 → 기 + 이 + 었다 = 기였다 (혹그였다).

매었다 → 매 + 이 + 었다 = 매였다, 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되었다'가 쓰일 수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되었다=되 + 이었다 = 되어였다.

'되어였다'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니, 이런 경우에도 '-여'나 '-였'은 쓰일 수가 없는 것이다.

다, 원칙을 벗어나서 '-였다'가 쓰이는 특수한 경우는 '하다'가 붙는 것뿐이다.

공부하다 → 공부해 → 공부했다.

튼튼하다 → 튼튼해 → 튼튼했다. 따위. '하다'는 문법상 '하야'로 될 것인데, 옛날에는 '하야' '하았다'로 바꾸어졌고, 오늘날의 표준말 어음은 '여'이기 때문에 '야'를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여' '-였다'가 쓰이는 것은 '이 + 었다'와 '하다'가 오는 경 뿐이요, 그 밖에서는 모두 '-어' '-었다'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5. 주검, 죽엄, 죽음,

맞춤법 통일안 제13항을 보면,

1. 줄기 밑에 '음' '이' 이외의 홀소리가 붙어서

2. 다른 씨로 바뀌거나, 뜻만이 바뀐 것들은

3. 그 줄기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기로 되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죽(다 = 死) + 엄 = 죽엄'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줄기 밑의 '엄'은 '음'이나 '이'가 아니고,

2. '죽는다'는 '풀이씨'는 이미 죽어버린 시체(屍體)를 뜻하는 '이름씨'로 바뀌었으니, 13항의 두 조건이 다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이 '죽엄'은 응당 셋째 조건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죽(줄기)+엄(①음,이,가 아님.) → 죽엄(② 이름씨로 바뀜)···주검(③원형을 밝히지 않음) 곧 '죽엄'으로 되는 말은, 원래 '죽는다'란 풀이씨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시체를 뜻하는 이름씨로 바뀌어진 이상 그 본말의 줄기 '죽'이란 원형을 밝히지 않고, '주검'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의 보기를 들면,

막(다=防)+암 → 막암·····마감(決算)(결산)

묻(다=埋)+엄 → 묻엄·····무덤(墳)(분)

맞(다=迎適)+웅 → 마중·····마중(出迎)(출영)

코뿔(다=脊)+에 → 코뿔에·····코뚜레(鼻木)(비목)

까(다=黑)+아귀 → 까아귀·····까마귀(烏)(오)

막(다=防)+애 → 막애·····마개(栓)(전)

쓸(다=掃)+예기 → 쓸예기·····쓰레기(塵芥)(진개)

빌(다=乞)+영뱅이 → 빌영뱅이·····비렁뱅이(乞者)(걸자)

이와는 반대로 줄기에 '음'이나 '이'가 붙을 때에는 그 뜻이나 씨가 바뀌더라도 원형을 무시 못 할 것임이 짐작되거나, 통일안 제12항에는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러므로 다시 보기를 들어

죽(줄기)+음 = 죽음, 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12항에 맞을 뿐 아니라 전기 13항에

도 해당되지 않으니, 응당 원형을 밝혀서 '죽음'으로 써야 하며, 그 뜻도, 서로 같이 '죽다'란 풀이씨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죽임'은 이미 죽은 '시체'를 나타내고, '죽음'은 '죽는 그 자체, 죽는 것'을 나타내나니, 말이 이와 같이 서로 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국군의 맹세 첫머리는

우리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로 써야 할 것을

'우리는 죽임으로써.....' 라고 쓴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대체, '죽임'을 '죽음'으로 쓴다는 것도 마땅치 않지만, 그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어찌해 '죽음'을 안 쓰고 '죽임'을 쓰느냐? 는 문제인 것이다. 이 맹세야말로 '죽음' 즉 '죽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한사(限死)코 싸워 이기겠노라는 국군 임전(臨戰)의 각오를 표시한 것임에 틀림 없다. 아무리 군비와 전술이 뛰어난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이 싸움보다도 제 목숨 살리기만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최후의 승리를 바랄 수가 있으랴?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제 모든 힘과 재주와 또 물자를 다해 모진 적을 무찌르고 싸우고 또 싸울 것이며 만일에 강렬한 적의 공세에 밀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제 한 '죽음'을 면하기 위해 도망쳐 버릴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겨레가 적에게 한 발자국도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침내 생명이 끊어져 '죽음'을 당하더라도 끝끝내 한 치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결의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진실로, 이와 같은 강렬한 각오와 전의(戰意)를 표시하는 '죽음'이야말로 능히 국가의 영예와 겨레의 영원한 행복을 보존할 수가 있을지언정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시체인 '죽임'이 어찌 나서서 적을 무찌를 것이며, 또는 이미 식어버린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것이 '한글'을 경솔히 하는 데서 오는 과오라 할 것이다. 이제 이와 비슷한 몇 가지 보기를 들고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다'라는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참다, 참고, 참아서.....로 끝바꿈 하므로 그 어찌꼴인 '참아'가 그대로 어찌꼴로만 쓰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길 것이 없다.

참다 → 참고 - 있다.

참지 - 못하겠다.

참아 - 왔다.

참아서 - 무엇하나, 따위. 그러나 이 어찌꼴인 '참아'가, 순수한 '어찌씨'로 바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통일안 제13항의 규칙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러므로 '참'이 란 그 어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차마'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忍)+아(음, 이가 아님) → 차마 (어찌씨)

그런데, 이와 같이 분명한 '어찌꼴'과 '어찌씨'와의 쓰일 곳을 혼동하거나, 또는 '참아'로서 '차마'에 통용하는 이들도 없지 않으나, 통일안의 규칙상 우리는 도저히 혼동할 수는 없다. 나로서는 차마 말이 안 나간다(참아 가 아님).

그 정경은 차마 볼 수가 없다(〃).

조금만 더 참아보아라(차마 가 아님).

아파도 좀 참아주세요(〃).

다음 것들도 모두 이와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붙(다=附)+어 → 붙어 → 부터.

넘(다=過)+우 → 넘우 → 너무.

잡(다=類)+우 → 잡우 → 자주.

밭(다=道)+우 → 밭우 → 바투.

비룻(다=始)+오 → 비룻오 → 비로소. (끝)

### 씩지 않는 식품(食品)

#### 영국(英國) 육군(陸軍)에서 만든 '레이션'

영국 켄트의 주민인 77세 되는 허네 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사할 준비를 하느라고 그의 소유물들을 꾸리고 있을 때, 의외에도 1899년 남아프리카에 영국 육군으로부터 받았었던 비상용 식량 레이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앉은자리에서 그 레이션의 소금에 절인 소고기와 비스킷들을 먹어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 레이션이 배급된 지 반세기나 지난 후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맛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여비서(女秘書)에 반한 도적

#### 절도(竊盜)대신에 꽃다발 증정(贈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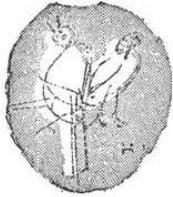
지난 12월 4일 미국 동해안 코네티컷 주로부터 버지니아 주까지 엄습하여 10명의 사망자를 내게 하고 교통을 마비케 하였던 금년 겨울의 대폭설은 5일 활짝 개이고 태양이 눈부시게 내려 쪼였다.

뉴저지 주에서 6명, 뉴욕 주에서 2명,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 2명이 각각 사망하였다. 태양이 나왔으나 여러 곳의 기온은 빙결점 이하에서 공로가 얼어붙어 위험하게 되었다 한다.

# 하나의 음악인(音樂人)의 의견(意見)

임원식(林元植)

## 1. 음악가(音樂家)



왕성(王城)이나 특수 계급에게 오락과 위안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생활했던 18세기 음악가들과 오늘날 음악가의 사회적 위치와 조건은 너무나 다르다. 출판되지 않은 문학작품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일반은 알 길이 없으며, 아무런 문화적 혜택을 민중에게 줄 수도 없다. 그런데 여기 한 국가의 수도인 이곳에 음악연주가는 있

는데 음악을 연주할 회장(會場)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도 여기에 주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아무리 훌륭한 애국자가 열변을 토하더라도 요란스러운 공장 내에서는 무슨 의미의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 것이며, 마찬가지로 음악 연주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시내에 몇 개소의 영화관과 극장은 너무나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위주로 경영하는 이런 극장은 우리 음악가로서는 도저히 바랄 수도 없다.

그러면 한국의 음악가는 어디로 가야 하나?

장사꾼으로 전향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정신의 양식을 주고 자신의 교양을 높여 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음악회장을 마련해 지켜줄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다시 한 번 태어나는 수밖에는 별도리가 없는 것일까?

## 2. 결혼(結婚)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가 예술가를 지원한다면 일생 결혼을 안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많은 학생들에게서 받는다. 또 흔히 예술과 결혼생활은 입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술에 살려는 사람은 결혼을 희생해야 한다든지, 혹은 결혼생활을 완전히 행복하게 하려면 예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마치 상식인 것처럼 말한다. 문제는 예술을 버리지 않고 결혼생활에 들어간 사람과 예술을 버릴 수 없어 결혼을 거부한 사람들, 이 어느 편에 예술은 플러스가 됐을까? 하는 것이다.

예술은 인간 생활과 동떨어져 존재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정당한 자세와 결혼을 아름답게 해준다.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예술로 인해 더욱

더 인생의 깊이를 몸소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간적 매력' 이것은 여성에게는 역시 여자로서의 매력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매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예술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혼생활과 예술이 양립되지 않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가 의욕 자신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결혼생활 때문에 시간적인 혹은 세속적인 노고(勞苦)가 더욱 가해지더라도 이것을 이겨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런 결과는 결혼하지 않고 얻은 예술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을 것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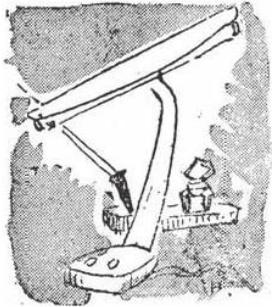
## 3. 민중(民衆)과 음악(音樂)

근대인류에 대해서 음악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를 루드비히 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악은 점점 우리들 생활의 하나의 힘이 되었다. 이 힘은 누구나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음악회에서나 극장과 가정에서도 그것에 진지하게 열심히 경도(傾倒)한 사람들에게 참 생활의 양식을 주었다."

이 말은 딱 낙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레코드와 라디오 영화 등의 보급으로 인해 확실히 점차적이기는 하나 대중생활 속에 침투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술적 향기가 높은 음악에 비해 자극이 강한 재즈와 유행가가 민중에게 애호되는 원인은 결코 한 가지만이 아니겠지만, 그 대부분은 정신적 경제적 고뇌가 차이할 것이다. 민중은 나날이 생활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어떤 일정한 생활의 안정을 보유했던 자라도 실은 진정한 안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시적 고통을 호도해 그날그날을 살아가려니 마음은 감상적인 것이 들어차게 되며, 예술적 가치 없는 재즈나 유행가에 의지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음악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비예술적인 음악에 의해 국민의 취미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전적인 것만을 예술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대적인 감각에 근거를 둔 음악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이면서도 예술적 향기 높은 음악이 지금 민중에게 주어야 할 음악일 것이다. 민중을 저급한 음악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음악가의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나, 그렇다고 너무 고급적인 음악을 주는 것도 결국에는 하등의 의의가 없으니 점차 음악적 교양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음악문화의 장래가 어떤 과정을 밟을는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일반 민중이 점점 더 음악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레코드, 라디오, 영화 등에 의해 음악이 민중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민중이 요구하는 음악만을 준다면 질의 저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음악가의 도의적 책임이 여기에도 놓여 있는 것이다. 끝.

## 외교(外交)와 연설(演說)

송광정(宋光楨)



해외근무 경험이 불과 3년이고 더욱이나 그것이 미국 화부(華府, 워싱턴)의 한 곳에 그치는 저로서 과연 외교 일화(逸話)를 들 자격이 있나 저 자신 의문되는 바이지만, 공군본부정훈감실의 청에 의해 감히 일필 들기로 했다.

대부분의 외교도 동일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 시험을 치르고 외무본부에 얼마 근무하다가 재외공관에 보직 발령되면 으레 3등서기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관보(外交官補)가

된다. 그래서 저도 주미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임명되어 워싱턴에 부임한 것이 1954년 말이었다.

부임해서 약 5개월이 되었을 무렵 하루는 내 책상의 전화가 울리기에 받았더니 중년 미국부인으로 추측되는 음성으로서 자기는 워싱턴 근교의 모 고등학교 선생이라 하면서 한번 자기학교에 와서 한국의 정치, 역사, 문화, 회사를 망라해 강연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하기를 듣는 사람은 졸업반의 학생들로서 약 50명이 될 것이라 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는 연령의 다소를 불문하고 미국인들을 앞에 놓고 강연해 본 경험이 없었던 나였지만 외교관의 임무의 하나가 자기주재국의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자기 본국을 소개·인식시키는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다른 한 면으로는 모처럼 부기(附記)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라 했잖나 고등학교 학생이라 별로 크게 중요시할 필요도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승낙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에 관한 것이니 별로 공부하고 가지않아도 또 원고준비를 해 가지 않아도 당장에서 적당히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용단(勇斷?)을 내려버리고 약속일까지 2주일 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준비도 하지 않고 또 마음도 거리낌이 없이 태평하게 그날을 맞이했다.

그날 예정시간에 동 고등학교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학생의 안내로 교실에 가서 전일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담임선생하고 인사한 후 등단했다. 학생의 수는

약 40명으로 추측되었고, 남녀 각 약 반반으로 구성된 아담한 학급이었다.

그쪽에서 정해진 시간이 40분 그 후에 있을 질의응답 시간 약 5분이라는 양해 밑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해가면서 나 자신 느끼는 것은 도대체가 이야기에 순서가 없고 조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평상시의 회화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연설이나 강연에는 그 이야기의 구성과 전개가 정연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 자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40분이라는 시간이 딱이나 긴 것 같이 느껴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의 강연이 얼마나 불충분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와 함께 학생들도 별로 신통히 생각지 않는 것 같았고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튼 내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에 간단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나니 다행이라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인제는 살았구나 하는 감정과 또 무엇 때문에 애당초에 맡았을까 하는 후회감도 섞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담임선생이 악수하면서 “당신의 강연은 꽤 좋았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것 많이 배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단지 외교적 언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고, 사교적인 미국인들의 성격으로부터 오는 속없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리해 내가 희망과 포부를 갖고 나선 외교관 생활의 제1보에서 행한 첫 연설은 완전히 실패였다.

외교관이라 하면 누구든지 화려한 생활을 연상하고 또 파티를 생각하는 것이 예사이지만, 실제로 외교무대에 나서고 보면 누구든지 그것이 외교관 생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교가 궁전외교 때와는 달리 사무화 전문화 되가는 오늘날 이전과 같이 파티나 샴페인에 의해 외교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잘못이다.

특히 우리가 직접 외국에 서기관으로 나가보면 그 사람의 사교성이라는 것에 앞서서 그 외교관의 진실성, 식견, 인격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발달에 의해 국민 일반의 여론이나 회구가 그 나라의 정치에 반영되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외교면에서도 자연히 자기 주재국의 정부에 대해서만 외교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충분하며, 주재국의 국민들에게 자기 본국의 정책을 이 해시키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외교관이 되려면 주재국 국민에게 자국의 진

상을 전달하고 자기 정부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강연이나 연설이란 것이 모국어로 하더라도 완전히 하려면 딱 힘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에이브러햄 링컨을 유명한 웅변가라고 한다. 물론 링컨이 위대한 연설가였고 또 명문가였던 것은 사실이며, 그가 그런 면에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링컨 같은 훌륭한 웅변가도 한 연설을 앞두고는 미리 원고를 작성하고 신중한 검토를 가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후인(後人)이 절세의 명연설이라고 규정짓고,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찬양하는 저 게티스버그 연설도 절대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워싱턴에 있을 때, 미 국회도 서관의 복도에 있는 역사적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 진열장에 서 동 연설의 초안을 보았는데, 연설하기 23일 전에 이미 작성되었던 것을 알았고, 또 그 후에 연설하기 전에 신중한 수정까지 가해졌던 것을 보았다.

링컨과 같은 위대한 웅변가도 자기 모국어로 연설함에 미리 원고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강연의 내용은 링컨의 그 연설과 같이 의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서투른 영어실력 밖에 갖고 있지 못한 내가 하등의 준비 없이 그러한 강연을 아무런 주저도 없이 떠맡았다고 함은 실로 만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관들 중에서 외국어로 훌륭히 연설할 수 있는 분은 누구보다도 주 미 대사관의 양우찬(梁祐燦) 대사와 한표옥(韓豹瑬) 공사라고 할 것이다. 양 대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일찍이 소년 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도미했던 분이고, 그 후 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다년간 의업에 종사한 후 현재 5년째 대사직을 맡아보면서 유창한 영어로 미국인을 앞에 두고 연설하는 분이다.

내가 주미 대사관 근무 중에 여러 번 연설에 따라가 본 일이 있는데, 언제든지 유창하게 연설하는 것을 보고 제 자신 감탄했고 또 미국인들도 놀라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면, 메릴랜드 주의 프레데릭 시의 <폴라리 클럽>에서 연설하실 때 내가 한번 동반했는데, 듣고 있던 청중들이 연설도중에 하도 감탄한 나머지 내 옆에 앉아있던 미국인들은 나보고 작은 목소리로 “당신들의 대사는 정말로 한국분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석했던 미국인들이 연설이 끝난 후 제각기 양 대사에게 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그의 연설을 극찬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일부는 나에게까지 와서 “당신의 대사는 정말로 연설을 잘하십니다.”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한표옥 공사를 따라서 연설하는데 가서 봐도 같은 장면에 부딪히는 것이 보통이

었다.

그런데 물론 양 대사나 한 공사가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연설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미리 원고를 준비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원고를 준비치 않는 경우라도 그들은 미리 마음속에 연설의 줄거리나, 내용을 그려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뿐만 아니다. 한번은 워싱턴에서도 가장 고급인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전(全) 미국 기독교 관계지도자 회의가 열렸을 때 워싱턴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일부는 초청되어 참석했었다. 그 자리에는 귀빈으로서 닉스 미 부통령이 오셔서 연설했는데, 기교를 떠난 연설이었지만 어구 어절까지도 검토를 가한 훌륭한 내용이었다.

아까도 약간 언급했던 일이 있지만, 연설이란 것은 이같이 근대 외교에서는 거의 불가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래(古來)의 전통적인 외교에서 점차로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를 통해 볼 수 있는 회의외교의 발전으로 전개되어 간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또한 UN과 기타 국제회의에서 약소국가의 대표라 할지라도 그의 연설이 이론 정연하고 권위 있는 것일 때 얼마만큼 그 회의의 결의에 큰 영향을 주는가를 봐왔던 우리로서는 근대외교에서 대소를 막론한 연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비밀외교에서 공개외교로, 귀족외교에서 민주외교로 변천하는 오늘날, 국제정의에 호소하고 세계 인류의 양식에 절규해 주재국 국민의 건전한 이성의 판단에 기대하려면 역시 연설이란 외교부에 의 중요한 무기인 동시에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국제정세를 ‘파워’에 의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나무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파워만 가지고 국제정세를 논하려는 것은 다분히 위험성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일부 정치가들이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의 요소로서의 여론 또는 도덕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자기 본국이 빈곤한 약소국가의 외교부는 항상 자기 정부의 정책이 똑바로 자기의 주재국에 반영되게끔 하는데 연설에 의한 방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부유하고 국력이 강한 나라의 외교관은 자

국의 부력이나 국위에 의해 외국 정부와 유효하게 교섭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약소국은 재력이나 국력에 의해 외국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인즉 모름지기 세계여론이나 주재국의 공론에 호소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우리나라의 일부 외교관들은 왜 가장 분주히 연설하고 다니는 대사, 또는 공사라는 것을 이해·긍정하리라 믿는다. 남의 나라에

해서 또는 자국의 국력으로부터 오는 권위에 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도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은 연설의 경우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교관이 외국에 부임하면 으레 자기 나라에 대해 소개해야 할 경우에 부딪친다. 이런 점은 단지 외교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유학생들도 똑같이 당하는 문제이다. 미국이나 그 타 국가에 유학이나 기타 목적으로 약간 동안 체류했던 분은 틀림없이 이런 모국 소개의 청(講)을 받았을 것이다.

이럴 때 훌륭히 자기 모국을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 본국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외국에 나가는 분은 가능하면 자국을 그 외국에 소개할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물며 외교관은 자국을 대표하고 자기 민족을 대표하고 자기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표하고 자기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주재국에 자국을 소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정부의 정책을 설명해 그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무튼 그 동기야 어떻든 간에 외교관이 충분한 연설능력을 배양해야 하겠다는 것은 전기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느끼고 각성한 바이다.

그리하여 그 후부터는 어떤 조그마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라도 틀림없이 미리 이야기할 것을 생각해 두고, 또 원고를 대략 작성해 그대로 읽지 않더라도 이야기 도중에 들여다보면서 해나가니 훨씬 말하기도 쉽고, 또 듣는 사람들도 쉽게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 후에 메릴랜드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한국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충분한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저의 영어 실력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고, 또 청중들도 흥미 있게 듣는 것을 알았다.

외교관이 될 조건으로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설할 수 있는 소양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이며, 또 그 필요성은 근대 외교성격의 발전에 수반해 점차로 더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해외 근무경험이 3년에 불과하고 또 외교관 중에서도 최저계급인 3등서기관 생활밖에 못한 나로서 이런 단정을 내린다면 물론 독단이라는 비난도 불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외교관의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국을

대표하는 역할은 더 커지는 것이며, 외교관 생활을 오래할수록 연설을 해야 하고 국제회의에 대표 또는 교체대표로 참석해야 할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진다.

‘외교관과 연설’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확신은 최근에 해외 근무를 끝마치고 본부 근무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나의 제1차 해외 근무에 대해서 반성과 검토시기에 있는 나로서 점점 깊게 믿고 있는 바이다.

(필자(筆者) 외무부(外務部) 의전과장(儀典課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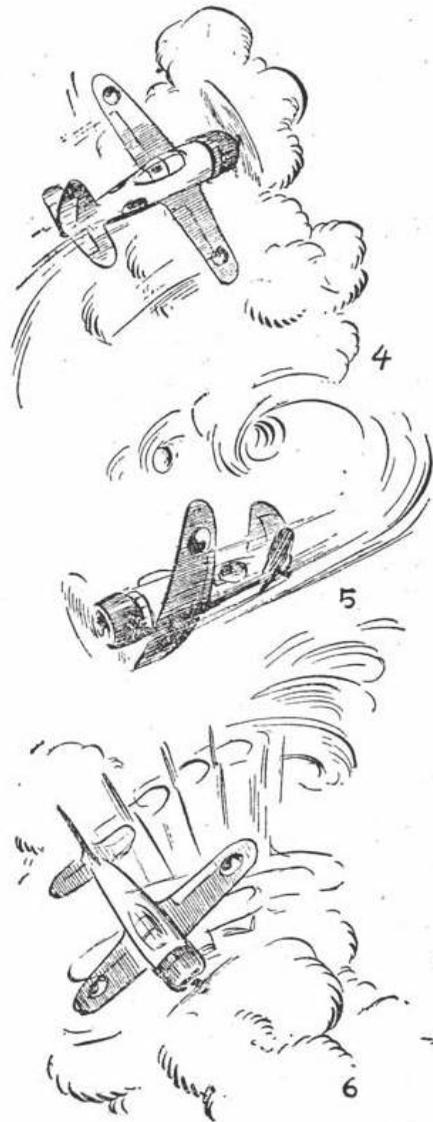
### 음향(音響)으로 목표물(目標物) 탐색(探索) 마크-32는 수중유도탄(水中誘導彈)

미 해군은 ‘대 잠수함 무기 중 새롭고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불과 얼마 전에 규정되었던 2개의 수뢰 중 1개에 대한 보다 치명적인 다른 대체무기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점증적인 소련의 수중군사력에 관한 여러 보고에 접해 해군은 보다 우수한 유도속도 및 사정을 갖게 되는 새로운 일련의 대잠수함 장치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 왔던 것이다. 해군 관리들은 이 새로운 수뢰(水雷) 연구에 관해 그 자세한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치고 음향을 따라 목표물에 명중하는 수뢰 마크-32는 해군의 훈련용 및 전투용으로 충분히 생산된 후인 1955년에 이의 생산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 무기가 있다는 것은 불과 지난 15일여야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마크-32에 관한 내용은 ‘적의 목표물을 찾아 수중 깊이까지 탐색할 수 있는 잠수용 유도탄’으로 밝혀졌다.

항공기가 수상 함선에서도 발사될 수 있는 마크-43호 수뢰는 아직도 생산 중에 있으나 이들은 모두 함대 장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유도 수뢰 이외에도 해군은 정찰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수중 원자탄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해상함선에서 발사될 수 있는 수중용 핵폭탄이 발전되고 있다.

### ‘공중우주성(空中宇宙省)’으로 미(美), 삼군통합(三軍統合) 후(後)의 명칭(名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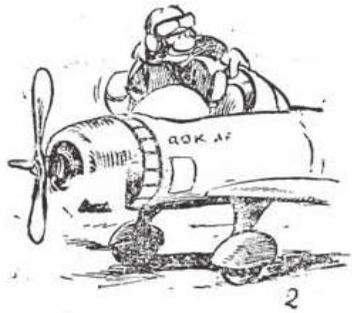
오랫동안 공군력 확장의 제창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P. 드 세버스키 씨는 미국의 육해공 3군을 단 1군으로 통합하고 이를 ‘공중우주성’으로 호칭할 것을 제의했다. 씨는 상원 방위분과 위원회에 대해 이 통합군은 단일제함과 단일참모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안에 의하면 해군은 선박국(船舶局)으로 그리고 육군은 지상군국(地上軍局)으로 각각 축소되기로 되어있다.



PI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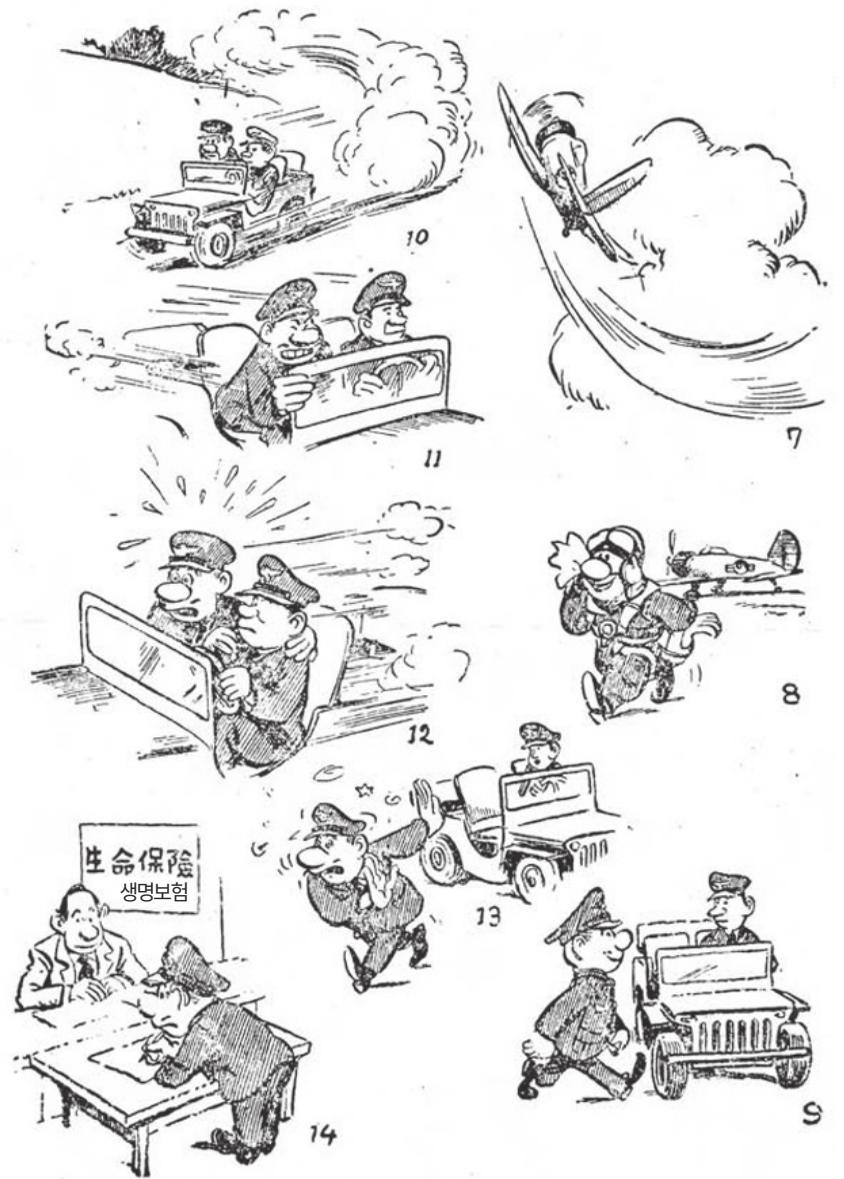
화(書)  
金龍煥  
김용환(金龍煥)



2



3



# 明朗四題

명랑4제(明朗四題)

韓聖哲

한성철(韓聖哲)



항공사(航空士)의  
집 창문(窓門)



아차! 너무  
급(急)한 김에……



신판(新版) 로미오와 줄리엣



이별(離別)의  
테이프



<시조(時調)><sup>22)</sup>

장검을 빼어 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대명천지에 성진이 잠겼세라  
언제나 남북 풍진을 헤쳐볼까 하노라

- 남이(南怡) -

22) 원문의 '일엽 제잠이 호월에 잠겨세라'는 원래 '대명천지에 성진이 잠겼세라'로 봄. 해석은 큰 칼을 빼어 들고 백두산에 올라 보니 밝고 맑은 천지에 전쟁의 기운이 덮혀 있구나 언제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 수 있을까



<시조(時調)><sup>23)</sup>

그럴싸 그러한지 솔빛 벌써 더 푸르다  
산골에 남은 눈이 다산 듯이 보이고너  
토담집 고치는 소리 별밭아래 들려라

- 정인보<sup>23)</sup> -

23) 정인보의 조춘(早春)

# 군인(軍人)과 민족사관(民族史觀)

이병도(李丙燾)



## 1. 민족(民族)과 전쟁(戰爭)

민족이란 동일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의 역사를 통해 언어, 습속 기타의 전통을 같이해 온 역사공동체요, 민족사는 곧 이런 역사공동체가 어떤 경로를 밟아 오늘의 현상에 이르렀는가를 조사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흐르는 물에 파란 굴곡(波瀾屈曲)이 있는 것처럼 민족의 역사에도 그러한 변화가 거듭해 있다. 더욱이 역사적인 민

족은 자기보전, 자기발전, 자기향상을 위해서 자기자체 내의 협조와 상극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접촉과 투쟁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지향 발전하기도 한다.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근본요소는 언제나 뚜렷한 것이어서, 우리 민족이 발전해오는 동안에는 만주, 몽고, 한인, 왜인 등의 외래요소도 다소 혼합되었지만, 이런 것들을 곧 흡수하고 동화해 혼연한 일체를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대체로 언로와 풍속 등이 같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흔히 우리 민족을 단일민족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민족사회에는 항상, 개인은 전체를 위해 살고, 전체는 개인을 포용하는 공통된 최고의 정신과 이념이 지배해왔다.

따라서 전체의 이익은 곧 개인의 이익이요, 전체에 대한 위협은 곧 자기 개인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전체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개인의 신명을 초개(草芥)같이 버려서라도 이것을 기어이 극복하고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기를 즐겨 해온 것이다.

우리 민족의 사회가 만주 또는 반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는 동안에는 한족·몽고족 등 많은 외족과의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투쟁은 대개 이들 주위의 강대한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선인들은 민족 전체의 공동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워서 외래의 침

략자들을 격퇴했다.

또 때로는 대세의 불리로 해서 일시적인 굴욕을 당하는 경우에도 불의의 침략자들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의의 항쟁으로 민족의 기개와 정신을 내외에 보여주었다. 이런, 전체를 위해서는 개체의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민족공통의 최고정신은 우리의 민족사회·민족국가를 오늘에까지 유지·발전해온 원동력이 된 것이다. 여기서 이런 우리 민족의 투쟁사, 그중에서도 군인 무사들의 외적을 격퇴하고 국가의 위난을 구출하는 애국·애족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실들을 약간 추려 서술해 오늘의 군무를 담당할 장병들의 민족사관의 확립과 민족정신의 진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2. 고구려(高句麗)의 대한족(對漢族) 투쟁(鬪爭)

우리 민족은 그 지리적 위치 관계로 해서 주위 여러 민족과의 교섭과 충돌은 연대상 매우 구원했다. 더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대륙의 북방에서 차츰 동진해 만주로, 반도로 진출했던 만큼 대륙의 한민족과의 접촉은 특히 오래고 잦았으며 그 영향도 컸다.

그중에도 서기전 108년에 있었던 위씨조선(衛氏朝鮮)과 대륙의 한제국(漢帝國)과의 충돌은 최초의 큰 사건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위씨조선이 약 1년 동안이나 항쟁하다가 패배를 보고, 그로 인해 우리 영역 내였던 일부 지방에는 낙랑(樂浪)·현도(玄菟)·진번(眞番)·임둔(臨屯)의 4개의 한 군현이 설치되었던 것이니, 이것이 우리 민족사회에서 외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최초의 쓰라린 경험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이런 군현을 통해 침입해 오는 한인의 세력에 대한 반항운동은 진작부터 치열했기 때문에 미구에 4군은 폐합되어 낙랑·현도의 2군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한인의 침략세력을 제거해가면서 만주와 반도의 북부 일대에서는 고구려(高句麗)와 옥저(沃沮)·동예(東濊) 등이 일어나고, 한편 반도의 남반부에서는 진한(辰韓)·마한(馬韓)·변한(弁韓)의 연맹사회가 일어났으며, 또 그 뒤를 이어서 백제(百濟)와 신라(新羅)의 흥기(興起)를 보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고구려는 현도군 내였던 지금 압록강 중류지방에서 굴기(崛起)해 일찍부터 현도는 물론, 주위의 많은 강적들과 싸워 이를 물리쳐가면서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

미천왕(美川王; 4세기 초) 때에는 최후까지 반도의 일부 지방에 남아 있던 한의

군현인 낙랑과 대방을 완전히 몰아내고, 남으로는 반도의 중부지방을 차지했던 백제와 접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개토왕(廣開土王)이란 불세출의 영주가 나서서부터 서로는 요하(遼河) 이서의 지방을 완전히 소유하고, 동으로는 동예를 평정했다. 그다음 장수왕(長壽王) 때부터는 수도를 압록강 중류 지역(국내성(國內城))에서 대동강의 유역인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취해 백제와 신라를 제압하는 등 그 세력을 사방으로 펼쳤다.

그런데 고구려가 이런 발전을 가져오기까지는 끊임없이 침입해 오는 외적에 대한 고구려 국민들의英勇(英勇)한 투쟁의 기록을 잇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고구려는 그 지리적 조건이 중국의 대륙과 연결해 있었으며, 또 일시 침입해 왔던 중국의 세력을 배제해 가면서 국세를 확장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가장 많이 중국과의 충돌이 잦았다. 그 중에도 제11대 동천왕(東川王) 때의 위(魏)의 침입이나, 제16대 고국원왕(故國原王) 때의 전연(前燕)의 침입 같은 것은 도성의 함락·국왕의 피난 등으로 일시 국내를 혼란의 와중에 빠지게도 했다. 그러나 이렇듯 큰 환난 중에서도 고구려의 장병들은 과감하게 적군을 습격해 그 예봉을 꺾기도 하며, 한편 강인불발(強靱不拔)의 애국심으로 피폐한 국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해 끝내 동방의 '막강지국'(莫強之國)으로 알려졌던 고구려 대제국을 이룩했던 것이다.

이렇게 발전한 고구려는 다시 수와 당의 2개의 강대 세력이 꼬리를 물고 대들어 오는 침략의 폭위(暴威)에 부딪히게 되었다.

즉 3국(魏晉) 이래 5호(五胡) 16국(十六國)의 혼투(混鬪)와 남북조의 대립 등으로 한동안 분열과 혼란을 극하던 중국에서 새로이 대륙통일의 사업을 성취한 수(隨)의 양제(楊帝)는 그 남정북벌에 승리하지 못한 적이 없는 자신과 위력으로 동방의 강대국 고구려마저 정복하려고 대들었다. 그런데 수에서도 고구려의 실력을 짐작했던 만큼 몇 해 동안에 걸쳐 '물중지대(物衆地大)'한 중국의 온갖 힘을 동원해 전비의 만전을 기하고, 1백여만이라는 중국에서도 유사 이래의 최대병력을 출동해 수륙 양면으로 쳐들어오니, 때는 고구려의 영양왕(嬰陽王) 23년(서기 612)이었다.

그러나 고구려 장병들의 용전선투(勇戰善鬪) 앞에서는 수의 대병력도 보람이 없었다. 바다를 건너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평양성을 육박하는 수의 수군은 우리 군사들의 북병전에 참패를 입었고, 양제가 친히 지휘하던 육군 주력부대의 요동성 포위전도 많은 손실을 입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리고 수의 대장 우중문(于仲文), 우문술(宇文述)이 거느린 별동부대 30만은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의 유도 전술에 빠져, 압록강을 건너 평양 부

근까지 쳐들어왔다가 불러가는 도중 살수(薩水; 지금 청천강) 작전에서 그만 거의 전군몰락의 대패를 당했다.

수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해왔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마침내는 국력의 소모, 내란의 발생으로 자체의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수를 대신해 대륙을 통일한 당에서도, 영주(英主) 태종이 세계제국을 건설하려는 발발한 야심으로 수나라 때 전쟁에 패몰한 자제들의 원수를 갚는다면 고구려 원정군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당 태종이 친히 지휘·독전(督戰)하는 수군·육군은 비사성(卑沙城; 지금 대련)·요동성(遼東城; 지금 요양) 등지로 쳐들어왔다. 그러나 안시성(安市城; 지금 해성동남(海城 東南) 영성자(英城子)) 싸움에서, 백전연마(百戰鍊磨)의 고구려 장병들의 초인적인 방어전에 의해 승승장구해 들어오는 수십만의 당의 대군을 60여일간이나 막아 싸웠다.

결국은 당의 태종으로도 출사를 후회하며 물러가고 말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태종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수륙 양면으로의 침략전을 해 왔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경 소란을 일으켰을 뿐 고구려의 용감스러운 장병들에게 번번이 손실만 입고 돌아가고 말았다.

### 3. 고려군민(高麗軍民)의 항적정신(抗敵精神)

그다음 신라의 반도통일 후 200여 년에는, 왕실·귀족의 향락·부패와 토지제도의 소란 등으로 해서, 그 말기에 가서는 국내가 혼란 상태에 몰입하고 결국은 후백제, 태봉(泰封; 후고구려)의 분열로 '후삼국'의 성립을 보게까지 되었다.

그런데 이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그 건국의 출발부터 민족발전의 의욕이 왕성한 태봉의 장령(將領)들이 도량과 지략이 출중하고 국토통일을 항상 경론(經論)하던 왕건을 추대했던 만큼, 그 이상은 후삼국의 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고도인 평양을 서경(西京)이라 칭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작부터 북방개척에 주력했다. 고려의 이런 민족적 이상에 의해 실시되는 북진정책은 그 판도를 신라 시대보다 북방으로 나가서 지금의 청천강 이북으로 넓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려의 북진정책을 가로막는 세력이 북방에서 나타났으니 그것은 동부 몽고의 거란(契丹; 글안)족의 만주진출이었다. 거란은 요하 상류지방을 근거지로 해서 각 부족을 통일해 강대한 국가를 형성하고, 다시 고구려의 유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발해국(渤海國)까지 병합했다. 진작부터 고려조와의 감정이 좋지 못했던 거란은 그 후 강대한 무력으로 다시 압록강을 건너 반도 내까지 침입을 감

행했다.

즉 거란은 고려의 성종(成宗) 12년(서기 993년)과, 현종 원년부터 9년에 걸쳐 3차의 대침구를 해왔는데, 이때의 거란은 국호를 요(遼)라 하고 황제를 칭했을 뿐만 아니라 몽고·만주의 일대는 물론 중국의 북부까지 차지해 그 세력이 대단했다. 현종 원년에는 요왕 성종(聖宗)이 친히 40만 대군으로 침입해 왔으며, 제1차와 제3차에는 거란의 유명한 장군 소손녕(蕭遜寧)과 소배압(蕭排押) 등이 대병을 휘동(揮動)해 쳐들어 왔다.

그러나 고려의 장병들은 적의 대군에도 겁내지 않고 그들을 몰아내고 북으로 영토를 개척했다. 즉 제1차 침입시에는 중군사(中軍使) 서희(徐熙)가 용감하게도 적진 중으로 나가서 적장 소손녕과 직접 담판해, 고구려의 고지(故地)는 고려가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적병을 인퇴(引退)시킨 다음, 다시 북으로 여진을 토벌해 북계를 압록강 하류에까지 넓혔다.

제2차 침입 시에는 행영도총사(行營都總使) 강조(康兆) 등의 실책으로 해서 일시 개성까지 적병이 침입했지만, 양규(楊規)를 비롯한 서북 여러 진의 장령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거란군을 습격해 많은 손해를 주었다. 또한 이 제2차전에서 적에게 포로된 장군 강조와 회군사 적국에까지 끌려 들어갔던 대신 하공진(하공진(河拱辰)이 거란주의 항복 권유를 매도(罵倒)하면서 정의의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의 민족정기를 널리 내외에 선양했던 것으로서 유명한 일이다. 그리고 제3차 침입 시에는 다시 고려의 명장 강감찬(姜邯贊) 등의 강타·분쇄로 해서 거란의 10만 대군은 거의 수천 명이 생환하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으로서, 무적 강군을 자랑하던 거란의 대병도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고려의 장병들 앞에서는 조수족(措手足)을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 고려조에서의 큰 전란은 제23대 고종조(高宗祖)의 몽고 전란이었다. 몽고는 흑룡강 상류지방에 있던 유목민족으로서 오랫동안 요와 금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에 유명한 영웅 테무진(鐵木真, 징기스칸(成吉思汗))이 나서 근방과 몽고의 여러 부락을 통합한 후 금과 요를 정토하고 대륙의 황하 이북까지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종 18년에는 몽고 사신의 피살사건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침입해 왔다. 여기서도 서북면 병마사 박서(朴犀) 등 여러 장수가 읍주(邑州) 및 여러 곳에서 격렬한 방어전을 해 적의 기세를 꺾기도 했지만, 적은 강행군으로 깊이 쳐들어와서 개성을 포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고려조정에서는 국토를 강화로 임시 옮기는 일방 장기항전의 태세를 취했는데, 이후 30여년간 고려조에서는 군·관·민이 그야말로 3위1체의 끈기 있는 항적정신으로 일면 전쟁, 일면 생산의 방침을 묵묵히 실천했던 것이다. 그중에도 강화 피란의 전란 와중에서도 불력(佛力)의 가호로 적의 격퇴를 염원하는 성념(誠念)에서 관민의 일치 전력으로 우리의 유명한 문화재인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15, 6년간의 공역으로 완성했다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도 눈물겨운 감격의 일이다.

#### 4. 왜(倭)·호(胡) 양란(兩亂)과 민족정기(民族正氣)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근대조선 500년 사상 가장 큰 전란이었으며, 또한 민족의 큰 수난의 기록이었다.

그중에도 왜란은 근대조선의 제14대 선조대왕 25년 임진에서 시작해 전후 7년간에 걸친 장기전란이었으며 횡포한 적의 발길은 국내에 거의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즉 개전 후 1개월도 못되어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국왕을 비롯한 정부 일행은 국토의 최북단인 의주(義州)로까지 피란하는 등, 국가의 형세, 민족의 운명은 그야말로 위기일발이었다. 여기서 ‘구국제민(救國濟民)’을 민족의 지상명령으로 삼는 충의의 용사들이 각지에서 무기를 들고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조헌(趙憲), 광재우(郭再祐), 정문부(鄭文孚) 등의 분전은 가장 유명했던 것으로는 가는 곳마다 적병을 요격 섬멸했다. 또한 지방을 따라서는 김시민(金時敏)이나 이정암(李廷翰) 같은 이들이 진주와 연안(延安)에서, 적고 외로운 군세로도 물밀 듯 쳐들어오는 왜의 대군을 잘 막아 싸워서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왜란 7년간을 통해 민족과 국가를 위망의 경에서 구출한 가장 큰 공로자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해상수호작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충무공은 왜란이 일어나자 남해상을 왕래하면서 옥포·당항포·한산도·부산 앞바다 등 가는 곳마다 적의 수군을 격파하고 그 수륙병진의 계획을 분쇄했던 것이니, 육상 관군의 많은 패배에 비해 해상에서의 이런 승리는 오로지 공의 용재대략(雄材大略)과 애국애족의 충심에서 이루어진 견적 필멸의 작전에 의해서였던 것이다.

충무공은 과연 성자에 가까운 민족정기의 화신이었다. 일시 모략을 써서 공을 대신해 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이, 공의 45년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해군의 진용을 일조에 함몰시킨 다음, 겨우 난파선 10여 척을 모아서 해상을 덮어오는 적의 대선단과 대전준비를 할 때, 정부에서 그 고단한 형세를 염려해 수전을 그만두고

육전에 주력하고자 증용하는데 대해, '전선이 아직도 12척이나 있습니다.

미신(微臣)이 죽지 않는 이상 적이 감히 우리를 경시하지 못합니다.'고, 해상수호의 비장한 결의를 보인 것이나, 적이 물러갈 입시에 최후로 노량 대해전을 목표로 하고 나가면서 증용히 뱃머리에 나왔ая, '이 원수만 없이 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하늘께 맹세한 일 같은 것은 과연 민족정기의 상징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의 이런 애국지성은 기적적인 '명량대첩(鳴梁大捷)과 최후의 노량(露梁)의 승리도 가져 왔던 것이다. 아니,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기도의 역경에서 만회했던 것이다. 그 다음 '병자호란(丙子胡亂)은 왜란 종식 후 40년 미만인 인조 14년 병자에 있던 대전란이었다. 왜란이 7년의 장기간이었음에 비해 이 호란은 겨우 4.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결과와 민족에게 미친 바, 정신적 영향은 매우 컸던 것이었다.

즉 청(淸, 후금(後金))의 태종이 친솔(親率)한 10만 정병이 졸지에 쳐들어오는 통에 조야(朝野)는 당황해 왕자와 비빈(妃嬪) 일행은 강화도로 피란하고, 왕과 조정 백관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청진에서 병력을 집중해 성 밑에 육박, 포위 급공하니 성안에서는 방어대책이 서지 못하고 군신옥쇄(君臣玉碎)를 주장하는 '척화파(斥和派)'와 일시 청화로 후일을 도모하자는 '주화파(主和派)'가 어전에서 심각한 토론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세에 의한 일시적인 방편이었던 것이요, 우리 겨레의 청에 대한 적개심은 난전보다 더욱 고조되었다. 따라서 척화를 끝끝내 주장하던 홍익한, 윤집, 오달제 같은 문신 무장들은 불들려서 청주의 앞에까지 가서 그 불의의 침구(侵寇)를 매도하다가 죽음으로써 민족의 기백을 대변했으며,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있던 임경업(林慶業) 장군은 최후까지 대적 항전을 하는 등 그 기세는 대단했다. 그리고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송시열, 이완(李完) 등 문무 대신들과 함께 '북벌'의 계획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청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근세까지도 그들에 대해서 '호인(胡人) 또는 '되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대청(對淸) 적개심의 연속인 것이다.

또한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통해 연면·지속해 오는 민족의 정기는 근세조선 말기에 일제의 침략 시에도 여러 가지의 투쟁방법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는 직접 총검을 들고 '의병' 또는 '독립군'으로 항전한 것이라든가, 단신으로 폭탄 혹은 권총을 가지고 일제의 거물들을 저격한 것 같은 것은 민족의 충용 의협의 기백을 여실히 표현한 것이며, '3.1운동'의 '독립선언'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투쟁의 민족정신

을 내외에 선언한 것으로서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한 바 있다.

## 5. 군인(軍人)과 민족정신(民族精神)

이상과 같이 우리 민족은 과거 수많은 외적의 침구를 당했으며, 거기에 의한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선인들은 그 강인불굴의 민족정신을 지속 발휘해 침략의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민족사회를 유지·발전해 왔다. 그중에도 역대의 충용한 군인들의 호국애족의 투쟁은 우리 민족사의 초석이 되고 지주가 되었다.

제1차 대전 이후 전쟁의 양상은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단지 일선장병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총력집결에 좌우되는바 크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근대전을 치르고 난 오늘의 일반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총·칼을 들고 포탄을 안고 몸을 포연탄우(砲煙彈雨) 중에 던져 적과의 직접대결을 하는 것은 오늘도 역시 일선의 군인이다. 후방에서의 국민의 총력이 집결되고 적을 압도할 만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효과 있게 발휘·이용할 만한 군인이 없다면, 그 지원과 장비는 무용의 장물이 되고 만다. 또한 국토는 적의 횡포한 발길아래 유린되고 국민은 전란의 참화를 입지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국가의 총력을 집결해야 하는 현대전에서도 그 전쟁의 추진력은 역시 군인에게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인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로 국가의 간성이오 민족의 방파제인 것이다.

오늘 우리의 군인들에게는 일조유사시(一朝有事時)에라도 차질이 없을 만한 준비로서 근대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수득연마(修得鍊磨)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이보다도 먼저 우리의 군인들은 우리 민족사관에 입각한 민족정신의 수립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지난날의 고풍한 길과 과거의 용감한 군인들의 국토수호 민족 보위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체득하는 데서만 오늘의 우리의 군인들도 그 자신이 처한 바 민족사상의 위치와 자신에 부과된 바 민족적 사명을 확고히 인식하는 동시에, 명실 공히 민족을 위해 싸우는 민족의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사관에 입각한 민족정신의 확립 -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군인들에게 신무기의 장비 이상으로 긴급한 일이다.

## 수상(隨想)

최용덕(崔用德)



이미 지나간 일이지는 하나, 이 일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까닭에 다시 한 번 회고하려고 한다.

나는 일찍이 강도적인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나라 주권과 강토(국민, 국민은 언제나 조국을 생각하고 사랑하므로)를 찾으려고, 내 나이 17세 때(1915)에, 그들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들어갔으며, 실력으로 싸워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자는 결심으로 군문(軍門)을 지원해 육군(중국육군군관학교)으로 들어갔고, 좀 더 힘 있고 효과적인

전과를 가져오기 위해 다시 공군(중국공군군관학교)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때 나는 마음깊이 뜻한 바가 있었으니,

1. 우리나라의 공군 군복을 입고, 우리 국기에 경례를 하자!
2. 우리 기술자가, 우리의 기재로서 만든 항공기로 날아보자!
3.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를 세계 사람들을 위해 날려보자!
4.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항공생활을 즐기게 하자!

그리하여 나는 항상 모든 고민과, 기쁨과 환상……을 버리지 못한 채, 중국의 통일혁명을 위해 항일과 공산 토벌전에 나의 마음과 끊는 피를 가지 있게 소비하려고 힘써왔다. 나라의 광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노력 분투하는 혁명투사 여러분의 정신적 결합과, 무력에 의한 투쟁과 및 UN 여러 나라의 연합작전의 결과로 마침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됨을 따라 우리 민족이 다시 천일을 보게 되어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의 땅에 이루어졌으므로 나는 곧 중국을 떠나 돌아와 기쁘게 우리나라의 군복을 입었다. 그러나 그것은 육군의 군복이요, 내가 뜻했던 공군 군복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 육군소속으로 설립된 육군항공대 동지들과 같이, 공군 독립을 위해 각 방면으로 활동했고, 마침내, 공군도 육군, 해군과 같이 독립해, 삼위일체의 완전한 조직으로서 조국의 운명과 흥망성쇠의 중한 사명을 맡게 되었다.

어떤 일이나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독립의 권리를 얻은 우리는 공

군으로서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것이 의무임을 각오하고, 나는 자기의 모든 것 위에 바칠 결심으로 꾸준한 걸음을 걸어왔다. 더구나 지금은 공중의 세계이며 모든 것이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해결하려는 때이므로, 공중을 활동무대로 하는 항공인의 의무가 점점 가중해 간다는 것이 누구나 공인하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영구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항공문제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항공문제는 곧 항공기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내가 뜻한 바, 우리 기술자가 만든 항공기를 우리의 기술로 날리는 방향으로 속속히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는 먼저 우리의 공업수준이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복돋아 주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해야 그 자라는 속도가 빠를 것인데, 뜻하지 않은 공산도배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도리어 파괴만 당했으니,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데 눈 코 뜰 사이가 없게끔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의만 있다면, 또 냉정하게 우리 민족의 세계적인 입장과 사명을 생각 한다면 이 문제는 좀 더 중요시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힘을 다해 밀어주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국토 반쪽만을 회복한 것도 다행한 일이지는 하다. 그러나, 국토통일의 의무는 아직도 다하지 못했으니 이 중차대한 앞일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발 붙이고 있는 이 땅을 굳게 지키고, 한편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항공의 중요성, 곧 항공기 제작문제를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바이다.

우리는 지금 곧 시기를 잃지 말고 적고 큰 것을 가리지 않고 돈의 힘을 모으고 지혜의 힘을 모아, 각 부문의 전문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이 일을 착수해야 한다.

사람은 지나간 일을 기억도 잘하지만 그만큼 잊어버리기도 잘한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슬픔을 생각하면 지금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그 눈물은 때가 흐름을 따라 식어가고, 공산도배의 남침으로 또 다시 부모처자가 서로 이산되어 남으로, 남으로 피난 가던 때를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땅을 지키는 것과, 땅을 지켜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같이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편이 조금만 안심이 되면, 잊어서는 아니 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버릇인 동시에 크나큰 우리의 단점이라 하겠다. 무릇 누구를 막론하고 비상한 시기에 처한 사람은 비상한 생각과, 비상한 결심과 또 비상한 행동을 해야만 그 난관을 돌파해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

한 이런 비상시기에 어찌 주저(躊躇)와 준순(浚巡)만을 일삼고 있을 수가 있으랴

우리 겨레가 일제의 무리한 통제를 받았을 때도 우리 민족성을 이해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을 예언했고, 아직 국토의 반쪽밖에 찾지 못한 이 형편이라도, 우리 민족은 장차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공헌할 것임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겨레성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모든 일이 이 모양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각 민족이 각자 각자로 발전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원칙 밑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당면한 민족 과업인 국토통일을 생각해야 하며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자유 우방과 결합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최단시간 안에 반드시 이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우리의 힘의 중심은 공군이며, 공군의 생명이 바로 항공기인 만큼 우리의 민족과업을 달성하는 첫 단계는 바로 항공기의 제작 생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항공기의 제작 이 문제는 결코 말로서 되는 것은 아니라 용감한 실천에 있는 것이며, 민족 공업 수준이 이에 따라야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난관을 물리치고, 첫걸음으로 우선 부품 제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보 일보 나아가 차츰 중요한 기재를 제작해 가노라면 머지않아 우리 손으로, 또 어쩔 것 없이 그 발동기의 제작 단계에까지는 쉽사리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필자(筆者), 전(前) 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

### 금언(金言) 명언(名言) 격언(格言)

☆ 진리는 인간이 보유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영국 문학가 제프리 초서)

☆ 보편적 진리는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맹목일 것이며, 이는 이성의 눈인 것이다.

(프랑스 문학가 장 자크 루소)

☆ 진리와 도리(道里)는 지력적(智力的) 황금을 형성한다. 이 황금은 깎 수 없는 것이다.

(영국 시인, 평론가 새뮤얼 존슨)

## 공군(空軍)을 퇴역(退役)하고

서임수(徐壬壽)



공군을 퇴역한지 벌써 3년이 넘는다. 요즈음은 만나는 친지 중에 내가 전에 공군에 있었다는 일을 전연 잊어버리고, 내 앞에서 기탄없는 공군 평을 시작해 나를 당혹케 하는 이도 여전히 없지 않다. 하지만 전과 같이 “어떻게 오늘은 사복을 하고……”라고 내가 아직도 현역으로 있는 줄만 알고 인사를 해 대답을 곤란케 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나 자신에게도 이제는 지난날의 공군생활이 먼 나라, 먼 세상 일 같이 생각하게 되었고, 제복을 입고 그 속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군에 관한 무슨 일이 생기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에 한국의 경비행기 1대가 일본에 불시착해 불미한 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어떤 좌석에서 그 이야기가 났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이 공군소속기가 아니고 육군기라는 변명을 한참 늘어놓아(물론 사실대로 이다) 만좌(滿座)의 웃음 사고 나 자신도 한참 고소(苦笑)를 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 공군기면 어떻고 육군기면 어떻단 말인가! 말버릇으로 ‘우리 공군’ ‘우리 공군’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 군인 출신이 많다는 평이 있는 터에 용어가 온당치 않다.”는 충고를 들은 일도 최근의 일이다. 나는 곧 “우리 공군이 남의 공군이나” 고 대꾸를 해보았지만 물론 충분한 변명은 되지 않는다. 신문 지상에도 공군기사가 나면 자연히 주의를 하게 된다. 나쁜 기사인 경우에는 막을 수 없었을까 좋은 기사인 경우엔 더 크게 낼 수 없었을까 하고 마음이 가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군 관계의 행사가 있으면 대체로 초대가 오고 나 자신도 가능하면 출석을 한다. <코메트 위클리>가 나오면 먼저 들고 와서 보여준다. 내가 있을 때 시작한 일이라고 해서 하는 호의인지 모르겠으나 나오시는 고맙다는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얼굴을 아는 장교나 사병들로부터 길에서 정규적인 경례를 받는 일도

고마운 일이다. 더욱이 내가 있을 때 사병이던 군이 장교가 되어있는 것을 보는 것은 반갑다. 그런데 요즘 점점 낯선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가니 서운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일이 있어 여의도 비행장에 가면 대체로 한 번씩 공군본부에 들리기도 하지 만 내 사무실에도 공군 장교들이 많이 찾아온다. 전보다 몸이 낫다는 인사에는 공군에 있을 때만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고 웃기도 한다. 예비역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취직 상의가 많다. 그동안 부탁받은 몇몇 사람은 내 직장에 맡았고, 또 다른 곳에도 가능한 한 열심히 찾아다녀 이 점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군재향군인회에도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한 기 지냈고, '모형항공기대회 준비 위원회'라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의 명단에도 언제나 승낙 도장을 찍기도 한다. 나의 공군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으나, 나는 평생 끊어질 것 같지도 않은 이 관계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에도 고통이 없지 않다. 그것은 젊은 조종사의 부모(訃報)를 신문지상에서 발견하는 일이다. 그것이 가까이 지냈고 또 그 장래가 촉망되던 조종사인 경우에는 애통한 마음이 공군에 간 것을 후회할 정도이다. 재작년의 김달휘(金達輝) 대위의 사망기사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그는 특수비행 훈련 중 산소마스크의 고장으로 의식을 상실한 채 1만 수천 미터의 고공에서 낙하해 문자 그대로 산화하고 만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그가 공군 사관학교의 1기 생으로 그때 훈련생이던 우리 반의 조교로 왔을 때였다. 그는 남보다 뛰어난 우수한 재질과 함께 사람을 끄는 인간적인 무언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장래의 대성을 의심치 않았고 또 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그것과는 다른 애착을 그에게 느끼고 있었다.

비행기가 얼마 없을 때라 저녁이 되면 언제나 비행기를 마음껏 타고 싶다는 소망을 열렬히 나에게 토로했다. 그때 그에게 세계에서 제일가는 비행기를 타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한 내 소원은 곧 나 자신의 공군에 대한 애착에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그 후 공군도 발전하게 되고, 그도 소원대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연후에 적진에 연일 출격을 감행해 많은 공을 세웠다.

구대장 근무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나를 모슬포 초등학교 운동장을 열 바퀴나 혁혁거리며 돌게 한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나의 가슴 한 모퉁이에 영영 메울 수 없는 공허를 남겨 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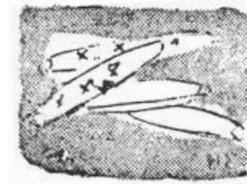
(필자(筆者), 전(前) 정훈감(政訓監), 현(現) 국회사무처(國會事務處) 총무국장(總務局長))

<생활수상록(生活隨想錄)>

## 아름다운 질서(秩序)의 천국(天國)

김규동(金奎東)

### 독서(讀書)·문학수업(文學修業)



젊은 시절은 그 성장의 전 과정을 통해 가장 감수성이 강한 시기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지적인 성장과 더불어 정의의 면에서의 비약적인 성장은 넓고도 큰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20 전후에 시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단언도 쉽 리 내려지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이 정적인 감성의 개화기나 난숙기에는 이성의 지배나 통솔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 무절제한 로맨티시즘의 도래를 환영해 마지않는다.

젊은 시절에 우리들은 많은 시간과 정력의 대부분을 루소나 위고의 소설을 탐독하는 일에 바쳐 왔으며, 학교에서 교사가 맡겨준 숙제를 저쪽에 밀어 놓고 적지 않은 문학 개론과 선인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철학적 사색의 안내들을 주무르기에 골몰했던 것이 사실이다.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만 생각되는 수학 공식이나 화학 실험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한 권의 연애소설에 비한다면 참으로 흥미 없는 숙제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기자기한 소설작품이라든가 여릿여릿한 향수를 돋우는 인정비화(人情悲話)의 시편들만이 우리의 구미를 자극하는 유일한 일과였다. 한 편의 시를 읽고 또는 평범치 않은 비극을 결말로서 끝나는 소설을 탐독하고 났을 때 우리는 자연 그러한 시나 소설을 모방해 보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을 어찌지 못해 무수한 습작을 시험한다는 것으로 또한 시간과 정력을 소모했다.

그러나 이런 무작정만 또는 무쾌도한 독서나 습작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대체 얼마만한 사람이 작가로 나서고, 높은 시인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일까? 실로 적은 수효의 사람들만이 문학을 실천해 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문학에서 무엇을 플러스해 받았던 것인가?

이것은 암만해도 우리들이 다시 냉정히 검토해 봐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학작품이나 2류 이하의 입학개론이나 문학입문서를 암송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꾸준히 닦아 두어야 할 아인슈타인의 양자론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끝내 버림을 받은 채 흘러가고 말았으며, 오늘의 움직이는 세계자체에 대한 상식을 결한, 말하자면 시대와 역사에 한 걸음씩 뒤쳐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 젊은 시절의 독서는 이와 같이 아마도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젊은 시절의 문학수업이란 그러므로 극히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조금만 잘못 내어 디디면 위험한 방향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나는 권하고 싶다. 젊은 시절엔 차라리 무작정 한 독서와 습작으로 가까운 시간과 정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아인슈타인'이나 한 권의 '바이블'을 읽어감이 도움이 될 것이라도 - 소설책만을 찾아다니거나 2류 이하의 내추럴리즘(자연주의)의 시론(詩論)을 쫓아다니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욱 해롭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은 아무런 체계와 과학적인 비판의 조명이 없는 못형이상학적 문학론들이라 할 것이다.

흔히 젊은 시절은 실지 좋은 작품의 음미나 해석을 구하기 전에 시장에서 아무렇게나 팔리고 있는 문학개론이나 시 감상법이나 소설작법이나 문학입문 등의 무책임한 내용의 책들을 사서 암송하는 것을 진정한 문학수업인 줄 알고 있는 것이며, 덮어놓고 세상은 슬픈 것이라든가 인생이란 애달픈 것이라는 등등의 유행가보다도 내용이 없고 불건전한 시를 외워서 읊는 것을 본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옳은 지도자와 지도서의 결핍을 통탄해 마지않는 바이다.

### 실현(實現)·생활(生活)·미(美)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현실 - 그 모든 주변은 흔히 추하고 불유쾌한 요소들로서 꾸며지기 쉽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인간은 항상 보다 아름다운 세계, 보다 명량하고 행복스러운 제2의 세계와도 같은 낙원의 건설을 꿈꾸고 이를 동경하는 성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인생의 의의에 대한 해설 같은 이야기여서 우스워지지만, 이와 같이 인간이 희구해 마지않는 미의 세계가 다름 아닌 문화의, 또는 예술의 세계라고 한다면 너무나 독단적인 견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말씨, 아름다운 사고, 아름다운 행동을 찾아 헤매는 마음이 곧 문화의 정신과 그 의의에 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진대, 문화가 우리들 인간의 사회와 이상에 미치는 가치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오랜 과거에 너무나 그릇되게도 문화의 성장과 그 유산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문약의 이름에 의해 학대와 경멸을 당하던 때와는 달리, 오늘의 역사를 창조하고 이 역사의 거센 물결이라 볼 수 있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새 세대의 기류를 호흡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하고, 또 동경해야 할 우리 자신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할 줄 안다.

문화는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하며, 그것은 또한 전쟁에서의 무력전이나 사상전에 어떤 영향을 스스로 장만해 주는가?

이런 것에 우리들의 생각이 만일 미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의 옹호와 추진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력전에서도 화기나 전투기를 조종해 가는 것은 역시 인간임에 틀림없고, 그 인간을 조종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력 혹은 그 기능임에 틀림없다.

사람의 정신력 - 생활과 삶에 대한 굳센 의지와 아름다운 이상을 향한 끊임 없는 의욕의 배양이 문화가 지닌바 고귀한 에너르기 속에서 형성된다고 한다면 문화의 가치를 결코 소홀히 여기고 말 수는 없다.

이런 견지에서 영국의 시인 T. S. 엘리엇의 말은 뜻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는 "문화적인 모든 유산을 모르는 민족은 자연 미개해지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화를 아끼고 이를 키우며 한걸음 나아가 그 문화의 방향을 어떤 곳에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서 하루아침에 결정해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세계문화 가운데서 아름답고 건실하고 유익한 문화를 수입해 소화하며 그것을 우리의 정신 속에 간직하되,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비추어 그것을 채택함이 안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하여 질적으로 낮은 문화로부터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문화에도 우리 문화를 이끌어 가는 보람 있는 작업에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문화의 나아갈 방향과 목표는 자연 우리들의 사상 속에서, 또는 생의 충실한 이념 속에서 차차 그 테두리가 잡혀 갈 것으로 믿는다.

### 동양인(東洋人) 소극성(消極性)

무릇 생활의 구체적 실천으로 향하는 우리의 정신 자세가 무기력해 보인다는 가 피곤해 보인다는 비판이 극히 외형적인 인상의 파악에 그치는 관찰이기를 우

리는 사실 얼마나 바라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좀 더 높은 의자와 두터운 월급봉투를 찾아 떠나간 이 황당한 자리에 최후까지 남아 입을 열어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사회적 냉대와 멸시 속에 있으면서 주로 보람 없는 일을 위해 피나는 시련의 역정을 더듬는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누가 무기력하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로서 지적해 줌을 볼 적마다 우리는 무한한 울분을 느껴 마지않았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이 말할 수 없는 저조(低調)에 떨어지고, 그리하여 일을 위한 높은 의욕의 결핍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우리에게서 저 처절한 전쟁의 시련이 지나갔고, 휴전 이후는 날로 격심해 가는 경제생활의 구속이 우리의 의욕과 야심과 정열을 전진으로 이끌지 못하고 차라리 퇴보로 이끄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의 방향이란 언제나 움직이는 역사의 물굽이를 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며, 이에 종사하는 역군들의 이념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전진만을 내용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부르짖음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활이 흔히 지적받는 바와 같이 주제를 잃고 있으며, 또한 강한 진취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

흔히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과 미래에의 뚜렷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하는 모든 설계가 파괴당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을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 나라의 하늘과 도시마다 불안과 공포가 가려졌고, 현대는 표현하기에 너무나 비통한 절망을 안고 있다.

이런 세계의 고민과 인류 전체의 불안의식과 절망과의 사이에 우

리의 정신이 어떤 관계성을 가짐으로써 숙명적인 절망 속에 우리의 정신이 침전된 것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경하해 마지않을 여지를 발견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고민은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관찰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생의 태도의 실천이 저조와 무질서로 이끌렸고, 우리의 이념이 적극적인 향방으로 유도되지 못한 그 첫째 원인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혈관 속에 잠복하고 있는 '너무나 동양적인 피' 다시 말하면 동양적 소극성을 들어야 할 것이나 아닐까?

움직이는 세계의 아침과의 문호를 굳게 닫고 고요한 정시(靜謐)의 황혼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정적인 마음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벽과 암흑을 뚫고 전진하려는 마음 대신에 뒤로만 물러나서 모든 잡음과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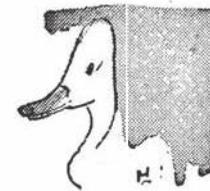
과 자극을 피한 곳에 아늑한 정신의 휴식처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오늘날 생활이야말로 우리를 안일과 쇠퇴의 구렁텅이 가운데 몰아넣고야 만 듯한 것을 느낀다. 올바른 인생 태도의 확립을 위해 무엇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행동으로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도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극성에 대해 권태를 느껴야 하리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피 흐르고 있는 낡은 전통과 동양인의 향수를 빛나는 지성의 광선을 통해 질서의 천국으로 이끌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 목욕(沐浴)과 이발(理髮)과 편지(便紙)

신태민



시간이 없다가보다는 시간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일지는 모른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간단한 이유로 편지 회답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고, 목욕과 이발에 태만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아무리 나처럼 바쁠까?' 하는 심리는 누구에게

나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정다운 이야기를 걸어온 편지에 대답을 못해주고, 또 한 달이 지나도록 머리를 깎질 않아 '햅번 스타일'이 되고 등털미가 미끄덩거리게 되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핑계인 줄은 아는데 영 손, 발이 선뜻 움직이지 않는다.

아닌게아니라 마감시간이 끝난 다음 담배 연기의 색채를 분석할 만한 시간이 있다. 그런데도 머리 속을 까닭 없는 초조와 번잡으로 바쁜 것만 같은 상태에 놓여있다. 아침 수염을 깎으려다가도 오늘은 틈을 내서 이발을 해야지 하고는 까칠까칠해진 턱수염을 그냥 출근시킨다.

출근해 놓고는 이발할 틈을 버리기만 하다 그만 집으로 돌아간다. 그 이튿날도 또 아침에 세수할 때 가벼운 결심을 하고 어제보다 더 성장한 수염을 방치해 둔다.

“아이 보기 싫어요, 오늘은 꼭 좀 깎고 오세요.”

대 옛새 줌 이렇게 지나면 아내까지 보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누가 깎기 싫어 안 깎는데……”

혼잣소리처럼 증얼거려 본다.

이러는 동안 두어 주일만큼씩 이발해야 될 이발이 한 달이란 동안이 생기기 일수다. 목욕도 한 달에 한 번 하기가 힘들다.

“집에 목욕물을 데워 놓을 테니 오늘은 일찍 좀 들어오세요.”

아내는 심지어 반강제적인 명령조다. 번번이 속기만 한 아내는 ‘꼭 데워 놓게요’ 하고도 데워놓지 않게끔 되었다.

일찍 들어온 다음이면 그때부터 불을 지퍼도 여유가 있다는 심산이러라.

X X

편지는 일체 쓰지 않기로 했다.

결심할 때까지가 문제였다.

“이 친구한테는 꼭 편지를 해야겠는데”

하고 생각이 미치게 되면 인사를 차려야 할 무수한 얼굴이 꼬리를 물고 덩벼든다. 온몸에 땀이 돋게 될 정도로 생활전체가 초조해 진다.

“얼마나 오해할까?” 하면서도 쓰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태만일 수밖에 없다.

나는 나 혼자 만이 애교 있는 고민을 당분간 씹고 살아야 하나보다.

이젠 숫제 편지를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결 마음이 가라앉긴 하는데 그대로 초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편지를 통한 사교(社交)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리고 보면 나는 사교술의 한 방법을 포기한 셈이다.

X X

잠을 자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 신문기자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목욕과 이발과 편지회답까지 잇을 정도로 신문기자의 긴장된 생활세력에 지배되고 있는 것일까?

온 몸이 피곤의 멍치처럼 되었을 때라도 대 용단(?)을 내서 한번 이발사 앞에

내 온 생명을 위탁해 놓고 나면 이같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싶어진다. 목욕도 마찬가지로.

그 구차스러운 목욕일지라도 일단 더운 목간통 속에 알몸을 파묻고 있노라면 아무리 흰 때가 수면에 뚱뚱 떠 입가로 몰려와도 천하는 태평이다.

편지의 사연만 해도 그렇다.

글만 써서 벌어먹는 신문기자가 편지쓰기를 금계랍시고 먹기보다 싫어하는 것도 이상한 노릇이지만 한번 단단히 맘먹고 편지를 쓰기 시작만 한다면 길어지기가 일수다. 말하자면 펜대를 들고 편지지에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결심과정이 길고 힘들 뿐이다.

요컨대 한번 다 치러놓고 나면 앞던 이 빠진 때처럼 시원하다.

“글쎄, 난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한다니깐?”

신문 일에만 충실해서 못한다면 또 몰라도 새해에는 좀 이 세 가지 태만 점에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까 보다.

(필자(筆者) 경향신문(京鄕新聞) 사회부장(社會部長))

## 어록(語錄)

조풍연(趙豐衍)

위선(僞善)에는 악이 있고, 위악(僞惡)에는 독이 있다.

젊은 세대를 편들어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젊은 세대에게 지지를 받으려는 공산(公算)에서.

청춘의 시들음, 그것은 여성에게는 유방의 시들음과 정비레하고, 남성에게는 여성의 유방을 바라

보는 자신에 정비레한다.

소설가들이란 제 비위에 안 맞는 것을 모조리 작품화한다. 그러나 제가 비위에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 앞에선 발끈한다.

만년필 수고한다. 원고지 수고한다. 활자들 수고한다.

독자가 또한 수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이 어수룩하게 보일 때는 바로 자신이 어수룩할 때다.



책을 많이 가지면 종이 많이 텅빈다. 그러나 마음의 종이 덜 생긴다.  
해장의 해장은 그날 저녁에 계속된다. 그러므로 술 먹는 사람에겐 시간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입후보자의 입후보는 당선된 날부터 계속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에겐 시간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시계가 가장 정확한 시계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사람을 가장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취미가 자라서 직업이 되면, 반드시 그 취미를 저주한다.

정전이 되어 영화가 중단되었을 때 멍하니 앉아있는 관객들의 꼴이란 지지리 궁상이다.

스포츠는 인간의 포악 본능을 어느 규율 하에서 발휘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규율을 벗어난 스포츠는 군복 입은 강도와 같이 추하다.

서양인은 주택을 설계할 때에 변소의 위치를 중요시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원리일 것이다.

월급제도를 고용주 측에서 보면 아주 편리한 월부이다. 정치가들은 글을 쓰기 싫어한다. 기록이 시민의 손에 남는 것은, 어쨌든 그들에게 그다지 유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에는 지폐의 발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해도 그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돈은 만병통치약이다. 어느 만병통치약이라도 이놈이 없어서는 손아귀에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돈은 만병의 근원이다.

만병통치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환이 이놈 때문에 생긴다. 사람은 탄생할 때엔 옷을 입지 않았으나 죽을 때엔 옷을 입는다. 조금이라도 더럽힌 것을 감추기 위해서.

원시인은 사과를 따 먹기 위해 손가락이 필요했다. 현대인 가운데는 도장을 찍기 위해 손가락이 필요한 사람이 적지 않다.

## 졸업(卒業)을 앞둔 사관생(士官生)의 포부(抱負)

이재규(李載奎)

졸업을 하면 청년사관으로서 해야만 할 일은 많으리라. 누구나 졸업하는 생도는 이런 좋은 자기의 설계를 구상하고 있으리라. 그러나 졸업을 앞둔 사관생도의 포부를 적어보라 하면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기에는 막연한 감이 떠오른다.

그러나 4개 성상(星霜)의 긴 교육과정을 통해 사관학교에서 우리들 생도에게 무엇을 교육했고 어떤 인간을 요구해 왔던가를 생각해 보면 쉽사리 그 방향이 정리되리라고 믿는다. 실로 우리의 포부는 사관학교의 교육이념과 지대한 인과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교육이념을 벗어나서는 비록 훌륭한 포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청년사관으로서의 결핍된 바 없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졸업을 하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청년사관으로서 국가에 봉사, 헌신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사관학교에서 우리들 생도에게 무엇을 교육했고 생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회고해 왔던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조직적인 사관학교의 학술훈련을 통해 일반대학을 능가할 만큼 각 과목을 전반적으로 습득했다.

경제학 정치학 전자공학 물리화학 항공역학 등등 이밖에, 많은 과목을 체득케 해 전문적 또는 교양적인 지식을 넓혀 주려는 것이 곧 사관학교의 교육이념이었고, 도수체조 기계체조를 정식과목으로 또는 하루 두 시간 씩 자유체련의 구기운동 등을 통해 육체적 면에서 우리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관학교의 모든 과정을 통해 실로 현 사회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들고 군인을 육성하려는 것이 사관학교의 교육이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도 우리들은 엄격한 제반 규정을 어김없이 이행해야만 했고, 어려운 학술적 훈련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득해야만 했고, 체력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공사(空士)의 교육이념은 실로 문무를 겸비한 청년군인을 육성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미 항공창설기념일에 행한 미 공사 교장의 연설 가운데, 미 공사는 소위를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장차 미 공군을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장군을 양성하는 곳이

라고 한 말이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오른다.

공군은 타군과 달라서 개인적으로 부과된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들은 개인의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전체목적달성에 얼마나 잘 협조되는가를 알고 있다. 항공기를 단기(單機) 조종하는데 부과된 개인의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편대(編隊) 전(全) 원만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연마한 인격을 하는 청년 사관으로서의 포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크며 또 강력하다. 그러나 지난 과정이 시련의 시대였다면 앞길은 육성의 시기요 건설의 시기인 것이니, 선배가 이루어 놓은 공군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찬란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지식이 많고 기술이 능하고 건전한 체력의 힘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공사의 교육이념은 우선 진정한 인간이 되고, 군인이 되는 것, 즉 문무를 갖춘 청년사관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만이 공군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더욱 찬란히 빛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말할 것도 없이 올바른 정신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에게 지나친 기술과 교육은 도리어 회사를 망치고 파괴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도둑놈에게 좋은 기술이 부여되면 더 큰 도둑이 되는 것이 사회적 통칙이기 때문이다.

임란 당시 왜적으로 인해 정든 고향을 버리고 굶주림에 떨고 방황하는 난민의 무리를 때마침 그곳을 지나다 보게 된 이순신 장군은 친히 말에서 내려 그들 난민에 대해 공손히 절하고 위로·격려했다는 전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장군의 숭고한 인격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군은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한낱 보잘 것 없는 난민에 대해 그와 같이 하마(下馬)까지 하고 또 공손히 위문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예의로 보아 하마는 자기보다 훨씬 상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앞에서만 한했던 일이 아니었던가! 군인이 되기 전에 우선 각 분야의 학술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결함 없는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고, 군인이 되기 위해 졸업하는 각 생도는 여기에 호응해 4개 성상의 장구기간 중 심신의 연마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해 앞으로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입장교가 군 행정을 개선해 보겠다는 몽롱한 사고방식을 가지느니보다 군의 일원으로서 기성(既成)의 질서에 호응해 이것을 더욱 유

지 발전시키는데 자기의 능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소극적이라 운운할지는 모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성이 내포되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왜정 군대 사상과 같이 맹목성이 다분히 내포된 사고방식은 이미 시대적 유물이다. 오늘날의 세대는 결코 일인의 영웅을 허용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관학교에서 배운 것을 곧 실천하려는 것이다. 상경하에(上敬下愛)라는 문구를 외워 본다. 상관은 스스로 존경케 되고, 하부를 사랑하게끔 인격적 신의로서 융합할 수 있는 지조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사관학교는 군 조직의 축소판이며 군을 사관학교의 확대판으로 본다. 물론 실제로 양자 사이에는 생각하기보다는 복잡성이 내포되어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 사고하고 있는 소신이나 포부만은 더욱 확실하다고 믿는 바이다. (4291, 원단(元旦) 휴가(休暇) 중 서울에서)

### 공중(空中) 첩보기(諜報機) 출현(出現) 미(美) 육군(陸軍)의 적진촬영용(敵陣撮影用)

미 군 당국에서는, 앞으로 야전 지휘관들이 대진하는 적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내는데 사용하게 될 '공중첩보기'라고 불릴 새로운 정찰용 장치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동 발표에 의하면, 이 신 정찰용 무기는 무전으로 조종되는 무인비행기로서 야간에 공중에서 적진의 상황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로켓이 달린 카메라가 제작(製置)되어 있다고 한다. 육군 통신부대에 의해서 고안되고 발전된 이 신무기는 새로운 펜토믹<sup>24)</sup> 원자사단의 작전에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무인기의 카메라는 불과 수초동안에 적진의 상황을 정확하게 촬영하며, 적의 요격기에 추격이나 사격을 불허할 만큼 신속히 임무를 수행하고 고속도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 3만(三萬) 년(年) 전(前)의 회화(繪畫)

프랑스, 남서부 도르도뉴 주 페리괴<sup>25)</sup> 부근에 있는 피탈이라는 관광명소인 색수창 동굴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만 년 전의 것으로 추측되는 회화,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한다. 더구나, 이번 것은 말, 곰, 맘모스, 그리고, 바이슨(野牛)을 부리는 미술사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 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선사시대의 유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진기한 것이라 한다.

24) Pentomic

25) Périgueux

# 소련공군(蘇聯空軍)을 해부(解剖)한다

공군 소령 이발윤(李發潤)<sup>26)</sup> 역(譯)



소련은 우리에게 불구대천의 원수인 동시에 또한 전 세계 인류를 불행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는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세계침략의 도구로서 거대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 항시 큰 관심과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 소련 공군의 전모를 해부해 독자 제위(諸位)의 참고에 공(供)하고자 한다.

## 소련공군사(蘇聯空軍史)

소련 공군의 역사는 1922년부터 시작된다. 소련은 이때 처음으로 외국에서 수종의 비행기를 구입해 그것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소련이 비행기를 생산한 최초 기록이었다. 당시 소련은 또한 300만 루블의 거액을 투입해 모스크바에 중앙기류동력 연구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소련은 1933년에 이르러 유럽에서도 굴지의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May Day<sup>27)</sup>에는 30여대의 군용기가 동원되어 전국 각 도시의 경축식전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군력이란 여전히 단거리 전술공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으며, 1944년에 이르러 비로소 장거리 전략공군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즉 1944년 여름 미 전략공군 B-29 폭격기 1대가 동북(만주)의 일본 제강소를 폭격하고 귀환 도중 기관고장으로 부득이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 불시착해 소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소련은 곧 이것을 모방해 TU-4형 폭격기를 제작했으며, 1952년에 이르러 소련은 정식으로 10대의 TU-4형 기를 사용해 하나의 장거리 폭격 중대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2차 대전 후 소련공군은 육·해군에 예속되었던 지위에서 완전히 이탈해 독립했으며, 민주진영의 우세한 공군력에 대해 모든 인력 재력을 신형 TET기의 연구와 생산에 집중시켰다. 또한 동부 독일 경내의 비행기 공업 항공기 전문가 및 유도탄 로켓 공창설치 등을 약탈 납치해감으로써 그 공군발전에 가일층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소련의 침략 근성은 비록 우수한 전술공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으며, 근년에 와서는 계속적으로 장거리 공군 발전에 전력을 경주함으로써 많은 유형의 분사식 폭격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현재 소련의 각종의 전투기 폭격기의 성능은 모두 서구 민주진영의 그것에 비해 손색이 없다. 더욱 적극적으로 로켓 동력 원자동력 비행기의 연구 및 장거리유도탄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소련의 이와 같은 행동은 모두 세계

26) 맨 앞 목차에는 최발윤으로 되어 있음.  
27) May Day는 노동절

평화를 부단히 위협하는 것이며, 오늘날 세계 각국으로 해금 치열한 공군력 경쟁을 하게 만드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 소련(蘇聯)의 공군력(空軍力)

제1차 대전 시 소련공군은 극히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공군력은 일약 세계 제2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공군력 국가의 하나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비행기의 양과 성능에서도 민주 진영에 비해 손색이 없다. 종류에서도 소련공군은 군용 공군 장거리 공군 육군항공대 해군항공대 공룡 및 민용 항공 등 6대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 장거리 공군과 군용 공군이 가장 크며, 이것은 미국의 전략 및 전술 양대 공군에 해당한다.

소련공군 총사령관은 우시닌이며, 그 조직으로 볼 때 또 이것을 공군부대 항공지상부대 통신부대 공군기지 기상 및 방공 등 부문으로 구분된다. 그 작전계통은 군·군단·사단·연대중대로 되어 있으며, 각 군에는 3개 군단, 각 군단에는 3개 사단, 각 사단에 3개 연대가 있으며, 각 연대 밑에 3개 중대가 있다. 또한 각 공군연대는 통상 50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소련공군은 총 15개 군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군은 각각 약 1,500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소련 관계 전문가의 추산을 본다면가 또는 미국합동참모본부 의장 트와이닝 대장이 작년 소련공군 기념일에 참석했다가 귀국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소련은 약 3만 2천대에 달하는 각종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다. 그중 제1선에 약 2만 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에는 약 1만 3천 대의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 제2선에는 약 1만 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 약 2천 대가 요격기다. 모든 비행기 중 분사식은 100분의 90을 점하고 있으며, 공군 총병력은 80만에 달하고 있다. 조종사들의 작전경험과 비행 기술 또한 매우 숙달되어 있으며, 전자 레이더 계기비행 레이더 저지 및 폭격 방면에서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소련의 전략 장거리 공군은 근년에 와서 괄목할 정도로 진전을 보았으며, 총사령관 알라딘스키 대장의 총지휘 하에 폭격기 기지는 북유럽의 거룬 반도에서 극동의 베링 해협에 이르기까지 북극권에 낫 모양의 호형선(弧型線)<sup>28)</sup>을 가하고 있으며, 전 지구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공군기지와 서로 대치하고 있다.

## 소련(蘇聯) 항공공업(航空工業)

소련 항공공업은 몇몇 부문에서는 이미 미국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예를 들면 소련의 IL-38형 폭격기와 같은, 길고 첨예한 날개는 다른 어떤 나라의 공업으로서도 제작하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소련 전투기 익면(翼面)의 장도(長度)는 이미 그 기의 후도(厚度)의 20배로 발전했다. 이것은 고속도 비행기를 제작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 외에도 소련은

28) 원문의 弧型線은 弧型線의 오기임.

근년 일종의 편박기익(扁薄機翼) 연구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1947년 소련은 항공공업 학원을 설치해 전적으로 항공기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항공기공장에서는 1만 5천 톤 급의 중형 압력기가 사용되고 있다. 비행기 레이더 과학자의 수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독일 출신의 레이더 전문가 및 기타 유도탄 계통의 과학자들은 극히 중요시되고 있으며, 한편 1954년 무선기술공업부를 새로 증설해 이 방면 기술자 양성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진공관의 국내 생산은 그 수요에 부족해 대부분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소련의 중요한 원자연구중심지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 위치하고 있다. 1930년 이래 소련은 비행기 발동기 연구기구를 모스크바에 설치하고 각 지에는 실험분실을 설치해 신식 분사동력의 발전을 동 중앙발동기 연구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미 생산된 후연기(後燃器)로는 신형의 MIK-209와 M-012 발동기 등 수천 대에 달하고 있다. 로켓 발동기의 대부분은 모두 독일제를 개량한 것으로서 추진력 3,800방의 BMW-718과 추진력 5,700방의 HWK-509 로켓 발동기 등은 이미 생산이 개시되고 있다. 내해(內海) 이동지구에서 소련은 1,100방의 압축공기폭탄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Gorki 부근의 Dzezhinsk 각 공장에서는 세균무기의 연구제작이 진행되고 있다. 내해 동부의 아랄해 서부 지구에서는 화학폭탄에 대한 실제시험이 있었으며, Khiva의 모 공장에서는 정식으로 낙하산병을 위한 특종 투척탄을 생산하고 있다. 스탈린그라드 동북부 400 마일 지점이며, 사마라 호와 불가 강의 합류처인 쿠비셰프<sup>29)</sup>는 소련 비행기 생산의 중심지이다. 동지에서는 1946년부터 600명의 독일 항공설계사 및 과학자들이 소련의 항공기 연구와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MIG-15와 MIG-17 등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신형의 폭격기, 수송기, 헬리콥터, 분사엔진, 로켓엔진, 폭격조준기 및 각종 구경의 항공기용 포 등이 또한 이곳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지구의 많은 비행기 공장들은 소련 영토 내에 산재하고 있는 기타 비행기 공장들에 대해 영도적인 지위에 있으며 이들 공장은 서로 다투어 각종 신형기를 생산해 내고 있다.

쿠비셰프의 스탈린 공장은 소련에서 가장 많은 분사식 전투기의 생산공장으로써 1950년 이래 동 공장이 MIG-15 및 MIG-17 생산량은 매월 평균 68대에 달한다. 또한 동 공장의 주요 생산시설은 모두 쿠비셰프 시 교외의 지하에 축조되고 있다. 소련의 TYPE-37 폭격기도 또한 이곳의 어느 지하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또 다른 Kinapp 광학공장과 비행기 무기 공장에서는 기관포와 폭격조준기 원거리 조준기를 생산하고 있다.

### 항공기(航空機) 설계(設計)

소련은 대전 후 독일의 과학자와 설계를 이용해 그 항공기업 발전에 전력을 경주해 왔으

29) Kuybyshev

며,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강요하고, 지혜를 착취하고 또 한편으로 국제간첩을 이용해 타국의 연구 성과를 도용함으로써 그것을 모방, 제작했다.

국내의 항공기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이를 중시·후대했으며, 항공기에 대한 소질을 가진 인재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과 편리를 제공해 이를 양성하고 신형기 설계 작업에 종사시켰다. 소련은 이와 같이 국내 모든 과학자와 비행기 설계가들에 대해 엄밀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소련공군이 오늘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소련의 비행기 설계는 각각 개별적 분야로 전문가와 전문 소조(小組)에 의해 분담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비행기의 설계가 개시될 때는 반드시 소련군 고급 장교와 비밀경찰이 이에 파견되어 감시한다. 그리고 특별한 성공이 있었을 때는 거액의 상금이나 훈장을 수여해 이를 장려한다. 그러나 그 설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곧 투옥되어 징벌을 받게 되며 옥중에서도 연구를 계속시킨다. 이와 같은 옥중에서의 연구는 그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며 만약 옥중에서 어떤 특출한 발명이나 공헌이 있었을 때는 그 공적이 상쇄되어 출옥한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소련이 인류에 대한 잉여가치 이용수단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가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신형기 설계가 완성되면 그것은 최고항공주관부문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으며,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곧 생산이 개시된다. 또한 그것은 설계자 혹은 설계 소조의 명칭으로서 명명되고 다시 번호가 부여된다. 소련 비행기의 번호는 생산연차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전투기는 대부분 기수(奇數)를 부여하고 폭격기 수송기 정찰기 연락기 등은 흔히 우수(偶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예를 들면 전투기는 MIG-17 또는 YAK-25 등과 같이 기수를 부여하고 폭격기는 IL-28 TU-10 등등 우수를 부여하고 있다.

### 소련(蘇聯) 항공기 전문가(航空機 專門家)

소련의 항공기 전문가로서 비교적 저명한 인물로 투폴레프<sup>30)</sup>, 일류신<sup>31)</sup>, 야코블레프<sup>32)</sup>, 미코얀<sup>33)</sup>, 구레비치<sup>34)</sup> 등이 있다.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면……

(1) 투폴레프……소련인으로 노무자 출신이며 모스크바 공업학교 기계동력학과를 졸업하였다. 성질은 침착하고 연구열이 강하며 비행기 설계에 우수한 소질을 가졌다. 그러므로 소련 ‘공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일찍이 노동영웅의 칭호를 받은 바 있다. 1918년에는 모스크바 중앙공기동력학 학원장의 직을 역임했으며, 그가 TU-2 쌍방 프로펠러 폭격기의 설계를 성공시켰을 때는 스탈린 특별상금 및 레닌 훈장이 수여되었다. 그는 또한 미국의 B-29가 블라디보스톡에 불시착했을 때 곧 이를 모방해 TU-4 폭격기를 제작했다. 1938년에는 모종 사고로 투옥되었다가 1943년에 출옥했으며, 이듬해 공군소장으로 승진했다. 1947년에는 항공설계국 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항공기술 증장에 승진했다. 그 후 다시 중

30) Tupolev 31) Ilyushin 30) Yakovlev 30) Mikoyan 30) Gurevich

양항공수력동력연구소 소장 비행기 제조학교교육장을 역임했다. 현재 소련의 TU-104 분사식 수송기 및 TU-200 형 폭격기는 모두 그의 걸작 중의 하나이다. 또한 그는 1950년에 소련 최고 소비에트 회의 대표로 피선되고 동시에 과학원의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1953년 소련은 그에게 스탈린 상금 15만 루블과 레닌 훈장을 부여했다.

(2) 일류신……현 62세 농민 출신이다. 어릴 때부터 기계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빈곤해 진학할 도리가 없었다. 1910년 비행기 공장의 노동자로 취직했으며 1차 대전 당시에는 소련 육군으로 입대했고, 그 후 다시 공군으로 들어가 비행교육을 받았다. 소련 10월 혁명 후에는 모스크바 공군학교에 입교해 비행기 기계원리를 전공했다. 그리고 1926년에 그는 중앙항공 액체동력 학원에 고용되었고, 다시 공군실험 공장 이사와 주임설계사를 역임했다. 그의 존재는 이로부터 점차 두각을 나타내어 등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IL-4 중거리 야간폭격기를 설계함으로써 노동영웅의 칭호를 받았다. 1945년에는 또다시 IL-10 형의 설계를 성공시킴으로써 스탈린 상금 15만 루블을 받았다. 그는 근년에 와서 명령하고 있으며 IL-28 중형 폭격기는 바로 그의 손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3) 라보츠킨……유태인의 후손으로 현재 57세이다. 라보츠킨<sup>35)</sup>은 처음 비행기 공장의 기술공으로 취직했으며, 후에 비행기 설계사로 승진되었다. 그가 LA-7형 전투기를 설계했을 때 소련은 그에게 노동영웅의 칭호와 아울러 10만 루블의 스탈린 상금을 수여했다. 소련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펠러 전투기라고 말하는 LA-11은 바로 그의 설계에 의해 제작된 것이며, 현재 그는 명령을 받고 분사식 전투기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4) 야코블레프……51세 현재 소련에서 가장 명성을 날리고 있는 비행기 설계가이다. 그는 1924년 공군학원에 들어가서 발동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후에 다시 비행기 설계과로 전과했으며 3년 후에는 일약 총설계사로 승진했다. 현재 소련에서는 가장 고속도인 YAK-21형 로켓 동력 비행기는 바로 그가 제작한 것이다.

(5) 미코얀 및 구레비치……이 두 사람은 동일 소조의 비행기 설계사로서 1918년 MIG-3 프로펠러식 단좌 전투기를 설계한 후부터 이 소조는 소련에서 중시되었다. 1946년 이들은 소련에서 최초로 제작된 분사식 전투기 MIG-9형을 설계해 스탈린 상금을 받았으며, 그 후 다시 MIG-15형 분사식 전투기를 설계해 한국전에 내놓은 바 있다.

#### 기종(機種)

소련은 많은 종류의 신형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신형기를 소개할 것 같으면 대략 다음과 같다.

(-) TU-104 분사식 수송기……(1) 2개 분사엔진장치(후진익에 붙어있음) (2) 추진력 2만

파운드 (3) 시속 550마일 (4) 항속거리 2,000마일 (5) 탑승원 6명 (6) 적재인원 60명 (7) 최고 상승도 45,000피트 (8) 후진익 기신장 120피트 (9) 익장 118피트 (10) 수직 미익고 32피트 (11) 4륜주강착 장치식 (12) 기수쌍륜강착 장치식.

(-) TYPE-39 중형 분사식 폭격기……(1) 성능, 미국의 B-47과 유사함, (2) 2개의 터보 분사엔진 장치(후퇴익에 붙어있음), (3) 추진력, 3만 파운드, (4) 시속-650마일, (5) 최고상승도 - 45,000피트 (6) 날개 길이(翼長) - 100척, (7) 항속거리 - 3000마일, (8) 탄약적재량 - 9만 파운드(磅), (9) 전자장치, (10) 강력한 화력 보유 (11) 현 소련 보유대수 1,200대

(-) IL-38 분사식 폭격기……(1) 4개 분사 엔진장치 (2) 시속 - 480마일 (3) 항속거리 - 3,800마일 (4) 최고상승도 50,000피트 (5) 기장 - 133피트 (6) 익장 - 168피트 (7) 탑승

#### 원 - 8명

(-) TYPE-37 분사식 폭격기……(1) 4개 M209 분사엔진장치 (2) 추진력 - 60,000파운드 (3) 시속 630마일 (4) 최고상승도 57,000피트 (5) 전량 24만 파운드 (6) 익장 - 180피트 (7) 기장 - 150피트 (8) 중익후퇴각도 - 35도 (9) 항속거리 6,000마일 (10) 탄약적재량 70,000파운드 (수소탄적재 가능) (11) 성능 미국의 B-52와 흡사함 (12) 현 보유대수 약 200대.

(-) TYPE-105 중형분사기……(1) 2개 분사 엔진 및 후퇴익 장치 (2) 기미 T자형 (3) 탑승원 3명 (4) 시속 600마일 (5) 최고상승도 45,000피트

(-) BITSH-22……(1)삼각익 전천후분사식 전투기 (2) 최고상승도 50,000척 (3) 시속 800마일 (4) 장비 23밀리 구경 기관포 6문 (5) 장기 40피트 (6) 장익 46피트 2인치 (7) 전자설비.

(-) YAK-21 로켓동력요격기……(1) 시속 910마일 (2) 상승률 매분 16,000척 (3) 전중 12,100 파운드 (4) 장기 31피트 (5) 기장 21피트 (6) 기익 방형 (7) 장비 30마리 기관포 2문.

(-) YAK-25 분사식요격기……(1) 시속 1,101마일 (2) 익장 32피트 1인치 (3) 기장 38피트 7인치 (4) 전중 19,800파운드 (5) 상승률 매분 12,800피트 (6) 기익 후퇴도 60도.

(-) MIG-19 전천후 분사식 전투기……(1) 시속 900마일 (2) 익장 33피트 6인치 (3) 기장 37피트 (4) 성능 미국의 F-100형 초음속기와 흡사함.

(-) MIG-21 분사식 전투기……(1) 시속 1,200마일 (2) 성능 미국의 F-101 초음속 전투기와 흡사함.

(-) AN-10 프로펠러식 수송기……(1) 4개 발동기(16,000 마력) (2) 전중(全重) 12만 파운드 (3) 최고상승도 30,000피트 (4) 시속 460마일 (5) 적재 인원 85명 (6) 익장 141피트 (7) 기장 190피트 (8) 기고 37피트 6인치.

35) Lavochkin

(十二) Sukhoi 초음속 분사식 전투기……(1) 삼각익 (2) 기신 장관형 (3) 시속 1,400마일  
(4) 장비 기신양측에 2개 대구경 기관포 (5) 성능 미국의 F-104와 흡사함.

### 결론(結論)

총체적으로 볼 때 소련공군은 그 질이 미국보다 약간의 손색이 있다고는 하나, 양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현재 소련공군의 실제 역량을 볼 때 그것은 실로 미국과 더불어 자웅을 결할 추세에 있으며, 비단 그 비행기의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항공기업의 규모 또한 웅장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만약 민주진영(陣營) 국가들이 더욱더 분기함이 없다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제공권은 언제까지나 보증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 세력에서 소련이 만약 민주진영의 전체 공군역량과 대결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무모한 짓이라 할 것이다.

(국방총간(國防叢刊) 제68호(第六十八號) 대만발행(台灣發行)에서)

<시(詩)>

## 창(窓)

문관(文官) 양창숙(梁昌淑)

얼마나 안타까운 가슴이겠습니까  
이리로 나오십시오  
하늘보다 더 푸른 여기 우리의 창이 있습니다  
무수히 얼렁이다가 사라져 간  
끊임없는 삶의 행렬……  
모든 것이 깨끗해진 우리의 창입니다  
핏빛의 고뇌도 한낱 그리움이 까닭

그처럼도 많은 밤과 눈부신  
천만번의 태양이 지나가고 뒤이어  
빠져린 가난이 몰려 왔어도 창은 끝내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이리로 나오십시오 하늘보다 더 푸른  
여기 우리의 창(窓)이 있습니다

### 여객기(旅客機)를 타는 새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 사는 휴호튼 부인은 얼마 전에 그의 저(邸) 내의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미국 서부산의 귀여운 태너저<sup>36)</sup>란 새를 발견했다.

이 새는 계절새의 일종으로 심한 공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대열에서 낙오된 모양이었는데, 부인은 곧 자기의 친구인 아마추어 조류연구가 맥도 골 부인에게 부탁했더니, 그의 친절한 간호의 보람이 있어 태너저는 마침내 건강을 회복했으므로, 이 새들의 집합지대인 애리조나주 투손<sup>37)</sup> 지방에까지 가져다가 놓아주려고, 우선 여객기 편에 의해 미 본국까지 송환하게 되었다 하는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20세기의 흥부전이 아닐 수 없다.

### 전등선(電燈線)을 이용(利用)하는 전화(電話)

오스트리아에 사는 영국인 두 사람은 전등선을 이용할 수 있는 혁명적인 전화를 발명했다. 그런데, 이 전화기는 그 플러그를 전등 소켓에 꽂기만 하면 전등선을 통해 언제든지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태양열(太陽熱)로 움직이는 시계(時計)

- 1년(一年) 이상(以上)도 충분(充分)? -

뉴욕의 시계회사인 제네럴 타임 사에서는 이번에 솔라리온이라는 태양열 이용시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시계의 특징은 다만 그 시계를 태양이나 혹은 보통 가정 전등에 몇 시간 쪼이기만 하면 그 시계 두부(頭部)에 붙어 있는 10개의 '태양열 세포'의 작용에 의해 전기를 일으켜 전기시계로 되어 약 3 주간은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축전지를 완전히 충전한다면 11년 이상을 방치해도 충분히 움직인다는데, 그 가격은 헐치를 얹아서 한 개에 250달러(약 13만 환)이라고.

### 우주시대(宇宙時代)의 일기예보(日氣豫報)

- 미(美) 공군(空軍) 매분(每分) 천(千) 단어(單語)로 -

미 공군에서는 현대 비탄 및 항공기와 보조를 맞출 우주시대의 일기예보를 고려 중에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기예보는 거대한 공동선을 통해 매분 천 단어의 속도로 미국 전역에 보도될 것이며, 보통 측후기(測候器)에 장치된 전자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공군 측후계획 책임자 조지 A. 가이 중령은 지난 1월 2일 <전국기상학회> 회의에서 전기 측후방법에 관해 보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의 공중 무기는 보다 더 빨리, 높이, 그리고 멀리 날며, 10 내지 15년 전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지구의 여러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고속의 공중무기에 대해서 오늘날의 일기예보는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 새로운 측후방법이 1963년까지는 사용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완(完))

36) tanager; 풍금조 37) Tucson

# 베스트 골프 (1) (your Best Golf)

토미 아머 저(著)

저자소개(著者紹介)



저자 토미 아머(Tommy Armour)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출생했다. 그곳의 대학에서 수학 중 그 세대의 모든 영국 청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제1차 대전에 종군하기 위해 학창을 떠났었다.

기관총병으로서 로얄 스코트 부대에 편입되었었고, 후에 신설지대의 장교가 되었다. 전차대에 종군 중 독가스로 인해 실명했는데, 후일 우측 눈만은 시력을 회복했다.

그는 유럽의 허다한 아마추어 선수권과 전 프랑스 오픈 등에서 우승을 하고, 휴전이 될 얼마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25년에 직업선수가 되었다.

1927년에는 전미 오픈과 캐나다 오픈의 선수권을 획득한 바 있으며, 계속해 전 영국 오픈, PGA(professional Golf 선수권), 웨스턴, 메트로폴리탄 등 주요 선수권대회, 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상금이 걸린 토너먼트 등에서 연승한 바 있다.

1929년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에 있는 '보카 레이턴 클럽(Boca Raton Club)'의 프로페셔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는 현재도 이 클럽에 있으며, 그의 지도는 '하수인 골퍼'(duffer)에게 100을 끊도록 지도하는 데서부터 일류의 토너먼트 프로까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경우라도 훌륭하게 지도해 나갈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자기의 골프 경력 중에서 현재 보카 레이턴 클럽의 그것은 최고의 그리고 가장 즐거운 시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 제1장(第一章) 이 책(冊)은 왜 이와 같이 짧고 간단(簡單)한 것인가

나는 골프의 지도에 관해서 책을 쓰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청탁을 받으면서도 그때마다 이를 거절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비로소 그와 같은 숙제를 붙들고 이와 같은 책을 만들었다.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습장의 티(tee)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것을 이 책을 통해 가르치면 된다. 즉 기본적인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에서 벗어난 것을 부가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혼란에 빠트릴 여러 가지 세심한 점을 생략한다는 전제하에 서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의 간결함은 골프의 훌륭한 기술을 책의 두꺼움이나 시간 또는 금전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는 수백 회에 달하는 교습을 받았고, 그 수업료만 해도 적지 않았다. 바돈<sup>38)</sup>, 덩컨<sup>39)</sup>, 버드<sup>40)</sup>, 테일러<sup>41)</sup>, 그밖에 에드거<sup>42)</sup> 등 - 모두가 위대한 선수였고 재능 있는 교사였다 - 은 나에게 골프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하히 배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미국에서의 일류 선수들과 교제하는 동안 나는 더욱 얻은 것이 많았다. 이 사람들과 시합을 한다든가, 가볍게 라운드(round)를 하고 혹은 그들간의 시합을 따라다니며 구경했을 때 항상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었다.

단순한 것, 정신 집중, 그것과 시간과 노력의 절약이라는 것은 이들 일류선수나 교사들이 하는 눈에 띄는 특징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지식에 더욱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나에게 이 책에 쓴 것 외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재료가 있었으나, 그것들은 최초의 초고에서 빼놓았다. 또 스윙(Swing)의 중간 상태를 표시하는 수십 매의 삽화도 삭제하고 다만 가르치는데 필요한 순간의 것만을 남겨놓았다. 이와 같이 생략한 문장이 나 삽화는 대체로 골프를 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이지 아닌 미묘한 기교를 그린 것으로, 독자들이 필요한 점에 머리를 집중케 함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 제2장(第二章) 당신(當身)의 Best Golf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여기에 독자들의 눈에 들 수 있는 체제로 원고를 정리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책에서 표시한 것과 같은 훌륭한 골프를 위한 간단하고도 불가결한 요소를 납득만 하고 있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선수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세부(細部)의 미로(迷路)'에서 헤매고 광영으로의 길을 잃고 실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껏 나의 생도에서는 초심자이던, 전국 선수권을 획득한 사람이었던 간에, 결코 생겼던 일도 없고 또 장래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독자는 나의 연습장의 티(Tee)에 서있는 대신 나의 책을 읽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능력범위 내의 훌륭한 골프를 가르치려는 나의 노력에 대해서는 불리한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생도와 교사와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은 양자의 밀접한 개인적 접촉에 의해 충분히 달성된다.

38) Harry Vardon 39) George Duncan 40) Sammy Byrd  
41) J. H. Taylor 42) James Douglas Edgar

그러나 다행히도 나는 이 책을 통해 자기가 분담해야 할 책임을 거의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머지는 독자의 책임이다. 직업선수 중에는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는 자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직업선수로써 유능한 동료들 변호하기 위해 골프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교습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해 약간의 지도를 해보기로 한다. 우선 첫 번째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경기에 나간다 해도 15 스트로크(Stroke)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스코어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진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훌륭한 골프를 위한 안이한 길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러한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또는 골프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와 독자를 접촉시키는 이 책에서는 독자에게 상당한 두뇌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독자에게 만약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여기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골프를 하기를 원하는 주제에 두뇌가 없거나,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나는 시간을 낭비한 적이 없다. 또 이제 와서 낭비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유능한 교사로서의 자기의 일이나 성가(聲價)를 존중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를 위해서 그것을 더럽히고 손을 보게 하는 것은 하기 싫기 때문이다.

생도의 만족한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내가 진력한 것은 우선 완전한 단순화라는 방침이었다. 이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들의 목적은 복잡한 인간에 대해서 훌륭한 골프를 위한 자세나 동작을 가능한 한 단순화 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독자의 골프는 진보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시범해서 보일 수는 없다. 독자는 혹시 골프에 관해서 흥미상태에 빠져 그 해결은 골프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비결에 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의 '장난삼은 공상적인 꿈'에 따르는 것에는 협력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 효과적인 지도를 다하기 위해.

골프에는 단순하면서도 더욱 정확한 열쇠가 되어야 할 자세와 동작이 있으므로 다 음에서는 이것들을 특별한 난(欄)과 활자호수(活字號數)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표시된 문장이나 자구(字句)는 독자의 육체적 정신적 소질이 허락하는 한 가장 완전한 골프를 만드는 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언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항상 당신은 가장 훌륭한 골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열쇠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교과서로서, 만약에 독자가 코스에서의 시험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면 이것을 현명하게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골프 클럽(Golf club)을 옆에 놓고 공부해야 할 책(冊)이다.>

책을 읽고 있는 도중이라도 잠깐 이를 중지하고 클럽(club)을 들고 교과서가 표시하는 요점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독자는 문자라든가 삽화를 자기의 근육이 직접 읽고 외울 수 있는 말로 번역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만이 독자는 사고와 동작을 일치시킬 수 있고, 나의 교습을 깊이 체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는 다음 코스에 이 책에 쓰여 있는 대로 타구를 하려는 노력과, 책에서 읽은 것을 상기하려는 노력 간에 중요한 주의력을 분산시킬 것이 틀림없다. 배운 것을 상기하는 데는 근육이 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 근육에도 같이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막상 실제의 경우 도움이 될 리가 없을 것이다.

<이 책으로 학습하는 독자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연습장의 티(Tee)에서 생도(生徒)에게 시키는 것과 똑같다. #8 아이언(iron)을 잡고 근육(筋肉)과 두뇌(頭腦)와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은 독자들이 '가장 훌륭한 골프의 확실한 기초를 닦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나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나 또는 지도를 한 후에는 클럽(Club)을 들고 거울(鏡臺) 앞에 서서 그 자세나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반성하고 연구했다. 나는 독자들이 반드시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설명되어 있다는 자신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해왔으며, 독자들이 내 앞에 서서 직접 과목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친절히 생도에게 가르치는 것을 문자를 통해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읽으면서 실지(實地)에 대해 연구하라. 호외(戶外)에 나가기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8 아이언의 샤프트(shaft)는 짧으므로 벽(壁)이나 천정(天井)이 너무 높으면 조심하면 자기의 이성(理性)이 납득코자 하는 것을 신체를 통해 수시로 체크해 나갈 수 있다. 한 권의 낚은 잡지라도 바닥에 놓으면 클럽헤드(club head)로 때려도 바닥은 상하지 않을 것이다. 공부하는 과정에 따라 부드러운 합성고무나 모계(毛系)의 연습구를 사용해 보고 싶으면 이 잡지 위에 놓고 때리는 것도 좋으



다. 흑자는 유익한 것이라고도 하고 흑자는 무익한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것은 확실히 취미의 문제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세나 동작을 실제로 조작하는 연관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전감이 들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로 가르치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특히 이런 경고를 하지 않으므로 독자는 대부분 틀린 것을 많이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단순한 골프를 불행하게도 실제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두뇌와 근육을 사용해서 플러스가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세부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나는 그 세부적인 것을 최소한 실용적인 것으로 줄였다. 독자가 자기의 자세나 동작을 연구하는데, 그것이 이 책의 삽화에서 표시된 여러 점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나는 포부를 가지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표준 이상의 기술 역량이 있는 골프인들의 연속 사진이 일러주는 진실을 이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 중의 삽화를 선화(線畵)로 해서 세부를 정확 선명하게 초점에 맞추고, 이에 문자 설명을 붙이기로 했다. 이것은 사진과 같이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그것보다는 쉽게 소화되고 이해될 줄로 생각한다.

고속도의 카메라로 쏘는 사진을 촬영하고, 그 스윙(swing)의 순간순간의 동작으로 분해해서 병렬하는 것이 대부분의 골프 지도책의 통례이다.

드라이버(driver)로부터 #8 아이언까지의 클럽(club) 전부에 대해 샷의 전 동작을 대개 15에서 30개의 단계로 분별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독자는 한 권의 책 중에서 수백 매의 사진을 봐야 한다. 더구나 그것들은 중복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와 같은 사진은 보기에 재미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교습방법은

“정확(正確)하게 해야 할 소수(少數)의 것”



을 설명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너무 많은 사진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다. 중요한 것 - 정확하게 배우는데 필요한 자세는 별표에서 표시하는 것뿐이다. '설명을 위해서 여기에선 페어웨이(fairway - tee와 Putting green) 간의 잔디가 잘 정돈되고 짧게 깎은 부분)에서의 우드 샷(wood shot)을 인용했다'

여기에서는 모든 스윙(swing)에서 연구해야 할 삽화를 4개만 표시했다. 이는 각각의 순간에(후에 자세히 설명하듯) 정확해야 할 결정적인 사실들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만약에 정확하게 행해진다면 각기의 자세의 중간, 또는 그에 따르는 사실의 모든 것도 정확한 길로 들어설 것이다. 예를 들면 독자는 내가 완전한 팔로우 스루(follow through)에 관해 언급치도 않고, 화면으로서도 표시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 벙커 샷(bunker shot)을 논할 때는 별도로이지만 - 근심이 될 것이다. 나는 훌륭한 사진을 삽입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것들을 할애(割愛)했던 것이다. 골프를 가르칠 때 팔로우 스루(follow through)를 강조하는 것은 생도로서는 '알려주면 된다.'라는 정도로 는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공은 정확하게 맞지만 하면 아무튼 정확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팔로우 스루를 하느냐에는 관계치 않으며, 또 정확히 타구만 하면 자연 팔로우 스루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에는(미묘하게도) 팔로우 스루에 각별한 염두를 두는 사람은 막상 히팅 에리어(hitting area)에 들어섰을 때 오히려 힘이 빠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는 독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므로 무난한 문구라든가 삽화로서 내용을 장식해 독자로 해금 쓸데없이 혼란에 빠뜨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프로만이 표준 이상을 기술역량이 많은 사람의 연속 사진을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와 같이 선화를 사용하는 것은 우선 독자에게 필요한 사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골프의 사진을 연구하는 경우의 기초를 닦는 것으로 확신한다. 상수인 사람의 개개의 특성이나 일반적인 특징을 탐미한다는 것은 - 에버리지 골퍼(average golfer) 표준적인 역량을 가진 골퍼에게는 - 일단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난 후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 독자는 이 책의 연구, 이해, 사용법에 관해서 확실한 토대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충고한 것처럼 과목과 삽화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독자는 내가 몸담고 있는 '보카 레이션 클럽'의 연습티(tee)에서 개인 교수를 통해 얻는 이익을 결석이 잦거나 열의 없는 생도보다도 많이 누릴 것이다. 그 위에 내가 책임과 낙으로서 하는 개인교수의 상대가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요금은 수백 달러나 덜 든다.

### 제3장(第三章) 당신(當身)의 베스트 골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나는 많은 프로나 아마추어 선수권 시합에 출장선수로서 또는 입회인, 견학자로서 입회 왔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독자의 스코어를 줄이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간단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렇다.

〈선수권을 획득하는 것은 훌륭한 샷을 할 수 있다는 능력뿐만 아니라, 나쁜 샷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중요한 소질에 달려있다.〉

큰 토너먼트가 있을 때 연습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백(bag) 속의 어떤 클럽(club)으로도 거의 완전한 샷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자 시합을 보면, 그들은 훌륭한 샷도 하지만 일방으로 나쁜 샷을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다.

그 좋지 못한 샷은 때로는 방법이 틀렸든가 혹은 더 이상 헤아릴 여지가 없는 판단이 좋지 못했다는데 그러할지도 모른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허용될 수 있는 오류의 한도를 넘은 것만은 사실이다. 선수권 시합에서는 실책의 한도는 좁은 것이다. 핸디(handicap)의 약칭 - 우열평균조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클럽 경기에서는 실책의 한도에 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표준역량 이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들의 경기와 같이 우승자는 타인보다 나쁜 샷을 적게 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선수권을 획득하는 사람은 나쁜 샷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내가 최초로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은 월터 하겐<sup>43)</sup>과의 시합에서였다. 월터와 나는 '노스 앤드 사우스 오픈'<sup>44)</sup>의 결승 라운드를 치르고 있었다. 그 제4라운드에서 파인허스트<sup>45)</sup> 코스를 출발했을 때는 내가 리드하고 있었다. 나는 그 라운드의 최초의 3홀을 4-4-3으로 올랐다. 헤젠은 6-6-5였다. 4번 티를 향해서 같이 걷고 있을 때 하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낼 수 있는 한도의 미스를 내고 말았다.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을걸"

그는 잘하기 시작했다. 나도 큰일이었다. 그는 그 라운드에서 더 이상 미스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리드를 만회하고 오히려 68이란 스코어로 그 시합에서 우승을 했다. 이 교훈은 나로서 귀중한 것이었다. 나는 나름대로 골프에 관해선 상당히 열심한 연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배운 것은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우승하는 길은 나쁜 샷을 적게 때린다는 것이라는 비밀을 내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러면 '보카 레이턴 클럽'에서 내가 이 교훈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로 한다. 나의 생도 중에 저명한 철광업자가 있다. 학과에서나 실습에서 그도 훌륭한 샷을 많이 때린다. 그는 훌륭한 타자이지만 하수(下手)이다. 그는 그릴 룸에서 대단한 기

움을 토하며 자기는 90을 끊을 수 있다고 단언했었다.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다. 스포츠에서 승부에 관한 의견이 구구할 경우에 결말은 정해진 바와 같았다.

나는 대담하게 내 생도에게 걸었기 때문에 조연자로서 함께 따라다녀도 좋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1번 티부터 크고 강력한 드라이브(drive)를 했다. 그것은 우측 러프(rough)안에 들어갔다. 그는 그것을 치려고 #5 아이언을 끄집어내 그린(green)으로 겨누었다.

"그건 가방 안으로 돌려보내는 편이 좋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버디(birdie)의 찬스가 있는데" 하며 그는 항의를 했다.

"너는 그것보다는 미스 찬스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러면 그린까지 올려놓는데 또 한 번 강력한 샷을 해야 돼. 좌측의 화도(花道; opening or apron of green)를 겨누고 #8 아이언으로 치려무나. 그 다음에는 화도로부터 어프로치(approach)로서 원 퍼팅(one putting)으로 넣으면 표준자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설명한대로 했고 그대로 카드에는 파(part) 4라고 기입되었다. 이런 결과에는 그도 나도 놀랐고, 한편 기쁘기도 했던 것 - 그리고 툭툭히 별이를 했던 것 - 이나, 그는 79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홀(hole)마다 그와 의논을 하고 천 중 999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스코어 단축의 확실한 법칙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두 가지 법칙 - 또는 실용적 원칙이란

〈좋은 찬스가 가장 많을 샷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음 샷을 쉽게 할 수 있는 샷을 하라.〉



자기보다 못한 스윙(swing)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스코어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전술상의 원칙을 본능적으로 또는 두뇌를 신중하게 사용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독자는 이 교훈을 뚜렷하게 머리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큰 스코어를 단축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샷을 하는 데는 기타 배워야 할 점이 많은데, 이것들은 순차적으로 취급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이다.

실제의 경기에서는 이 교훈에 변화가 있다. 그 변화는 2인 또는 2조직 합(matchplay)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정해진 홀 수(數)를 플레이해서 각 홀의 총 타수에서 핸디캡이 있는 경우는 그 수를 제하고 그 수를

43) Walter Hagen 44) North and South Open 45) Pinehurst

비교해서 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勝者)가 되는 게임)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의 속달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표준 이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은 표준역량을 가진 사람(Average golfer)이나 초급 정도의 사람보다는 위험을 범하지 않고 많은 찬스를 잡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부합하는 형의 경기를 할 줄 모른다. 나는 보통사람이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기량을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서 코스를 돌려고 하는 사람을 자주 보았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립(grip)을 잡는 것이라든가 타구의 자세를 취했을 때의 두 발의 위치(스탠스 - stance), 스윙(swing) 등에 관해서는 얼마간 알지는 모르나, 골프를 하는데 최초의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릇된 짓을 대(大)선수는 하지 않는다. 월터 트레비스<sup>46)</sup>는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리 먼 거리를 낼 수 없다. 동시에 정확함과 짧은 거리의 기술에서 우수함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전술은 자기의 기량을 각 코스에 적합시키는 것이었다. 로손 리틀(Lawson Little)은 내가 그를 만날 때까지도 우수한 타수(打手)였으나 승리할 수 있는 데서 승리를 못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가르친 것은 거의 전술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습득하고는 계속해서 2년간에 전미·전영 아마추어 선수권을 네 번이나 획득했고, 후에는 전미 오픈 또는 기타 마스터 프로 시합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줄리어스 보로스<sup>47)</sup>도 대 시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부터 매우 좋은 샷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기량에 알맞은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놓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재능이나 기질에 부합되지 않는 조심스러운 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벙커 샷(bunker shot)에서는 내가 본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샷의 방향을 너무 생각해서 치지 말고, 대담하게 치도록 충고를 했다. 샷이 만약에 그린 둘레의 벙커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에게는 어떤 걱정거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가 1타로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컵에 보내는 것은 손쉬운 것이었다.

그의 퍼팅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신중했다. 그런데 자기의 퍼팅이 컵의 양 옆으로 미스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정확한 라인 상에 있으면서도 홀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부터는 더욱 자신을 가지고 오히려 오버(over)시킨다는 기본으로 퍼팅해서 퍼팅에 현저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보로스는 힘이 강해 롱-샷(long-shot)이 거칠어질 것이 두려워 몸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롱-샷의 방향에 신경쓰지 않고 편안한 스윙을 하는데 조심한 후부터 숏 게임(short game)의 정확함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납득하고서 비로소 선수권을 획득했다.

46) Walter Travis 47) Julius Boros

〈골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을 깨달음으로서 비로소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다.〉

나는 생도들에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말했다. 나는 생도에게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 그리고 나는 '각자에게 가능한 한의 훌륭한 골프'란 무엇인가를 비교적 올바르게 판단한다. 체격이나 기질, 거기에 생활 조건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표준적인 경기라든가 그에 가까운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수라도 단지 학과나 실습에 의해서 회화나 조각, 바이올린, 피아노의 대가가 될 수 있다든가 발명가나 또는 부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는 언젠가 몇 사람의 최고급 골퍼에게 완성을 위한 세부점을 조금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한 완전에 가까운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그들이 습득할 수 있는 소질 확실한 시초적인 능력과 훌륭한 자체적인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나에게 교사로서의 능력을 가장 요구한 것은 대부분이 85로부터 3항(桁)까지를 때리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베스트 골프'인가를 간파하고 그 능력의 최대의 것을 견실하게 이행토록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골프는 상대적인 게임이다. 이것은 핸디캡(Handicap) 방법이라는 굉장한 이점이다.

엘스워스 바인스<sup>48)</sup>가 언젠가 나에게 말한 것이지만 그가 테니스의 대선수였을 때는 그가 상대로 해서 심각하고도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열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골프에서는 핸디캡 덕분에 아주 하수하고도 또는 표준 이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하고도 같이 훌륭한 접전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에서 이 핸디캡 방식의 매력을 특히 지적하고 있다. 확실히 핸디캡 때문에 모든 상대들은 대등한 스타트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미국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선수를 상대로 시합을 할 수 있는 골프는 딴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격(風格)을 갖는 게임이다. 나는 겨울 동안은 '보카 레이턴 클럽'에서, 기타의 계절에는 북방의 코스에서 평균 스코어가 85부터는 110 정도의 사람들과 몇번이고 시합을 하는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접전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극심한 더퍼(duffer)와 시합을 한다는 것은 기본 내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첫째로, 그 상대는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한 것을 해서 나를 웃긴다. 그는 또 몇 개의 훌륭한 샷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로 맞은 것인데, 나는 나대로 그와 같이 엉터리로 맞은 것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게 된다. 대다수의 골퍼들의

48) Ellsworth Vines

사고의 주된 오류는 그들이 만약에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합하면서 그 후에 겪은 핸디캡이 담당해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들은 직업선수나 아마추어의 명수들로부터 도리어 돈을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명수들의 핸디캡은 그 미스의 한도가 극소로밖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전혀 그 능력이 없는데도 모두가 명수가 되고 싶어 한다. 옛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 '야심은 슬퍼해야 할 과실이며, 더퍼(duffer)는 슬퍼하면서도 그것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보통 95 스트로크(stroke)가 걸리는 사람이 퍼팅 25와 행운의 킥(Kick) 10에 의해서 82로 올랐다고 할 때 터무니없는 야심이 보기에도 흉하게 움직인다. 실제로는 최상의 조건으로서 우선 87 정도이면서 자기로서는 82의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번 82의 성적을 올리면 자기의 힘으로서는 87의 스코어는 명수가 68로 도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교사로서의 나의 책임 중 가장 곤란한 점은 생도가 통상적으로 낼 수 있는 베스트 스코어는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짐작이 들면 그 짐작대로 가르칠 수 있다. 만약 생도가 목표에 도달하고 더욱 기대 이상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의 높은 단계를 향해 진행할 수도 있다. 나는 어떤 생도라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한 숙달시키고 싶은 마음은 태산 같으나 가장 현실적인 나의 할 일은 상대가 자기의 실력보다 몇 개의 스트로크(stroke)라도 더 때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데 있다.

수백만의 골퍼 중 적어도 9할까지는 90대의 스코어 - 환언하면 각 홀(18홀 기준)에서 표준타구수보다 하나씩 더 많다 - 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대다수사람들의 선천적인 한계를 솔직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한계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모두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한 표준 스트로크에 근접하고 싶으나, 많은 흠점 때문에 그것이 저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흠점을 줄이는 것은 실제로 배울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들이 즐기면서 배우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골프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 한명에 대해서만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도 6인은 있다. 이 여섯 사람에 대한 나의 일은 최초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와 그 목적을 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및 교습 중에 있을 그들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시켜 주는데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 또 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 할 수 있는 최선(最善)의 것은, 진전을 위한 확고하고도 영속적인 기초위에서 정확하게 출발시키는 것이다. 그들

은 그 기초위에 자기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량의 기량을 쌓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책의 활자와 삽화를 가지고서 독자의 마음과 근육에 납득시켜야만 할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보카 레이턴 클럽'의 나의 연습장에 있는 기분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습하고 있는가를 이제부터 말하려고 한다.

### ● 성전환(性轉換)한 유고의 소녀(少女) 입대(入隊)

남자로 성전환한 유고의 한 소녀는 유고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보스니아 출신인 올해 20세의 마리아 드요탄 양은 최근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 난 동양은 이름을 마리안으로 바꾸었다. 그는 남자 바지를 입고 마을로 돌아와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안전한 집안 일꾼이었으며 다른 소녀들과 같이 양을 몰고 있던 마리아 양의 성전환을 믿지 않았으나, 그가 최근 징집을 당하자 비로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전환을 믿게 된 것이다.

### ● 미(美) 니켈 판매규칙(販賣規則) 강화(強化)

- 방위용(防衛用) 생산유지책(生産維持策)으로 -

미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방위용 생산에 필요한 보급을 유지하기 위해 니켈의 출하에 대한 규칙을 강화했다. 상무성은 동 신규칙은 만약 민간공업 때문에 니켈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경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니켈은 제트기 및 모든 무기생산을 위한 고열 고속 합금에 사용되므로 한국전쟁 이래 상당히 그 보급규칙이 엄했던 것이다. 상무성 발표는 니켈 강철 및 기타 합금 제조자는 방위용 주문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할 때 니켈 구입에 우선 할당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 안전비행(安全飛行)에 기록(記錄) 57년(年)은 가장 분망(奔忙)했던 해

미, 전략공군사령부(SAC)는 말하기를 '1957년도는 가장 분망했던 해였을 뿐 아니라, 또한 가장 안전했던 해였다.'고 했다. SAC 본부는 예하 비행기의 비행시간 10만 시간 당 주요사고와 사소한 사고를 합해 단 5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大統領)과 그의 영식(令息) 존 소령(少領)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그가 세계적(世界的) 영웅(英雄)이 되기 훨씬 전(前)부터 비범(非凡)한 아버지였다. -

플로라, R, 슈레이버

존 아이젠하워는 18세 때에 세 갈래길에 서 있었다. 그 자신은 저술가)나 혹은 신문 기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뛰어난 변호사(辯護士)인 그의 큰아버지 에드가는 그에게 훌륭한 법률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존은 또한 군인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당시 중령이었던 그의 부친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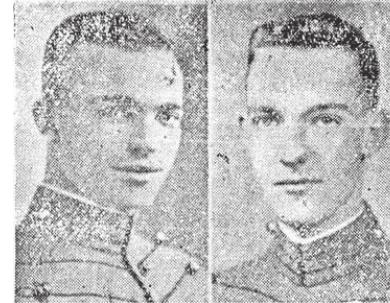
아이크는 그의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이 시기에, 그의 본심(本心)은 언제나 아들이 군인이 되기를 은근히 바랐지만, 존에게는 앞으로 갈 길을 신중히 고려해서 결심하라고 타일렀다. 그 몇 해 전에 그는 존에게 그의 약한 발을 튼튼히 하는 특수한 운동을 하라고 권했는데, 그것은 장차 있을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에 합격토록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 1년 전(1939년)에 필리핀의 군사시설을 시찰하면서 그는 마치 아들이 이미 군인이나 된 것처럼 존에게 그 여러 섬의 방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존이 그의 갈길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워싱턴 주 포트 루이스에서 그의 아버지와 주고받은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50세였던 아이크는 중령으로서 부연대장(副團長)을 지내고 있었으며, 그의 이름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소령을 16년 동안이나 하다가 겨우 진급되었던 것이다. 아이크는 아들에게 자기는 앞으로 더 출세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기는 그것으로서 충분히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자기에게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한 자기를 존경하는 여러 친구를 사귀게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상 더 바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이크는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

여기에서 존은 <웨스트 포인트><sup>49)</sup>에 들어갈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이 결심과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도록 한 아이크의 역할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의 외아들간의 보기 드문 이해의 길을 열게 했던 것이다.

49) West Point; 뉴욕시 북부에 있는 West Point Military Academy(미 육군사관학교)의 통칭.



‘육군사관생도시절(陸軍士官生徒時節)의 아이크 좌(左)와 존 아이크는 164명 중 61위, 존은 474명 중 138위로 졸업(卒業)했다’

후일 공적생활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이 특수한 의무감을 가지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자기 아들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흔히 자기의 강력한 감정을 억제했다. 군대와 정부의 부하들에 대해서도 아이젠하워는 흔히 직접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일 없이 언제나 이 점에서는 성공했다. 이 매력적인 부자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

는 몇 달 동안에 걸쳐 백악관에서의 면담과 스크랩북을 통해, 아이젠하워 집안의 친구들을 통해, 그리고 아이크, 매미 제네바 다우드<sup>50)</sup> 및 존이 세상에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이크가 아버지로서 성공했다는 한 가지 사실은 과거 13년 동안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아무런 특별한 장래성도 없는 일개 중령으로부터 갑자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때까지) 그의 아들이 독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이크의 각료(閣僚)의 일원인 해럴드 스타센<sup>51)</sup>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존과 그의 부인 바바라가 대통령의 영식(令息)과 며느리로서 그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태도에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자녀들은 강력한 스포트 라이트를 지나치게 많이 받으려 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숨어 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존과 바바라는 이 두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둘이 다 문자 그대로, 군인은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해야 한다는 육군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은 대통령의 영식(令息)으로서의 어떤 특전도 단호히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그와 부인과 자녀 넷(드와이트 데이비드 2세<sup>52)</sup>(8세), 바바라 앤<sup>53)</sup>(7세), 수잔 엘레인<sup>54)</sup>(5세), 메리 진<sup>55)</sup>(1세)은 보통 육군 장교의 가정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존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이 없으며, 수없이 많이 날아 들어오는 워싱턴의 사교 초대장을 자동적으로 사양했다.

그는 사교를 그의 친구와 동료(同僚)에 국한하고 있고 간소한 만찬회와 간이식당에서의 저녁식사로 그들을 대접하고 있다. 그의 소령으로서의 기본월급은 4달러 14센트이며 그밖에 약간의 수당(手當)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의 부인 바바라는 어린애들의

50) Mamie Geneva Doud; 아이크의 부인 51) Harold Edward Stassen

52) Dwight David Eisenhower II 53) Barbara Anne 54) Susan Elaine 55) Mary Jean



‘빈번한 재회(再會)와 이별(離別)은 군인의 집안에 오래 있는 일이다. 제2차 대전 후에 아이크와 존은 소련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중요한 순간을 함께 가졌다’

옷을 손수 만들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다니며 일하는 한 청소부의 도움을 받는 이외에는 집 안일을 혼자 돌보고 있다. 최근에 그의 시아버지가 그에게 세탁기를 하나 사주겠다고 했으나 존이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하나 샀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를 할 때도 간소하게 하도록 존은 주의하고 있다. 그는 또한 어린이들이 값비싼 선물을 받고 아이젠하워 집안에서는 이런 것을 갖는단다.’라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이크와 그의 영식의 이야기는 1922년 11월 파나마 운하지대의 정글 전초기지인 캠프 게일라드<sup>56)</sup>에서 시작된다. 매미는 3개월 전에 존을 낳고 덴버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지붕 밑 골방에는 박쥐가 후다닥거리고 마룻바닥 틈에는 독거미가 기어 다니는 숙사(宿舍)로 그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중이었다. 존은 그곳에서 야채 통조림과 분유로 자라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었다.

아이크가 콜론<sup>57)</sup> 부두(埠頭)에서 그의 부인과 갓난아이를 맞이했을 때 그 부부는 감개무량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아들 다우트 드와이트(그들은 장남을 이키<sup>58)</sup>라고 불렀다.)는 존이 출생하기 19개월 전에 성홍열(猩紅熱)로 죽었기 때문이다. (아이크와 매미는 둘 다 몹시 다정다감한 사람들이다. 매미는 오늘날 아직도 냅마조각으로 만든 인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익키가 가지고 놀던 것이다. 그리고 매미의 요청으로 존을 비롯해서 존의 네 아이들은 매미가 익키의 세례(洗禮)를 위해서 만든 옷과 턱받이를 입고 세례를 받았다.)

첫 아들을 잃은 쓰라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던 매미 아이젠하워는 자연 존의 건강을 몹시 염려하는 어머니가 되었다. 존은 건강한 어린애였으나, 매미는 언제나 큰 병에 걸리거나 앓을까, 혹은 다치거나 앓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는 캠프 게일라드로 그들을 따라온 보모(保姆)를 존이 세 살 조금 넘을 때까지 두었다. 그리고 그 집안의 한 옛날부터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존이 10대의 소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가 비를 맞은 후에는 으레 반사적으로 ‘아스피린을 먹을까요?’ 하고 물었다는 것이다.

56) Camp Gaillard 57) Colón 58) Icky

존이 어렸을 때 아이젠하워 부부는 빈번히 이사를 다녔다. 존이 두 살 때 아이크는 볼티모어에 체육장교로서 빈번치 못한 자리로 전속(轉屬)되었다. 존이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도 못되었을 때 아이크는 다시 워싱턴으로 전속되어, 가족은 와이오밍 아파트에 들게 되었다. 부모가 여러 곳을 전전(轉轉)하는 다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존은 외로운 아이처럼 보였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물론 다른 어른들과도 알게 될 필요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와이오밍 아파트의 청소부 케네스 화이트라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로 “팔”<sup>59)</sup>이라고 불렀으며, 존은 흔히 화이트가 일하는 뒤를 쫓아다녔다. 화이트는 이렇게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어느 날 존은 땅에 먼저 앉은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하려고 나의 물걸레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물에 젖은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울면 엄마한테 이른다.’고 그를 달랬습니다. 그는 갑자기 울음을 그쳤습니다.”

“나는 그를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 벤치를 내놓고 그 위에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내 엉덩이를 때려려고?’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네 바지를 마르게 해주려고’ 하고 말했습니다.”

햇볕에 그의 바지는 감쪽같이 말라서 매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존은 이 케네스 화이트를 가끔씩 만나고 있다.

존은 또한 그의 아버지의 동료 장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가 여섯 살이었고 아이크가 전속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어린 존은 몇 사람의 장교에게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자기와 피를 나누는 의형제를 맺자고 했다. 그는 바늘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어른들에게도 그들의 손가락을 찌르게 한 다음 자기의 피를 그들과 섞었다.

이와 같은 일은 부자간의 어떤 소원(疎遠)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존과 아이크에게 그것은 훈육(訓育)상의 소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분리에 지나지 않았다. 존이 다섯 살에서 열세 살이 될 때까지 아이크는 직장을 가진 어떤 아버지와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왔다. 아이크는 그의 아들을 때리는 일은 없었으나 그는 엄격한 아버지였다. 존은 이렇게 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고도 아이크의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질문에 대해서 ‘Yes, Sir’ 혹은 ‘No, Sir’ 하고 존경하는 말로 대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존이 12, 3세 되었을 때 아이크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부하로서 필리핀에 배속되었다. 예비학교의 방학 때의 어느 날, 존은 부모를 위해서 선물을 사러 나갔다. 그는 아이크를 위해서 징과 창(槍)과 나이프를 사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흰 앵무새 한 마리를 샀다. 아이크는 대나무로 된 새 집안에 그 앵무새가 힘없이 지쳐있는 것을 보고 애처롭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며칠 후 그는 그 앵무새를 친구에게 주어버렸다.

59) pal; 친구



존이 한국(韓國)으로부터 귀국(歸國)했을 때 아이크는 이미 대통령(大統領)이 되어 있었다. 매미(중양)와 아이크의 어머니 바바라

몇 해 후 매미는 이 앵무새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때 그는 생각에 잠긴 듯이 아이크가 그 새를 남에게 주어버렸을 때 얼마나 존이 쓸쓸해했는지 모른다고 설명해주었다. 존은 오늘날 이 이야기를 집안의 한 유머로 말하고 있다.

만일 아이크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엄격했다면 그것은 물론 애정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존이 혼자서 넉넉히 몸을 씻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그는 목욕탕에서 아버지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존은 몸을 씻고 아이크는 면도를 하면서 그들은 전술(戰術)에서부터 윤리(倫理)에

이르는 여러 가지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존이 성장하는 동안 아이크는 아들이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발전하도록 하고, 나쁜 버릇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를 성실하게 지도했다. 그리고 아이크의 방법은 언제나 간접적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존이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 직전에 아이크는 아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권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담배의 해로운 점에 대해서 긴 강의를 늘어놓는 대신, 만일 존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담배를 피우는데 드는 돈만큼 용돈을 더 주겠노라고 제의했다. 오늘날까지 존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한편에는 엄격한 훈육이 있고, 또 한편에는 부모의 따뜻한 애정이 깃들어 있는 이 가정교육은 존 셸던 다우드 아이젠하워<sup>60)</sup>가 갑자기 위인(偉人)의 아들로 변하게 되는 데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능히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크는 꾸준히 애써 일하는 참모장교로부터 갑자기 뛰어난 군사지도자로 변했기 때문이다. 1942년에 그는 펜타곤(미(美) 국방성(國防省))에 있는 많은 준장(准將)의 한사람이었으나 2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원수(元帥)가 되어 유럽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연합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때 존은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캔자스 주의 옴고자 가운데 최고점(最高點)으로 입학시험에 합격해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성적은 아이크의 입학시험성적보다도 우수한 것이었다. 존은 보통학생보다 약간 우수한 편이었다. 그의 학적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 “그는 또 하나의 4성장군(四星將軍)이 될 것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저술가가 되기를 원한

60) John Sheldon Doud Eisenhower

다. 그는 훌륭한 저술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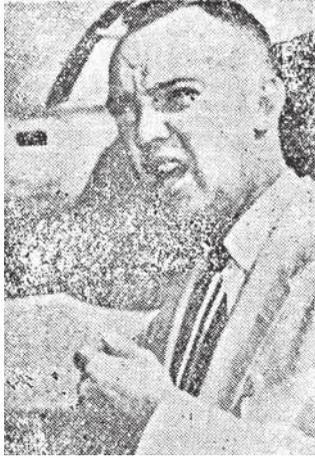
존은 사관학교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다음의 실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존은 사관학교에 있는 한 재봉사가 이태리에 있는 그의 딸의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해 근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2주일 후에 존은 큰 미소를 띄우면서 그 재봉사를 찾아 갔다. 그는 아이크에게 편지를 했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 재봉사의 딸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무사히 잘 있었다. 1944년 설날에 뜻밖에도 아이크가 소식도 없이 귀국했다. 그는 기차편으로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존을 찾아갔다. 그는 아들에게 다섯 명의 사관생도를 저녁식사에 데리고 오라고 초청했다. 사관생도들은 그 최고사령관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말없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최고 사령관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정도로 그들은 마음을 놓게 되었다. 6개월 후 (1944년 6월 6일)에 존은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바로 그날, 그의 아버지의 지휘아래 연합군의 프랑스 침공 작전이 개시되었던 것이다. 그날 새벽 매미는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테이여 호텔에서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침 일곱 시에 전화 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그는 잠을 깬다. 한 기자가 그에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 알려주려고 걸어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에 그는 존이 졸업장을 받는 것을 보았다. 여섯 시간 후에 존은 호주머니에 비밀명령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며칠 후 라디오의 뉴스를 통해 매미는 그 명령이 존을 어디로 데려갔는가를 알게 되었다. 육군참모총장 조지 C 마셜 원수는 존이 졸업후기를 아이크와 함께 영국에서 보내도록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이 무렵에 존은 영웅의 아들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가 아이크의 전용기 B-17을 타고 졸업후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는 미국으로 가는 도중 잠시 아이슬란드에 멈추었다. 그런데 그때 존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한 대령 한 사람이 비행장으로 뛰어와 그의 손을 잡았다. 존은 그때 대령에게 자기는 일개 소위(少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우쳐 주었다. 그 후에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아이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존은 그의 아버지와 많은 중요한 순간을 함께 가졌다. 그



‘존을 반가이 맞이하는 바바라’



아이크의 심장마비(心臟痲痺)는 그의 영식(令息) 존에게 큰 충격(衝擊)을 주었다.

의 마음을 끌었다. 그들은 서로 더욱 빈번히 만나기 시작했다. 얼마 안가서 존은 매미에게 전보를 치고 자기의 웨스트포인트 반지를 작은 것으로 하나 주문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존의 양친은 그가 편지에서 바바라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었다. 아이크도 일찍이 매미를 위해서 그러한 반지를 주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몇주일 후에 아이젠하워부처는 존한테서 대서양 횡단 장거리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존은 그들에게 그들의 장래의 며느리를 소개했던 것이다.

1947년 여름에 존과 바바라는 군용수송기편으로 귀국했다. 뉴욕에서 바바라는, 세계적 영웅의 가족은 언제든지 신문기자와 카메라맨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어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바바라의 아버지가 배속되어 있는 버지니아 주 포트 먼로의 교회에서 6월 10일에 거행되었다. 바바라는 전통적인 결혼의상을 입고 기도책(祈禱冊)과 백난초를 들고 식을 올렸다. 신랑의 들러리에는 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조지 호건이 섰다. 식이 끝난 후에 존과 바바라는 진지(陣地)의 주변을 말과 마차(馬車)가 달리는 전통적인 육군의식(儀式)을 참관했다.

그 후 몇 해 동안에 아이젠하워 부자(父子)는 그 신분에 급격한 변화를 보았다. 아이크가 콜롬비아 대학총장에 임명되었을 때, 존과 바바라와 그들의 첫아들 데이비드는 뉴욕에 살고 있었다. 존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영어교관에 임명되기 전

들은 유럽전쟁이 끝난 날 함께 있었다. 그리고 스탈린이 아이크를 소련으로 초청했을 때 존은 부관(副官)으로 수행했다. 축배를 들으라는 요청을 받자 존은 서로 술잔을 권하고 있던 많은 원수(元帥)와 제독(提督)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평범한 군인을 위해서 축배를 들고 말했던 것이다. 전후(戰後)에 존은 비엔나 점령군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만찬회에서 그는 바바라 진 톰슨<sup>61)</sup>이라는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는 그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여성 12명 중의 하나였고 육군대령의 딸이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날씬한데다가 검은 머리칼에 담갈색(淡褐色)의 눈동자를 가지고 미소를 띠는 그 처녀의 둥근 얼굴은 첫눈에 존

61) Barbara Jean Thompson

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존이 뉴욕을 떠나기 전 한 달 동안 그와 바바라와 데이비드는 매미와 아이크와 한집안에서 살았다. 존과 그의 처자가 <웨스트포인트> 근처의 하일랜드 폴스로 이사한 후에는 주말(週末)에 부모가 자주 그들을 찾았다. <웨스트포인트>에서 존은 열심히 일했다. 그것은 아이크가 참모장교로서 일할 때 보여주던 것과 똑같은 성실성이었다. 하일랜드 폴스에서 존이 세 들어 있던 집주인이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프랭크 예이글은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흔히 밤늦게까지 조니의 타이프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때는 그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 올 때도 있었습니다.”

존은 1945년 1월 23일에 임시 중위로 진급했고, 1951년 5월 14일에 정규대위가 되었으며 1951년 8월 16일에 임시 소령이 되었다.

1952년 포트 녹스<sup>62)</sup>의 탱크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존은 한국전선으로 갈 것을 지원했다. 그가 1952년 7월 18일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와 바바라는 하일랜드 폴스의 미안스 가(街)에, 방이 여섯 개 있는 흰색 목조 가옥을 빌려 살고 있었다.

어린애들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다. 바바라 앤은 네 번째 맞이하는 그의 생일에 아빠만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에 바바라가 외출을 하게 되어 멀 그래시아노라는 이웃 부인이 어린애를 봐주고 있었다. 그때 그 부인은 데이비드에게 기도문을 말해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데이비드는 “오케이 짧은 거예요.” 하고 말하더니 침대에 기대어 이렇게 중얼거렸다. “주여, 제발 우리 아빠를 한국에서 돌려보내 주소서” 라고.

존이 해외에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다음 달 아이크는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존은 제3사단, 제15보병연대, 제1대대에 있었는데, 그는 마크 클라크 대장에 의해 아버지의 부관으로 임명되어 일선으로부터 날아왔다.

바바라와 어린애들은 모닝사이드 드라이브에서 그해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훌륭한 크리스마스였다. 그러나 매미 아이젠하워는 며느리와 손자들은 한 지붕 밑에 있지만, 아들 존은 한국에 가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아들이 떠나간 이후 그녀는 항상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아들에게 한주 세 번씩 꼭 편지를 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날에 기어코 병이 나고 말았다. 대통령 취임일이 가까워 왔는데도 그녀는 문밖출입을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아들 존이 10일간의 휴가를 얻어 비행기 편으로 귀국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회복했다. 마침내 대통령 취임일에 존과 바바라는 백악관에서 잤다. 매미는 그들에게 장미의 방을 제공했다. 9월에 존은 하일랜드 폴스에 있는 처자(妻子)에게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진정한 재회(再會)였다. 전쟁이 끝났던 것이다.

그 후 그는 조지아 주 포트 베닝<sup>63)</sup>에서 1년 동안 제30보병연대 제1대대의 대대장으로

62) Fort Knox 63) Fort Benning

로 근무했다. 1954년 7월에 그는 백악관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아버지의 임시부관 노릇을 했다. 8월 10일에 그는 캔자스 주 포트 리븐워스<sup>64)</sup>에 있는 육군대학<sup>65)</sup>으로 배속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1926년에 우등으로 졸업한 대학이었다. 그 후 1955년 5월 3일, 그는 현재 있는 포트 벨보어<sup>66)</sup> 공병학교에 보병교관으로 배속되었다.

제작년 여름에 존은 아버지의 특별부관으로서 바바라와 어린애들을 남겨두고 제네바 회의에 부모를 따라갔다. 호수 앞에 방이 열다섯이나 되는 별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이 세 사람은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그들을 수행했던 아이젠하워 부인의 비서 메어터 제인 여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행복스럽게 목욕탕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존이 피아노를 치고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손자들의 생각을 잊지 않았다. 그는 제네바에서 그들에게 주려고 장난감을 샀다. 아이크는 존이 어렸을 때보다도 손자들과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존 자신도 지난날의 아이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이다. 그는 어린애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반면에 구식의 엄격한 아버지이다. 그는 결혼 전까지는 장로교 신자였지만, 감리교 교리에 따라서 어린애들을 훈육해 오고 있다.

모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러하듯이, 매미와 아이크도 손자들이 흔히 오랫동안 그들을 찾아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애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은 백악관이고 백악관이란 곳은 어린애들이 자랄 곳이 못된다고 깨우쳐주고 있는 존은 그들이 백악관을 찾아가는 것을 신중히 조절하고 있다. 존의 셋째 아이인 메리 진이 출생했을 때 한 기사는 존에게 윌터 리드 병원<sup>67)</sup>보다도 백악관에서 어린애를 낳도록하기를 원하지는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 때 존은 약간 화가 난 듯이 ‘백악관은 산과 시설에서는 도저히 윌터 리드 병원을 못 당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백악관에 존의 자녀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3층의 일부는 아이들의 방으로 개조까지 되어 있다.

남쪽 뜰에는 노르웨이 산(産) 단풍나무에 아동용 그네가 매달려 있다. 토요일에는 가끔 어린애들이 백악관의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나 혹은 딴 곳에서 휴일을 보낼 때는 흔히 손자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공식적인 자리에도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느낌을 준다. 1955년 1월에 국회를 위한 백악관의 연례연회(年例宴會)가 열렸을 때이다. 잠옷을 입은 바바라 앤과 수잔 엘렌이 가족식당 문 뒤에 숨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님들은 그들을 보고 손으로 키스를 보내는 시늉을 했다.

64) Fort Leavenworth 65) United States Disciplinary Barracks

66) Fort Balboa 67) 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아이크는 존에 대해서 가질 수 없던 특별한 정을 손자 데이비드에게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가 백악관에 머물러 있을 때 손자와 할아버지는 독특한 스타일의 동작을 하면서 아침에 만난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걸어오면서 그들은 몹시 딱딱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그들이 2피트쯤 떨어진 곳에 도달하면 갑자기 발을 멈추고 깊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 다음 악수를 한다. 그다음 데이비드가 일종의 기상나팔을 부는 시늉을 하면, 할아버지는 손자를 두 팔로 힘차게 얼싸안아 주었다. 그 다음 그들을 앉아서 그날의 데이비드의 예정을 토의하는 중요한 사업에 착수한다.

그럴 때면 으레 데이비드는 자기 자신(그가 흔히 부르고 있는 작은 아이크)은 물론 ‘큰 아이크’도 관련된 어떤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활동이란 골프 교습이나 혹은 그들 둘만의 야유회 같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시간약속을 하고 자기 일을 보러 간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어길 수 없는 것이며 대통령은 오후 늦게 면담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저명한 교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 독(獨) 과학자(科學者) 일부성공(一部成功)

수소탄(水素彈) 평화전용연구(平和轉用研究)에

독일 과학자들은 그들이 수소탄력을 평화적인 방면으로 전용하는 시도에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서독 아헨공과대학 연구반 책임자 빌헬름 후스 박사는 1초의 백만분의 1 동안에 백만 암페어의 전류를 산출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는데, 동(同) 연구반의 목표는 수소탄 물질의 용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초고도의 열을 산출하는데 있다고 한다.

후스 박사는 만약 제작된 수소 핵반응으로부터의 에너지의 생산이 체계적으로 부합되도록 실현될 수 있다면 앞으로 동력 부족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프랑스기(佛機), 북극경유(北極經由) 비행(飛行)에 성공(成功)

파리 동경간(東京間) 29시간

프랑스 항공회사의 한 여객기는 이번에 파리를 출발해 북극경유 실험비행에 성공했다. 이 여객기는 파리에서 동경까지 4,780Km의 거리를 29시간 45분에 비행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는 손자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1954년의 부활제(復活祭)에 조지아 주 오거스타에서 신문 기자들은 바바라 앤과 수잔이 입고 있는 옷을 칭찬하고 야단법석이었으나 그들은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 아무도 그의 손자에게 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은 대통령은 곧 데이비드에게 몸을 꾸부리고 일부러 정색을 한 어조로 말했다. “아이젠하워 씨, 당신의 옷차림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라고.

할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히 마음 놓고 노는 데이비드는 사람들에게 “나는 백악관에 살고 있어요.”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사진사에게 “내가 트럭을 닦고 있는 것을 찍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병환이었을 때 그의 손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 혹은 만든 선물을 보내왔다. 왜냐하면 존과 바바라는 선물이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수술 후 대통령이 월터 리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 손자들은 아버지의 날을 위해서 화분에 심은 식물을 가져왔었다.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을 때는 할아버지의 심장을 고치도록 추잉껌을 그에게 주었다.

한편 포트 벨보어에서 이 아이들은 군인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와 바바라는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인트 아그네스 학교에 다니고 있고, 수잔은 존의 배속지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일요일이면 그들은 주일학교에 가고, 또한 부모와 함께 교회에 간다.

밤에는 아빠가 노래를 불러주고 기타나 혹은 아코디언을 연주해주거나 혹은 콜렉션이 점점 늘어가는 고전음악과 유행가의 레코드를 들려주기도 한다. 여름에는 동네의 다른 아이들과 서로 물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호스로 뿌리기도 하고, 집 앞에 있는 수영장에 뛰어 들어가 장난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젊은 아이젠하워 가(家)의 생활광경은 아이크가 아버지로서 성공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존 아이젠하워는 그가 아무리 엄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엄친의 그늘에 가려 있든 간에, 그는 분명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다. 포트 벨보어에 있는 젊은 아이젠하워가의 이웃 사람 하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흔히 나는 존 소령이 백악관에 그의 일가친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답니다.” 끝.

<명작영화관람(名作映畫鑑賞)>

## 저항(抵抗)

방제(傍題) = 사형수(死刑囚)의 수기(手記)

프랑스(佛) SNE 고몽<sup>68)</sup> 제작(製作)  
로베르 브레송 감독(監督)



### ‘해설’

스토리의 힘을 거의 빌리지 않고 오직 카메라를 통해 인간행동을 치밀하고 분석함으로써 생명 또는 생명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켰고, 그럼으로써 영화의 순수성과 영화라는 예술형식의 본질을 완전히 맞출 수 있게끔 살려 놓았다. 이야기는 제2차대전 당시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독일군 형무소에 감금된 젊은 프랑스 장교가 면밀한 계획으로 탈옥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화면은 시종 사형수인 주역을 좇고 있으나 이처럼 인간생명의 실체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느끼게 한 작품은 아직 없었다. 나치 점령하의 삼엄한 분위기, 고문, 불행한 옥중의 하루, 목이 타는 듯한 자유에의 갈망, 이 모든 감각을 짧은 화면에 정확히 새겨 놓은 이 영화에서 안이한 감격은 일체 배제되고, 관객은 어느덧 화면에 끌려 주역과 함께 감방에서 호흡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투옥의 일념에 사로잡히고 마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감독인 로베르 브레송은 프랑스 10대(十大) 감독들 중에서도 가장 예술적 양심이 강한 감독으로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그는 1943년에 처녀작을 발표한 이래 이 저항으로서 겨우 네 번째(1956년)라는 과(寡) 작가이며 하나하나의 작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브레송이 주역의 행동을 보는 눈은 흡사 대수술을 하고 있는 외과의처럼 냉정하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는 기성의 모든 영화기술형식을 무시하면서 가장 영화다운 작품을 만들었다.

주연을 담당한 프랑수아 르테리<sup>69)</sup>에는 이 영화를 촬영하기 얼마 전 모로코에서 2년간의 병역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학창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철학과 학생이라 한다. 그의 연기는 실로 처음 출연한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놀랍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잃지 않겠다는 이 영화의 저항정신을 그의 맑고 이지적인 눈동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음향효과와

68) Gaumont 69) François Leterrier

놀라운 점이다. 문소리 발자취 소리, 그리고 속삭임 등 판 영화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가는 소리를 이 중요한 심리적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

### 폰텐 중위(中尉)<sup>70)</sup>

“이것으로 반달쫄은 조용하겠지”

뺨, 턱 할 것 없이 온 얼굴이 피투성이인 채 반 실신(失神)된 청년을 좁은 감방(監房)에 끌어들여 계슈타포는 혼잣말로 증언거렸다. 그리고 돌바닥에 쓰러진 청년의 몸에 옷저고리를 던져주고는 바깥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사라졌다.

탈주하다 실패한 청년(폰텐) 중위는 발자취 소리가 멀어지자, 살며시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다. 이 몽튀크 형무소<sup>71)</sup>의 감방은 깊이 3m, 넓이 2m, 그리고 복도 쪽의 육중한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거친 콘크리트 벽이다. 방안에는 나무침대에 담요가 두장, 출입문 옆에 용변 깡통이 하나, 그리고 한쪽 벽에는 돌로 된 삼각형의 좁은 선반이 있어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 적은 철창 밖으로 겨우 외부가 보일까 말까 한다. 이런 곳에 투옥된 죄수는 대부분 폰텐 중위처럼 나치군에 대한 저항운동에 참가했던 탓으로 탈주를 꾀한 자는 용서 없이 총살되었다. 호송도중 탈주하려다 체포된 폰텐 중위도 물론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간수병은 그를 호출하려 왔다. 폰텐은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듯이 쓰러져 있었다. 얼굴에서 가슴에 이르기까지 말라붙은 피투성이는 보기에도 흉측스러우나 사지(四肢)는 멀쩡했다. 사실 일초라도 사형의 시기를 연장시키기에는 중상(重傷)을 가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간수병은 발길로 한번 떠밀어 보고는 그냥 나가 버렸다. 그 순간부터 폰텐의 가슴에는 살아 보겠다는 욕망이 치열하게 꿈틀거렸다. 누구나 궁극상태(窮極狀態)에 놓이게 되면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맹렬히 반발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모든 걸 단념하고 무기력하게 되어 버린다. 용기가 이처럼 귀중한 때는 없을 것이다.

폰텐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선반으로 기어올라 철창에 매달렸다. 이 감방 바로 밑은 형무소의 가운데로 들로 되어있어, 이곳에는 죄수로 보이는 세사람의 남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나는 폰텐이란 자인데 바깥으로 연락할 수 없을까?”

“난 테리<sup>72)</sup>이다. 방법은 있지”

백발에 가까운 가운데 노인이 얼굴도 들지 않은채 이렇게 말하고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노인은

70) Lieutenant Fontaine 71) Montluc prison 72) Terry

손수건에 싼 끈을 철창으로 던져 주었다. 폰텐은 별안간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 그는 아직 절망한 것은 아니었다. 폰텐은 콘크리트 벽을 두들겨 옆방 사람과 연락했다. 바로 옆 감방에 있는 사람은 독일병을 죽였다는 19세의 직공(職工)으로 총살될 날만 기다린다는데, 얼굴은 볼 수 없었다. 폰텐은 그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룻밤을 용사의 노래로 재우며 가련한 그 젊은이를 위로했다.

### 테리 노인(老人)의 방조(幫助)

테리 노인과 두 사람의 동반자들은 매일 오후 일정한 시간이면 가운데 뜰로 산책하러 나온다. 폰텐은 얻은 끈에다 손수건을 매달아 그것으로 연필과 종이를 또 얻었다. 그 다음 날 가족들에게 자기의 정황(情況)을 알리는 편지 한통과, 그 지방에 잠복해 있는 상급자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같은 방법으로 테리에게 전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의 산책까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테리 노인은 비교적 경미한 죄로 이곳에 수감된 듯 했으며, 이런 노인과 의 연락으로 폰텐은 여죄수의 방으로부터 안전핀과 면도칼날에 이르기까지 무난히 얻을 수 있었다. 여죄수의 방으로부터 전해져 온 핀과 면도 칼날을 싼 신문지에는 ‘성공하세요.’ 라고까지 쓰여 있다. 폰텐은 핀 끝을 자물쇠 구멍으로 밀어 넣어 것처럼 단단하던 수갑을 드디어 풀었다. 수갑을 풀긴 했으나 그것으로 곧 탈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복도에서 감시병의 발자취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급히 또 양손에 채워야만 했으나 비록 한 때만일망정 자기의 힘으로 팔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이 감방에서 이에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사형수의 처형(處刑)은 이 감방 창으로는 보이지 않는 뜰에서 행하는 듯 이따금씩 총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온다. 폰텐이 이곳에 수감된 지 보름째 되는 날 간수장이 들어서면서 나오라고 명령한다. ‘사형일까!’ 순간적인 전율(戰慄)이 그의 전신을 번개처럼 스쳐간다. 저고리를 들고 간수장의 뒤를 따르자.

“수건을!” 하고 간수장<sup>73)</sup>은 침대머리에 걸려있는 수건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그 건물의 위층에 있는 107호 감방으로 그를 데려다 놓고 비로소 수갑을 풀었으며 육중한 문을 바깥으로 잠그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이렇게 폰텐의 생명은 또 며칠간 연장되었다.

### 끈기 있는 탈주준비(脫走準備)

아침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수병의 신호로 감방의 죄수들은 각기 변기(便器)를 끼고 일제히 복도로 나온다. 그리고는 일렬이 되어 가운데 뜰로 내려가 변기를 치우고 세수를 한 다음 다시 열을 지어 각기의 감방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그들의 일과 중에서 유일한 활동이었다. 폰텐은 종일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침대 위에 올라앉아 문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여

73) 배우; 자크 외를르망 Jacques Oerlemans

첫 장의 두꺼운 판자와 그것을 싸고 있는 테두리의 재질(材質)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했다. 세로로 여섯 장씩 겹쳐진 판자는 튼튼한 참나무로 되어있으나 날 일자형(日字型)으로 그것을 싼 테두리는 너도밤나무(beech)가 아니면 포플러(poplar)인 듯했다. 이 판자 세로의 흠을 잘라내고 테두리의 상하를 조금씩만 긁어낸다면 어쨌든 복도까지는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도구가 필요하다.

어떤 날 그는 식기를 돌려 줄 때 손갈을 마루 위에 떨어뜨린 척하고 구두 밑에 감추어 버렸다. 간수병이 무심코 철제(鐵製) 컵만 받아가자 순총을 콘크리트 바닥에 갈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판자와 판자사이를 긁어내는 끈기 있는 작업을 매일 밤 계속했다. 다행히도 옥안의 감시는 거의 없다시피 되어 야간의 순찰(巡察)마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서 발각될는지 단언할 수 없는 일이다. 풍텐은 심중히 하나하나의 나무 부스러기까지 치워버리며 조용히 판자 사이를 긁어갔다.

어느 날 밤 역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나지막한 발자취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바늘구멍 같은 문틈으로 감방 안을 들여다본다.

“풍텐 있나?” 그것은 테리의 목소리였다.

“테리인가, 참 오래간만이네.”

“나는 떠나게 되었어.”

“석방(釋放)되는 건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애.”

“아래층 내 옆방에 있던, 그 젊은 친구는?”

“총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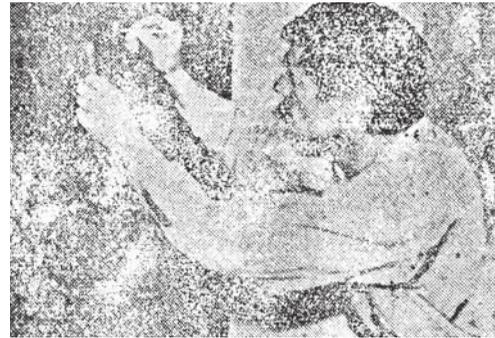
테리가 어떻게 해 복도로 나올 수 있었는지 풍텐은 알 수 없는 일이었으나, 것처럼 친절하던 이 노인이 떠나게 된 것과 얼굴도 모르는 젊은 친구가 총살되었다는 이런 소식들은 실망을 자아내게 했다. 이렇게 판자를 긁고 있지만 어쩌면 그의 처형이 내일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집행 명령만 떨어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한낱 보람 없는 허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잡념을 잊고 오로지 작업에만 진력했다. 풍텐이 탈옥을 꾀한다는 것은 같은 위층에 있는 모든 감방수들에게 차차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바로 앞 감방에 있는 오르시니<sup>74)</sup>는 밤마다 풍텐의 일이 계속되는 동안 자기 방문의 적은 틈 구멍으로 복도를 감시해 주어 전보다 일하에 훨씬 편해졌다.

오직 한쪽 옆방의 침묵만이 그를 불안케 했다. 어떤 날 그는 옆방의 블랑세<sup>75)</sup>(베르블록<sup>76)</sup>)에게 말을 걸었다.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릴게.”

74) Orsini; 자크 에르토 Jacques Ertaud 75) Blanchet 76) Maurice Beerblock



“아무 것도 없어.”

라고 블랑세는 투명스럽게 대답하고 이어 “그렇다면 제발 그 문 굽는 일을 그만두어 오. 발각되면 전원이 처벌돼.”

그로부터 3주일간 풍텐은 더욱 소리를 죽이고 작업을 계속해 드디어 3장의 참나무 판자를 세로로 자르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이 끼어있

는 테두리의 일부를 부수려던 때 손갈은 가운데로부터 돌로 부러졌다.

### 울타리 밑(廊下)까지의 자유

다음 날 아침 세수하러 갔을 때 오르시니는 성서(聖書)를 한권 입수했고, 풍텐은 식기선반에서 새로운 손갈 하나를 또 훔칠 수 있었다. 이리하여 3장의 판자를 떼어내고 나니 그의 몸은 충분히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테두리의 상부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쪼개졌다. 그는 떨어진 조각을 주워 처음대로 붙이고 물에 젖은 종이로 조심스럽게 그 틈을 메웠다. 그리고 또 연필로 테 나지 않게 칠했으나,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그 위에 작은 바늘을 박고 수건을 걸어 두었다. 풍텐은 누구든지 별안간 문을 열거나 닫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어느 판자가 떨어져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식(配食)때도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꼭 자기 손으로 했다. 그날 밤 풍텐은 조용히 판자를 들어내고 복도에 나왔다. 어두침침한 전등불이 켜진 좁다란 복도에는 순찰도 감시도 없었다. 풍텐은 살금살금 옆 감방으로 가까이 가서 감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다, 107호다.”

“정말! 감방 안의 사나이<sup>77)</sup>는 놀란 듯이 감탄했다.

“잘 자. 내일 또 오지.”

풍텐은 그 감방 문에 백묵(白墨)으로 커다랗게 씌어진 ‘외출 및 식사정지’란 글을 지우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불과 몇 분 동안 몰래 복도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뿐이나 옆방 사나이의 부드러운 듯한 목소리가 그를 퍽 기쁘게 했다. 그날 밤은 이곳에 수용된 이후 처음으로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탈주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세수하러 나갈 때마다 이곳의 감시상황(監視狀況)을 조사해 본 결과 간수장과 상사는 이층에서 자고 아래층에 있는 하사가 문 열쇠를 맡고 있음을 알았다. 감방으로부터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탈주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옥상으로 빠져나가 지붕을 타고 내려가지 않

77) 세자르 가트노 César Gattegno

면 안 된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또다시 복도로 빠져나왔다. 두꺼운 콘크리트 처마 끝에 양 팔을 걸고 옥상으로 기어 올라갔다. 옥상을 유리로 되어 있어 “찍!” 하고 발밑에서 금이 나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숨이 막히는 순간 가까이서 들려오는 기차소리가 이 위협의 참나를 모면케 해주었다.

### 오르시니의 계획(計劃)

어느 날 아침 풍텐은 오르시니로부터 쪽지를 한 장 받았다. 감방으로 돌아와 펴보니 거기에는 오르시니의 탈주계획이 상세하게 써어 있었다. 백주(白晝)에 간수병의 눈을 피하고 탈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패한다!’ 라고 풍텐은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아나나 다를까 오르시니는 세수하러 나갈 때 저고리 밑에 줄과 갈고리를 감추어 두었다가 간수병 몰래 담벽을 타고 넘었으나 콘크리트로 된 높은 벽은 4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곧 체포되었다. 줄(綱) 끝에 달 갈고리는 감방 벽에 붙어있는 각등(角燈) 테두리의 철재를 사용하도록 풍텐에게 알려주고 오르시니는 형장(刑場)으로 끌려 나갔다. 오르시니의 실패는 풍텐의 계획을 한층 심중케 했다. 그 후 풍텐은 각등 테두리로 지붕을 모서리에 맞도록 세 개의 갈고리를 만들었다. 하나는 이 건물로부터 타고 내리기 위한 것이고 다른 두 개는 바깥벽과 벽 사이를 줄로 이을 때 쓰기 위한 것이다.

풍텐이 겨우 갈고리를 다 만들었을 무렵, 비상호출(非常呼出)이 있어 죄수 일동은 가운데 뜰로 정렬되었다. 죄수 한 사람이 통역으로 나서서 하는 말이 편지를 낸 죄수가 세 사람이거나 있어 그들은 총살되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연필을 가진 사람은 잠시 후, 순찰 때 빠짐없이 내놓으라는 명령이라 한다. 만약 그때 내놓지 않고 실내(室內) 검사 시에 발각되면 지체 없이 총살시키겠다는 것까지 부연했다. 대사(大事)를 치르기 직전의 생각지 못하던 일이다. 사소한 연필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을 허사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간수가 감방을 돌아다니며 연필을 모았을 때 풍텐은 부지중(不知中) 없다고 말해 버렸다. 이제는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곤경에 빠진 것이다. 커다란 계획을 눈앞에 두고서도 사소한 반항심 때문에 일체의 노고는 무너졌다. 만약 감방을 수색(搜索)당한다면 연필뿐인가 탈옥의 도구 전부가 발각될 것이다. 그때 다시 발자취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얼굴을 들었을 때 간수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차입(差入)된 커다란 상자 하나를 두고 갔다. 이리해서 그는 다시 힘을 얻어 작업을 계속했다. 이제는 두 장의 모포까지도 모두 로프로 변했다.

아침 일과 때 간수병의 눈을 피해 옆방 블랑세가 자기 모포를 던져 준 것은 풍텐으로서

는 생각지도 않던 기쁨을 갖게 해주었다. 주위의 사람들을 백안시(白眼視)하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블랑세까지도 어느새 풍텐의 탈주에 자기의 꿈을 맡겼던 것이다.

### 알 수 없는 소년죄수(少年罪囚)

이리해 탈옥 준비는 다 되었다. 그러나 풍텐은 그것을 혼자서 결행(決行)할 용기가 나질 않아 110호의 사나이<sup>78)</sup>에게 권했지만 그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렸다. 설사 그들이 석방은 되지 않더라도 형의 집행이 유예(猶豫)되고 있는 동안에 연합군은 이리움을 탈환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면 떳떳이 출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풍텐은 심판소로 호출되어 스파이 행위와 음모기도(陰謀企圖)라는 죄명으로 사형언도를 받았다.

사형의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이상 더 주저할 수는 없다.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호출되어 집행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때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그의 감방에 동거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독일병의 옷저고리를 입은 아직 어린애 같은 이 소년은 프랑소아 죠스트<sup>79)</sup>라고 하며 프랑스 소년이면서 나치군에 협력하고 있었으나 독일군으로부터 탈주하려다 체포되어 온 것이다. 풍텐은 처음, 비밀경찰에서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 이 소년을 동거케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만약 그렇다면 탈옥하기 전에 이 소년부터 처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고 있는 순진한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 볼 때 풍텐은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풍텐은 이들 동안이나 망설이다 못해 드디어 소년에게 그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죠스트는 처음엔 주저했으나 연필 한 자루를 감추어 두어도 총살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다. 더욱이 이 어린 소년에게는 그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날 밤 다들 잠들기를 기다려 풍텐과 죠스트는 준비된 도구를 각기 어깨에 걸치고 판자를 뜯어내고는 감쪽같이 복도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의 유리창은 두 사람의 체중으로 찌적하며 금이 갔다. 그들은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옮겨나가 겨우 유리창과 창벽 간의 모래를 간 좁은 공간에 이르렀다. 신발은 벗어두고 발뒤꿈치부터 가만히 밟아갔으나, 밤의 정적(靜寂)엔 아무래도 모래알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부근으로 통과하는 기차소리에 맞추어 걸어가기로 했다. 교회의 종이 열린 시를 쳤다. 장벽으로부터 내려다보니 건물 정면에 외등(外燈)이 하나 켜져 있고, 그 밑을 자동소총을 댄 동초(動哨)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 초병은 고정된 위치만을 왕복할 뿐 건물의 모퉁이 이상으로 더 나가지 않는다. 교회의 종은 열두 시를 쳤다. 풍텐은 장벽 위에서 머리를 숙 내밀고 기계적인 동초의 주위를 살폈다.

### 드디어 자유(自由)를 찾다

78) 배우; 장 필립 들라머르 Jean Philippe Delamarre  
79) François Jost; 샤를 르 클랭슈 Charles Le Clainche



시종(時鐘)은 밤 한 시를 알린다. 새로운 보초가 나타나 교대를 한다. 한번 보초(下番 步哨)가 건물 저쪽으로 사라지자 상번 보초는 외등 밑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부쳤다.

퐁텐은 죠스트의 어깨를 흔들며 조용히 장벽을 난간에 갈고리를 걸고 철사로 묶은 줄을 아래로 내려뜨렸다. 그리고 우선 자기가 그 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 건물 모퉁이에서 동초의 동정을 살폈다. 동초는 이미 담배를 다 피우고 일정한 지점을 왕래하고 있으나, 전 보초와 똑같이 불빛이 닿지 않는 건물의 측면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퐁텐의 약 1m 앞에서 보초병은 다시 돌아섰다. 그는 갈고리를 땅에다 놓고 기회를 노렸다. 초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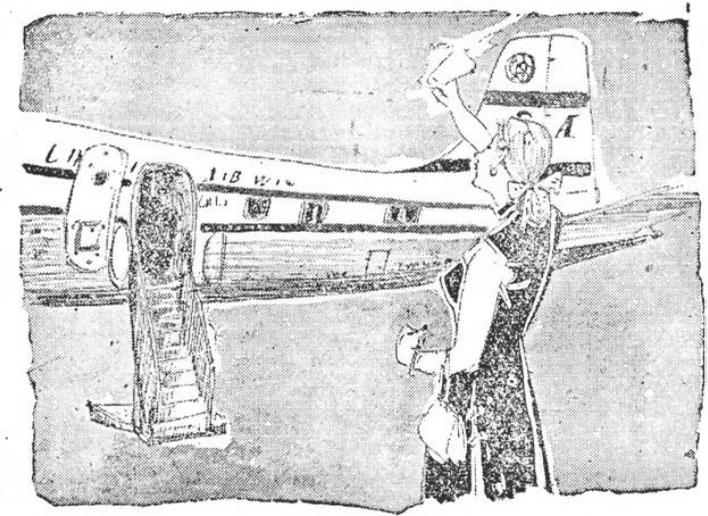
가까이까지 와서 다시 올라선다. 순간 요란한 기차소리가 들려왔다.

퐁텐은 보초병의 등 뒤로부터 뛰어 들었다. 얼마가 지난 뒤 퐁텐은 다시 줄 밑에 나타나 옥상의 소년 쪽으로 향해 크게 팔을 흔들었다. 죠스트도 조용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두 사람은 쓰러진 보초병 옆으로 해서 가운데 뜰을 지나 콘크리트로 된 담벽 밑에 이르렀다. 벽을 타고 올라 갈만한 손잡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퐁텐은 죠스트를 어깨에다 올려 담벽을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소년이 내려준 줄을 타고 자기도 기어올랐다. 담벽 위에 몸을 착 붙이고 정면을 바라보니 3.4m의 간격을 두고 똑 같은 담벽이 또 하나 있다. 그 중간의 통로 모퉁이에는 작은 초사(哨舍)가 있으나 보초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퐁텐이 이 두 개의 담벽을 뚫고 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이 새벽 네 시를 알린다. 벌써 어둠이 사라질 때가 되었다. 페달 소리를 뻘뻘 내며 자전거를 타고 오는 보초병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퐁텐은 곧 갈고리가 달린 줄을 저쪽 담벽으로 던졌다. 징! 하고 전선(電線)이 울렸다. 그러나 이제 조금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줄을 팽팽하게 즐라놓고는 그것을 타고 건넜다. 그가 저쪽 담벽에 이르자 이번은 죠스트가 건넜다. 퐁텐은 먼저 담벽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죠스트는 자기 어깨를 디디게 해 땅에다 내려놓았다. 자유스러운 세계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저항운동의 임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삼각야인(三角野人)-



<소설(小說)>

## 진(陳) 소저(小姐)

이무영(李無影)

1.
 

아홉시라면 집도 간밤에 다 꾸러 놓았겠다. 여덟시에만 나간대도 30분 여유는 넉넉히 있으면만, 학교 가는 아이들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세숫물을 뇌라, 와이셔츠를 가져오너라. 양말은 어쨌느냐 법석을 대다가 아내한테

“꼭 상림이 같으시구료. 합승을 타면 20분이면 갈 텐데 월 그렇게 서두르세요.”

하고 웃음감이 되면서도 마음부터가 바빠지는 것을 혼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상림이란 올해 유치원에 들어간 막내 계집애였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혼은 올해 꼭 찬 50이었다.

“그렇게두 좋으시우?”

타이를 매고 있는데 아내가 거울 뒤에서 웃고 있다.

“좋은 뭐 그렇지.”

“그래두 좋은 모양이신데? 저 웃는 입 좀 봐!”

“나쁠 것도 없잖아?”

훈도 할 수 없이 자백을 하고 말았다. 나이는 50이라지만 처음 유치원에 들어간 막내딸이나 진배 없기도 했다. 왜정 때는 외국여행이라면 기껏 해서 일본이나 만주였지만, 해방이 되고부터는 미국이다 유럽이다를 톡 하면 갔다 오고, 그의 동료 간에는 두, 세 번씩 외국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있건만, 소극적인 그한테는 한번 것에 돌아오지를 않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 어쩌다 뒤편에 돌아온 것이다. 구미(歐美) 각국을 하도 많이 다니는 세상이라 남들은

“그까짓 대만!”

하는 눈치였지만 훈은 대만 아니라 울릉도라도 좋으니라 했었다. 첫째, 비행기라는 것을 타보지 않느냐?

이렇듯 외국여행, 아니 비행기를 탄다는 사실 앞에서부터 마음이 들뜬 훈이었던 지라, 막상 비행기 사다다리를 올라갈 때는 가슴까지 울렁댔었다. 이 육중한 몸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가며, 자동차보다도 안전하고 동요도 없다는 것인가. 그러나 역시 들떠 말 같았다. 비행기가 뜰 무렵에는 처음 미끄럼대에 올랐을 때처럼 겁까지 났지만 뜨고 나니 정말 방에 앉아있는 것 같다. 희한한 노릇이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보아서 비행기는 하늘 높이 나는 것이 상식이거나 해 왔었지만, 이렇게 12,000피트 상공을 날아가며 생각하니 상식이라는 것이 되려 비상식적인 것만 같다. 이렇게 많은 구름을 상상해본 적도 없었다. 눈밀이 그대로 구름이었다. 그것은 마치 윈 우주를 폭신폭신했던 당태숨을 깔아놓은 것 같아서 사뿐 뛰어 내리면 숨 속에 폭 파묻힐 것만 같다. 금방이라도 뛰어내려 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가 없다.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걸어간다면 1년을 갈지도 모르는 만리 길을 단 다섯 시간에 날아간다는 것도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다. ‘에어 걸’(스튜어디스)이 한국말과 영어로 통과지명이며 시속, 현재의 시간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훈한테는 또 이상해진 것이다. 어떻게 인간들은 자기네만의 말을 따로 가지고 있게 되었으며, 그 다른 말로 서로의 의사를 통하는가? 어느 것 하나 희한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가 새롭고 신비하다. 훈은 비행기 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또 이상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을 보아도 눈이 둘에 귀도 둘인데 모두가 코와 입은 하나씩이다. 눈에는 눈썹이 나고 코에는 구멍이 누구나가 둘씩이고 입안에는 꼭 같이 이들이 쪽 박혀있다. 벗기고 보면 배꼽도 같을 것이요, 발가락도 다섯 개씩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30억이나 된다는 인간의 하나하나가 어딘지 모르게 다 다른 것이다. 음성은 그만두고 하다 못해서 방귀 소리까지도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젖은 채, 훈은 구름, 바다, 사람, 사람들의 말소리에 신비를 느끼고 감탄을 하고 있다가 박 군은? 하고 옆을 보니 석불(石佛)처럼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이다. 잠이 든 것이 아님은 그가 무료할 때 늘 하던 버릇으로 왼쪽 아래턱 밑을

쥐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마치 그 무슨 티를 떼는 형상이다.

“박 군은 이 모든 신비에 조그만 경이도 안 느낄까?”

훈은 이렇게 생각해 본다.

훈이 아는 한, 박 군도 분명 비행기를 타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작년 봄에 공군기로 사천까지 몇몇 문인과 교수들이 견학을 간 적이 있었지만, 훈도 그랬거니와 박 군도 공교로이 상치되는 일이 갑자기 생겨서 동행을 못했던 것이다.

“비행기 한번 타볼랬더니 기뻐 놓쳐 버렸어.”

박한테서 훈은 분명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 후 부산 등지 쯤 군용기로 나 간 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장시간 여행을 하지 않은 것만은 훈도 잘 알고 있다. 그런 박 군이면서도 단 한 번 창밖을 내다보자는 말도 없고, 지상이나 해상을 내려다 보려고도 않는다.

“수양의 덕분인지도 모르지…….”

훈은 이렇게 생각했다. 박 군은 과거 5년간이나 영어(圍圍)의 생활을 한 일이 있다. 북경을 중심으로 중경요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12년 징역을 받고,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해방이 되는 통에 겨우 석방이 되었던 것이다. 겨우 사십대에 접어든 나이치고는 한학에 관한 조예(造詣)도 깊었다.

“뭘 생각에 그리 깊숙이 잠겼소?”

훈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감동을 나누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박 군한테 이렇게 말을 건넸다. 남이 들으면 유치한 감동이라고 할지 몰라도 훈한테는 그대로 경이(驚異)였고 또 신비였던 것이다. 그가 어렸을 적 처음으로 동물원 구경을 갔을 때나 진배없는 감동이었다. 깊은 공상을 방해당한 박 군이면서도 그는 별로 불쾌해하는 눈치 같지는 않았다. 좋고 나쁜 감정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의 특징이기도 했다. 수양이라면 그것도 수양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은 역시 긴치 않은 눈치로

“내가 잠이 들었었나?”

훈자말로 중얼거린다.

“자긴 연성 목만 뜯고 있던데 자?”

“그랬던가.”

열적게 웃고 만다. 그러고 나니 훈도 객쩍은 짓을 했다 싶어져서 장난의 말로

“자유중국을 가게 되니까 북경서 맺었던 로맨스가 추억되는 모양이지.”

이렇게 농을 걸러니까 박 군은 눈이 둥그레진다. 무심코 한말이 그대로 들어맞았던 것이다.

“아니 내가 훈장한테 그런 얘길 한 적이 있었던가?”

훈장이란 훈의 별명이다. 성명인 장훈을 거꾸로 붙여서 장난삼아 붙은 것이 벌써 십년 내 별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훈이 학교에 관계하고 있어 그렇기도 했었다.

“박 형이 한 적은 없지만 난 들은 적은 있지. 거 진 소저 아니었수. 꿈속의 애인 이름이?”

물론 전부가 나오는 대로 한 이야기다. 훈은 박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보니 더욱이 이름을 알 까닭이 없다. 그렇건만 박 군은 감개무량이었다.

“아, 진 소저…… 진미연…… 아름다울 미 자에 제비 연…… 아름다운 제비……”

마치 시나 암송하듯 한다.

“아니 그럼 정말 성까지 맞았나보오 그러? 그렇소?”

“아니 그럼?”

“거참 희한한 일도 많구료. 만주서는 눈을 감고도 장대만 휘두르면 핑이 잡힌다 더니, 마치 그 격이 됐구료. 이야긴 언제 박 형이 그런 이야길 비치거나 했었소? 북경 가서 청년시대를 보냈으니까 그런 로맨스의 하나 둘 짚은 있었겠거니 해서였지.”

“그럼 진 소저란!”

“촌놈 성이 이가 아니면 박 가라구 중국 사람의 성이야 왕가 아니면 진 가졌기에 허청대구 해본 소리지.”

“허 별일도 많군. 아마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연의 합치라고 하는지 모르지…… 허허허”

그는 이렇게 허망한 웃음을 웃더니만

“기왕 말이 났으니 우리 이야기나 하며 갈까.”

“좋지!”

훈도 맞장구를 치고 마침 옆을 지나가는 에어 걸한테 위스키 한 잔씩을 부탁했다. 이야기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였다.

## 2.

사람이란 매양 자기 본위의 동물이다. 자기가 옳고 자기만이 아름답고 자기만이 가장 장하니라 믿고 산다. 그러면서 인간은 또 자기를 비판하는 맛에 사는 동물이기도 하다.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니라 생각하기가 쉽다. 박 군도 그랬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불행한 로맨스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사상운동에 투신하면서부터 평론가가 되고 말았지만, 내가 소설을 쓸 줄 알았다면 정말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었을 것이요. 공으로 들어선 안 되요. 이 소설 고료만은 반반 나누어야 해. 약속하지?”

이런 서두를 해놓고 한 박 군의 이야기란 향간에 얼마든지 태굴태굴 굴러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였다. 하나 특수하다면 그것이 국내가 아니고 또 동쪽끼리의 로맨스가 아니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것이 특징될 것도 없는 것이 그 많은 일본유학생들 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북경에 유학중인 한 조선청년이 모녀가 사는 집에 하숙을 했다. 그 딸이 아름다웠지만 가까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처녀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처녀는 없는 법이다.

“그 진 소저가 여간 날 따르지 않았거든……”

하고 박 군은 그것이 무슨 큰 기적이거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경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려 부자연할 뿐 조금도 신기한 이야기도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몸살이 나서 누워 있자니까 어느 틈에 가서 약을 지어다 다려가지고 들어와서 눈물이 글썽해 가지구 먹으라는 거야.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꼈었다오. 소저의 애원에 못 이겨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 효과가 통 나지 않았으면 했었지요. 병이 더 오래 끌었으면 싶었어……” 하고 박 군은 춘향전 한권도 읽지 못한 사람처럼 진 소저만을 내세우지만, 애인이 앓는데 약도 안 사다주는 여성이라면 목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마였을 것이다.

“진 소저는 나와 일생을 같이 할 것을 결심하고 우리글을 열심히 배웠소. 처음에는 지렁이처럼 그려놓고는 제라서 깔깔대고 웃더니만, 한 일년 지나더니 제법 편지도 썼고 간단한 말쯤은 애교삼아 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일이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본 유학생들에게는 얼마든지 있던 이야기였고 춘원과 백남의 소설에도 나오는 장면이다. 아니 훈 자신 그런 로맨스를 갖고 있기도 했던 것이다. ‘K꼬’라는 주인집 사촌이었다. 물론 K꼬 밖에 없었고 보니 훈의 눈에는 돌도 없는 미인이었었고 결혼도 약속했고 보니 국문도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은 띄엄띄엄 읽기도 했다. 그러다가 헤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로맨틱한 추억이란 훈의 것이 훨씬 감격적이었고 정열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무사시노 별판의, 저 유명한 달밤의 스키 발을 산책하던 일이며 다마가와 강변에 나란히 앉아서 돌을 던지고 꿈을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고, 웃고, 울고…… 얼마든지 있던 것이다.

그러나 박 군의 ‘로맨스의 클라이막스’ 만은 훈을 깊이 감동시켰다. 어떻게 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고시 패스를 하고 취직을 해서 한 몸의 영달을 누릴까 예만 눈이 어두웠던 훈 자신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학생의 몸으로서 조국의 광복운동을 꿈꾸었다는 것은 확실히 박 군만의 특이한 사실이었다. 꿈을 꾸는데 그친 것도 아

니다. 그는 직접 운동에 참가했었고 비밀결사의 맹원이었고 나중에는 중경과의 연락원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 박 군의 비밀이 발각이 된 것이다.

“놈들한테 체포되어 내가 압송을 당하던 날, 진 소저는 어느 틈엔지 벌써 단정히 예복을 챙겨 입고 내 뒤를 따라 섰었소. 나는 진 소저가 예복을 입은 의도를 잘 알았지요. 소저는 내가 보는데서 마음의 혼례식을 한 것이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말 한마디도 교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소저의 눈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박 선생 전 지금부터 당신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박 군은 잠시, 아니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이런 때는 대개가 눈을 감는 법이지만 박 군은 눈을 똑바로 뜨고서 혼만 쳐다보았다. 박 군이 자기의 본(本)만이라도 일러준 것은 대륙에서는 오직 진 소저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다.

얼마 후에야 박 군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놈들의 차에 실리어 특무대 앞에 이르러서 놀란 것은 진 소저는 어디로 어떻게 왔던지 벌써 정문 옆에 와서 서 있던 것입니다. 중간에 오다가 한 오 분씩 두 건물에 들른 일은 있지만 자동차 보기가 힘들던 그때 어떻게 용케도 먼저 와있었더라오. 나는 지금까지도 진 소저가 나보다 특무대에 먼저 올 수 있었던 경로를 모르고 있지요.

“그럼 그 후론 통?”

“만날 길이 있던가? 벌써 15년이나 되었군요……”

“누가 아오. 대만 비행장에 톱 내리고 나면 진 소저가 손을 썩 내밀려지……”

십오 년 된 일이지만 지금의 박이 당하고 있을 가슴의 통장에 동정이 가서 농경 이렇게 위로를 하려니까 박은 천천히 고개를 흔든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띄어 조용조용 이렇게 말했다.

“그런 꿈이라도 남겨 주었다면 오직이나 좋겠소. 진 소저는 그 후 나를 한번 면회라도 해 보려고 왜 헌병과 접근한 것이 잘못 전해져서 간첩의 혐의를 받고 총살을 당했다고 듣고 있지요…… 그리고 보니 만 5년간이나 나를 구출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총살형이구……”

### 3.

타이페이 공항에 내리니 봄비 같은 가는 비가 부슬거린다. 영하 15.6 도를 오르 내리던 서울을 떠난 지 다섯 시간 만에 이곳에 내리고 보니 완전히 봄 기운이다. 서울의 4월 중순 기후라 할까, 또는 추석 보름계 정도의 출도 덥도 얇은 기후였다. 다섯 시간 동안에 거의 반년을 켜놓은 셈이다.

대만은 겨울이 없는 나라니까 여름옷에 파나마(panama) 모자를 쓰고 가야 한다는 친구의 농담을 곧이듣고서 파나마를 비행장까지 들고 나왔던 생각을 하고

혼은 자꾸만 우스워졌다.

그런 귀뜸을 해주던 친구도 마침 전송을 나왔다가

“아니 이사람 정말 파나마 쓰고 갈 작정인가?”

하고 껄껄 웃어 대어서 혼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파나마에 여름옷을 입고 나온 것은 혼 한 사람뿐이었다. 마침 전송 나온 차가 있어서 옷을 가져오게 했다. 지프차 속에서 갈아입는다 법석을 댔던 터라 혼은 지금 절후에 대한 관념이 전혀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공항에서의 도에 지나친 환영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환영 한국 교육, 문화방문단’이란 어마어마한 플래카드 앞에 모여 있던 백여 명이 넘는 그들이,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돌격부대처럼 기습해 왔었다. 프레쉬가 여름복의 반딧불처럼 번쩍인다. 중, 영, 한의 세 나라 말이 한데 마구 뒤섞였다. 대만에 있는 교포와 유학생 일단들이었다.

우리 일행 중에는 유학생들의 은사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다. 대사관에는 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약수, 함성, 꽃다발의 세례, 이십여 명 기자들의 빗발치듯하는 질문. 한동안은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격이었다. 이런 중국 측의 융성한 접대는 그들이 대만에 머문 보름동안 한결같이 정열적이었지만 그것도 외국사절단이니 환영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라기보다도 수천 년 동안 친교를 맺어온 국가 간이었으니만큼 마치 운명에 희롱되어 본의 아닌 이별을 해온 가족들을 맞는 그런 정성이었다.

수천 년간 같은 글을 쓰고 같은 풍습에 같은 도덕과 같은 학문을 닦아 오고 있을 뿐이 아니라 2차 대전의 종전을 계기로 다 같이 공산주의라는 세기적인 괴물한테 들볶이다가 하나는 그 큰 대륙을, 또 하나는 국토의 북반부를 적귀(赤鬼)한테 내어주고 있는 동병상련의 정도도 있던 것이다.

어쨌든 혼은 전 생애를 통해 처음 받아보는 융성한 대접이었다. 호텔에 들어 목욕을 하고 찬 파인애플 주스를 한잔 들이기까지도 이 한 시간동안에 겪은 혼란이 꿈속일 같기만 했다. 호텔 봉투를 보고서야 ‘참 내가 중국에 왔지’ 했을 정도다. 목욕을 하고 나오니 벌써 다음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무장관 예방에 뒤이어 장관초청 만찬이 있었다. 대만이라면 고사족(高砂族)과 그들의 원두막 같은 주택, 바나나 이런 정도의 지식밖에 왜놈들한테 물려받은 것이 없었던 혼은 먼저 요리점의 규모에 놀랐고, 모든 중국의 학자, 교육자, 예술가의 거물들만의 주최 측 성의에 놀랐고, 말로만 써오던 산해진미에 기가 찰 정도였다. 역시 전통이 있는 대국(大國)이란 인상을 받았다. 접대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혼은 처음 경험했다.

밤 10시나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파김치처럼 피로해 있었다. 목욕은 고사하고 자리웃 갈아입는 것만도 대견스러웠을 정도였다.

#### 4.

명목은 '교육, 문화, 사절단'으로 되어 있었지만 스케줄을 보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전반에 걸친 시찰이었다. 예방만도 십여 곳에 초대요, 만찬이 스물다섯 번, 산업기관 시찰이 여섯 군데, 교육기관이 여섯 학교, 육, 해, 공군, 농촌에서 사이 사이에 티파티, 좌담회, 강연회, 원고의뢰, 이 빈틈없는 스케줄에 정신없이 날이 갔었다. 그것도 대북 한 도시만이 아니라. 비행기로 가다가 하면 장거리 자동차여행이 있었고, 기차도 타야 했다. 대중, 대남, 고우송(高叢), 일월담(日月潭) 등 남쪽으로 돌아 보면 이튿날은 북부 끝인 지룽(基隆)이었다. 정말 숨 돌릴 겨를도 없는 여행이었다.

이렇듯 공적인 일만에도 눈코 뜰 사이가 없는데 박 군은 또 한 가지의 사무까지 있었다. 대만에는 대륙 시대의 요인(要人)은 물론 저명한 학계, 교육계, 문화계의 거물들이 겨울 미꾸라지처럼 한곳에 모여 있어, 그중에는 북경대학 시절의 은사로 있었고 동창도 있었다. 그런 친구들을 찾고 맞고 해야 했다. 말과 풍속 기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훈은 박 군과 한방을 쓰기로 했던 터라 훈도 완전히 박 군과 행동을 같이 해야만 했다. 남의 나라 국민으로서의 예의절차를 차리자니 신경도 몹시 쓰였다. 거기에 언어불통까지 덮쳐 영어단어, 필담, 표정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자니 몇 갑절 피로했다.

그러다가 11시나 되어 겨우 해방이 되어 누웠으려니 노크다.

“박 선생…… 손님 오셨습니다.”

모두가 15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고 보니 친구의 수면부족 쯤 개의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리 없다.

“아 이게 누구요? 몇 해 만이요! 죽지 않으니 만나는구료.”

약수가 아니라. 그대로 포옹이었다.

“남아하쳐 불상봉……”

너무 감격해서 박은 옛날 서당에서처럼 소리들 내어 읽기도 한다.

“그때 말이요”

이렇게 해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야기가 끝이 없다. 15년이란 공간을 이 짧은 시간에 메꾸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훈의 피로나 잠잠 문제가 아니다. 훈도 그랬다. 옆집에서는 극적 장면이 벌어졌는데 태화탕<sup>80)</sup>처럼 잠만 킁킁 잘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닳새를 보내고 나니 훈은 피로할 대로 피로하고 말았다. 좌담회 석

80) 太和湯: 싱겁고 죽데 없이 좋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상에서도 이야기를 듣는데 보다 엄습해오는 잠과 싸우기에 더 겨를이 없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라야 10시가 다 되어서였다. 마침 박이 북경대학 시절의 동창생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훈은 구원이나 받은 듯싶어 목욕을 하고 막 자리에 들러는데 또 푹푹 노크다. 짜증이 났다. 그렇지만 그럴 도리도 없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 온 것은 남자아이였다. 손에 쪽지를 하나 들었다.

“아니 이 사람이? 부인네 지?”

서투른 영어였다.

“예스, 예스, 예스! 마담! 마담!”

남자아이가 더 신바람이 나서 수선이다.

뜻밖에도 그 쪽지에는 다음 석자가 씌어 있던 것이다.

“진미연”

확실히 총살을 당했다고 들은 진 소저가 살아서 찾아온 것이었다.

“진 소저!”

훈은 자기애인 이름이거나 한 것처럼 이렇게 입 밖에까지 내어보고 밖으로 나갔다. 34, 5세의 부인이다.

“박 선생을 찾아오셨습니까?”

“네.”

“그럼 저 북경 시절의 진 소저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오시지요. 난 박 선생의 친구입니다. 동창생과 나갔는데, 곳 들어오리라 생각 됩니다.”

훈은 진 소저를 방으로 안내했다.

피곤하실 텐데 방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웬 천만에. 어서 들어와 기다리시지요.”

박 군이 그렇게 일찍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진 소저를 문간에서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일본말 하십니까?”

“네 조금은.”

하고 웃는다.

훈은 할 수 없이 일어를 써 보았지만 진 소저의 일어는 훈의 영어만도 못했다. 일어, 영어, 필담…… 이런 구차한 방식으로 훈은 진 소저가 총살형을 받기 직전에 뜻

밖에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가 나타나서 오해가 풀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 소저는 눈 한번 흐리지 않았다. 무섭게 앙그라진 여자나라 싫다. 11시가 지나자 진 소저는 자리를 일어섰다.

“난 상관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지요. 진 여사를 그대로 보냈다고 박 군이 야단을 치면 어쩍니까?”

훈이 이렇게 권하니깐 그럴 듯이 듣는 상 싶더니 역시 일어선다. 그는 내일 아침이고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것이었으나 이튿날은 아침 8시에 대남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 대남 일대를 보고 사흘 만에 다시 대북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아침 일찍이 오겠다고 기어이 가버린다.

박 군이 돌아온 것은 한시가 지나서였을 것이다. 자리에 눕기 전에 간단히 써 놓고 잠이 들었다가 박이 잡아 일으키는 통에 질겁해서 일어났다.

“뭐라구! 뭐라구!”

주기(酒氣)도 있었지만 마치 실신한 사람이다.

“아니 진 소저가 살았다구! 진 소저가? 지금 막 진 소저가 죽은 게 확실하다는 이야길 듣고 온 길인데 진 소저가 날 찾아왔단 말이지?”

통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그는 꼭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방안을 분주히 걷고 있었다. 그 통에 훈도 아주 잠을 설치고 말았다. 박 군도 얼마 후에는 자리에 들기는 했지만 통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잠이 올 리 없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둘은 뜬 눈으로 새고 말았다.

5.

날이 밝기 전부터 박은 훈을 들거울러 깨우고 방을 소제시키고 범석을 했으나 7시 반이 되도록 진 소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늠름하던 티도 없이 초조해지는 빛이 얼굴에도 나타난다.

“나 고옹은 그만 두겠어!”

이런 소리로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주최 측의 체면도 체면이거니와 첫째, 박 군이 이번 멤버 중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를 박 군도 아닐 것이다.

물론 단장은 아니었지만 ‘중국통(通)’ 이었고 또 중국어에 가장 숙달한 사람이 박이었기 때문이었다. 주최 측에서도 모든 것을 박과 상의를 해오던 것이다.

“나 고옹은 그만 두겠어.”

“아니 당신이 돌았구료.”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닌 것을 알자 훈도 어이가 없어졌다.

“돌긴.”

“그럼 돌았지 뭐요. 나 같은 사람이 빠진다면 몰라도 당신이 빠지면……”

하는 말에 박 군은 성을 벌컥 내고서

“그러시구료. 그럼 당신이 진 소저 만나구료!”

이쯤이면 또 좋았다.

“말두 모르면서……”

이런 소리까지를 태연히 하는 그날의 박 군이었다. 끝내 진 소저는 나타나지 않았고, 박 군도 일행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첫째, 단원들이 맹렬히 반대를 한 것이다. 박은 주최 측에도 그런 의사를 비춰 보았던 모양이다. 주최 측에서 좋다 할 리가 만무였다. 이날부터의 사흘간이 얼마나 박 군한테 지루했던가는 그의 짜증으로 짐작이 된다. 태화탕처럼 늘어지던 박 군이었다. 벼락이 떨어져도 눈도 껌벅 앓을 박 군이었다.

그의 성질이 얼마나 녹진가는 6.25 때 분명히 남하할 기회가 있었지만, 반죽이 녹진 탓으로 서울에서 3개월을 치렀으니 1.4 후퇴에는 서둘러야만 했다. 그러나 1.4 후퇴 때도 맨 마지막 떠난 것이 그들 동료 중에서는 박 군이었다.

그런 박 군이 마치 어린애 같다. 대남, 대중, 고옹 일대의 교육, 산업 시설을 시찰하고 일월담에서 하루를 묵고 났을 때 박 군은 보기에 딱하리만큼 초췌해 졌었다. 그날 밤은 달까지 밝았다. 열 이렛 달이었다.

유럽이나 미국 어느 명승지의 관광호텔을 연상시키는 일월담 호수가의 근대식 호텔 발코니에서 박은 혼자 금문도 소주를 마시며 새우다시피 했다. 보다보다 못해서 훈이 먹살을 잡아끌다시피 해서 겨우 들어오게까지 했다. 이런 박 군이었고 보니 대북으로 돌아와서는 진 소저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가 된 것은 무리가 아니다.

정말 피치 못한 회합 이외에는 두통을 빙자하고 호텔에 남아 있었다.

그렇건만 어떤 일인지 진 소저는 전화 한번이 없었다.

“아니 그래 이양반아 나이 50이 넘은 양반이 고만한 생각도 못한단 말이요!”

하루는 밖에 나갔다 오더니만 훈 한테다 이렇게 들이댄다.

무른 소리인가 했더니 진 소저의 주소도 알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 온다는 사람 주소는 알아서 뺏아주소!”

훈도 벌컥 소리를 높였지만, 실은 훈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연락장소라도?”

하는 말에 진 소저는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마치 거북해하는 눈치였던 것이다.

훈은 그런 경과까지도 박 한테 보고를 했을 세음이었다.

“진 소저가 총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박 군한테 했다는 그 사람을 찾아보지?”

딱해서 하는 말에

“죽은 줄 아는 사람한테 뭘 알아보라는 거요? 화장장 명부를 뒤져 보란 애긴가?

그래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주소하나도 안 적어 두다니요!”

이것은 정말 생트집이다.

“아니 박 군! 그래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넌 말이요?”

터무니가 없어서 한 소리였다.

그렇건만 박 군은 태연하게

“그래 소설을 쓴다는 양반의 눈이 그렇게도 무디단 말씀요? 척 한번 보기만 해 두 짐작이 가지 않느냐 말에요? 현재 환경이 외로운지 괴로워하는지 주술 숨기려는 눈친지 그걸 그래 눈치채지 못했던 말요? 그러니까 당신 소설이 그조야……”

“말조심 하라고!”

훈도 언성을 높이었다.

그러나 박도 지지 않았다.

“관찰력을 가져요!”

하마터면 두잡이라도 놀 뻔 했다.

그러는 동안에 한 장 한 장 스케줄은 넘어갔다. 앞으로 일정은 떠나는 날까지에 사흘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동안에도 소저한테서는 단 한번 전화연락도 없었다. 알만한 친구, 동창, 낮이 익어진 몇몇 고관한테까지도 진 소저의 행방을 찾는 모양이었으나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벌써 박은 시찰을 위한 시찰이 아니라 혹시나 진 소저가 나타나 줄지도 모르는 희망을 위한 시찰이었다. 대만 신문에는 그날그날의 일정도 발표가 되었거니와 그날의 행정도 이튿날이면 보도되고 했던 것이다.

진 소저가 만나려고만 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다.

“급병이 난 겐가?”

박은 이런 소리도 했다.

“이 사람이? 병이 낫기로서니 전화도 못한단 말인가?”

“의식을 잃었으면 그럴 수도 있잖소?”

사랑 앞에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영리해질 수도 있지만, 또 얼마든지 어리석어질

수도 있는 모양이었다.

기룡의 하루 일정도 끝나고 금문도[진먼다오] 전선 시찰만 마치면 이튿날 아침에는 대만을 떠나야 했다.

박 군은 금문도를 따라가느냐 마느냐로 밤새 고민을 하는 모양이었다. 주최 측 사람 말이 지금도 적의 포탄이 매일 수십 개씩 날아든다 했다. 혹시 안 간다면 포탄이 무서워서 떨어졌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금문도만은 일반 사람의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만큼 그의 시찰 목적의 전부처럼 되어 버린 진 소저와의 해후는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금의 박 군한테는 진 소저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금문도의 시찰이란 전혀 무의미한 노릇이었던 것이다.

갖은 핑계를 해서 박 군은 호텔에 남기로 했다. 대만에서의 마지막 날을 가만히 누워서 진 소저에 대한 추억으로 보내리라 했을 것이다.

훈 등이 금문도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였다. 일곱 시에 비행장에 내리는 길로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일정이 끝났으므로 작별 만찬회가 있었던 것이다. 예의 우람스러운 ‘원문판점’ 이었다. 정치, 경제, 문화, 방공 전반에 걸친 교류, 친밀을 강조하는 회합이었다.

훈은 그날만은 술도 마음 놓고 많이 마시었다.

회가 끝나자 대사관 문 영사한테 카바레로 끌려갔다가 1시가 지나서 호텔에 돌아오니 박 군은 옷을 입은 채 침대에 큰대자로 잠이 들어 있다. 취한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알코올에 절인 것 같았다. 혹시 깰까 해서 살며시 베개를 베어주고 훈은 자기의 이불을 덮어 주었다. 이불을 덮다 보니 자리 밑에 편지 한 장이 깔려 있었다. 무심코 집어보니 이런 문면(文面)이다.

“역시 만나 뵈지 않는 것이 저의 지금의 불행감을 덜어 주리라 믿고 단념키로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그러면 원로(遠路)에 안녕히 돌아가소서. 미연”

단지 이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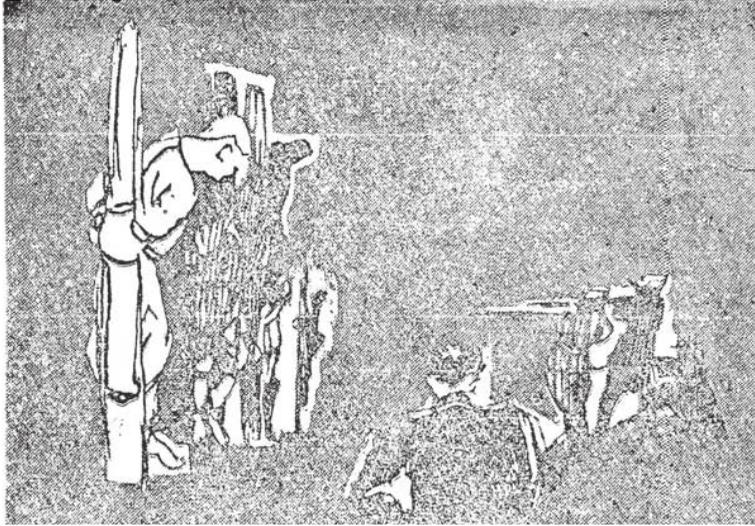
이튿날 예정대로 비행기는 타이페이를 이륙해 귀국길에 올랐다. 맨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오른 것은 물론 박 군이었다. 입구에서 최후로 손을 흔들다 말고 박은 사닥다리를 되 뛰어 내리려다가 탑승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멍청하니 서있었다.

진 소저를 그때서야 전송객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어서 타십시오.”

에어 걸의 재촉에 못 이겨 들어서자 문이 툭 닫힌다. 이어 발동이 시작되었다.

박 군의 심장은 정반대로 고동이 멈추어졌을지도 모른다. 끝.



<소설(小說)>

## 노을이 쓰러질 때

손소희(孫素熙)

엿 바닥 한편에 그것들을 깔고 드러누워서 하는 호순네의 치하(致賀)였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내려오랬지 뭐요.”

“호순 아버지 때문에 그랬지요. 선생님이란 모두 어려우시다구 그냥 좀 더 이층에서 견뎌 보자구 하잖아요.”

“원 별 소릴 다 하는군 어렵긴 뭐가 어려우? 이런 땀 모여 있어야 집두 털나구 서로 힘이 돼서 좋은데”

“정말 그건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은 방에 계신가요?”

“이부자리로 유리문을 막고 앉아서 집이 무너지나 지킨다더니, 지금 아마 안 실거야, 망보러 밖으로 나간됐으니까, 호순 아버지는?”

“호순 아버지두 나가구 없어요.”

금시에 지붕을 뚫고 대포알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아 두꺼운 이불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얼굴을 내밀고 억지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그들 둘레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무서움처럼 휘덮여 있었다.

이때였다. 밖에 나갔던 은경의 남편, 석하가 뛰어들어 왔다. 말인즉 밀러가는 국군을 따라 남대문까지 갔다가 돌아왔노라는 것이다. 국군이 자꾸 남쪽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보니 서글프고 불안해서 따라갔다는 것이다. 따라가다 생각하니 은경이 혼자 사이들을 데리고 생에 견뎌 내지 못할 것만 같아 되돌아 왔노라는 것이다. 그러나 쌀 몇 말만 준비한 것이 있어도 그냥 가 버렸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이구 맏소사, 그렇게 소리두 없이 혼자만 가버렸으면 난 아주 꼼작 없이 죽었을 거야.”

하고 이불 속에서 머리를 쳐들고

“집과 세간들을 두고 가다니 어딜 간단 말예요? 사내들이란 참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인가봐…… 인제 곧 국군의 반격이 있을 것 안예요?”

했다.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걸릴지도 누가 알아?”

“……”

하는 석하의 혼잣말 같은 질문에 은경이는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 저 우리 호순 아버지밖에 없던가요?”

하고 호순네가 묻는다. 어두워서 잘 모르기는 하겠으나, 골목 앞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석하의 대답에

“아이고 우짜꼬? 국군하고 함께 가버린 건 아니겠지요.”

하고 또 일어나 앉는다. 호순네는 경상도 태생이긴 했으나 여러 해 동안 서울 주변에서 살고 있었으니만치 비교적 사투리가 거세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한 경우에는 몇 마디씩 사투리가 튀어나오곤 했다.

“모르긴 몰라두 대체로 안갔을 거외다.”

석하는 이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좀 뒤였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호순 아버지의 발자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현관에서 안방 쪽을 향해,

“여기들 내려왔나요?”

하고 물었다. 그렇노라고 호순네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한 즉, 자기는 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이다. 부엌문애다 첩첩이 담요를 치고 있었던 관계로 은경이네는 날이 밝는 줄도 모르고 그냥 부엌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사이 석하도 오시이레(불박이장) 안에서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이때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마구 두들겨 대더니 날이 다 샀는데 왜들 이려고 있느냐고 고향을 질렀다. 은경이 조카의 목소리였다. 그제야 은경이네는 이불 속을 빠져나와 식구대로 집 앞 길목에 서 있었다.

아스팔트의 길 위에는 탱크의 바퀴자국이 무수히 패어 있었고 전선이란 전선은 모조리 끊겨 전봇대 주변에 가다가다 흩어져 있었다. 마치 머리숱이 많은 괴물이 그 많은 머리숱을 한 가닥씩 늘어뜨리고 앉아 하룻밤 사이에 변해버린 처참한 서울의 모습을 조상하는 듯,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애석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떨게 했다.

탱크는 그제도 하나 둘 지나갔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헌 옷을 걸친 괴뢰 병사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은경이는 해에 입을 벌린 채 아이의 손목을 쥐고 서 있는 남편을 돌아다보는 순간, 꿩이 늘어진 전깃줄 모양 팔다리가 매시시해지며 전선이 온통 무엇에 얻어맞은 듯 맥이 풀리는 것을 깨달았다. 은경이는 다시 길 저편 쪽을 바라다보았다. 문과 창은 온통 첩첩히 닫혀 있는데 골목에 서서 행길을 내다보는 사람이나 행길까지 나와, 어설피고 낯선 풍경을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모두들 꼭 같이 표정도 말도 잇은 듯이 그저 그렇게 서서 행길 앞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경이는 남편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때마침 이층에서는 무엇을 간직하는지 못 박는 소리가 요란스레 울려 왔다.

그날 저녁 무렵이다. 호순 아버지가 쌀 한가마를 들여오는 눈치더니 호순 엄마의 말인즉, 괴뢰군 트럭이 고장 난 것을 고쳐 준 보수로 받아 왔다고 했다. 그리고 뒤이어 자기는 그만 낮이 빠져 버려서 앞으로는 도저히 안집(은경이네) 부역일은 볼 수 없노라는 것이다.

다시 그 다음날이다. 호순 아버지가 반에 반장이 되었다고 호순네가 웃으며 말했다. 참 잘 되었다고 한 집안 사람이 반장이니까 아무래도 남보다야 나올 것 아니냐고

은경이도 이것을 여간 다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호순네는 두 해 전부터 은경이네 위층 두 칸 반짜리 방에서 살고 있었다. 본래 호순 아버지 직업은 트럭 운전수였다. 그러나 군에서 트럭 운전수를 기술자로 징집한다는 소문이 돌자 즉시 운전수 노릇을 그만두고 놀았던 것이다. 식구라야 찻벽이인 호순이까지 셋뿐이니 당분간은 그대로 견딜 수 있으리라는 계산인가 보았다. 그러나 막상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보니 생계가 막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방세 대신 자신이 은경이네 부역일을 보면 어떠한 것이 호순네의 의견이었다. 이리해 호순네가 은경이네 부역일을 보게 되지도 벌써 한해 가까이 되었고, 호순 아버지가 무직으로 세월을 보낸 지도 어느덧 한해하고 다섯 달이나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가끔 호순 아버지가 목돈을 들여오는 눈치기는 했다. 말인즉 때로는 남의 대리운전도 해 주고, 또 고장 난 차를 고쳐준 보수로 조금씩 얻어 온다고 했다.

그렇지만 호순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다고 이웃에서는 모두들 걱정을

해주었다. 본래 사람이 될 수가 적고 무던한 데가 있기 때문인가 보았다. 더욱이 은경이는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남편을 보고 수위라라도 좀 취직을 시켜 주라고 졸랐던 것이다.

“나이도 삼십을 넘었으니 징집되어 나가기 싫겠지 뭐예요.”

하고 그녀는 호순 아버지를 두둔해 가며 남편에게 그의 취직 알선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리관계로 취직도 여의하지 않은 채 호순 아버지는 그대로 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호순 아버지가 괴뢰지하의 동회에서 선출된 반의 반장이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무산자의 조그만 대표자로 임명된 것이다. 그의 반장으로서의 첫 과업은 그릇과 숟가락을 공출받는 일이었다. 은경이는 숟갈과 양재기를 호순 엄마에게 건네며 호순네가 반장이 되어 여간 편하지 않다고 거듭거듭 치하했다. 호순엄마도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래도 아주머님에게 해 되는 일이야 안하겠지요.”

하고는 좀 더 현 양재기를 골라보라고 했다. 뚫어지지만 아니하면 그만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고마웠다. 그런 인정다운 말 한마디나마 다른 사람 네가 반장이었다면 들어 볼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다음번에 무슨 동원인가에 나으라고 했다. 그것도 호순네에게 사정을 하고 돈 오백 원으로 무사히 해결을 보았다. 다른 집이면 절대로 안 되지만 안집 부탁이니깐 그렇게 돌려 맞춰보겠노라고, 쾌히 승낙을 하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반장 덕을 톡톡히 본다고 은경이는 남편에게 호순네 고마

움을 치하하기를 아끼지 아니했다.

열흘 쯤 되었다. 연필을 귀 부리에 꽂은 채 무슨 종잇장을 펼쳐든 호순 아버지가 이 석하라는 문패를 눈여겨보며 은경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근무처와 소속단체를 동회에서 적어 오라는데요.”

은경이는 잠시 반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가

“근무처는 그저 거기구 소속단체는 과학자 동맹이나 보던데”

한즉, 반장은

“요즘 안 나가시지 않아요?”

하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힐끗 은경이를 바라다보더니,

“과학자 동맹이라는 것도 있나요. 괜히 잘못 적어가면 반장이 혼납니다.”

하고 머리를 비꼬는 품이 몹시 의심스럽다는 눈치였다.

“그럼 있지 않고요. 의사랑 약제사랑 그밖에 과학부분 사람들이 모두들 나가나 보던데”

은경이는 어쩐지 후두두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그 후두두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기 위해 호순네에게 헛고추장 한 단지를 퍼서 주었다.

석하는 처음 사흘 동안 직장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전과 다름없이 병원에 나갔다. 덕분에 괴뢰군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한 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신분증명서를 얻어 쥔 석하는 다시 병원에 나가지 않았다. 그 대신 잠깐 거리를 기웃거리 보기도 하고 처가에 들려서 한두 시간 보내기도 하다가 곧장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속으로는 전전긍긍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이웃 간에도 꾸며댔다. 그 무렵의 어느 날 아침이다. 은경이는 오래간만에 이층을 청소할 양으로 먼지떨이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층에는 예상하지 아니했던 이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랐다. 은경이네 응접실로 쓰고 있던 남향 네 칸짜리 방에는 호순네 이부자리가 모조리 옮겨져 있고 북향 세 칸 방에는 너저분한 호순이 기저귀와 장난감들이 마구 널려져 있었다. 다만 취사도구만이 그저 자기네 방에 놓여 있을 뿐, 호순 엄마와 호순이는 남향 방 마루에 앉아 있고, 호순 아버지는 남향 방 한 가운데 큰 대자로 드러누워서, 조반 뒤의 식곤을 푸는 한잠을 달게 자고 있었다.

“답다고 호순 아버지가 한 이틀째 여기서 지냈어요. 아침마다 회의를 한다고 다섯 시면 나가니까 잠을 옹게 못자요, 그래 아침이 되면 저렇게 한잠씩 자는 거래요.”

하고 호순 엄마가 열적게 웃었다. 은경의 가슴은 이런 뜻밖의 사태를 발견한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그저도 뛰고

있었다. 그럴 뿐 아니라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마냥 억지로 웃음을 짓고

“터놓기 잘했구려, 요즘같이 더운 때 편히 놀던 어른이 동원이니 공출이니 하는 일 때문에 주야로 쫓아다녀야 하니까, 오죽이나 고단할까, 게다가 아침이면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회의에 나가야지, 찢찢…… 아이구 참 파리가 있구려 약이라도 좀 뿌려 드리구려, 아래층에 파리약이 든 펌프가 있대우.”

미운 놈 떡 한 개 더 준다는 격으로 겁과 울화를 삼켜가며 은경이는 좋도록 말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 동회에서 아주머니네 배급쌀 좀 타다 드리랬더니 선생님 직장 배급이 있을게 라구 그러드군요”

호순네는 파리약을 얻어다 쓰겠노라는 말 대신에 똥판지같은 생색을 내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이다. 석하는 어쩐지 집에 있기 불안하다면서 은경의 친정에 가서 숨어 있겠다고 했다. 아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도 있는 법이라고 부언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하고 은경이만 있는 것도 역시 불안해 석하 대신 은경이는 자기의 조카를 집에 와서 있게 했다. 은경의 조카 역시 의과 대학의 학생으로 처음 한 이삼일 간 학교에 나갔던 덕으로 위생 요원이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가졌던 것이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이층 호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다. 현관 문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스레 났다. 은경이는 침착해야겠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루에서 자고 있는 조카에게로 갔다. 조카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 은경이는 우선 한손으로 조카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조카의 귀를 잡아 다녀서 잠을 깨웠다.

“애 얼른 마루 밑이든지 마루 및 함실에라도 숨어라, 아니면 독 안에 들어가 있든지,”

하고 잠을 깬 두 조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조카의 야광시계는 정각 열두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소리가 날 텐데”

“그럼 저 앞 담장을 넘어서 달아나 보려무나, 넌 잡히면 큰일이야, 학생인데 아저씨 대신 잡혀가는 것도 문제구……”

“그렇지만 밖에 온 사람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지 않아요?”

“누구긴 누구야,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누굴 수 있겠니, 어서 달아나 줘, 벽돌 담이니까 넉넉히 넘을 수 있을 거야”

“문소리를 모를려고? 그리고 이 집 식구가 넷으로 등록이 됐을 텐데 식구 하나를 내놓으라면 어떻게 해요?”

“……그야 병원에 가서 숙직을 한다면 되겠지”

“아냐, 고모, 어쩌면 누가 질러서 왔는지도 몰라, 그리되면 병원에도 조사 갈 거야…… 그러다간”

밖에서는 좀 더 세차게 문을 두들기며

“문 열어요, 여보세요”

하고 끊임없이 독촉이었다.

“고모, 얼른 문을 열어요, 고모가 잡혀가면 애들 까탈에 더 야단이지, 차라리 내가 잡혀 가는 편이 나을 거야…… 혹시 운수 좋으면 증명서로 무사할지도 모르고”

은경이는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러나 지극히 줄리는 음성으로 문고리를 잡고 누구냐고 했다.

“보안서에서 왔어요. 얼른 문 열어요, 문”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들기며 발을 굴러댔다. 보안서에서 오밤중에 무엇하러 왔냐고, 또 혹시 보안서원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시간을 얻기 위해

은경이는 시치미를 따고 또랑또랑 말대꾸를 했더니

“허허, 요즘이 어떤 세상인줄 알고 함부로 대걸이질어요, 열른 문 열어요, 문”

하고 다시 요란하게 문을 두들겨 댔다. 문을 열었다. 지옥의 사자라도 하는 수가 없다고 입술을 깨물고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다보았다. 소총을 메고 정복을 입은 보안서원 한 사람과 전에 분명히 위층 호순네 집으로 놀러오곤 하던 청년 한 사람이 문 안에 들어섰다. 그들은 조그만 접시불을 치켜, 은경의 얼굴을 비추어 보며 숨겨 둔 사람이 있나,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족이 몇이나, 어디 나가느냐 하는 따위 질문을 하면서 은경이네 아이들을 비추어 보고 조카의 가짜 증명서를 자세히 불에 비추어 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둘이 다 글눈이 어두운 모양으로 자기들 편에서 그냥 어물어물해 버리고는 2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은경이는 깊이 숨을 마서가며 2층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남향 방에는 호순 아버지가 그제도 잠을 자는 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안서원들은 그렇게 잠을 자는 체하고 있는 호순 아버지를 보고도 누구냐고 묻지조차 않았다. 다만 접시불을 쳐들고, 방구석과 오시이레 속만을 건성으로 뒤져보고 나더니, 군소리 없이 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 밤을 계기로 해 비록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계를 게을리 말아야겠다고, 은경이는 좀 더 조심할 것을 명심했다. 그럴 뿐 아니라 호순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애를 썼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무렵부터 차츰 호순 아버지의 입버릇도 나빠져 갔다.

“흠, 그러게 옛말에 열흘 붉은 꽃이 없다더니, 전에 똥당거리고 잘 살던 사람들은 혼썰나는 세상이 온 거야, 어떤 놈은 한 칸 방도 없는가 하면, 어떤 놈은 집을 몇 채씩 가루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고 은근한 눈짓으로 은경의 표정을 살피가며 비꼬기가 일수였다. 한 번은 잡자코 들고만 있기가 먼구스러워

“누가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있었든가요.”하고 은경이가 오금을 박아 주었더니 그는 흥 하고 코웃음치며

“단 두세 식구가 방 네댓씩이나 되는 집을 독차지하고 살던 사람들하고, 같은 두세 식구가 조그만 방 하나에 처박혀 살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 편이 잘 살았나 알 수 있지 않아요?” 하고 밉살스럽도록 은경이를 쳐다보며 반문하는 것이었다. 은경이는 왈카 역증이 났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아닌 게 아니라 호순 아버지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은경의 속에서는

“그야 뭐 어느 사회엔든 그러한 현상이 없을 나구요, 왜 호순 아버지는 그전엔 잘 못 살았나요? 내가 보니 호순 아버지 팔자 좋게 놓고만 지내시던데” 하는 따위

가슴 속에서 끓고 있는 말들을 내뱉지도 못하고 다만

“그런 세상에선 그저 그렇게 살도록 마련이겠지요.” 했다. 호순 아버지는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밤에 동원을 나갈 차례라고 했다. 은경이는 좀 전에 시계를 팔아 온 돈 중에서 오백 원을 주며 또 부탁한다고 했다. 호순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며 이제부터는 팔백 원을 주어도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다시 은경이가 내민 팔백원을 받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동원 나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재삼 부탁을 했다. 그럼 동회에 나가 알아본다고 나가더니 이내 되돌아와서 꼭 사람이 나가야 한다고 도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었다. 은경이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친정 예다 맡기고 동원을 나갔다가 밤이 들기를 기다려 중간에서 도망을 쳐 친정으로 돌아왔다. 밤도 친정에서 밝혔다.

이튿날 아침이다. 은경이가 집에 돌아왔더니 호순네가 아래층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2층에서 밥을 지으니까 파리가 훨훨터러 음식 냄새에 입맛이 가신다며 호순 아버지가 짜증을 낸다는 것이었다. 은경이는 잡자코 호순 엄마의 입 언저리를 바라다보고 서 있다가, 그럴 거라고 날씨가 더운데 진작 아래층에서 지을 것을 그랬다고 흔연히 대답했다. 호순 엄마는 해시시 웃으면서

“인제 며칠 있으면 모두들 소개를 해야 한 대요, 워낙 폭격이 심하니까 서울엔 아주 일꾼들만 남는다나 봐요”

했다.

“소개라니”

은경이는 놀라는 눈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심상한 표정으로 나직이 물었다.

“집을 비우고 온통 시골로 가는 건가 봐요.”

“그럼……호순네도 가나!”

“……우리아 반장인데 어떻게 가나요.”

“……반원이 없는 반장도 있나?”

“글쎄 그래도 몇 사람쯤이야 없을라고요?”

은경이는 대답 대신 멍하니 서 있다가 그만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팔월 중순께부터였다. 그 무렵부터 사방에서 소개난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중 은경이네는 제일차 소개에 걸려들고 말았다. 별 도리가 없었다. 뻘치고 앉아 강제 소개를 당하느니 보다 제 손으로 짐이라도 꾸러 두는 게 상책일랑 싶었다. 그래 그녀는 집을 대강 정리해서 더러는 친정에 옮기고 더러는 복도 함실 아궁이 안에 숨겨 두었다. 여름인 것만이 다행이었다.

“그럼 호순 엄마, 짐 좀 잘 봐줘요, 우리는 가까운 시골로 소개하기로 했다우” 하고 친정에서 와서 있었던 것이다.

친정에는 오라범 부부가 늙은이들이니만큼 이웃에서도 별반 엿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친정 헛간에는 은경의 조카 둘하고 석하가 숨어 있었다.

한 열흘쯤 뒤였다.

은경이는 자기네 집을 찾아가지 아니치 못했다.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집을 비울 때 생각에는 셋간은 물론 장아찌까지도 꺼내서 팔아먹든가 지저 먹든가 맘대로 하라는 토라진 배짱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범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열흘 만에 자기의 집을 찾아가는 은경의 눈앞에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래층 복도에서 비롯해 온통 낮선 장롱과 옷 보따리가 놓여 있는가 하면 앞마루에는 큰 참대 술통이 네댓 개나 놓여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위층은 오르내리기 불편해서 당분간 집도 지킬 겸 아래층에서 기거하느라고 했다. 새삼 놀라울 것도 없었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집들의 출처였다. 호순엄마는 이런 은경의 눈치를 찻는지

“호순 아버지 친구가 양조장을 경영했는데요, 그 맥에서 소개를 떠나게 되어 우리 집에 집을 맡기고 간 거예요.” 했다.

또 열흘 쯤 지났다. 은경이가 다시 자기네 집을 둘러보러 왔더니 그 사이 술통을 비롯해 복도와 방안 가득

히 놓여 있던 낮선 대부분 집들이 없어지고 장롱 한 짝과 의걸이만이 텅망게 남아 있었다. 집은 시골에 소개시키고 술은 술 입자의 요청에 의해 팔아서 현금하고 바꿔다 주었노라는 호순 엄마의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호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호순 엄마도 알고 있는 자기의 썩빛 유통치마를 주기로 하고 그녀는 수수쌀 서둘러 안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다시 며칠 되었다. 그녀는 호순 엄마에게 주기로 한 썩빛 유통치마를 꺼내서 보재기에 싸 놓고 있었다. 내일 호순 엄마가 은경이를 찾아왔지 않는가! 행여나 자기네가 시골로 소개를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왔는지를 모른다고 은경이는 유통치마를 찢 보자기를 흔들며 보이며

“나 아침에 왔다우, 지금 호순네 집에 가려는 중이야” 하고, 자기네 집을 호순네 집이라고까지 박아서 말했던 것이다. 호순 엄마는 얼핏 반가운 표정을 보자기를 받아 무릎 위에도 놓더니, 배시시 서글픈 표정을 짓고

“아주머니, 저 선생님이 혹시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 그 청년 동맹이?” 하는 것이었다. 아는 사람이 있을 턱이 있느냐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은경이 되물었더니

“글세 청년동맹인가, 하는데서 와 가지고 술 판 돈을 내놓으라 해요, 그리고 집도 말짱 실어 간대요” 했다.

“돈은 양주장 주인이 가져갔다면서?”

“그렇게, 암만 우겨도 듣지 않아요, 꼭 내놓으라 해요, 그런데…… 돈이사 있지요, 하지만 그게 우리 돈인가요? 어디……이리될 줄 알았다면 아주머니한테나 맡길 걸……”

“얼마나 되는데”

“아무래도 20만 원 이상 될걸요.”

“저런, 큰돈이구먼, 그러면 동회장에게 말해 보구려, 남의 돈이라고, 반장 청이니까 들어 줄 테지”

“동회 반장요 벌써 그만 둔걸요.”

호순 엄마는 이튿날에도 또 은경이를 찾아왔다. 집을 몽땅 실어갔다 것이다. 그러나 실어간 집에 대해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장롱 속에 넣어둔 돈이 아깝다는 것이었다. 놔들이 지키고 있어서 돈을 꺼낼 짬이 없었다는 것이다.

“암만 해도 그 돈은 우리가 갚아줘야 해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갚나요? 아주머니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돈만이라도 찾도록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있다면 말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네에게 그런 힘이 없는 줄을 알기는 하지만 찾아오지 아니치 못한 것은 갑갑하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고 붙잡는다는 심경과도 같은 것이리라고, 은경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호순 엄마는 다시

“그렇게, 이제 세상이 바로 잡히면 그 청년 동맹 놈들을 한 놈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호순 아버지가 아주 이를 갈고 있어요, 이놈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너의 놈들 세상이 줄 알고 있지만……해 싸요.”

9월 스무 이튿날이었다. 은경이는 방공호 속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자기네 집 있는 쪽을 바라다 보았다. 자기네 집 바로 근처 같이 보였다. 검은 연기가 오르고 있었다.

그날은 다른 어느 날보다도 폭격이 심했다. 그러나 은경이는 그냥 그 불길을 바라다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불을 뒤집어썼다.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은 바로 은경이네 이웃집에서 시작해 은경이네 집 연목에까지 연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이 협력해서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그녀가 집에 이르렀을 때에는 불은 이미 꺼지고 단지 타다 남은 연목에서 부지직 부지직 김이 오르고 있었다. 장독대는 벗겨 던진 기왓장과 삽가래에 맞아 거기 진열되었던 독은 물론이요 단지새끼 하나 성한 것이 없이 깨어진 파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놀

라웠다. 그러나 그보다 놀라운 것은 호순 아버지의 겸손한 자세와 웃음이었다. 자기네가 맡아 둔 남의 짐과 단칸방이나마 장만하려던 돈봉치를 빼앗아간 빨갱이도 적놈들이 혼쭐이 나고 마는 날이 가까워 온다고 그야말로 이를 갈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바로 9월 스무 다섯날 아침이었다. 누루 텅텅하게 부은 얼굴을 하고 호순네는 호순이를 업고 은경을 찾아 왔다. 간밤에 특별히 지명되어서 동원을 나간 남편이 이제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마 실없는 말을 하고 다닌 게, 놈들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 간혀 있는 눈치니, 선생님께 말해서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애처로운 노릇이기는 했으나 아직도 친정 헛간에 숨어 있는 석하로서도 저히 알아볼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국군이 입성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러니까 9월 29일 아침이다. 은경의 남편 석하는 이웃사람들과 함께 삽을 들고 국립 박물관이 있는 남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호순 아버지를 비롯해서 여덟아홉이나 되는 동민들의 학살된 시체가 어지러이 누워 있었다.



<연재장편(連載長篇)>

## 붉은 밤 (2)

임옥인(林玉仁)

어디 가까운 데를 내리치고, 또 날아간 모양이다. 비행기가 사라진 뒤에도 사위는 그대로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흰 달이 중천에서 불투명한 빛을 던져 땅위는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 저리로 갑시다.”

‘다’ 자의 어미를 강하게 울리는 이복사투리의 젊은 군인이, 우리 뒤에서 외치며, 저편 언덕으로 달린다. 연장들을 들고 무겁게 움직여가는 무리들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희끄무레한 일색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모래를 날라서 여기에 방축을 쌓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놀지 말고 열심히 자아 어느 편이

더 많이 쌓나 봅시다.”

감독인은 새끼로 경계를 하고 수백 명을 두 편으로 갈라놓는 것이다. 나는 서쪽 줄에 서게 되었다. 모래사장의 모래를 가마니에, 삽으로 퍼 담아서 운반하는 일이다. 새벽이

가까워지니까 공기가 싸늘해 오는데도, 온몸에서는 땀이 자꾸 배어났다.

또 한 차례 배가 비틀린다. 나는 모래를 삼으로 퍼 담다 말고 그 곁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부여잡고 애를 썼다. 진땀이 방울방울 이마에 솟았다. 짙절한 땀방울이 입술을 적시는 것이었다. 어디 잠깐 주저앉기라도 했으면 하고 나는 주위를 살폈다. 그때였다. 나와 함께 짝을 지어 모래를 퍼 담던 젊은 여인이 날카롭게 툭 쏘아 대는 것이었다.

“왜 이러세요.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누군 무슨 소인 줄 아나봐. 참!”

나는 그 말을 듣자 다음 순간에야 어떻게 되든 간에 마주 욕을 퍼부어 주고 싶었다.

“그러나 너는 두고 보자”

이 한마디를 속으로 중얼거렸을 뿐이다. 삼일천하(三日天下)일시 뻘한 노릇을 가지고, 내년은 소견머리도 없다, 하며 비웃었다. 나는 갑자기 전신에 어떤 힘을 의식하면서 이마에 방울방울 내뿜은 땀을 훔치고, 눈을 닦았다. 그리고 배에다가 있는 힘을 다 주며, 천천히 일어서 모래를 날랐다. 그래도 전신에 무슨 철사나 뻘친 듯 빠근하고 아팠다.

몇 차례 쉬면서 또 기어이 판에 박은 듯한 연설을 듣고, 모래를 날라 꽤 높고 긴 제방(堤防)을 만들고, 하는 사이에 날이 섰다.

다섯 시 직전에 우리는 노동에서 풀려났다. 단 5분도 눈을 붙여보지 못하고 완전히 하루 밤을 뜬눈으로 샌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부녀들은 서로를 얘기하는 것이었다.

“이번엔 그래두 쉬운 셈이지, 저번에 마포강에서 무거운 총알을 밤새 여날랐는데……”

“어이구 말씀마세요. 뜬눈으로 새다니……. 이런 짐승의 고역이 어디 있어요. 원……”

한참 후 뒤에서 고향을 질렀다.

“빨리들 가시오. 날이 아주 밝으면 공습이 더해지니까……”

우리는 쫓기다시피 걸음을 빨리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를 안가 바로 백 미터 이내에서 (그렇다고 짐작한다) 기관포 소리가 땅을 찢는 듯이 들렸다. 그 찢고 부는 소리가 떨어져가자 우리는 어느 으스스한 좁은 골목 어떤 무너진 벽돌담에 딱 붙어 있었다. 용산 지대였다. 바로 얼마 전에 대공습이 있던 부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

다. 밥을 푸다가 주걱을 쥔 채 사지(四肢)가 날아난 부녀의 얘기 주인이 시내에서 볼 일을 보고 집에 돌아가 보니, 식구들도 집도 다 날아갔다던 얘기, 수만금의 돈 보따리를 고스란히 날려 보낸 얘기로 무시무시한 파괴의 지역인 것이다.

“이 사지(死地)를 면해야지……”

나는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느라 했다. 그러나 이렇게 걸어서 언제 집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녁에 돌아갈 줄만 알고 석훈은 꿈벽 꿈벽 기다리고 있을 테지. 나는 어서

집에까지 가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가 용산인바에야, 동대문에서도 무척 걸어야하는 우리 집까지는 몇 시간을 가야 하나 하고 나는 막연했다. 아프고 무거운 다리로 피곤이 전신을 휘감아 촌보를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보다도, 어제 아침에 보리죽물을 마신 이래 그대로 공복인 것이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내 옆의 여인이 중간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나는 무거운 고개만을 끄덕였다.

조금 뒤, 나는 내 뒤에서 무시무시한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숨기를 머금은 새벽같이 움썽 움썽 흔들려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무서운 공습소리가 땅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나는 얼떨결에 길 옆 우동 집에 뛰어 들었다. ‘우르르 팡팡’ ‘우르르 탕탕’ 빗발치듯 일체를 부수고 삼킬 듯한 굉음(轟音)이 지나갔다.

나는 내가 쭈그리고 앉았던 옆에 피투성이가 된 군복의 두 사나이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습 전에 내 뒤에서 땅을 구르며 달려오던 바로 그 사나이들인 모양이었다. 겁에 질린 두 눈. 갈기갈기 찢어진 군복, 그리고 어디를 다쳤는지 뺨과 손등에 피를 묻히고 있었다.

“아주머이! 여기가 어디요?”

고향 사투리였다.

“용산이죠.”

“자꾸 가문 어디루 가요?”

“곧장 가면 서울역, 그러구 남대문이 나타나죠!”

“남대문이라?”

그 중 하나가 중얼거렸다. 동인지 서인지 서울지리를 분간도 못하는 인민군, 그들은 나의 고향근처의 청년들임에 틀림없었다. 공습을 당하고 그냥 도망쳐 달아나는 모양이었다. 나는 이제껏 느끼던 내 몸의 피곤과 배고픈 것을 잠시 잊은 듯 했다. 행한 두 눈을 껌벅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 무엇일까? 아니

그들은 배고픈 일보다도 더 절박한 공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앉았을 동안, 그 중 하나고 모자를 저편 구석에 구겨 박고 훌쩍 고리를 벗어 던지더니, 또 다른 하나도 그렇게 했다.

“동무! 아즈베이! 바지 좀 빌려 주시오.”

우동 집 주인은 어안이 병병해서 그들의 거동만 살피다가,

“빨리 나가 주세요. 누가 들어오면 큰일이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뒤 내 뒤에서 또 땅을 구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사나이들이 앞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나는 걷다가는 쉬고, 쉬다가는 또 기를 쓰고 일어나 걸었다. 나와 함께 걷던 사람들은 이미 아무도 길에 없었다. 해가 따갑게 바른편 뺨에 쏘인다. 햇빛 때문에 내 시장기와 피로가 더 심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다가 길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은 하면서도 차라리 이 괴로운 시간들을 잊기 위해서는 길에라도 쓰러져 의식을 잃는 편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했다. 쓰러진 내 몸을 안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아무도 이 거리에는 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남은 의지(意志) 전부를 기울여 견고 있었다. 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나는 최후까지 목숨껏 버티어야 할 하나의 이유(理由)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석훈이 때문이다. 석훈의 목숨은 내게 달려있는 셈이다. 나는 그를 보호해야만 이다. 국가도 자기의 가정도 그를 보호할 길이 없는 지금이다. 그는 최후의 은신처(隱身處)를 내게 구한 것이다. 일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햇빛을 등지고, 말과 동자를 끌고 산송장처럼 나의 처소의 어두침침한 다락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죽을 주면, 다나 쓰나 그것만을 먹고 연명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 듯, 다만 공포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듯 했다. 어떤 순간에는 나까지 의심스럽다는 듯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건너다볼 때가 있다. 사실 나는 석훈의 신변이 아니라면, 혼자의 몸에 어느 친지의 집에 숨어있는 편이 훨씬 간편했을 것이다.

나는 의지(意志)로 의지(意志)로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었다. 음산하고 처참한 빈 거리, 남하지 못한 남은 시민들은 버림받은 자의 명예를 고스란히 저야하는 것이다. 나도 그 명예를 지고 간다. 약자의 명예를 지고 간다. 무능자의 설움을 안고 이렇게 엎어지

며 거꾸러지며 걷고 있는 것이다.

일각이라도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 나는 그런 의지로 겨우 서울역을 지나 남대문에 다다랐다. 동대문 밖까지는 아직도 아득하다. 전차는 오고 가건만 내 수중에는 한 푼도 없다. 이대로는 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남대문을 지나 시장 옆을 걸으면서 나는 이제 곧 길에 쓰러져 실신해 버리리라는 것을, 그것도 몽롱한 의식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가는 사람의 무리가 허수아비처럼 보였다. 모든 물체가 똥똥 떴다가 날아가 버리고,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리는 것 같았다. 불길한 붉은 빛만을 발산하는 햇빛이

시름겨워서 내 눈꺼풀은 자꾸만 감기려 한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진다. 나는 이미 한걸음도 옮길 수 없었던 것이다. 남대문 시장 옆 인도(人道)였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잠깐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두 팔 위에 머리를 파묻고 한없이 식은땀을 쏟으면서 쓰러져 있었다. 조금 의식이 돌아오는 모양인지 사람들의 지나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더러는 어깨를 흔들며 보고 더러는 머리를 짚어 보아도 내가 꿈쩍을 안하니깐 그대로 지나쳐 버리기도 했다.

얼마 지난 뒤였다. 나는 귀에 익은 정다운 속삭임을 들었다.

“이봐요. 웬일야, 정신채려 나야 나!”

나는 무거운 눈을 떠서, 그 정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이영란 여사였다. 나는 꿈속처럼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서 좀 정신채려요. 자 일어나요, 내 부축할께!”

나는 옷소매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일어섰다. 마치 더운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허전 거렸다. 이 여사는 내 팔을 끼고, 조심조심 발을 옮기면서

“글쎄 어떻게든 피를 부려서라도 그 근로보국대라는걸 면하지 글쎄, 약한 몸에 그런 노동이 당키나 해요? 난 우리 동네에서 여러 번 모면했는데…… 피가 없어서…….”

나는 그 피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봐 김 선생! 나 어저께 문학가동맹에 나가 보았어. 현대 난 참 놀랐어. 그들이 모두 야단이란 말야.”

“그이들이 누구데?”

“나중 말하죠! 어때 좀 정신이 들어요. 자 이제 곧 우리집 아냐요? 아침 먹구 좀 쉬면 괜찮을꺼야! 괜찮아요. 사나흘 양식은 있으니까요. 언니네가 감자 한말 갖다 주어서 아이들은 그걸 삶아 먹구 좋아해요.”

이 여사의 집 대문에 들어서니, 어떤 젊은이가 편지를 들고 서 있다가

“이걸 장 선생께서 보냅니다. 꼭 잘 전하러옵쇼. 내일 아침 이맘때에 제가 들릴텐데요. 그때 회답을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는 텔레텔레 나가 버린다. 이 여사는 옥색한나 치마를 묶었던 허리끈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 땀에 젖은, 버선을 빼어 마루에 던지며, 내가 누운 침대에 털썩 걸터앉아 그 편지 피봉을 뜯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홍, 이것 좀 봐요. 내가 남편을 어디다 감춰둔 줄만 아나봐. 두려워 말구 자수(自首)를 시키라구……. 하지만 그이는 남하(南下)해서 편히 지낼 걸 뭘……. 나만 여기서 골탕을 먹지!”

그렇게 낮두리하면서 이 여사는 그 편지를 내손에 넘겨주었다. 발신인은 나도 잘 아는 문단인이었다. 얼마 전까지 보도연맹(報道聯盟)에서 활약하는 문단 중견이었다.

“서형(徐兄) 이 여사 남편)을 시간 바삐 자수(自首)하도록 하십시오. 소설가 ○○씨도 시인 ○○씨도 어제까지 다 자수했습니다. 신변엔 대해서는 제가 절대 책임을 지지요. 시간 바삐 권고하십시오.”

어제 아침 정치가 ○○씨의 방송을 들었다. 그 전날엔 시인 ○○씨의 시 낭독을 들었다. 모두가 붉은 정치에 협력하자는 것이었다.

버림받은 시민은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닌 거짓말로 목을 이어야 하는 모양이다.

“여성동맹에두 나가봤다우! 대단해 모두들!”

이 여사는 감자를 벗기면서 얘기삼아 했다.

나는 이 여사의 꽃 송이 같은 흰 귀뿌리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가만 계세요. 삼일천하(三日天下)야. 비행기가 괜히 나는 줄 아시우? 염려 없애! 죽지 않고 연명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서울은 탈환(脫還)될 거야!”

“글쎄 답답하니까 그러지. 아이들은 굶기지 말아야 하잖아? 여성동맹에 나가면 배급 이 조금 있거든!”

나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한참 만이었다.

“자 어서 좀 들어요.”

내 머리맡 탁자 위에는 쌀밥에 호박찌개와 오이김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정신없이 다 퍼먹었다. 먹고 나니 식곤(食困)이 나서 또 잠들어 버렸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정오가 훨씬 지나 있었다. 나는 이 여사와 헤어져 남대문으로 걸어 나왔다. 제대로

간다면 한 시간 이내에 집에까지 갈 수 있으리라. 나는 전차 속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에 명멸하는 음산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네어구로 들어오는데,

“아아니 어디 다녀오셔요. 난 한 साल 후에 공장에나 나갈까 하는데요!”

맷돌같이 얼굴이 둥글고 반들거리는 강춘희라는 중년 여인이 아는 체를 하며 걸던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

“택에서두 안 나가 보실래요?”

“무슨 공장인데요?”

나는 궁금히 여기며 물었다.

“피복공장(被服工場)이죠 뭘, 군복 만드는 공장말이에요!”

“네…….”

나는 애매히 대답하며, 고개만 천천히 아래위로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중년 여인은 일제 강점기엔 초등학교 교원을 오래 했는데, 지금은 어느 부자의 소실(小室)이 돼 있었으며, 이때 벌써 슬한 액수의 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큰 저택에서 딸과 단둘이서 침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영악하기로 이름난 여인이었다. 일제 에는 애국부인회의 간부로 활약했으며, 해방 후엔 대한부인회의 간부로, 그리고 공산군이 들어오자, 언제 지하운동을 하고 있었나 의심을 품을 정도로 여맹간부로 활약하는 모양이었다.

바로 며칠 전 일이다. 동네 경찰관 내외가 피신 간 후, 그 집을 이 강춘희가 뒤져서 쌀 네 가마니를 찾아냈다. 그리고 동네에 배당한 일이 있었다. 나도 그때 쌀 한 되를 얻어 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집은 할머니가 어린애 여럿을 데리고 있었다. 칠십이 넘은 병약한 딸 하나밖에 없는 경관의 장모였다. 강춘희가 대문 앞에 명석을 깔고, 집안 여기저기에 숨겨둔 쌀가마니를 뒤져내어 쏘는 것을 보며, 화들화들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할 형편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혼자 배때기를 채우자니 어떻게 해요. 인민정권이야 공명정당하죠. 이렇게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하는데 글쎄! 이러니 쌀값두 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낮두리하면서 자기 손으로 쌀을 퍼주던 강춘희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 집 대문 앞에 다다랐다.

여전했다.

밖으로 잠근 누런 자물쇠가 햇빛에 번쩍이고 있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몸페 주머니에 간직했던 열대를 꺼내 열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서 안으로 빗장을 질렀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부엌문을 열어 보았다. 역시 그대로였다. 나는 잠시 가슴

이 철렁했다.

“도망은 못 쳤을 테고……. 그렇다고 죽은 것은 아닐 텐데……”

다락문을 조심조심 열어 보았다. 석훈은 내 얼굴을 보자 엎드린 채 그 자리에서 떼굴 떼굴 굴렀다. 어린애 모양 두발로 장단을 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조금 뒤 종이쪽 지에

“영락없이 죽고 못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밥 생각두 없구!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 어떻게 어디로 찾아 가나하구, 궁리하던 참입니다.”

“죽을 뻔했죠. 몇 차례나!”

나는 곧 부엌에 달려 나가 우선 찰밥이라도 들여왔다. 석훈은 일어나 앉아 꾸벅꾸벅 순갈을 나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면 문을 도로 닫고, 석훈은 그 안에서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어학공부도 하고 있었다. 가끔 끼질 듯한 한 숨소리가 새어 나왔다.

낮에 내가 집안에 있는 것은 석훈을 위해서 위험하므로 별로 볼일이 없어도 밖으로 쇠를 잡고 외출했다. 대개는 사람이 들끓는 중앙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나가서 길가에 벌려놓은 상품들을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만져도 보고며, 시간을 보냈다. 촌 아낙네처럼 굵은 삼베나 모시옷에 새까만 나무비녀를 찌르고, 세수조차 아니하고 나가 헤맬 때가 많았다. 어떤 때는 옷 보따리를 풀러 필요 없는 것을 챙겨가지고 나가 팔아서는 그 돈으로 식량을 위해서 아까운 물건들을 들고나온 것들과 바꾸기도 했다. 보석 단추, 찻잔, 골동품, 식기 등 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다.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거나, 가지고 싶어서라기보다, 그저 그렇게라도 해야만 해가 기우는 것이다. 늦게 돌아가는 길에는 대개 석훈의 식사준비를 해갔다. 갑산 등지에서 즐겨 먹던 감분(甘粉! 감자가루) 국수를 사들고 들어가서 냉면을 만들어 들여보내면 석훈이는 참으로 좋아했다. 무엇이 나 맛이 있는 모양이었다. 손갈을 뺀 뒤에도 빈 손갈이 혀와 이에 그냥 묻어서 씹듯거리 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민망할 정도였다. 그러나 겨우 연명하는 정도였지, 맛있는 것을 장만한다는 일은 도저히 실력부족이다.

어느 이른 새벽이었다. 팔에 감았던 붕대를 끌르더니,

“내 좀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 석훈은 노타이에 회색 즈봉을 입고 있었다. 풀었던 붕대를 도로 감는걸 보니, 왼쪽 팔꿈치에 순갈지죽 만큼한 피 말라붙은 자리와 그 언저리에 시뻘겋게, 머큐로크롬을

발라 언뜻 보기에 대단한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며칠 전 일이었다. 석훈은 6.25날 공산군이 남침해서 서울에 진주한 후 미처 남하하지 못해서, 다니던 출판사에 며칠 그냥 나가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위원장으로 뽑히고, 그 자리에서 의용군(義勇軍)모집운동의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결심했다고 한다.

“도망치자, 그리고……”

그길로 도망쳐를 나의 처소에서 구한 것이었다. 석양이었는데, 그는 오자마자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무심히 알고, 방안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탕”

무슨 소리가 들렸다. 도마 위에 칼이 내려지는 소리였다.

“에그그……”

나는 부엌 속에서 석훈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칼이 무디었기 망정이지, 석훈의 왼쪽 팔을 끊길 뻔한 노릇이었다. 목숨을 잃는 것 보다는 차라리 왼쪽 팔을 잘라 버리자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팔꿈치를 몹시 다쳤을 뿐이다. 다행한 노릇이었다. 조금 뒤 그는 다시 일어서서, 주머니 속에서 날카로운 돌을 꺼내더니 그것으로 피 흐르는 팔꿈치를 자꾸 긁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상처를 더 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어 주면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차라리 의용군이라는 걸루 나가시죠. 이렇게까지 해서 목숨을 부지하러구……” 다음 말은 잊지를 못했다. 석훈의 시선이 날카롭게 원망스러운 듯이, 나를 쏘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순간, 여성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남성들의 큰 생명의 불안을 생각해 보았다. 저 건너 낙산(洛山)꼭대기에서도, 청계천가에서도 미처 남하하지 못한 국군이 총살당하던 광경! 그리고 바로 그 전날, 길에서 만난 의용군으로 나가던 그 젊은 사나이의 얼굴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흰광목 아래 위를 입고 붉은 완장을 달고 머리엔 꽃으로 엮은 화관을 썼었다. 자진(自進)해서 나가는 모양으로 꽤 기운차게 노래도 부르고 만세도 부르며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구슬퍼 보였을까? 얼큰한 얼굴에 핏대를 돋우고, 연설하며, 붉은 깃발을 흔들며, 흔들며 지나가는 사나이들이 도살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 눈에도 비치는 것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이다.

흰 옷에 화관을 쓰고 붉은 깃발을 흔들며, 흔들며, 떠

나가던 그 사나이를 만난 것은 정동(貞洞) 골목길에서였다. ‘와아, 와아!’ 소리 지르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별로 없이 지나갔던 것이다. 남에게 시범(示範)하기 위해서 떠나는 헛개비,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석훈이가 내 집을 빠져 나간 지 반시간도 못 되어서였다. 밖에서 누가 안방 영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혜 어머니였다. 발돋움을 하고, 철망으로 목을 내민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 동네에서 어젯밤부터 의용군을 잡아간대요! 알려 드릴러구……”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길에서 막 붙잡는대요!”

나는 ‘앗차!’ 하고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석훈의 신분은 위험을 각오해야 했다. 잠깐 다녀온다고 했으니까 어두운 새벽에 나갔다가 무사할 수만 있다면 밤이 되면 오겠지 하면서도 우선 걱정이 앞섰다. 정혜 어머니에게 석훈이를 감추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동네에서 나와 사귀는

유일한 부인이었다. 그의 남편도 집에 숨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으로는 어디 먼 데로 장사하러 떠난 것으로 되어있었다. 정혜 어머니는 나보다 나이 몇 살 아래인 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열두어 칸되는 집을 깨끗하게 가꾸고 어린 오누이를 기르는 내가 보기에는 행복한 주부였다. 그의 남편은 어느 상사(尙事)의 사무원인 대학 출신이었다. 그 정혜 어머니는 혼자 사는 여자인 내가 동네에 이사를 온 뒤, 늘 드나드는 석훈이에 대해서, 동네 다른 부녀자들처럼 호기심에 찬 눈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중 얘기가 났지만,

“사람 집에 사람이 안 드나들겠어요, 호호호……. 외로우신데 그러실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 부처 간의 연애사실을 재미있게 얘기해주는 것이다.

어쩌다 동네 다른 부인들이, 석훈이가 다녀가는 것을 보고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대답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명목이 없는 것이다. 내가 글을 쓰니까 출판사 관계의 그와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고료(稿料) 같은 것도 가장 신용 있게 전해주었으며, 얼마 전 내가 결핵으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는 지나치게 수고해 주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오막살이를 장만한 것도 그의 주선이 컸던 것이다. 사실 명목(名目)이 없는 서로의 관계였다. 그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들렀다가

돌아간 뒤면, 나는 잠시 공허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는 자기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공허란……, 오랜 방랑과 고독과 병고에 시달린 끝에 느끼는 일종의 허탈감인지 모르겠다고 느끼면서, 나는 그가 다녀간 빈집 주로 마루 끝에 앉아서, 멀리 바라보이는 시내의 밤거리에 눈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시간이면 어머니 생각도 났다. 벌써 이북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리운 어머니, 불쌍한 그 어머니의 생각이 가슴을 저밀 때도 있었다. 두 다리가 없는 불쌍한 오빠와 마돈나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올케의 일이며, 귀여운 조카딸들의 생각이 떠올랐다. 헤란이, 혜구, 혜선이…… 고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예쁜 고무신을 사다가 달라던 혜구, 운동화를 사다 달라던 꼬마 혜선이……. 모두 보고 싶었다. 그리고 큰 오빠의 유복자인 금철이는 어디 군인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향 무덤 속에 두 고온 그이……. 그이 한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외롭고 슬픈 것이리라. 나는 여자의 불행을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 여자의 행복의 정체가 무엇인가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미고, 그와의 소꿉장난 같은 생활에서 감득(感得)했던 행복의 나날을 알고 있다. 남성이란 가정에서는 치정(稚情)이 환원(還元)되어, 전혀 얘기처럼 별거승이의 심정으로 자기 전부의 무장(武裝)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개인생활도 사회생활도 없는 나의 생활 속에, 석훈이는 유일한 나의 살아가는 빙거(憑據)였는지도 모른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일주일도 지나도록 석훈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길에서, 정거장에서, 일터에서 젊은 사나이들은 의용군으로 자꾸자꾸 끌려 나갔다.

나는 기다리다가 막연히 길에 나섰다. 그리고 무턱대고 석훈이를 찾아 서울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 계속 -



<번역소설(翻譯小說)>

## 데지레의 갓난애

케이트 초핀  
이윤희(李允熙)<sup>81)</sup> 역(譯)

Kate Chopin(1851-1904)은 여류소설가이다.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나 스무 살에 루이지애나 주의 오스카 초핀과 결혼했다. 그때 남편은 세인트루이스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유럽으로 신흥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뉴올리언스에서 면화중매상으로 정주하게 되었다.

케이트 초핀은 주로 루이지애나 주에 이주한 프랑스 사람 이야기를 그 작품에서 많이 다루었다. 여기에 번역한 Désirée's baby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마치 모파상의 작품과 같이 읽혀지고 있으며,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문제의 깊은 뿌리와, 이성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및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81) 목차에는 이충희로 되어 있음.

날씨가 화창했으므로 발몽<sup>82)</sup> 부인은 데지레<sup>83)</sup>와 그 갓난 것을 보려고 라브리<sup>84)</sup>로 마차를 몰았다.

데지레가 갓난 것을 안고 있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글썽 데지레가 갓난 애보다 조금 더 컸던 것이 바로 어제와 같지 않은가 말이다.

그때 권 양반은 발몽의 저택을 들어서며, 커다란 돌기둥 그늘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데지레를 발견했다.

어린 것은 권 팔에서 깨어나, 아빠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었다. 고것이 할 수 있는 것이나 말은 고작 그것이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였으므로, 어떤 사람은 고것이 제 발로 거기에 잘못 걸어 들어왔을 거라고들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거기 사람들은 바로 개척지 농장 밭, 코튼 메이<sup>85)</sup>가 운영하고 있는 나무터를 그날 늦게 건너간 포장마차 일행의 텍사스 사람들이 일부러 버리고 간 아이라고 믿고 있었다. 주위 온 아이였지만 그럭저럭 발몽 부인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자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애정을 쏟을 대상으로서 데지레를 보내 주신 것이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건 고 계집애가 자라가면서 예쁘고, 유순하고, 사랑스럽고 착해서 발몽 집안의 우상이 된 때문이기도 했다.

어느 날, 데지레가 18년 전에 쓰러져 잠이 들었던 그녀의 그 돌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을 때, 지나가던 아르망 오비니<sup>86)</sup>가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마치 권총 알을 얻어맞는 것처럼 오비니 일족은 모두 그 모양으로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 그가 데지레를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르망은 여덟 살 때 파리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가 집으로 데려왔을 적부터 데지레를 알고 지냈으니 말이다. 그날 문간에서 데지레를 보았을 때 눈이 뜨인 정열은 마치 눈사태처럼, 또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또 모든 방해물을 떼밀고 마구 돌진하는 물건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발몽의 바깥주인은 현실적이 되어,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랐다. 아르망은 그네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누구의 소생인가 쫓은 문제시하지도 않았다. 데지레가 무명의 집안사람이라는 것도 터놓고 말이 나왔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유서 깊고 자랑한 만한 한 이름을 그네에게 줄 수 있는 계제에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그는 파리에서 함(函)을 주문하고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한의 인내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며 기다렸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혼한 것이었다.

82) Balmonde 83) Desirée (Désirée) 84) L'Abri 85) Coton Mais 86) Armand Aubigny

발몽 부인은 데지레와 그 갓난 것을 4주일 동안이나 보지 않았다. 라브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저택을 첫눈에 보자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곳은 슬픔이 서려 보이는 곳이었으며 여러 해 동안 안주인의 부드러움을 모르는 곳이었다. 그건 늙은 오비니씨가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고는 부인이 하도 그곳을 좋아해서 떠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자 그대로 거기서 장사지내고 왔기 때문이었다.

누런 회칠을 한 집을 에워싼 널따란 복도 위로, 가파르게 경사져 중의 고깔처럼 시커먼 지붕이 쪽 끝을 내밀고 있었다. 그 곁에는 늙은 큰 떡갈나무들이 서 있는데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길게 뻗어 마치 장막처럼 집을 그늘로 덮고 있었다. 집 모양도 그렇지만 또한 젊은 오비니의 범절(凡節)도 엄격한 것이었다. 그래 이 밑에서는 흑인 노예들도 느긋하고 관대했던 늙은 주인 시절의 웃음을 잊은 자가 오래였다.

나이 어린 애 어머니는 차츰 산후 몸을 회복하고 있는 중으로, 부드럽고 흰 옥양목과 레스 옷을 입고 침대 위에 쪽 다리를 뻗고 누워 있었다. 갓난 것은 그 옆 어머니 팔위에서 젖꼭지를 향한 채 잠들어 있었다. 얼굴이 누런 유모는 창 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발몽 부인은 데지레 몸 위로 비대한 몸을 구부리고 팔을 잠깐 살며시 붙들며 입을 맞췄다. 그리고서 어린 것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건 갓난애가 아니구나!”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 발몽은 프랑스 말을 쓰고 있었다.

“전 어머니가 놀랄 줄 알았어요 갓난애가 크는 걸 보구요.” 데지레는 웃었다. “이 조그만 꿀꿀이! 다리 좀 봐요, 엄마. 그리고 손이랑, 손톱이랑. 정말 손톱 같지요. 잔드린<sup>87)</sup>이 오늘 아침 그걸 깎아 주어야 했어요. 정말이지 그러지 않아? 잔드린?”

유모는 수건을 두른 머리를 대견스럽게 수그러며, “그렇구말구요, 부인” 하고 대답했다. 데지레는 말을 이었다. “그러구 우는 풀이라니, 귀가 딱을 지경이에요. 아르망은 요 전 날 라 블랑쉬<sup>88)</sup>의 오두막집만큼 먼 곳에서까지도 갓난애가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발몽 부인은 눈을 잠시도 어린 것에서 떼지 않았다. 그녀는 애를 안아 들고 가장 흰 한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갓난 것을 익히 살펴보고 다음에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얼굴을 돌려 들판을 내다보고 있는 잔드린을 쳐다보았다.

“그래, 애가 자랐다. 아주 달라졌구나.” 방몽 부인은 천천히 어린 것을 어머니 곁에 놓으면서 말했다.

“아르망은 무어라고 말하던?”

데지레의 얼굴은 행복 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 불그레해졌다.

“정말, 아르망은 이 교구(教區)에서 자랑이 여간 아닌 아버지래요. 전 그이 이름을 이

87) Zandrine 88) La Blanche

을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인 말은 않지만요. 딸도 매한가지로 귀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 그건 정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이가 나를 기쁘게 해 줄려고 말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엄마” 그녀는 발몽 부인의 머리를 자기한테로 끌어당기고는,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다. “그인 하나도 별을 준 일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요. 애를 난 후 로는요. 네그릴론<sup>89)</sup>까지도 일을 설 요량으로 다리를 댄 체하는데, 그녀는 다만 웃기만 하면서 네그릴론은 아주 못된 놈이라고만 말했어요. 정말 엄마, 전 것처럼 행복해요. 까무라치겠어요.”

데지레가 말한 것은 정말이었다. 결혼, 그리고 그 후의 득남(得男)은 아르망 오비니의 고압적이고 까탈스러운 성질을 많이 부드럽게 해 주었다. 이것이 암전한 데지레를 것처럼 행복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건 그녀가 남편을 미칠 듯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상을 찌푸릴 때는 그녀는 별별 떨었다. 그래도 그를 사랑했다. 남편이 웃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아르망의 거무티티하고 잘난 얼굴은 그녀와 사랑에 빠진 날부터 그다지 종종 찌푸러지지는 않았다.

갓난 것이 백일 쯤 되었을 때, 데지레는 어느 날 자기의 행복을 위협하는 어떤 공기가 떠돌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것은 처음 너무나도 미묘한 것이어서 견잡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만 불안한 암시에 지나지 않았었다.

흑인들 간에 서려 있는 신비한 분위기, 도무지 오리라고 생각지도 않은 먼 이웃이 뜻밖에 찾아온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남편 행동에 야릇하고 무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감히 연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는 데지레에게 이야기할 때는 눈길을 피했다. 그 눈에서는 옛사랑의 빛이 꺼져버린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외출이 심했다. 비록 집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내와 어린 것이 있는 곳을 피했다. 그리고 머슴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악마의 혼이 갑자기 그를 사로잡은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다. 데지레는 죽으리만치 가련했다.

어느 더운 날 오후, 그녀는 화장복(化粧服)을 입은 채 어깨 위로 늘어진 길로 비단결 같이 윤나는 갈색 머리 단을 낫 없이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방에 앉아 있었다. 반 별거숭이의 갓난 것은, 마치 화려한 용상(龍床)같이 양공

단으로 갓을 한 반 달개를 씌운 큰 마호가니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다. 라 블랑쉬의 사분의 일 흑인 아들이(역시 반 별거숭이로) 공작 깃털 부채를 들고 천천히 어린애를 부채질하며 서 있었다.

데지레의 눈은 멍하니 슬픔을 담고서 갓난 것 위에 고정된 채, 한편 자기 곁으로 물러오는 듯 한 짙은 안개를 꿰뚫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것에서 눈을 돌려 옆에 서 있는 사분의 일 흑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어린 것을 쳐다보고, 이렇게

89) Negrillon

몇 번이고 같은 짓을 되풀이했다.

“아유!” 그녀는 마침내 참지를 못하고 소리쳤다. 데지레는 자기가 소리친 것도 의식 못할 지경이었다. 피가 혈관 속에서 얼어붙은 것 같고, 얼굴에는 축축한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그녀는 어린 사분의 일 흑인 아이에게 무어라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흑인 아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고개를 쳐들자 천 아주머니가 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커다랗고 부드러운 부채를 놓고 다소곳이 맨발 뒤꿈치를 들고는 윤이 번지르르한 마루 위를 소리 없이 걸어 나가버렸다. 데지레는 어린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얼굴상은 놀람에 질려 있었다.

이윽고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그는 아내를 본체만체 책상 쪽으로 가서 그 위에 뒤엎혀 있는 종이 중에서 무엇을 찾기 시작했다.

“아르망!”, 만약에 그가 인간이었다면 쿵 찢렸음이 틀림없는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을 불렀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아르망!”, 그녀는 재차 불렀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이에게로 비실비실 걸어갔다. “아르망! 그녀는 남편 팔을 움켜쥐며 다시 한번 헐떡거렸다. “어린 것을 봐요. 어떻게 된 셈이에요? 말 좀 해요.”

그는 냉랭히, 그러나 살면서 팔에서 아내의 손가락을 풀어 손을 내뻗리쳐 버렸다. “말 좀 하세요. 어찌 된 셈이에요!” 그녀는 막무가내로 부르짖었다.

“그것은 말야” 하고 그는 가볍게 대답했다. “어린애가 백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네가 백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뭐냐 말야.”

이런 욕이 그녀에게 의미하는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재빠른 한 생각은 그것을 거부하는 비상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매탕 거짓이에요. 난 백인이예요 내 머리를 보세요. 갈색이지요. 그리고 내 눈은 회

색이구요, 알망, 당신은 내 눈이 회색이라는 걸 알지요. 그리고 내 피부 색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는 남편 손목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내 손을 봐요. 당신 것보다 희잖아요, 아르망.” 데지레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라 블랑쉬 손만치나 희구만.” 그는 모질게 쏘아붙이고 아내와 어린 것을 남겨놓고는 나가버렸다.

데지레는 손에 펜을 쥐 수 있게 되자 절망적인 편지를 발몽 부인에게 썼다.

“어머니, 여기 사람들은 내가 백인이 아니라고 그런답니다. 아르망도 내가 백인이 아니라고 그러합니다. 제발 그것이 정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세요. 어머니는 분명 거짓

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전 죽을 지경이에요. 죽어야 할까 봐요. 전 그렇게 불행해지고 살 수는 없어요.”

온 답장은 간단했다.

“내 데지레야, 발몽 집으로 돌아오너라. 너를 사랑하나는 어머니 곁으로 어린 것도 같이 데리고 오너라.”

답장을 받자 데지레는 그것을 가지고 남편 서재로 가서 그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펴 놓았다. 그녀는 거기에 편지를 놓고서는 말없이, 얼굴이 하얗져, 움직이지 않는 석상(石像)처럼 서 있었다.

묵묵히 그는 차가운 눈으로 씩위진 말들을 훑어 읽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가도 좋아요, 아르망?” 그녀는 흑사나 남편이 붙들어 주지나 않나 하는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가.”

“내가 가버리면 시원해요?”

“그래, 네가 가버리면 시원하겠어.”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무참하고도 불공평하게 처분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것처럼 자기 아내의 혼을 찢러 주었을 때 하나님에게 제 나름대로 그 불공평한 처분에 대해 얼마간은 앙갚음을 했다고 느꼈다.

더욱이 그는 이제 데지레를 조금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그의 집안과 가명 위에 씌운 알지 못하는 명예훼손 때문이었다.

일격에 실신한 사람처럼 데지레는 발길을 돌리고, 남편이 자기를 되불러 들이기를 바라면서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잘 있어요, 아르망!” 그녀는 신음하는 소리로 말했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데지레는 어린 것을 데리러 갔다. 잔드린이 킁킁한

복도에서 애를 안고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다 말도 없이 유모의 팔에서 어린 것을 빼앗아 들고 층층대를 내려서 싱싱한 떡갈나무 가지 밑으로 걸어 나갔다.

때는 시월 오후, 마침 해가 지고 있었다. 저기 조용한 들에는 흑인들이 목화송이를 따고 있었다.

데지레는 얇은 흰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고 또 신도 슬리퍼를 신은 채 그대로였다. 머리에도 아무것도 쓴 것이 없어, 그 갈색 머리는 햇빛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발몽 농장으로 통하는 넓고 탄탄한 길로 접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황무지를 앞질러 걸어갔다. 거기 나무 등 걸은 연약한 발에 상처를 냈다. 그

처럼 발에 걸친 것이 허술했다. 그네의 얇은 옷도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네는 느릿느릿 흐르는 깊은 강, 언덕을 따라서 백백이 자란 갈대와 수양버들 사이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말았다.

※ ※

몇 주일 후에 라브리에는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다. 말끔히 치운 뒤뜰 한가운데에 커다랗게 모닥불이 타고 있었다.

아르망 오비니는 그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널찍한 현관에 앉아서 모닥불에 태운 물건을 대 여섯 명의 감동이에게 자신이 나누어 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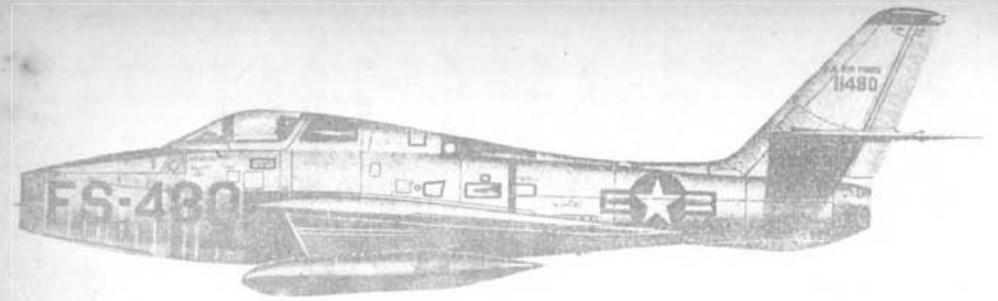
값지 갓난애 옷가지들이 한 아름 이미 그득히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가지가지 장식을 한, 아름다운 버드나무 요람이 던져졌다. 그 다음에는 명주옷, 그리고 비로오드와 양공단 옷가지가 던져졌다.

레스 역시 불 속에 들어가고, 수놓은 것도 던져졌다. 모자와 장갑도 던져졌다. 것처럼 결혼 함에는 귀한 좋은 물건만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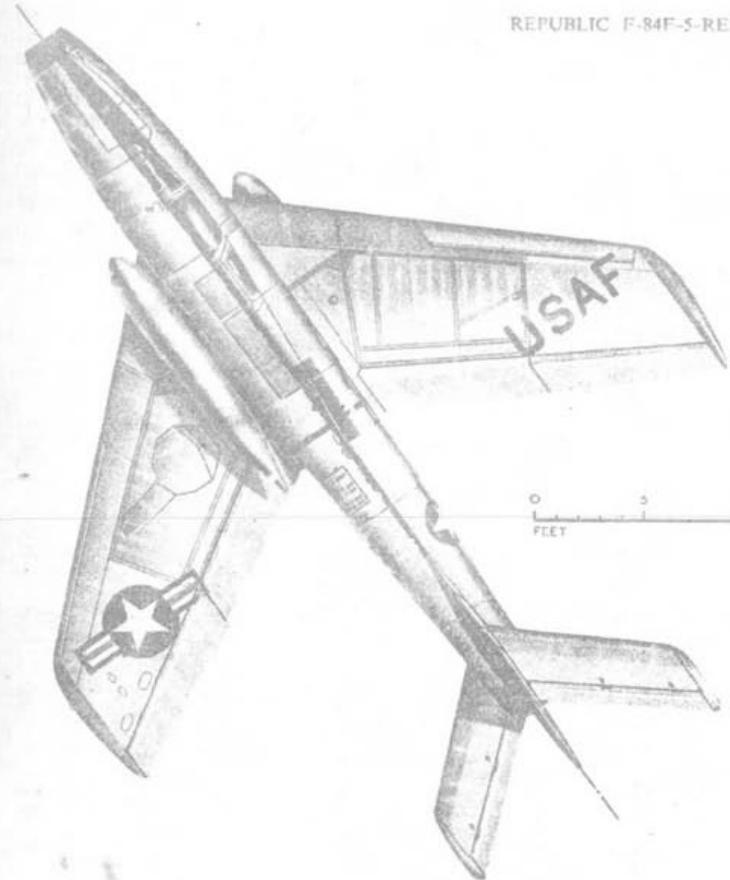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불 밝이 될 것은 조그마한 편지 뭉치였다. 그것은 약혼 시절에 테지레가 아르망에게 보낸 자잘한 글씨의 순정의 편지였다. 서랍 뒤쪽에 또 편지 나머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르망은 꺼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테지레의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옛날 편지였다. 그는 그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는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축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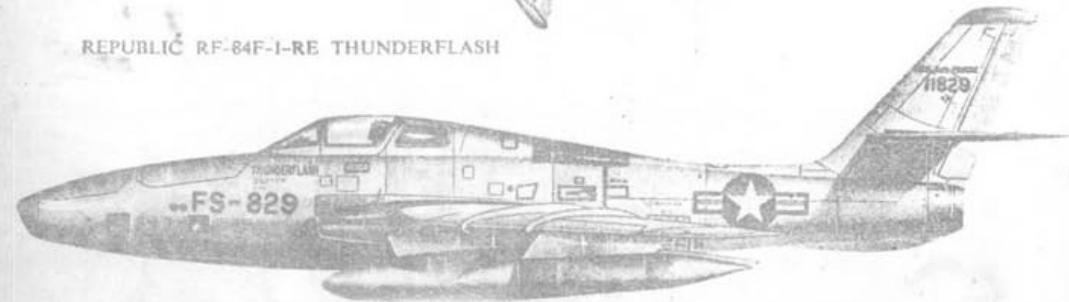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나는, 우리 귀여운 아르망이 그를 애지중지하는 어머니란 사람이 노예의 낙인이 찍혀 저주받은 인종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우리의 살림을 것처럼 마련해 주신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라고.



REPUBLIC F-84F-5-RE THUNDERSTREAK



REPUBLIC RF-84F-1-RE THUNDERFLASH



코메트

發行處·空軍本部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金基完  
印刷處·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印刷人·空軍大領李繼煥

祝  
發  
展

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코메트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김기완(金基完)

인쇄처 공군본부 고급부관실 인쇄소

인쇄인 공군대령 이계환(李繼煥)

축발전(祝發展)

공군본부(空軍本部) 고급부관(高級副官)

인쇄소(印刷所)

THE COMET

THE COMET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